

요한 계시록의 새로운 이해와 말씀

풍랑을 잔잔케 하실 예수

조 동 호 저



도서출판 가나다

요한 계시록의 새로운 이해와 말씀

풍랑을 잔잔케 하실 예수

조 동 호 저



도서출판 가나다

A New Understanding and Preaching of the
Revelation
JESUS WHO WILL CALM THE STORM

DONG HO CHO

Christian Church Studies, 1998, 2008, 2012
20-10 Beonyeong 8-gil Kyeryongsi Choongnam
Korea, 321-931
Tel(042)841-9697

머리말

요한 계시록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묵시적 성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책이다. 따라서 시중에는 요한 계시록에 관한 많은 책들이 출판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권의 요한 계시록에 관한 책을 세상에 내놓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계시록에 관한 책들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의 연구와 묵회와 설교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교재가 거의 없다는 데 있다. 몇 권의 책들은 지나치게 신학적이어서 현실적으로 묵회 상황에 맞지 않고, 그 나머지 책들은 진부한 주석집이거나 강해집들이다. 이와 같은 책들은 강의 듣는 학생들에게나 묵회 상황에 적합시키고자 하는 묵회자들에게 적합치 않다. 따라서 지나치게 신학적이지도 않으면서 계시록 전체를 묵양적 차원에서 이해시킬 수 있는 교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필자는 1988년부터 강의 교재를 따로 준비했어야 했고,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그 결과로써 나온 것이 이 책이다. 이 책을 세상에 내놓기가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 세상에 소개되지 아니한 새롭고 건전한 묵회적인 면이 발견된다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 책은 계시록에 대한 새로운 해석법을 제시하고 있다. 계시

록은 성서의 다른 책들과 동일하게 ‘고난으로부터의 승리’를 주제로 기록되었으며, 성서의 다른 책들의 저자들과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 아래서 기록되었다. 따라서 계시록은 복음서나 욥기서와 마찬가지로 살아 있는 메시지로 선포될 수 있으며, 고난 중에 있는 신앙인들에게는 용기 있는 믿음과 희망을, 박해자들과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무서움을 가르칠 수 있는 목양적인 설교가 가능한 책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책을 통해서 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 말씀이 오늘의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설교가 가능한지를 시도해 보려 하였다. 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구원에 이르는 고통’이란 제목의 회람편지에서 “고통 속에는 신비한 치료의 능력이 들어 있다.” 고 말하였듯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 속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수치와 죽임을 당함과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비의 영약이 들어 있다. 이 신비의 능력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마라나타.

1998년 2월 1일

황산벌 연구실에서 조 동 호

차례

第1章 啓示錄 研究를 爲한 8個項의 指針/9

第2章 概論/21

1. 요한 啓示錄의 正經的 價値의 問題	21
2. 著者	24
3. 記錄年代	34
4. 記錄目的	43
5. 主題	46
6. 受信者	49
7. 特徵	50
8.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51
9. 歷史的 背景	53
10. 概要	57
11. 參考資料: 하나님의 百姓의 受難과 勝利	58

第3章 요한 啓示錄의 解釋法과 말씀/67

1. 요한 계시록의 해석법	68
가. 과거적 해석법	69
나. 현재적 해석법	69
다. 미래적 해석법	71
라. 영적 해석법	72
마. 점진적 평행 해석법	72

바. 문학적 해석법	73
2. 새로운 계시록의 해석법	75
가. 기록연대와 배경	77
나. 기록 목적과 주제	78
다. 이용 자료	78
라. 성서의 주제	80
마. 상징들과 의미	81
바. 계시록의 구조적인 틀	90
3. 강해 설교	97

第4章 요한 啓示錄의 本文 講解/101

1. 요한 啓示錄의 章別 概要	101
2. 풍랑을 잔잔케 하실 그리스도(1-3장)	102
가. 서론(1:1-19)	102
나. 천상의 인자의 환상(1:9-20)	103
다. 지상의 일곱 교회(1:4-3:22)	107
라. 특징	131
마. 결론: 인자와 교회와의 관계	132
3.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4-6장)	132
가. 계시록의 전환(4:1)	132
나. 천상의 보좌에 관한 환상(4:1-5:14)	132
다. 지상의 일곱 인(6:1-8:6)	144
라. 결론: 하늘 보좌방과 일곱 인과의 관계	150
4. 보응의 하나님(7-9장)	151
가. 하나님의 백성의 인침과 분리(7:1-12)	151
나. 큰 환란과 어린양(7:13-17)	156
다. 지상의 일곱 나팔 재앙(8:7-9:21, 11:15-19)	158
라. 결론: 큰 무리와 일곱 나팔 재앙과의 관계	165
5. 성도의 고난(10-13장)	166
가. 힘센 다른 천사와 작은 책(10장)	166
나. 성전과 두 증인(11장)	172
다.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12장)	176
라.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와 둘째 짐승 거짓선지자(13장) ·	181
마. 결론: 삼년반의 의미	193

6. 보응의 하나님(14-16장)	195
가. 천상 시온산에 선 십사만 사천(14:1-20)	195
나. 불이 섞인 유리 바다(15:1-8)	201
다. 일곱 대접재앙(계 16:1-21)	203
라. 출애굽기와 계시록의 재앙 비교	207
마. 결론: 십사만 사천과 일곱 대접 재앙과의 관계	208
7. 큰 음녀의 받을 심판(17-18장)	208
가. 짐승을 탄 큰 음녀(17:1-6)	208
나. 짐승의 비밀(17:7-18)	210
다. 큰 음녀의 멸망(18장)	212
라. 결론: 10-13장과 17-18장의 비교	213
8. 최후의 승리(19-22장)	214
가. 네 번의 할렐루야와 구원의 하나님(19:1-2)	214
나. 어린양의 혼인(19:3-10)	215
다. 백마와 탄 자(19:11-16)	217
라. 심판과 저주의 잔치(19:17-21)	218
마. 결론	219
第5章 天上의 禮拜(啓示錄 4-5章)/233	
第6章 두 짐승에 對한 研究/247	
1.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	250
2. 둘째 짐승: 거짓선지자	253
第7章 千年王國說/263	
1. 無千年說	263
2. 後千年說	265
3. 前千年說	266
가. 전 천년설의 개요	268
나. 시대구분설의 개요	270
다. 시대구분설의 세 가지 특징과 여러 가지 주장	272
라. 시대구분설의 도표	274
마. 70이레 도표	280
바. 중요 연대표	283
4. 千年說의 時代的 變遷	284

第8章 終末論/287

1. 歷史와 終末의 希望	287
2. 終末論의 種類	291
가. 변증법적 종말론	291
나. 철저 종말론	292
다. 실현된 종말론	292
라. 실존론적 종말론	292
마. 구속사적 종말론	292
바. 희망의 종말론	293
사. 묵시적 종말론	293

第9章 默示文學 概要 /295

1. 묵시문학이란	295
2. 묵시문학들의 개요	296
3. 다니엘서	301
4. 요한 계시록	302
5. 啓示, 豫言, 默示, 終末	303

參考書籍 /309

부록 : 조선 기독교인들의 순교영성/313

1. 박해세력	314
2. 한국 기독교의 순교역사	315
3. 한국 기독교의 선교역사	317
4. 한국 기독교의 자랑	318
5. 한국 천주교의 수난	319
가. 수난의 원인	319
나. 처형장소	320
다. 처형방법	320
라. 피난생활	324
6. 조선 기독교인들의 순교영성	325

第1章 啓示錄 研究를 爲한 8個項의 指針

들어가는 말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또 그것을 설교하며 가르치는 것은 큰 기쁨이며 축복이다. 계시록은 그것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에게 축복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록 읽기를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계시록 사용하기를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며, 교회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시록이 연구되지 못하고 교회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을 조심스럽게 읽고 깊이 있게 연구하여 가르치고 설교하여야 한다.¹⁾

1) ‘계시록 연구를 위한 8개 지침’은 미국 신시나티 신학대학원의 자니 프레스리(Dr. Johnny Pressley/1995년 5월) 교수의 특강 내용을 편역한 것이다.

1.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라.

계시록에는 이상하고 기이한 형상들과 이상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

용과 많은 머리와 뿔을 가진 짐승들이 등장하고 있고, 말(馬) 같기도 하고, 금관(金冠)을 쓴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하고, 머리털은 여자 같고, 이빨은 사자 같으며, 갑옷으로 무장하였고, 웅장한 소리를 내는 날개들이 있고,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는 황충이며,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뿜어내며,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는 말과 같은 기괴하고 해괴한 형상들이 많이 등장한다.

또 2억의 군인들이 싸우는 거대한 전쟁과 하늘로부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며, 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기이한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다.

사람들은 이런 형상들을 장차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으로 믿는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계시록이 말하는 이상하고 기괴한 형상들을 가진 짐승들을 만들 것이며, 또 그것들을 지상에 풀어놓으실 것으로 믿는다. 계시록의 사건들도 기술된 그대로 정확하게 발생될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계시록에 기술된 모든 형상과 사건들이 문자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 이다.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서 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Αποκάλυψις) 라고 말함으로써 계시록이 많은 상징들로 기록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아포칼립시스는 고대문학의 한 장르를 일컫는 용어이다. 이를 우리말로 ‘묵시’라고 말한다. 묵시적 기록은 하나님의 백성이 현재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고 있는 현실과 동터오는 하나님과 그

의 백성의 승리, 즉 장차 하나님께서 가져다주실 구원과 축복들에 대해서 말해준다.

묵시록은 무대에 올려진 드라마처럼 묵시적인 희망의 메시지가 일련의 드라마의 형태로 제시된다. 그리고 각각의 드라마는 많은 상징들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독자들을 교훈 한다. 예를 들면, 백색은 전형적으로 선(善)을 대표하며, 적색은 악(惡)을 대표한다. 숫자 7은 어떤 것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크고 온전하게 채워진 것을 상징하며, 6은 사람이나 마귀가 하나님의 요구에 충분하게 도달하지 못함을 즉 부족과 타락을 상징한다. 구약의 묵시록인 다니엘서는 제국과 제왕들을 짐승들로 묘사하고 있다. 다니엘서는 여러 짐승의 몸을 한 몸에 가진 이상한 짐승도 소개하고 있다. 다니엘과 같이 에스겔과 스가랴도 그들 책의 일부분을 묵시적 형태로 쓰고 있고, 계시록에 언급된 상징들과 형상들이 이들의 것과 아주 다르지 않다.

요한이 계시록의 성격을 ‘아포칼립시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미래에 발생할 일에 관한 문자적인 예언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계시록을 만세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 즉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예언의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의 해괴한 형상들을 문자적으로 해석치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상징들로 보는 것이 좋다.

우리가 계시록의 형상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계시록 1장 12-16절에 기술된 예수의 모습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과 같다. 계시록 1장 12-16절의 말씀을 읽어보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에 관한 이 묘사가 다른 성서에 나타난 예수의 전형적인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주목하게 된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실제로 입에서 나오는 단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형상은 예수께서 죄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과 저주를 내리실 자이심을 또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또 우리는 예수께서 실제로 불꽃처럼 이글거리는 눈과 용광로에 단련된 주석처럼 빛나는 발을 가진 이상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의 이 형상은 두아디라 교회와 관련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는 자들에게 심판과 저주를 내릴 자이심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문자적인 해석은 여기서 뿐만 아니라, 계시록의 다른 곳에서 묘사된 예수의 모습과도 잘 맞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계시록 5장에서 예수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이상한 형상의 어린양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께서 정말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예수의 구원의 능력과 지혜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계시록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많은 형상들을 소개하고 있고, 이 형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그의 백성에게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의 확신과 희망 있는 장래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에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고 문자적인 해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2. 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라.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영감을 부인하는 신학자들 가운데는 성서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인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성서가 단순히 신앙인들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쓰여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고 말한다. 이러한 견해는 성서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들로써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성서를 계시와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계시록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계시록을 픽션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요한이 당대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형상들을 빌려 썼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요한은 계시록의 환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천사에게 주셨고, 천사는 이 말씀을 요한에게 전달하였다고 계시록 1장 1절은 말하고 있다.

계시록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첫째, 이 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책의 말씀은 진실 되다. 둘째,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감으로 된 다른 모든 성서들과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이런 점들은 계시록의 형상들과 상징들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첫째, 그것은 다른 성서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지식들이 계시록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그것은 계시록을 통해서 얻어진 해석이 분명하게 알려져 있는 다른 성경말씀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하며, 성서의 다른 책들과 동일한 메시지를 찾는데 충실해야한다.

3.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말씀들을 찾아라.

계시록 1장 3절은 이 책의 독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무엇보다도 이 책을 읽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에 주목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이 계시록 22장 7절에서 반복되고 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계시록을 읽는 최고의 방법은 매일의 삶에 필요한 실천적 교훈을 찾는 것이다. 계시록을 관념론적으로만 이해하려해서는 안 되며, 재림에 즈음해서 발생할 사건 즉 칠년대환난의 때에 발생할 사건으로만 이해 하려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가를 찾아야 한다. 이것이 성서를 바람직하게 읽는 방법이다.

계시록의 강해나 설교는 언제나 실천적인 목표와 관련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청중들에게 흥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이상으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청중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야 한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성서연구나 신학적인 노력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청중들에게 실천적인 교훈을 보여 줄 수 있는 성구들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4. 교회와의 관련성을 찾아라.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일차적으로 미래에 관한 예언서로 믿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이 세상 끝 마

지막 몇 년 동안에 일어날 사건들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스라엘 영토의 회복과 성전예배의 문자적인 회복과 관련해서 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한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에 칠년 대환난을 겪게 될 것이며, 결국은 천년왕국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교회와 계시록과의 관련성이 희박해 지고 만다.

오히려 계시록의 초점은 일차적으로 교회에 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 보여 주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계시록에 나타나 있다.

계시록은 요한의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차적으로 보내어진 서신이다. 계시록은 일차적으로 그들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과 입장에서 읽혀져야 한다. 계시록 1장 4절의 말씀은 이 책의 메시지가 일세기 말경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일곱 교회에 보내진 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계시록에 언급된 형상들과 사건들은 일차적으로 그들의 삶의 정황과 관련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들은 이 천년 후에 발생할 사건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박해 상황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먼 장래의 유대인들에게 주어질 축복들에 관한 예언을 읽는 것에 흥미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은 초대 교회 신앙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정황을 볼 때에도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만에 하나 계시록이 유대인들의 축복을 예언한 책이라면,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익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며, 더 더욱 관심을 갖고 읽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계시록의 초점은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초점이 있음을 계시록의 각 장을 통

해서 알 수 있다. 1장 5-6절의 말씀에 의하면,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해방된 자들과 나라와 제사장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보내어진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장과 5장의 환상도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7장에 나오는 대환난을 이기고 구원받은 큰 무리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었다. 11장의 두 증인도 그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한다. 12장의 붉은 용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적고 있다. 14장의 144,000명은 그들의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다. 17장의 음녀 바빌론도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19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신다. 그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그의 영원한 나라에 데려 갈 것이다. 20장에서 보좌에 앉아 천년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설교하고 가르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와 관련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실천적 교훈을 찾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5.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시록이 일차적으로 종말론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계시록은 종말론에 관한 교훈보다는 하나님의 본질이라든지 기독론과 같은 다른 교리들을 설명하는데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는 많은 성구들을 가지고 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1:8).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22:13).

계시록은 하나님을 각종 보석과 무지개로 묘사하는 성구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 성구들을 통해서 영화롭고 찬란한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다.

계시록은 악한 자들에게 각종 재앙들을 선포하는 많은 성구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 성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공의성을 설명할 수 있다.

계시록은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많은 성구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 성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설명할 수 있다.

계시록은 기독교론을 설명하는 많은 성구들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신성을 설명하는 성구들이 다른 어떤 책보다도 더 많다.

계시록은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많은 호칭들을 예수에게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들이 예수에게서도 발견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예수께서도 하신다.

계시록은 예수의 재림에 관한 언급보다도 예수의 죽음에 관한 언급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예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징은 하나님의 어린 희생양이다.

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사건들을 말하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에 관해서 더 많이 가르치고 있다.

6. 예배와 찬양을 강조하라.

계시록은 천국에서의 예배와 찬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 주고 있다. 심지어 요한이 1장 4-8절에서 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내는 인사말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송이 발견되고 있다.

...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이 제시하는 모델들을 따라서 참 예배의 내용과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계시록에 설명된 환상들은 적어도 한두 개씩의 예배의 모형을 제시해 주고 있다. 계시록의 각 장에서 상징들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예배에 관한 훌륭한 교훈을 찾아내어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Ⅶ. 신실한 믿음을 장려하라.

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 계시록의 메시지를 요약해 주고 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고난’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 등에 관해서 상징적인 형태로 극화(劇化) 하고 있다.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왕국’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계시록은 우리가 장차 현세의 고통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희망을 전하고 있다.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부분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주된 목적이다. 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한 것이다. 2·3장에서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서 “이기는 그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고 주께서 약속

하고 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 즉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차적으로 이 목적을 위해서 계시록을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상황하에서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권면해야 한다.

8. 형상이나 상징들에 관한 비밀은 비밀로써 덮여 두라.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요한은 그가 본 두 가지 비밀 또는 상징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1장을 종결하고 있다. 일곱 금 촛대는 이 서신을 받게 될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고, 일곱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使者)를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상징의 의미를 설명해 준 것은 대략 13개 정도이다. 나머지는 그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은 채 남겨놓았다. 이들 설명이 되지 않은 형상이나 상징들은 계시록의 연구를 통해서 합리적인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계 13:18)는 말씀은 계시록을 읽는 자들에게 비밀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장려하는 말씀이다.

계시록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된 상징들, 형상들, 색깔들, 또는 숫자는 구약 예언자들의 묵시적 글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그 밖에도 구약의 출애굽 사건, 엘리야 시대의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다. 계시록과 구약성서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의 일부분을 이해하기도 전에 책

전체를 알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해되지 않고 모르는 비밀이 있다면 비밀 그대로 덮어두어야 한다. 억지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계시록 10장 4절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떤 부분은 기록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일곱 우뢰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뢰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분의 계획을 일부분만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모든 부분을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계시록을 연구하는 우리의 자세는 사도 요한처럼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계 7:14)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당장 깨우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도 서서히 깨달아 질 날이 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다.

第2章 概論

1. 요한 啓示錄의 正經的 價値의 問題

계시록은 신약성서 27권에 포함된 유일한 묵시문학이다.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아타나시우스(Athanasius/c.295-c.373)가 처음으로 현재의 신약성서 27권을 정경으로 추천한 이후 히포 레기우스 종교회의(393년)와 어거스틴이 참석한 제 3차 칼타고 종교회의(397년)에서 계시록이 포함된 현재의 27권이 정경으로 공인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 이후까지도 계시록의 정경적 가치는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오리겐(Origen/185-254)은 많은 지역을 여행하면서 각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책들을 조사한 후에 모든 교회가 다함께 의심 없이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책을 호모로구멘나(Homologoumena), 그렇지 못한 책을 안티레고멘나(Antilegomena)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이 때 오리겐은 계시록을 호모로구멘나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유세비우스(Eusebius)는 계시록을 안티레고멘나에 포함시켰다.¹⁾ 그 후 계시록은 종교개혁가들에게조차도 그 권위를 의심받은 안티레고멘나로 남게 되었다.

가. 啓示錄을 인정한 敎父, 經傳, 및 宗教회의

1) Eusebius, *The History of the Church from Christ to Constantine* trans., Williamson G. A. (Penguin Books, 1965), p. 424.

히에라폴리스의 교부 파피아스(Papias/60-135)가 계시록을 알고 있었고, 그 진실성을 증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파피아스의 저술을 인용한 유세비우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파피아스의 글은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서 인용구로 발견될 뿐이다.

『허마의 목자』(*Shepherd of Hermas*/140-155)에 대 환난에 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계시록을 인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인을 교회의 상징으로 묘사한 점, 짐승을 교회의 적대 세력으로 묘사한 점, 짐승들의 입에서 나오는 맹렬한 메뚜기 떼를 언급한 점, 사도들이 영적 건축의 일부라고 한 점, 그리고 면류관과 흰옷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로 묘사한 점 등이 유사하다.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100-165)은 계시록을 사도 요한의 저술로 인정하였고,²⁾ 사데 교회의 감독 멜리토(Melito/115-185)는 계시록을 많이 읽도록 그의 교회에 권면하였고,³⁾ 안디옥의 6대 감독 데오빌로(Theophilus/165)는 계시록을 많이 이용하였다.⁴⁾ 이레내우스(Irenaeus/130-200)는 사도 요한의 저작권을 인정하였고, 계시록을 성서라고 칭하였다.⁵⁾ 유세비우스(Eusebius/260-339)는 사도 요한의 저작권은 부인했지만, 계시록의 신뢰성은 부정하지 않았다.

그밖에도 1740년 무라토리(L. A. Muratori) 추기경이 발견한 무라토리 정경(Muratorian Canon/ c.170)은 계시록을 포함하고 있고, 터툴리안(Tertullian/160-221),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150-215)도 계시록이 사도 요한의 저작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계시록이 적어도 150년경까지는 전 교

2) Justin Martyr, *Dial.* 81.Cf.; *Apol.* i. 28.

3) 유세비우스, 『교회사』 iv. 26.

4) 유세비우스, 『교회사』 iv. 24.

5) Irenaeus, *Adv. Haer.* iv.14.2; 17.6; 18.6; 21.3; v.28.2; 34.2; *Letters of the Churches of Vienna and Lyons.*

회에 유포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⁶⁾

나. 계시록을 부인한 교부, 경전, 및 종교회의

계시록을 부인한 사람 가운데는 영지주의자인 마르시온(Marcion/140)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계시록이 유대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이유로 사도적 권위를 부정하였다. 양자설을 주장한 알로기(Alogi/170)파에 속한 에피파니우스는 계시록에 기록된 상징이 너무 감각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로마교회의 장로 카이우스(Caius/210)는 계시록의 저자가 가현설을 주장하는 케린투스(Cerinthus)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천년 왕국설이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고 배척하였다.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디오니시우스(Dionysius/190-264)는 계시록의 사도 요한의 저작권을 부정하였다. 유세비우스도 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사도 요한의 저작권을 부인하였다.⁷⁾ 이러한 영향으로 예루살렘의 키릴(Cyril of Jerusalem/315-386)은 계시록을 경전에서 빼어 버렸고, 라오디게아 종교회의(Synod of Laodicea/360)에서도 계시록을 경전에서 빼기로 결정하였다.

그밖에도 계시록은 시리아의 경전, 에프라렘(Ephraem) 경전, 아디 교리(Doctrine Addi)에서 빠져 있고, 크리소스톰(Chrysostomus/344-407), 테오돌(Theodor/350-428), 그리고 테오도렐(Theodore/393-458)은 계시록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수리아 지방 에데사(Edessa)의 라불라(Rabula/455)가 번역한 페쉬토(Peshitto) 역본에도 계시록은 빠져 있다.

루터는 계시록에 십자가라는 말이 없다하여 성령의 감동 없이 기록된 책이라고 혹평하였고, 쾰빙글리는 계시록을 정경의 일부로 보지 않았으며, 성서 전권을 주석한 칼뱅은 계시록 1-3장만을 제외하고는 주석하지 않았다. 헬라 정통파 동방교회에서는 아직

6) Donald Guthrie, *New Testament Introduction*(InterVarsity Press, 1970), pp. 931-934.

7) 유세비우스, 『교회사』 vii. 25.

도 계시록을 강단에서 읽는 것과 설교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⁸⁾

2. 著者

대부분의 묵시문학이 에녹, 에스라, 바룩과 같은 가명(위경)을 쓰고 있는데 비해서 요한 계시록만은 저자 자신의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요한 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는 점에서 저자 문제는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학자들은 사도 요한 말고도 장로 요한 혹은 다른 요한 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계시록의 저자는 첫째, 창조신앙의 소유자였으며; 둘째, 구약성서의 해석자였으며; 셋째, 환상을 보는 묵시문학자였으며; 넷째, 역사의식이 뚜렷한 신학자였으며; 다섯째, 소명의식을 가진 목회자였다는 점을 확실히 밝힐 수 있다.

가. 사도 요한이 저자라는 입장

사도 요한이 저자라는 입장은 교부들 가운데서 순교자 저스틴, 이레네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터툴리안, 히폴리투스 등이 취하고 있다. 또한 저자 자신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네 번이나 쓰고 있다(1:1, 4, 9; 22:8). 사도란 말이 없이 그냥 요한이라고 한 점이 의심의 소지를 남기고는 있지만, 대개의 학자들은 저자 요한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계시록은 “거칠고 귀에 거슬리는 희브리풍의 헬라어로 쓰여졌고”,⁹⁾ 구약성서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다. 구약성서와 유대교 전통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영감이 풍부한 인물인 점으로 보아 계시록의 저자는

8) 김철순, 『요한계시록 신학』(대한기독교서회, 1989), 52-53, 93-96쪽; 전경연 외 3인, 『신약성서개론』(대한기독교서회), 340쪽.

9) 유세비우스, 『교회사』 vii. 25.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울서신에서 바울이 사도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 것은 그가 예수를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닌 열두 제자 중의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요한의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들과도 유사한 점들이 많다. 그 리스도에 대해서 로고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19:13), 헬라어는 다르지만, 어린양(ἀρνός/ 복음서에서는 ἄρνός를 쓰고 있다)이란 말을 29회나 쓰고 있다. 또 생수와 샘(7:17; 21:6; 22:17), 만나(2:17),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5:12), 목자(7:17),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하나님의 능력과 이 세상의 권세 등 요한이 즐겨 쓰는 용어들이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다.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내용도 마찬가지이다(21:22).

모세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대했던 이집트인들이 열 가지 재앙을 당한 것처럼,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일세기 로마제국이 일곱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을 계시록에서 예언한 점이나 요한복음에서 일곱 개의 예수의 기적을 모세의 열 가지 재앙과 유형적으로 비교한 점도 매우 유사하다.¹⁰⁾

나. 사도 요한이 저자가 아니라는 입장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저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계시록의 저작권에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시우스(Dionysius/190-264) 감독이었다. 디오니시우스는 계시록의 언어가 요한복음이나 요한 서신서들의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복음서와 서신서의 헬라어가 비교적 정확한 반면, 계시록의 저자는 주격을 다른 격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분사를 불규칙적으로 사용하였고, 짧은 문장을 작성하는가 하면, 불필요한 대명사를 사용하였고, 성, 수, 격을 혼란하여 사용하는 등 문장 구성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

10) Donald Guthrie, *New Testament Introduction*, pp. 934-940.

에도 디오니시우스는 복음서에서는 저자명을 감추고 있는데 비해서 계시록에서는 저자명을 밝히고 있고, 전설에 의하면, 에베소에는 사도 요한의 무덤 말고도 다른 요한의 무덤이 있었다는 점, 복음서에 많이 쓰인 삶, 빛, 진리, 은혜, 사랑과 같은 용어들이 계시록에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해답을 제시하였다. 웨스코트(Westcott)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난 다음, 20여년 후 헬라어 실력이 상당히 향상된 다음에 복음서를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잔(Zahn)은 계시록의 언어가 구약 성서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고, 예언적 교훈적 형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와는 다른 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예언은 격한 분위기에서 주어졌고, 따라서 내용이나 형태를 잘 다듬어 쓸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복음서는 대필에 의해서, 계시록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필은 당대에 흔히 있는 일이었다. 바룩이 예레미야를(렘 45:1-2), 더디오가 바울을(롬 16:22), 실루아노가 베드로를(벧전 5:12) 대신하여 성서를 기록하였다.

학자들은 계시록의 헬라어가 부정확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문법적인 차이가 반드시 무지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디오니시우스가 주장하는 에베소의 또 다른 요한의 무덤은 상인들이 돈을 벌 목적으로 가짜 유품을 이용하여 만든 가짜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 디오니시우스는 여행자들로부터 에베소에는 요한의 무덤이 두 개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이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다.

또 다른 반대는 본문에서 저자는 사도라 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라고 한 점과 저자가 육신의 예수를 알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사도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저자

가 반드시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해야 할 이유가 없고, 천상의 그리스도를 언급함에 있어서 지상의 예수를 연관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격한다.

그밖에도 신학적인 문제점을 들어 사도의 저작권에 반대하는 학자들이 있다.

첫째, 신론에 있어서, 계시록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표현한 반면, 복음서나 서신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서로 상반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사랑을 위해 공의를, 또는 공의를 위해 사랑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특히 계시록은 사단의 세력과의 투쟁, 심판 등을 다루기 때문에 사랑보다는 공의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요한복음서나 서신서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록은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함으로서 사도 요한의 균형 있는 신론을 살필 수 있다.

둘째, 기독교론에 있어서, 계시록은 예수를 정복자로서 쇠망둥이를 가지고 다스리는 메시아로 표현한 반면, 복음서에서는 계시자로서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서로 상반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계시록은 심판이 주제이고, 복음서는 구원이 주제이므로 여기에서도 구세주와 심판주로서의 균형 있는 기독교론을 엿 볼 수 있다.

또한 복음서나 서신서들은 영지주의자들의 가현설에 맞서고 있는 반면, 계시록에서는 오히려 영지주의적인 요소들을 많이 풍기고 있어서 서로 상반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복음서의 그리스도는 구세주로서, 계시록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서 그 역할이 다르고, 복음서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신 지상에서의 예수의 삶을, 계시록은 부활하시어 영광을 받으신 천상의 그리스도가 인물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균형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부활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

셋째, 성령론에 있어서, 계시록은 일곱 영을 말하고 있고,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의 일곱은 완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숫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완전성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넷째, 종말론에 있어서, 복음서와 계시록의 신학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복음서는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취적(현재적) 종말을,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몸의 부활과 우주의 회복에(미래종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종말론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복음서와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 사이에는 갈등이나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공의, 구원과 심판, 고난과 영광, 죽음과 부활, 지상과 천상, 현재와 미래로 연결되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계시록과 복음서 또는 서신서들과의 완벽한 조화를 엿 볼 수 있다.¹¹⁾

다. 다른 저자설

계시록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 아닌 다른 요한일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다. 그 몇 가지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로 요한설이 있다. 파피아스는 사도 요한과 장로 요한을 구분할 의사가 없었다. 장로 요한이 실존했는지도 의문이다. 또 신약시대의 장로는 지역교회의 사제를 의미한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 디오니시우스가 주장하는 다른 요한의 무덤 이야기는 여행자들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서 신뢰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만일에 다른 요한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에 알려져 있었다면, 계시록의 저자는 자신의 정체를 더욱 분명하게 했어야 했을 것이다. 사도 요한이 동시대에 에베소에 거주했기 때문이다.

둘째, 선지자 요한설이 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시아

11) Donald Guthrie, *New Testament Introduction*, pp. 940-946.

의 어떤 예언자일 것이라는 추측이다. 당시에는 교회마다 예언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에서 나온 주장이다(고전 12:28).

셋째, 그밖에도 마가 요한이라는 주장과 의도적인 가명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¹²⁾

라. 저자가 주는 교훈

계시록 1장 2절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고 하였다.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계시록의 저자가 ‘요한’이란 것을 알 수 있고; 둘째는 그의 증언이 자기가 본 것,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자 ‘요한’이 정확하게 누구인가라는 점에서는 일치하지 않다. 사도 요한이라는 주장, 사도 요한이 아니라는 주장, 장로 요한이란 주장, 선지자 요한이란 주장, 마가 요한이란 주장 등 다양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예녹, 에스라, 바룩과 같은 가명(위경)을 쓰는 다른 묵시들과는 달리, 계시록은 네 번이나 자신의 이름을 ‘요한’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1:1, 4, 9; 22:8). ‘사도’라는 호칭 없이 그냥 ‘요한’이라고 밝힌 점이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에게해 연안 소아시아도(道)의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만큼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계시록의 저자가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계시록의 저자가 ‘요한’이란 이름의 유대인이란 점이고, 그가 전한 증언이 ‘자기가 본 것’에 기초했다는 점이다. ‘자기가 본 것’이란 말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그것이 객관적이라는 점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견해를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고, 예수님의 증거를 증언한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본대로 증언

12) Donald Guthrie, *New Testament Introduction*, pp. 946-948.

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본 것,’ ‘본 바,’ ‘본’(seen) 또는 ‘보았는데’와 같은 단어들이 많다. 그리고 22장 18-19절을 보면, “이 책의 예언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본 것 그대로, 읽고, 듣고, 행하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것,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경험을 섞지 않는 순수함과 겸손함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태도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판단, 상대방의 결정을 경청하는 것이다.

계시록의 저자 요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상상과 사건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한대로 말을 바꾸는 그런 증인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려 깊은 주의 종이였다는 점이고, 창조신앙의 소유자였으며, 구약성서에 해박한 해석자였고, 환상을 보는 비전을 품은 지도자였으며, 역사의식이 뚜렷한 신학자였고, 소명의식을 가진 목회자였다는 점이다. 이런 지도자 밑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배울 것이 많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좋은 지도자 만나는 것,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좋은 반려자를 만나는 것,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좋은 교우를 만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좋은 지도자, 좋은 스승, 좋은 목회자, 좋은 부모, 좋은 반려자, 좋은 친구, 좋은 교우가 되는 것이다. 본 것을 말하고, 창조신앙에 기초하며, 성서에 해박하고, 꿈을 품은 역사의식과 소명의식이 뚜렷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소중하다는 점을 요한에게서 배울 수 있다.

계시록은 기독교신앙 때문에 박해와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지 말도록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였다.

계시록은 박해를 이기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되며,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씻기며(7:17; 21:4),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8:3,4), 최후의 승자가 되며(15:2), 보상을 받으며(19:2),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기업을 상속받는다(21장)고 적고 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적고 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고 말한다.

신약성서는 외부의 물리적인 박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배교를 막고, 박해자들로부터 신앙인들을 보호하며, 박해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변호할 목적으로 기록된 글들이 많다. 또 교회내부의 이단자들로부터 옳은 교리를 지켜내고 바른 신앙을 교육할 필요성 때문에 기록된 글들이 있고,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성도들을 교육하고 치리할 제도정비를 위한 글들도 있다. 복음서, 베드로전서, 계시록 등의 내용이 외부에서 오는 물리적인 박해상황에서 기록된 글들이고, 요한일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등이 내부에서 일어난 이단의 침투상황에서 기록되었으며, 고린도서와 갈라디아서는 분열상황 그리고 디모데서와 디도서는 교회성장에 따른 교육의 필요성에서 기록되었다.

계속해서 계시록의 저자 요한이 주는 교훈들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살펴보겠다. 첫째, 삶에 대한 성찰과 해석의 능력이다. 요한뿐 아니라, 성서 저자들 모두가 삶의 해석자들이었다. 그들은 삶 속에서 마찰되고 발생되고 파생되는 모든 사건사고들을 우연이나 숙명으로 보지 않고, 재수나 운수로 해석치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풀이하였다.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인간의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에 의한 사건들로 보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이것을 기록한 글이 성서의 일부인데, 이것을 고백적 해석이라고 한다. 고백적 해석은 신앙 간증이라 말할 수도 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 고백적 해석의 간증들이다.

요한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역사해석의 능력이다. 계시록의

신앙 고백적 해석은 하나님의 창조능력을 믿는 세계관, 가치관, 역사관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역사적 관점에서는 지나간 하나님의 구원사건들을 죽은 과거만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재연될 수 있고 또 미래 역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인간사가 결코 인간들만의 활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계시적 사건은 아니지만, 역사도 하나님의 계시의 한 형태라는 신앙이 기독교 역사관의 출발점이다. 인간의 역사 배후에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며, 그들의 역사를 전면에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다. 좀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매일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일부 사건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뜻을 밝혀주는 계시적 사건들이란 점이다. 중요한 것은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들을 찾아내고 그 뜻을 읽어내는 역사해석의 능력이다. 그 능력의 크기에 따라서 성령님의 감동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일들의 의미를 신앙의 눈으로 읽어내고, 신앙의 귀로 듣고, 신앙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이 성서 저자들에게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 영적 예민함이다.

요한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성서해석의 능력이다. 성서 저자들은 전승의 해석자들, 곧 조상 때부터 전해져 온 가르침의 해석자들이었다. 구약성서가 완성되기 이전의 예언자들은 시내산 언약과 같은 계약전승들을 표준자료로 삼았고, 급변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는 야훼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응답을 촉구할 목적으로 계약전승들을 해석하였다.

바울도 사도전승, 특히 안디옥 교회 전통들을 해석해 냄으로써 이전 시대에 밝혀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비밀, 곧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밝혀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주후 30년 이후 교회들이 제각각 소중하게 보존해왔던 예수님에 관한 자료들, 곧 집회 때마다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을 수집하여 선별하고 충실하게 해석하여 편집한 전도자들이었다. 이단의 침투와 기독교박해로 인해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배교의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또 제도와 질서 확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주옥같은 말씀들과 권세 있는 발자취는 신앙인들을 권면하고 의로 교육할 최상의 자료였다.

계시록의 저자도 구약성서에 실린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들을 해석해 냄으로써 박해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침묵에 괴로움을 호소하는 당대의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짜놓으신 우주를 향한 경륜과 계획을 밝혀내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던 구원의 하나님, 보응의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향한 은혜의 경륜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철저하고 끈질기며 변치 않는 믿음을 요구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성서해석의 능력이다.

요한이 주는 네 번째 교훈은 비전을 품은 지도자의 능력이다. 성서 저자들은 하나님이 영영 응답하실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죽고 안 계실 것 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구원의 희망을 잃지 않았던 지도자들이다. 그들은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이었다. 예를 들면, 이사야는 잘리어 버린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오는 환상을 보았으며(사 6:13; 11:1,10), 에스겔은 골짜기에 쌓인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는 환상을 보았다(겔 37:1-10). 복음서 저자들은 갈릴리 호수의 광풍이 결코 '교회'란 이름의 작은 배를 침몰시킬 수 없는 사실을 보았다(막 4:35-41). 계시록의 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난 노도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넌 후 승리의 노래를 부른 이스라엘 백성처럼(출 15장)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긴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 예수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보았다(계 15:2,3). 다른 한편, 계시록의 저자는 박해세력들이 홍해의 거친 파도 속에(출 15장), 불과 유황과 연기 속에(창 19장), 범람하는 홍수 속에(창 6-8장), 심판의 재앙 속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을 구약성서의 사건들 속에서 보았다. 이러한 환상은 섬기는 양들을 사랑한 큰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건에서 보듯이 지도자의 능력에서 나올 수 있는 비전들이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지도자의 능력이다.

3. 記錄年代

계시록은 기독교에 박해가 있었던 시기에 기록된 책이 틀림없다. 네로(54-68)나 도미티아누스(81-96) 황제 때가 거론되고 있다. 가장 포괄적으로 수용되는 연대는 도미티아누스가 죽고 난 96년이다.

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사후설

먼저 도미티아누스 황제 사후설을 살펴보겠다. 계시록의 기록 연대를 도미티아누스 황제 사후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황제숭배가 가장 심하게 요구된 때가 도미티아누스 때이다. 세상과 교회와의 투쟁은 계시록이 기록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세상은 권세를 손에 쥔 짐승이며, 이 짐승은 로마제국을 상징한다. 이 짐승이 언급될 때마다 이 짐승에게 모든 사람이 예배할 것과(13:4-5; 14:9-11; 15:2; 16:2; 19-20장; 20:4).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을 강요한

다. 이 짐승에 대한 언급은 로마제국의 황제숭배를 배제하고서는 이해될 수 없다. 황제숭배에 대한 견해는 율리우스 카이사르(Caesar)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급격한 발전을 본 것은 네로 때로부터 도미티아누스 때이다. 이 때는 황제숭배가 국가의 시책으로서 받들어 졌고, 도미티아누스는 “주와 하나님”(Dominus et Deus)으로 호칭되었다.

둘째, 도미티아누스 때 박해가 있었다.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가 로마에 제한된 국지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동시대에 에베소에 카이사르 신전이 세워졌고, 이레네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유세비우스와 같은 교부들은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시대에 밋모섬에 유형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유세비우스는 요한이 밋모섬에서 나와 에베소에서 계시록을 기록하였다고 전한다. 성서도 버가모에서 안디바가 살해당한 것과(2:3) 서머나 교회에 투옥과 순교가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2:10). 그밖에도 이미 많은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린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6:9; 17:6; 18:24; 19:2). 이 시대의 박해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일부 편집비평 학자들은 계시록에 나타난 박해가 두 시대의 정치적 배경의 혼합이라고 주장한다. 한 시대는 10장 2절부터 시작된 네로 박해시대이며, 또 하나는 1장부터 시작된 도미티아누스 시대라고 한다.¹³⁾

도미티아누스는 처음부터 악군(惡君)은 아니었다. 네로 때 발생한 대화재로 소실된 로마시를 복구하고 재건하는 일에 적극적인 성의를 보였으며, 민정의 공정을 기할 뿐 아니라, 로마 전래의 고품을 되찾기 위해서 국력을 기울인 선왕이었다. 그는 비록 종교를 갖지 않았지만, 종교를 승인하였고, 도덕군자로 인정받을 만큼 선한 왕이었다. 그러던 그가 황실 안의 음모를 두려워한 나머지 신경과민이 되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황족은 가차 없이 처단하였다. 그는 특히 황실 안에 기독교가 침투하는 것에

13) 김철손, 『요한 계시록 신학』(대한기독교서회, 1989), 59쪽.

대해서 두려워하였고, 나중에는 황제숭배를 선포하게 되었다. 그리고 황제숭배를 거절하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필연적인 것이었다.¹⁴⁾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Suetonius/69-121)의 『황제의 열전』에 의하면, 도미티아누스는 그의 친척인 플라비우스 클레멘스(Flavius Clemens)를 ‘무신론’(ἀθεότης)이라는 죄명으로 처형하였고, 그의 부인 도미틸라(Domitilla)는 유배를 보냈다고 한다. 기독교인의 무덤에서 도미틸라라는 비문도 발견이 되었다.

여기서 무신론이란 죄명은 다신(多神)을 믿는 로마종교를 부정하는 기독교인을 지칭한 말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기독교 예배에 성찬의 봉헌례(奉獻禮)와 성체신학(聖體神學=化體說)이 매우 일찍부터 발전하게 된 이유도 제사가 없는 기독교 예배를 제사 문화권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이단시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신화에 의하면, 네로가 죽기 직전 동방 파르테이아(Partheia)에 숨었다가 재기의 기회를 기다렸다고 한다. 학자들은 17장 11절의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는 말과 13장 3절에 나오는 상처를 입었다 나온 짐승에 대한 언급이 이 신화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받아 드린다면, 도미티아누스는 네로가 윤희 혹은 재생(Nero Redivivus)한 셈이 된다. 네로와 도미티아누스는 모두가 박해자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계시록의 기록연대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 같다. 이레내우스도 도미티아누스 말기에 계시록이 기록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¹⁵⁾

나. 네로 황제 사후설

14) 김철순, 『요한계시록 신학』(대한기독교서회, 1989), 202쪽.

15) Donald Guthrie, *New Testament Introduction*, pp. 949-957.

계시록의 기록연대를 네로 황제 사후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큰 설득력이 없다.

첫째, 계시록 17장 10절에 여섯째 왕에 대한 언급이 있다. 여섯째 왕은 베스파시아누스이다. 그러나 네로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9절에는 일곱 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로마시의 일곱 언덕이 분명하다. 그러나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10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11절)”에서 10절의 네로와 11절의 도미티아누스 시대가 혼합된 느낌을 준다. 따라서 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를 알고 있는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둘째, 계시록 13장 18절에 둘째 짐승 666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네로의 이름이 히브리음으로 666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Nero에 히브리어 ‘n’을 포함함). 비밀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것이므로 히브리어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시록이 원래 아람어로 쓰여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학자도 있다(Torrey). 그러나 이레내우스는 계시록의 숫자를 헬라어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이해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학자들은 헬라어 원어상의 차이로 666이 616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가이우스나 네로는 616에 해당된다.

셋째, 계시록 11장에 성전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루살렘 멸망 이전의 기록으로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계시록의 성전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로마의 클레멘트가 현재시제로 성전을 언급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의 책이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믿지 않는 것과 같다.¹⁶⁾

이상의 몇 가지 점을 살펴 볼 때, 네로 황제 사후설은 크게

16) Donald Guthrie, *New Testament Introduction*, pp. 958-960.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비추어 진다.

다. 초기 로마 황제들¹⁷⁾

예수의 탄생, 생애, 기독교의 출범 그리고 초기 박해가 초기 로마 황제들의 재위 기간에 이루어졌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신약성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들 황제들에 대한 지식은 신약성서의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초기 기독교 역사를 이해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 플라비우스 왕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황제의 직위는 세습되지 아니하고 양자(養子) 피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1) 아우구스도(Augustus/63 B.C. – A.D. 14):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이다. 주전 27에 황제가 되어 주후 14년에 사망하였다.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이다. 주전 34년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와 제 2회 삼두정치(三頭政治)를 시작하여, 그 이듬해에 브루투스와 케시우스 등의 공화파를 빌립보 전투에서 물리쳤다. 레피두스가 실각한 뒤에는 안토니우스와 대립하였고, 주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격파하였고, 그 다음해에 이집트를 정복하여 천하를 평정하였다. 주전 28년에 원로원의 제 1인자가 되었고, 주전 27년에 아우구스투스(존엄자)의 칭호가 주어졌다. 그가 죽은 후에 원로원에 의해서 신(神)으로서 제사가 받들어졌다. 예수는 주전 6년경 아우구스도 황제 때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였다.

(2) 티베리우스(Tiberius/42 B.C. – A.D. 37): 로마 제국의 제 2대 황제이다. 재위 기간은 주후 14년에서 37년까지이다. 질식사하였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창립된 주후 30년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였다. 티베리우스는 초기에 선정을 베풀었으나 후기에는 공포정치를 펼쳤고, 고립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주로 키프로스 섬에서 지냈다.

17) Carl Roebuck, *The World of Ancient Times*(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6) pp. 560-638; 『학원세계대백과사전』(학원출판공사, 1994).

(3) 칼리굴라(Caligula/A.D. 12-41): 로마 제국의 제 3대 황제이다. 재위 기간은 주후 37년에서 41년까지이다. 본명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게르마니쿠스이다. 칼리굴라는 소년시절 애용했던 어린이용 군화(칼리굴라)에서 나온 별명이다. 그의 치세는 당초 명문의 가문을 존중했기 때문에 인망을 모을 수 있었지만, 중병으로 쓰러진 다음에는 정신분열증을 나타내었다. 시기심으로 유력자를 처형했는가 하면 원로원을 무시했으며 자신을 신처럼 숭배할 것을 강요하는 등 전제군주정치로 기울어졌다. 특히 황제 자신에 대한 예배 강요는 예루살렘이나 알렉산드리아에서의 유대인들의 저항의 원인이 되었다. 41년 1월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궁정 안에서 암살당했다.

(4) 클라우디우스(Claudius/10 B.C.-A.D. 54): 로마 제국의 제 4대 황제이다. 재위 기간은 41-54년까지이다. 교양이 풍부했으나 몸이 쇠약했으므로 혁혁한 무공을 세운 형 게르마니쿠스의 그늘에 가려서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생질 칼리굴라 황제가 암살된 후 근위대에 의해서 추대되어 51세에 황제가 되었다. 건실한 정치를 하여 브리타니아, 트라키아, 아프리카를 속주로 삼았다. 그러나 측근으로서 점점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한 해방노예와 황후에게 억눌리게 되었다. 세 번째 황후 메살리나를 그녀의 애인과 함께 암살 혐의로 처형했으나, 다음 황후 아그리피나에 의해서 54년에 독살 당했다. 아그리피나는 자기가 데리고 들어온 아들 네로를 황제로 세우기 위해서 클라우디우스를 독살했다고 한다.

(5) 네로(Nero/37-68): 로마 제국의 제 5대 황제이다. 재위 기간은 54년에서 68년까지이다. 본명은 루키우스 도미티우스 아헨노바르부스이다. 어머니 아그리피나의 권력욕 덕분에 16세에 황제로 추대되어 초기 5년 동안은 철학자 세네카, 근위장관 브루스의 보좌로 해방노예의 중용, 매관(賣官) 폐습의 시정 등 선정을 베풀고 어머니의 정치 개입을 억제하였다. 이 때 그녀가 동생 브리타니쿠스를 지원하자 네로는 브리타니쿠스를 독살하고, 이어 59년에는 그의 어머니도 죽였다. 이 무렵 브루스가 죽고

세네카도 떠나 네로의 폭군적 행동은 날로 심해졌다. 네로는 어려서부터 예술에 관심을 가져 시를 짓고, 특히 대중 앞에서 하프를 연주하며 노래하여 갈채 받는 것을 즐겼다. 64년 7월 18일 로마의 대경기장 일대에서 갑자기 화재가 일어나 9일 동안에 걸쳐 로마시 3분의 1이상을 태웠다. 항간에서는 네로의 악취미에서 나온 유희적 방화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네로는 간신히 게리누스 등의 진언을 듣고, 당시 사회에서 혐오를 받고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대학살을 감행했다. 체포된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거나 짐승 가죽을 뒤집어 씌워 맹전에 몰려 죽게 하는가 하면, 소위 '인간 횃불'로서 불태워 죽이기도 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도 이 때 순교 당했다고 전한다. 이 때의 처참했던 상황은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수에토니우스는 『네로 전기』에서 기독교인들이 수난을 당한 것은 그들의 유치한 미신 때문이었다고 전한다. 다음 해인 65년에 원로원 의원 피소가 주동이 된 음모가 발각되었다. 세네카도 이 음모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네로로부터 자결 명령을 받았다. 66년 네로는 그리스에 가서 그리스의 자유를 선언하고 올림피아의 경기에 참가하여 미리 짜고 하는 시합으로 많은 영광(榮冠)을 차지하였다. 68년 갈리아에 이어서 에스파냐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원로원과 군대에게 버림받아 로마를 탈출했다가 추격을 받고 자살하였다. 폭군의 전형으로 일컬어지며 그가 죽은 후에도 네로가 다시 나타났다는 풍설이 도는가하면, 중세에 이르기까지 여러 전설이 이어졌다. 네로의 기독교 박해 기간은 대략 삼년반 정도였다(68년 6월 9일 30세 5개월 20일 만에 자살함).

☞ 이상 5명은 율리우스 왕조(Julius family) 출신의 황제들이었다.

(6) 베스파시아누스(Vespasianus/9-79): 로마 제국의 제 6대 황제로써 정복자이며 플라비우스 왕조의 시조이다. 재위 기간은 68년부터 79년까지이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장으로써 66

년 말 네로 황제로부터 유대인 독립전쟁을 진압하라는 명을 받고 팔레스틴에 파병된 로마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다. 그는 전쟁 중이던 68년에 네로가 죽자, 군단의 지지를 얻어 황제에 즉위하였다. 그는 내정에 주력하여 실추된 국가 위신을 회복하였고, 내란으로 인한 파괴를 복구하는 데 진력하였으며, 재정을 정비하여 신전과 콜로세움 등을 건설하였다. 또한 그는 정복한 나라들의 식민지화를 추진하여 왕조의 기반을 공고히 다졌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사후에 신(神)으로 숭배되었고, 그의 아들 티투스와 도미티아누스가 차례로 황제의 위에 올랐다.

(7) 티투스(Titus/39-81): 로마 제국의 제 7대 황제이며,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이다. 재위 기간은 79년부터 81년까지이다. 아버지의 유대지방 원정에 동행 중 68년 네로가 죽자, 황제에 즉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개선하는 아버지로부터 유대 전쟁의 전권을 위임받아 70년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 이 때의 전공은 티투스 개선문에 기록되어 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때부터 통치를 도왔으며, 아버지가 죽자 그 뒤를 계승하였다. 재위 중에 발생한 베스비오 화산의 대폭발(79년 8월 24일, 폼페이시가 화산재로 뒤덮힘), 로마의 대화재(80년), 페스트의 만연 등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적극적으로 이재민을 구호하고 시설 복구에 진력하는 등 관대하고 인도적인 정책을 써서 민중의 인기가 높았다. 유명한 콜로세움은 그의 치세 동안에 완성된 것이다. 사후 신격화되어 그의 선정은 길이 칭송되었다.

(8) 도미티아누스(Domitianus/51-96): 로마 제국의 제 8대 황제이며,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이다. 형 티투스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재위 기간은 81년부터 96년까지이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원로원을 제압하였으며 비판자를 탄압하는 등 공포정치를 실시하였다. 86년부터는 자신을 신격화시켜 신(神)으로 부르게 하였다. 다른 한편, 그는 방만한 국가 재정을 개혁하였고, 80년에 발생한 로마 대화재를 급속히 복구시키는 등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였다. 만년에는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하여 신하들을 모반죄

로 학살하였다. 이에 불안을 금치 못하던 황비 도미티아에게 암살되었다.

☞ 이상 3명은 플라비우스 왕조(Flavius family) 출신의 황제들이었다.

(9) 네르바(Nerva/30-98): 로마 제국의 제 9대 황제이다. 재위 기간은 96년에서 98년까지이다. 오현제(五賢帝)¹⁸⁾의 한 사람으로 71년과 90년에 두 번 집정관이 되었고, 도미티아누스가 암살된 후에는 원로원에서 선출되어 고령으로 즉위하였다. 관대하고 정의감이 풍부한 훌륭한 사람이었으나 행정, 군사의 경험이 없어, 황제를 삼기 위해서 양자(養子)로 피택된 트라야누스에게 전권을 맡김으로써 양자 선택이라는 황제 세습의 선례를 남겼다.¹⁹⁾ 그의 재직 중에는 빈민에게 토지를 분배하였다.

(10) 트라야누스(Trajanus/52-117): 로마 제국의 제 10대 황제이다. 재위 기간은 98년부터 117년까지이다. 에스파냐의 이탈리아 출신이다. 117년 킬리키아에서 병사하였다. 트라야누스는 112년경 소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의 감독이었던 플리니(Pliny the Younger)와의 서신 왕래에서 기독교인들의 처벌에 관한 지시를 남기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애하는 플리니 총독, 그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발된 사람들의 사례를 심문함에 있어 정당한 과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확정된 법은 없습니다. 그들은 발본색원해내야만 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발되고 그들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다음의 유보사항을 참조하여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즉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정하고 그것이 실제로 증명되면 그가 비록 과거에 그리스도인이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할지언정, 말하자면 우리의 신들을 예배함으로써 스스로 배

18) 로마 평화 시기의 다섯 황제들을 말한다: 네르바(Nerva/96-98), 트라야누스(Trajanus/98-117), 하드리아누스(Hadrianus/117-138), 안토니우스 피우스(Antonius Pius/138-161),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161-180).

19) 양자 선택의 황제 세습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자신의 아들 코모두스(Commodus/180-192)를 황제로 선택함으로써 끝나고 말았다. 이로써 오현제가 육현제로 이어지지 못했다.

교한 그 결과에 따라 사면해야 할 것입니다. 익명의 투서들은 어떤 내용의 고발이라 할지라도 큰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매우 나쁜 전례가 있으며, 또한 이 시대에 어울리는 것도 아닙니다.²⁰⁾

(11) 하드리아누스(Hadrianus/76-138): 로마 제국의 제 11대 황제이다. 재위 기간은 117년부터 138년까지이다. 오현제(五賢帝) 중 3번째이다. 에스파냐의 이탈리아 출신으로써 트라야누스의 먼 친척이다. 트라야누스가 117년 킬리키아에서 병사할 때에 양자로 피택되었다. 132-135년에 발생한 유대 전쟁 말고는 태평성대를 보냈다. 하드리아누스가 예루살렘에 신 로마도시(Aelia Capitolina)를 설립코자 하였을 때에 바르 코크바(Bar Kochba)를 중심으로 열심당원들이 반발하여 전쟁이 일어났다. 유대인들은 이 전쟁의 패배로 팔레스틴에서의 종교적 민족주의를 잃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신로마시가 되고 말았다. 이후 하드리아누스는 할례를 금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여 일리아(Aelia)로 개명하였으며, 성전 터에 주피터 신전을 건축하고 유대인 출입을 사형으로 금하였다.

4. 記錄目的

계시록은 처음부터 회람용으로 쓰였으며, 신앙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였다. 계시록의 본문은 박해를 이기고 믿음을 지킨 성도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며(7:17; 21:4),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8:3,4)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며(15:2), 피의 보상을 받으며(19:2),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보장받는다(21장)고 적고 있

20) H. Bettenson, *Documents of the Christian Church*, pp. 5-7; Norman Perrin and Dennis C. Duling, 『새로운 신약성서개론』(*An Introduction of the New Testament*), 박익수 옮김(한국신학연구소, 1991), 189-190쪽.

다.²¹⁾

계시록의 기록목적은 이해하려면 신약성서의 기록목적과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신약성서는 주로 외부의 물리적인 박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배교를 막고 박해자들에게 신앙을 변호하기 위함이었다. 내부의 이단들의 도전으로부터 정통교리를 수호하고 바른 신앙을 교육해야할 필요성에서 기록되었으며, 교회의 성장으로 인해서 성도를 교육하고 치리하며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도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다.²²⁾ 복음서, 베드로전서, 계시록 등의 내용이 외부의 물리적인 박해상황에서 기록된 책이며, 요한복음, 요한일서, 유다서 등이 영지주의와 같은 내부의 이단이 침투된 상황에서 기록되었으며, 서신들이 교회 성장에 따른 신앙교육의 필요성에서 기록되었다. 이와 같이 신약성서의 기록은 기독교의 뿌리내림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2세기 중엽에도 박해 시에 저스틴이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바치는 변증서를 기록하였다가 순교당하였고, 초기 한국교회사에서도 정약종의 둘째 아들 정하상(1759-1839)이 상재상서(上宰相書)를 써 조정에 바쳤다가 순교당하였다.²³⁾

성서를 기록한 저자들에게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그들은 삶의 해석자들이었다(히 13:8). 그들의 삶은 고백적이었다. 그들은 삶 속에서 마찰되고 발생되고 파생되는 모든 사고 사건들을 우연이나 숙명으로 보지 않고, 재수나 운수로 해석치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풀이하였다. 주변의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사역으로 보고 또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며 활동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고 해석하였다. 이 해석적 신앙고백

21) William Hendriksen, *More Than Conquerors: An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5), pp. 7-8.

22) 김득중, 『신약성서개론』(전콜디아사, 1986), 242쪽.

23) 민경배, 『개정판 한국기독교회사』(대한기독교서회, 1982), 78-92쪽.

이 글로서 전달되었다.

그들의 신앙 고백적 해석은 바른 세계관, 가치관, 역사관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창조주 하나님 신앙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들의 역사관은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죽은 과거로 보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재연될 수 있고 미래의 역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힘으로 보았다.

성서 저자들은 인간의 역사가 결코 인간의 주도적인 활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았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신앙이 그들 역사관의 출발점이었다. 인간의 역사 배후에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역사를 전면에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다.

둘째, 그들은 철저한 전통의 해석자들이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시내산 계약과 같은 기본 계약 전승들을 전거(典據)로 삼았고, 변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을 촉구하기 위해서 전승들을 해석하였다.²⁴⁾

바울도 사도적 전승 특히 안디옥 교회의 전승을 전거(典據)로 삼았으며, 그것을 그의 교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으로 해석하였다.²⁵⁾

복음서의 저자들은 교회가 케류그마와 디다케를 통해서 보존하였던 예수의 말씀과 행동에 대한 구전 전승을 충실하게 해석한 신학자들이었다. 내부의 이단과 외부의 물리적인 박해로 인한 교회의 정체성과 배교의 위협에 처한 교회에게 또한 성장에 따른 제도와 질서확립이 필요했던 교회에게 예수의 말씀과 행동들은 교인들의 신앙교육에 최상의 자료가 되었던 것이다.²⁶⁾

요한 계시록의 저자도 구약성서의 전통에 전거(典據)해서 고난

24) 장일선, 『히브리 예언서 연구』(대한기독교서회, 1991), 55-62쪽; 장일선, 『구약신학의 주제』(대한기독교서회, 1991), 259-263쪽.

25) J. 크리스찬 베커, 『바울』 장 상 역(한국신학연구소, 1991), 147-175쪽.

26) 김득중, 『신약성서개론』(컨콜디아사, 1986), 49-53; 김득중, 『복음서신학』(컨콜디아사, 1988), 9-14쪽; 조동호, 『복음서신학입문』(서진출판사, 1994), 14-16쪽.

받고 고통당하는 당대의 신앙인들을 위해서 구약성서를 충실하게 해석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던 구원의 하나님, 보응의 하나님,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보다 큰 뜻과 섭리 속에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을 성도들에게 강조하였다.

셋째, 그들은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구원의 희망을 잃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매우 훌륭한 목회자들이었다. 예를 들면, 이사야는 잘리어 버린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오는 환상을 보았으며(사 6:13; 11:1,10), 에스겔은 골짜기에 쌓인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는 환상을 보았다(겔 37:1-10). 복음서 저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는 제자들이 탄 배가 심한 광풍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했던 역사적 사실을 자기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의 핵심내용으로 삼았으며(막 4:35-41), 계시록의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난 노도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며(출 15:1-21), 전차와 무기로 무장한 박해 세력은 홍해의 노도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성은 유향과 불과 연기 속에서(창 19장),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한 것처럼(창 6-8장) 아비규환 속에 죽어간 역사적 사실을 자기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의 핵심내용으로 삼았다.

5. 主題

계시록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적그리스도의 물리적인 박해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님의 승리,’ 또는 ‘성도들의 승리’를 주제로 볼 수 있고, 거짓선지자의 이단의 도전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님의 구원,’ 또는 ‘성도들의 구원’을 계시록의 주제로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언제나 외부적으로 물리적인 칼의 박해와 내

부적으로 이단의 거짓 교리에 맞서야 했었는데, 계시록이 기록 될 당시에도 적그리스도의 칼의 위협과 거짓선지자(666)의 이단 사설에 맞서야 했다. 따라서 계시록은 적그리스도의 칼의 박해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거짓선지자의 도전과 관련해서는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박해자들에게 저주와 재앙으로 심판하실 것이며,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보상하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들 주제들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1).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사단의 세력과 싸워 필경은 이긴다는 것이 황제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제국의 박해와 관련된 계시록의 주제이다. 사단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이기는 것 같지만(11:7-10), 싸움의 결국은 성도의 승리로 끝난다(11:11,15). 계시록은 성도를 승리자 또는 정복자로 묘사한다(1:18; 2:8; 5:9이하; 6:2; 11:15; 12:9이하; 14:1,14; 15:2이하; 17:14; 19:16; 20:4; 22:3). 그리스도께서 사망, 용, 음부, 짐승, 거짓 선지자와 그들의 추종자들을 이기고 승리하신다. 성도들의 대장군이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므로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승리는 필연적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동안 왕 노릇하며,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릴 것이다(7:14; 22:14; 11:11; 14:1; 15:2; 20:4; 22:5). 박해받던 성도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주어지고, 박해하던 짐승들과 사단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이다(18:2; 19:20; 20:10).²⁷⁾

계시록의 주제는 하나님을 철저히 창조주로 믿는 신앙전통에 입각해서 이해될 수 있다. 이 신앙전통은 구약성서에 그 뿌리를 둔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단과의 싸움은 처음부터 그 결말이 예견된 싸움이며,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보면, 사단과

27) *More Than Conquerors*, pp. 8-9.

그 무리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예쁜 물고기들을 괴롭히는 어항 속의 못된 물고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계시록의 저자는 이 신앙 전통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구약성서의 많은 부분을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 계시록에는 이방신 숭배를 경계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온다. 이는 하나님 이외의 어떠한 신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시록에는 그리스도인을 미혹 또는 헐박하여 이방신에게 절하게 하는 자들이 등장한다. 첫째, 거짓 선지자이다.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은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의 가르침이다(계 16:13).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 곧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이다(계 19:20; 20:10). 둘째, 이세벨이다(계 2:20). 이세벨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이방인 왕후였으며, 팔레스타인의 농신(農神) 바알의 여사제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셋째, 유대인들이다(계 2:9). 계시록의 저자는 유대인의 집회를 ‘사단의 회’라 악평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물리적인 힘과 율법주의 강요로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자들이다. 넷째, 발람 선지자이다(계 2:14).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40여년 만에 모압평지에 도달했을 때 발람이란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우상의 올무를 놓아 바알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다섯째, 니골라당이다(계 2:15).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그리스도인을 미혹하여 우상을 섬기도록 한 이단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리스도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시다.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님은 지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과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우리 성도들을 능히 그들의 속박에서 구원할 위대한 대장군이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필

경은 승리자가 될 것이며, 구원을 받아 영원한 세계에 인도될 것이다.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견디기 어려운 박해와 이단자들의 유혹과 회유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다가 더러운 죽임을 당하였고, 더러운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거기에서 끝나버렸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일 것이지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최후의 승자들이 되었다. 우리들도 챔피언 반지를 받아 끼고, 챔피언 트로피에 입을 맞추어 그날까지 우리의 신실함과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6. 受信者

요한 계시록은 일차적으로 터키의 에게 해에 인접하고 있었던 소아시아도의 일곱 도시들에 세워진 교회들에 보내진 서신이다. 이들 일곱 도시들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이다. 이들 일곱 도시들은 인근에 다른 많은 도시들에 인접해 있었다. 예를 들면, 라오디게아는 인근에 골로새와 오늘날까지도 온천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히에라폴리스가 위치하고 있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진 요한 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낭독된 후에 그 필사본들이 인근에 있는 골로새 교회와 히에라폴리스 교회에도 보내졌다. 이렇게 볼 때 계시록은 최초의 일곱 교회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다른 많은 교회들에도 필사본들이 보내졌고, 또 다른 필사본들이 더 멀리 있는 교회들에게까지 전달되는 방식으로 결국에는 계시록이 모든 지역 모든 교회들에 보내져서 읽히지게 되었다.

이 당시 기독교는 신흥종교로써 로마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종교였을 뿐 아니라, 일제 때 우리 국민이 강요받았던 신사참배와 비슷한 황제숭배를 강요받는 상황에서, 계시록은 우상숭

배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려다가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당한, 심지어 심한 고문을 받고 순교한 신실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다고 계시록이 당대의 성도들에게만 적용되고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계시록은 모든 시대에 사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신앙의 원리와 원칙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맥락에서 2천 년 전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모든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형이자 모델이다.²⁸⁾

7. 特徵

계시록은 네 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1-3장까지 일곱 교회들에 대한 환상, 4-16장까지 일곱 인, 일곱 나팔, 해를 입은 여인과 용, 일곱 대접에 관한 환상, 17장부터 21장 8절까지의 바벨론의 멸망과 천년 왕국에 관한 환상, 그리고 나머지 21장 8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하늘의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쓰인 숫자가 '7' 또는 '일곱'이다. 2-3장에 언급된 일곱 가지 축복들을 비롯해서 일곱 교회(1:4,11), 일곱 영(1:4), 일곱 금등대(1:12), 일곱 별(1:16), 일곱 인(5:1), 일곱 뿔과 일곱 눈(5:6), 일곱 나팔(8:2), 일곱 우뢰(10:3), 일곱 표적(12:1,3; 13:13-14; 15:1; 16:14; 19:20), 일곱 왕관(12:3), 일곱 재앙(15:6), 일곱 금대접(15:7), 일곱 언덕(17:9), 일곱 왕(17:10) 등이 쓰이고 있다.

그러면 왜 하필 일곱인가? 일곱은 완전수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상징이자 완전성의 상징인 '3'과 지상의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4'가 합해진 숫자가 칠이다. 따라서 '7'은 '완전' 또는 '모든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신학적으로는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과 완

28) *More Than Conquerors*, pp. 9-10.

전과 구원의 상징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777'로 묘사하는데, 이는 삼성(三聖) 곧 세 번의 거룩(거룩 거룩 거룩)을 의미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계시록에 이름이 언급된 일곱 교회들은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거룩과 완전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릴 복 있는 공동체들이나 것이다.

8.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계시록 1장 48절은 무려 15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1).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분(4절)이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언급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영원성이 드러난 말씀이다. 예수님이 과거의 인물에 불과하다면, ‘다시 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영으로서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장차 오실 분이시다.

2).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4절)을 소유하신 분이시다. 여기서 일곱 영은 성령님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계시록 3장 1절은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을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5장 6절에서는 일찍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이 가진 일곱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일곱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서 ‘전지’를 상징한다. ‘전지’란 것은 모든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이 없음을 의미한다.

3). 예수님은 믿을만한 증인이시다(5절).

4).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써 죽은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시다(5절).

5). 예수님은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시다. 그분은 왕들의 왕이시다(5절).

6).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7).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8). 예수님은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5절)이시다.

9). 예수님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지상에 세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분이시다.

10). 예수님을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6절)이시다.

11). 예수님은 영광과 권세를 영원무궁 받으실 분이시다(6절).

12).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 가신 그대로 구름타고 다시 오실 분이시다(7절). 그 때에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는 말씀을 재림이 문자적으로 당대에 이뤄질 것을 암시한 말씀으로 볼 필요는 없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성도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부활도 함께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는 구절은 재림 때에 악인들이 부활 후에 받을 저주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13). 예수님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다(8절).

14).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다(8절).

15).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상속받게 하시고, 불신자들에게는 연기와 유향의 불 속에서 천벌을 받게 하실 분이시다.

이런 권세와 능력과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님은 지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과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성도들을 능히 그들

의 속박에서 구원하실 위대한 대장군이시다.

9. 歴史的 背景

많은 학자들이 요한 계시록을 묵시묵학으로 이해하고 있다. 묵시문학은 ‘어려운 시기를 위한 소책자’ 또는 ‘박해에 의해서 출간된 책자’를 말한다.²⁹⁾ 유대인의 묵시문학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대답이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믿었다면, 묵시문학가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개입에 희망을 걸었다. 비록 현재는 악하고 절망적이며 사단의 세력에 눌려 있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이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 저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다.

이런 맥락에서 계시록을 이해한다면, 이 책이 기록될 당시의 교회들은 황제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극심한 박해를 겪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요한은 박해와 배교의 위기에 처한 교회들에게 머지않아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를 구원하실 것이므로 참고 믿음을 지키라는 용기와 희망과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황제숭배

황제의 신격화(神格化)는 로마 제국에 지배적이었다. 율리어스 시저(Julius Caesar/100-44B.C.), 아우구스도(Augustus/63B.C.-A.D.14), 클라우디우스(Claudius/41-54), 베스파시아누스(Vespasianus/68-79), 티투스(Titus/79-81)가 사후 로마 상원에 의해서 신으로 선포되었다. 몇몇 황제들은 생존기간에도 주화에 DIVUS(神)란 말을 사

29) George Eldon Ladd, *A Commentary on the Revelation of John*(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5), p. 8.

용하였다. 동로마 제국에서도 가끔 헬라어로 THEOS(神)를 실었다. 아시아도의 큰 도시들에서는 황제숭배를 위해서 황제께 바쳐진 성전을 갖는 영광을 누리려고 서로 우열을 다투었다. 가장 분명하게 신으로 주장한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다. 그는 주와 하나님(DOMINUS ET DEUS)이란 이름으로 불리어 졌다. 네로(Nero/54-68)도 자신을 신으로 착각한 황제 중의 한 사람이었다.³⁰⁾

나. 콘스탄틴 황제 이전까지의 박해상황

역사적으로 로마제국이 기독교에 가한 박해는 열 차례 정도 있었다고 믿어진다. 네로(Nero/64), 도미티아누스(Domitianus/95), 트라야누스(Trajanus/112),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177), 셉티무스 세베루스(Septimus Severus/202), 맥시미누

30) Ibid, p. 178. 일제하에서 우리 민족은 황제숭배와 동일한 신사참배를 강요받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옛날의 천황이나 무사들의 영을 섬기는 신사(神社)라는 것을 조선에 만들고 전 국민을 참배케 하였다. 이는 조선인의 충성을 시험하고, 군국주의의 정신적 단결을 도모하려 함이었다. 이 신사는 읍 면 단위에까지도 세워졌다. 합병후 일본은 천황의 사진에 경축일마다 절을 하게 하였고, 1925년 1월에는 남산 중턱에 조선신궁(朝鮮神宮)을 만들어 천조대신(天照大神)과 명치천황(明治天皇)을 제신(祭神)으로 모시고 참배케 하였다. 1924년 11월 강경에서는 신사참배에 불응한 여선생과 수십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 둔 사태가 벌어졌고, 1935년에는 평양의 기독교 학교들에게 강력하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1931년 장로교의 경남노회가 신사참배 반대를 결의하였으나, 1938년 9월 9일 평양 총회 때에 강압에 못 이겨 신사참배를 결의하였다. 감리교도 1938년 10월 5-13일에 열린 제 3차 연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였다. 이후 장로교와 감리교는 총회 차원에서 일본에 굴욕적으로 복종하였다. 1945년 8월 1일에는 종교 단체법에 의해 세워진 일본 기독교단 산하의 조선 교단으로 한국의 모든 교단이 통폐합되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였거나 재림 사상이 강했던 교회들의 목회자들과 신도들은 구속되었고 엄청난 굴욕을 겪었다. 주기철 목사와 더불어 여러 교단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였다. 재림 사상이 강했던 동아 기독교(침례교)는 1943년 5월 10일에 강제 해산되었고, 안식교와 성결교 역시 재림 사상으로 인하여 1943년 12월 28일, 29일에 각각 해산 명령을 받았다(민경배, 『개정판 한국기독교회사』(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424-451쪽).

스(Maximinus/235), 데키우스(Decius/250), 발레리안(Valerian/257), 아우렐리안(Aurelian/270-275), 그리고 디오클레티안(Diocletian/303)이 박해자들이다. 데키우스, 발레리안,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의 박해는 전 로마제국으로 확대된 큰 박해들이었고, 그 이전의 박해는 대체로 국지적인 것이었다.

네로 이전까지는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인 유대교의 일부로 간주하여 커다란 박해가 없었다. 주후 64년 네로가 로마시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켜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기독교에 대한 유대인의 질투와 악성 루머도 박해의 한 원인이 되었다.³¹⁾ 루머의 종류: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성만찬에 대한 오해). 성적으로 문란하다(거룩한 입맞춤에 대한 오해). 세상이 불로 망한다고 주장하였다(종말론에 대한 오해). 새벽이나 밤늦게 비밀집회를 갖는다(노동자 노예들이 많아 낮 시간에 모일 수가 없었다).

네로, 도미티아누스, 트라야누스 등의 박해는 제한적이거나 국지적이었다. 박해의 이유는 로마 당국이 이방종교에 물든 공동사회를 정화시켜 신들에게 충실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제숭배의 거부는 제국에 대한 불충성의 표시로 간주되었다.

31) 네로의 기독교 박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사건이 관동대지진 때에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초기 기독교 박해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64년 로마시의 대화재로 인한 로마 시민의 분노가 기독교인들에게 폭발되었을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에 엄청난 지진이 도쿄와 요코하마 일대를 강타하였다. 이 지진이 발생한 직후 제일 조선인들에 대한 악성 루머들이 도쿄와 요코하마에서 경찰들에 의해서 유포되기 시작하였다. 그 내용은 “조선인들이 방화를 일삼고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 조선인들이 집단으로 습격해 온다”는 것이었다. 일본 당국은 이 루머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일본인 청년들을 동원하여 유언반, 지휘반, 실행반을 조직하였고, 이들로 하여금 실제로 방화, 독물투입, 투탄 등의 테러를 자행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행위를 조선인들의 행위로 뒤집어 씌었다. 이로 인하여 포악해진 일본인들이 6일 동안에 온갖 만행을 자행하였으며, 죽창과 흉기 등으로 살해된 우리 동포의 수가 일본의 공식 집계만으로도 6,433명이나 되었다[학원출판공사, 『학원세계대백과사전』 s.v. “관동대지진.”].

유대인들의 질투,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이방인들, 비양심적인 관료들도 기독교 박해의 한 원인이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180), 데키우스(Decius/249-251), 발레리안(Valerian/253-260), 디오클레티안(Diocletian/285-305) 시대에는 로마 전역에서 박해가 이루어졌다. 박해의 이유는 야만민족들의 잦은 침입으로 북방의 국경선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었고, 경제도 불안정하였다. 이런 원인을 이방종교를 허용한 로마 당국에 신들이 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 제국 건립(주전 753년) 1천년이 되면서 국수주의가 일어났고, 제국의 정신적 통일을 위해서 로마 신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강요하였다. 이에 불복하는 자들은 박해를 가했다.

기독교에 자유가 주어진 것은 서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밀란 칙령(Edict of Milan)을 발표한 313년부터였고, 동로마 제국에서는 테오도시우스(Theodosius/ 379-395) 황제 때부터였다.

데키우스와 디오클레티안의 박해 후에 교회에 분열이 있었다. 박해 때에 변절한 신앙인들의 처리 문제와 변절했던 교회 지도자들의 성직 인정 문제 등의 후유증으로 데키우스 박해 후 노바티안(Novatian)파가 나왔고, 디오클레티안 박해 후 도나투스(Donatus)파가 나왔다. 노바티안에게 대항했던 감독이 북아프리카 칼타고의 키프리안이였으며, 도나투스에 대항했던 감독이 역시 북아프리카 히포의 어거스틴이었다.³²⁾

32) James B. North, *From Pentecost to the Present*(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83), pp. 22-71.

10. 概要

머리말(1:1-11)		
1	천상(1:19-20)	인자의 환상/ 능력의 주님, 교회의 머리, 성도의 구세주
	지상(2-3장)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과 권면/ 박해와 고난
2	천상(4-5장)	하늘 보좌 방과 전경/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지상(6장)	일곱 인(역사의 악순환), 고해 같은 세상
3	천상(7장)	이스라엘 자손 중 인 맞은 자 십사만 사천 명과 구원받은 큰 무리/ 큰 환난에서 구원
	지상(8-9장; 11:15-19)	일곱 나팔 재앙/ 저주와 심판
4	천상(14-15장)	십사만 사천 명과 심판/ 천국과 지옥
	지상(16장)	일곱 대접 재앙/ 극심한 저주와 심판
5	중간계시 (10-13장)	대 환난/ 목자와 교회와 성도가 당하는 삼년 육개월의 박해와 고난
	중간계시 (17-18장)	대 심판/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의 멸망
6	천상(19장-20: 3)	만 왕의 왕 만주의 주 재림과 심판/두 짐승이 유흥 못에 들어가고 사단이 갇힘
	지상(20:4-15)	천년 왕국과 백 보좌 심판/ 사단이 유흥 못에 들어감
7	천상과 지상 (21:1-22:5)	새 하늘과 새 땅/ 천상과 지상의 통합/ 영원한 안식
맺는 말(22:6-21)		

11. 參考資料: 하나님의 百姓의 受難과 勝利

아래에 소개되는 내용들은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들이다. 안전한 홍해 해변과 방주와 소알성에 피신하여 생명을 보존한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과 홍해의 거센 바닷물과 홍수로 불어난 빗물 속에서 또는 불과 유황과 연기로 타는 소돔성에서 죽어 가는 자들의 비극을 계시록의 7-9장과 14-16장의 내용과 비교하시오.

가. 이스라엘 민족의 수난과 승리

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주전 930년) 국가가 남북으로 쪼개진 상황에서 호세아 왕 때인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 제국의 사르곤 2세에게 완전 멸망당하였다.

이어서 남왕국 유다도 주전 586년에서 538년까지 바빌론 제국, 주전 538년부터 332년까지 페르시아 제국, 주전 332년부터 141년까지 헬라 제국의 지배아래 있었다. 주전 175년부터 141년 셀루키드 왕조로부터 완전 독립 할 때까지 마카비 전쟁을 치렀고, 주전 165년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독립 주권을 누렸다.

주전 141년부터 주전 63년 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다시 점령당할 때까지 하스몬가 왕조가 남유다왕국을 통치하였다. 이후 주전 63년부터 주후 395년 로마제국(이 기간에 66-70년과 132-135년 두 차례에 걸쳐 독립전쟁이 있었다.), 주후 395-638년 기독교 비잔틴, 주후 638-1099년 칼리프 제국(아랍, 모슬렘), 주후 1099-1291년 십자군 시대, 주후 1250-1516년 이집트, 주후 1516-1917년 오토만 터키의 지배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주후 1917년부터 1948년 5월 14일 건국 때까지 영국의 위임 통치(국제연맹) 아래 있었다.

유다 왕국은 주후 70년 혹은 135년 이후 1948년 5월 14일 건국 때까지 사실상 나라 자체가 지구상에 존재치 않았었다. 주전

586년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 1948년 5월 14일 재건국 때까지 유다 왕국이 주권을 가졌던 때는 주전 141년부터 주전 63년까지 다스린 하스몬 왕조 때뿐이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초를 겪은 후에도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건재하지 아니한가!

나. 노아의 방주와 홍수심판(창세기 6-8장)

홍수 때에 하나님의 사람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는 안전한 방주로 피신하여 재앙을 면하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홍수로 재앙을 당하였다. 구원받은 노아의 여덟 식구와 홍수로 인해 물 속에서 참담하게 죽어 가는 인간들의 모습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다. 소알성의 안전과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

소돔과 고모라 성의 재앙 때에 소알성으로 피신한 롯과 두 딸은 구원을 얻었지만, 소돔 성민과 고모라 성민은 모두 유향과 불과 연기로 멸절되었다. 구원을 받아 안전한 곳에 피신한 롯과 그의 딸들의 기쁨과 유향불에 타 죽어 가는 인간들의 참담한 모습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밖으로 이끌 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³³⁾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밖

33) 계시록 18장 4절과 비교하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 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향과 불을 비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엮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웅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엮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엮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창 19:12-29)

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의 기쁨과 홍해에 빠져 죽어 가는 이집트의 마병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기쁨과 홍해에 빠져 비참하게 죽어 가는 이집트의 마병대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계시록 15장 2-4절의 말씀과 비교하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 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엮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

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 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출 14:26-31).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개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잰이되 파도가 언덕 같이 일어서고 큰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용한 물에 납 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매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와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

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가운데서 육지로 행한 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던대(출 15:1-21).

마.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민족의 여리고성 정복

제사장들이 일곱 나팔을 길게 불 때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 여호수아서 6장 1-27절의 내용을 계시록 8-9장과 11장 15절의 나팔제앙과 비교하시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옛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 칠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수 6:3-5).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老幼)와 우양(牛羊)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수 6:20-21).

바. 향로제앙

레위자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반역하다가 향로제앙으로 멸망하였다. 민수기 16장과 에스겔 10장의 내용을 계시록 8장 5절의 말씀과 비교하시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기록함이니라(민 16:37).

하나님이 가는 베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함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들 뒤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홀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겔 10:2).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계 8:5).

사. 아합과 이세벨의 멸망과 엘리야와 남은 자들의 승리(왕상 16:29-왕하 10:35)

북이스라엘 왕국에 다윗 왕에 버금가는 왕이 있었다. 그가 오므리이다. 오므리는 자신의 아들 아합을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Etbaal, 바알신 제사장 출신)의 아리따운 딸 이세벨과 정략결혼을 시켰다. 이 이방여인 이세벨이 남편 아합왕으로 하여금 야훼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케 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야훼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케 하였다. 바알 숭배를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한 박해를 가했다. 이 박해의 결과로 엘리야와 광야 굴에 숨은 칠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솔로몬 왕이 종교적으로 타락을 금치 못했던 원인도 이 정략결혼에 의해서 많은 이방여인들이 궁에 입성한 때문이다. 그들이 올 때에는 반드시 자신들의 신과 제사장들과 몸종들을 동반한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사당을 지어주고, 궁전을 지어 주어야 한다. 아합왕도 이세벨을 위해서 바알신전을 지어주고, 자신도 바알을 숭배했다. 이는 아합이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간 때문이다. 이 이세벨이 아합의 권세를 이용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훼를 버리고 바알을 숭배토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구약성경 열왕기상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신의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에 의해서 결국 기손 강의 물귀신이 되었고, 아합왕은 전투에서 피흘려 죽음으로서 그 피를 개들이 핥았으며, 엘리사와 예후의 구테타 때에 이세벨은 내시들에 의해서 창밖으로 던져져 그 피가 담과 말에 튀었으며, 그 시체는 짓밟히고 말았다. 이것이 박해세력의 최후였다. 박해가 시작된 지 삼년반만

에 얻은 야훼신앙의 승리였다.

아. 헬라제국의 유대교 박해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에피파네스 안디옥쿠스 4세(B.C. 175-164)는 대제사장직을 매매하고, 유대교를 금지시켰으며, 성전을 약탈하였고, 팔레스타인에 헬라화를 추진하였다.

안디옥쿠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올림피아의 제우스에게 봉헌하였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강요하였다. 이 뿐 아니라, 안디옥쿠스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유대교의 모든 종교의식 특히 할례, 안식일, 절기들을 사형으로 금지시켰고, 율법서의 소유도 사형으로 금지시켰다.

안디옥쿠스는 유대인들에게 연극, 스포츠, 대중탕 사용, 나체 운동, 테두리 넓은 모자 착용 등과 같은 헬라문화와 관습을 강요하였다. 젊은 사제들 가운데는 제단을 버리고, 원반던지기를 연습하며, 할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수술까지 받았다 한다.

이스라엘에 맞디아(마타디아)라 하는 제사장이 있었다. 그에게 요한, 시몬, 유다 마카비, 엘르아살, 요나단이라 이름하는 다섯 아들이 있었다. 맞디아는 이방 제사를 강요하는 왕명 소지자에게 동조하는 유대인 한 명을 죽이고 아들들과 함께 산으로 피신하였다. 이 때부터 맞디아는 다섯 아들과 헬라제국의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하시딤의 무리와 힘을 합쳐 독립전쟁을 시작하였다. 이를 마카비 전쟁이라 부른다.

제국의 군사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천여 명의 하시딤을 안식일에 공격하여 학살하자, 마타디아와 하시딤은 안식일에도 전쟁을 하였다. 이들은 배교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습격하였고, 이방 신을 위한 제단을 헐었으며, 유아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쳤다.

마타디아의 아들 가운데 유다 마카비는 게릴라전에 뛰어난 전사였다. 그의 활약으로 주전 165년에는 유대교 금지령을 해제하

는 조약을 체결하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성전을 청결히 한 후에 야훼 하나님께 봉헌하였다(12월 25일). 주전 168년 12월 유대인들이 불결하게 생각하는 돼지를 제물로 바침으로써 성전에 배가 중지된 지 만 삼년만이었다.

안디옥쿠스 4세는 주전 164년 사망하였다. 그러나 주전 141년 5월 23일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셀루키드 왕조로부터 독립하였다.³⁴⁾

자.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후 4:17-18).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롬 8:17-23).

고린도전서 4:9, 고린도후서 2:14, 4:17-18, 로마서 8:17-23, 히 10:32-36, 베드로전서 5:10, 계시록 2:2, 10:6, 13:10, 14:12, 17:14 참고.

참고서적

김득중. 『복음서 신학』 컨콜디아사, 1988.

34) R. H. Pfeiffer, *History of New Testament Times with an Introduction to the Apocrypha*, 류형기 역(한국기독교문화원, 1977), 14-19쪽.

- 김득중. 『신약성서개론』 컨콜디아사, 1986.
- 김철손. 『요한계시록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89.
- 민경배. 『개정판 한국기독교회사』 대한기독교서회, 1982.
- 베커 J. 크리스찬. 『바울』 장 상 역. 한국신학연구소, 1991.
- 장일선. 『구약신학의 주제』 대한기독교서회, 1991.
- 장일선. 『히브리 예언서 연구』 대한기독교서회, 1991.
- 전경연 외 3인. 『신약성서개론』 대한기독교서회.
- 조동호. 『복음서 신학입문』 서진출판사, 1994.
- 학원출판공사. 『학원세계대백과사전』.
- Bettenson, H. *Documents of the Christian Church*
- Eusebius. *The History of the Church from Christ to Constantine*
Trans., Williamson G. A. Penguin Books, 1965.
- Guthrie, Donald. *New Testament Introduction*. InterVarsity Press,
1970.
- Hendriksen, William. *More Than Conquerors: An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5.
- Ladd, George Eldon. *A Commentary on the Revelation of John*.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5.
- North, James B. *From Pentecost to the Present*.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83.
- Perrin, Norman and Duling, Dennis C. 『새로운 신약성서개론』
(*An Introduction of the New Testament*), 박익수 옮김. 한국
신학연구소, 1991.
- Pfeiffer, R. H. 『신약시대 역사와 외경개론』 *History of New
Testament Times with an Introduction to the Apocrypha*. 류형
기 역. 한국기독교문화원, 1977.
- Roebuck, Carl. *The World of Ancient Time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6.

第3章

요한 啓示錄의 解釋法과 말씀

들어가는 말

계시록이 주후 96년경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처음으로 소개된 이후 오늘날까지 거의 이 천년 동안 이 책에 대한 해석이나 이해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감히 읽어 볼 엄두를 내지 못한다. 또 읽어 본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고 생각하거나 연구하기를 포기해 버린다. 그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자의로 해석함으로써 기독교에 많은 물의를 빚어 왔다. 또 시대의 흐름과 상황에 따라서 이 책에 대한 해석의 방법도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해석법들은 계시록을 일차적으로 기록한 저자 시대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신자들과 또 시대를 초월한 고난당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는 목양적인 메시지로 읽게 하기보다는 먼 미래에 있을 예수 재림과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만 읽도록 권장하고 있다. 심지어 영적 해석법조차도 계시록을 만세 불변의 목양적 메시지로 읽게 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계시록은 성서의 다른 책들과 동일하게 ‘고난으로부터의 승리’를 주제로 기록되었으며, 성서의 다른 책들의 저자들과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 아래서 기록되었다. 따라서 계시록은 복음서나 율기서와 마찬가지로 살아 있는 메시지로 선포될 수 있으며, 고난 중에 있는 신앙인들에게는 용기 있

는 믿음과 희망을, 박해자들과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무서움을 가르칠 수 있는 목양적인 설교가 가능한 책이다.¹⁾ 그러므로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서 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의 메시지가 무엇 인지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 말씀이 오늘의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설교가 가능한지를 시도해 보았다. 논문의 전개 방법으로는 먼저 기존의 해석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장단점들을 검토해 보았고, 단점을 보완하고 보충한다는 심정으로 또 계시록과 묵회와 설교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해석법에 가까운 반복과 분리 이론을 발전시켜 보았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구원에 이르는 고통’이란 제목의 회람편지에서 “고통 속에는 신비한 치료의 능력이 들어 있다.” 고 말하였듯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 속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수치와 죽임을 당함과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비의 영약이 들어 있다. 이 신비의 능력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1. 요한 계시록의 해석법

기존의 계시록에 대한 해석법들은 다양한 천년왕국설에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사실 계시록에는 천년왕국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이 천년왕국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배되는 것을 보면, 천년왕국설이 계시록의 해석법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그 반대로 계시록의 해석법이 천년왕국설에 의해서 나온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기존의 해석법들에는 과거적 해석법, 현재적 해석법, 미래적 해석법, 영적 해석법, 점진적 평행(역사적 주기) 해석법, 그리고 문학적 해석법 등이 있다.

1) 박수암, 『요한 계시록』(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9, 16쪽; 김철순, 『요한 계시록』(대한기독교서회, 1993), 34쪽.

가. 과거적 해석법

과거적 해석법(Preterist Interpretation) 즉 성취론자들의 해석법²⁾은 재림 이후의 사건(19-22장)을 제외한 모든 계시록의 내용(1-18장)을 기록 당시의 상황으로 보고, 그 당시의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읽는 방법이다. 계시록을 기록 당시의 교회를 위한 묵시문학으로 보며, 13장의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는 로마제국으로,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666)는 소아시아의 사제직분으로 해석한다.³⁾ 그러나 이러한 해석법에 의하면, 계시록이 기록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의미가 부여되지만, 그 이후의 독자들에게는 아무런 메시지를 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김철손은 이 해석법을 “마치 골동품 수집가들이 고물의 연대를 따져서 진열장에 진열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⁴⁾ 라고 꼬집고 있다.

계시록 1-18장		계시록 19-22장
기록 당시에 발생한 과거의 사건들	현재	미래에 있을 사건들

나. 현재적 해석법

현재적 해석법(Continuous Historical Interpretation)은 인류의 역사를 칠천년으로 보고, 그 칠 천년을 일곱 개의 시대로 나누어 설명하는 소위 시대구분론자들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다.⁵⁾ 이들은 구약의 역사를 사 천년에서 끝난 것으로 보며, 계시

2) G. E. Ladd, 『신약신학』(*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이창우 옮김(성광문화사, 1988), 886-888쪽.

3) George Eldon Ladd, *A Commentary on the Revelation of John*(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5), pp. 10-11.

4) 김철손, 『요한 계시록 신학』(대한기독교서회, 1989), 106쪽.

5) Loraine Boettner, *The Millennium*(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86), pp. 150-151. 보에트너는 시대구분론자들이 인류 역사를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정부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왕국시대로 구분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현재는 은혜시대에 속한다.

록은 그 나머지 삼천년에 대한 문자적 예언으로 본다. 특히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이 천년 교회 시대 즉 예수의 재림 때까지의 일곱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한다. 그러나 교회시대가 이 천년에 마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일곱 시대로 구분하는 데에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해석법은 아니라고 생각된다.⁶⁾

교회 창립부터 현재까지로 시간을 잡고 교회시대를 굳이 일곱 시대로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30년 교회 설립이후 약 96년 도미티아누스 사망 때까지, 서머나 교회를 97년부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때까지, 버가모 교회를 314년부터 590년 그레고리 1세가 로마교회에 감독이 된 때까지, 두아디라 교회를 591년부터 1,054년 동서방 교회가 분열된 때까지, 사데 교회를 1,055년부터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때까지, 빌라델비아 교회를 1,518년부터 18세기 초 계몽주의가 싹트기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자유 신학이 싹트기 시작한 18세기 초부터 현재까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기록 당시의 교회로 보지 아니 하고 각 시대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더구나 편지를 받아 본 일곱 교회들이 자기들과 전혀 상관없는 아주 먼 미래의 교회 시대와 관련해서 요한의 편지를 이해했을 리가 전무하다.

현재적 해석법에서는 계시록 4:22장을 재림 직전과 직후의 사건 즉 칠년대환난(4:18장), 재림(19장), 천년 왕국(20장), 그리고 영원한 세계의 도래(21-22장)에 관한 내용으로 읽는다. 이 해석법에 의하면, 계시록이 각 시대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지만,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통일된 의견을 이루기가 어려우며, 성서를 거의 백퍼센트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⁷⁾ 이러한

6) 김철손, 『요한 계시록 신학』, 106-108쪽.

7) Charles Ryrie, *Dispensationalism Today*(Chicago: Moody Press, 1965), p. 45; Curtis I. Crenshaw and Grover Gunn, *Dispensationalism Today*,

입장에서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게 된다. 다미 선교회를 조직한 이장림의 92년 10월 28일 휴거설, 시대구분론자 할 린지(Hal Lindsey)의 1988년 휴거설,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의 1844년 10월 22일 휴거설이 여기에 속한다.

구약시대 (4,000년)					교회시대 (2,000년)							왕국시대 (1,000년)	새 시대 (영원)		
1	2	3	4	5	6							7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대환난			
무죄시대	양심시대	정부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하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전삼년반	후삼년반	회복된 유대인 왕국	새 하늘 새 땅
구약성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계시록 1-3장							계시록 4-18장	계시록 19-20장	계시록 21-22장	

다. 미래적 해석법

미래적 해석법(Futurist Interpretation)은 역사적 전 천년설에 입각하여 계시록의 첫 세 장을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나머지 4-22장을 재림 직전 직후의 사건 즉 칠년대환난(4-18장), 재림(19장), 천년 왕국(20장), 그리고 영원한 세계의 도래(21-22장)에 관한 내용으로 읽는다.⁸⁾ 이 해석법에 의하면, 계시록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미래의 소망을 말해 주지만, 그 중간시대의 신앙인들에게는 의미 부여가 전혀 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Yesterday, and Tomorrow(Memphis: Footstool Publications, 1985), pp. 130-133; George Eldon Ladd, "Historic Premillennialism," *The Meaning of the Millennium: Four Views*, ed., Robert C. Clouse (InterVarsity Press, 1977), pp. 19-29.

8) Ladd, pp. 12-14.

계시록 1-3장		계시록 4-18장	계시록 19-20장	계시록 21-22장
기록당시	현재	칠년대환난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

라. 영적 해석법

영적 해석법(Spiritual Interpretation)은 계시록을 단지 선과 악의 세력과의 영적인 투쟁으로 보는 해석 방법이다. 이러한 해석법에 의하면, 계시록은 원리와 원칙을 제시하고 있을 뿐 상징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이 해석법은 역사상의 모든 교회를 계시록과 관련 맺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⁹⁾

계시록 1-18장	계시록 19-22장
신앙의 원리와 원칙을 제시	미래에 있을 사건들

마. 점진적 평행 해석법

점진적 평행 해석법(Progressive Parallel Interpretation) 즉 역사적 주기 해석법(Historical Cyclic Interpretation)은 윌리엄 헨드릭센(William Hendriksen)이 주장한 것으로써 계시록 전체를 일곱 주기로 나누어 읽는 해석 방법이다. 계시록의 일곱 주기는 영적 해석법과 마찬가지로 전 교회 역사를 대표하며, 전체 계시록의 말씀은 원리와 원칙을 제시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첫째 주기인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문자적으로 요한의 시대의 일곱 교회로 볼 뿐 아니라, 전 역사에 나타나는 모든 교회의 모형으로 본다. 일곱 주기는 (1)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2)일곱 인, (3)일곱 나팔, (4)여인과 용, (5)일곱 대접, (6)바벨론의 멸망, (7)대 완성을 말한다. 이들 주기들의 특징은 한 주기에서 그 다음 주기로 옮길수록 그리고 종말에 가까울수록 그 강도가 커진다고

9) Ladd, pp. 11-12.

본다. 예를 들면, 대접 재앙은 나팔 재앙보다 강도가 세배나 된다. 둘째 주기로부터 여섯째 주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세력간의 영적 투쟁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 해석법은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풀지 아니하고, 주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교회와 낙원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며, 재림 이후에는 곧바로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한다.¹⁰⁾

제1주기	제2주기	제3주기	제4주기	제5주기	제6주기	제7주기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여인과 용	일곱 대접	바벨론의 멸망	대 완성

바. 문학적 해석법

문학적 해석법(Literary Interpretation)은 계시록을 대조와 반복과 클라이맥스가 잘 구성된 희곡(戲曲/drama)으로 보는 견해이다.¹¹⁾ 김철손,¹²⁾ 보우만(Johnwick Bowman),¹³⁾ 헌터(A. M. Hunter)¹⁴⁾와 같은 신학자들이 이 해석법에 동조하고 있다. 특히 보우만은 계시록을 “헬라의 희곡 또는 희브리적 ‘서사시’의 웅장한 형식으로 표현된 복음 메시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¹⁵⁾

10) William Hendriksen, *More Than Conquerors: An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5), pp. 16-36; Anthony A. Hoekema, "Amillennialism," *The Meaning of the Millennium Four Views*, *op cit.*, pp. 155-159.

11) 전경연 외 3인, 『신약성서개론』(대한기독교서회), 358쪽; 박수암, *op cit.*, 17쪽.

12) 김철손, 박창환, 안병무, 『신약성서개론』(기독교서회, 1990), 280-281쪽.

13) Johnwick Bowman, 『최초의 기독교 드라마: 요한 계시록』(*The First Christian Drama: The Book of Revelation*), 박창환 옮김(컨콜디아사, 1982), 5-186쪽.

14) A. M. Hunter, 『신약성서개론』(*Introducing the New Testament*), 박창환 역(컨콜디아사, 1989), 239쪽. 헌터는 계시록을 “연기가 엄청난 대단원을 향해 움직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의 드라마”로 보고 있다.

15) Bowman, *op cit.*, 183쪽.

라고 하였고, “요한의 희곡은 헬라적인 옷을 입었지만, 가장 훌륭한 히브리 예언과 기독교의 전통에서 나온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¹⁶⁾ 고 주장하였다.

요한 계시록이 묵시문학이란 점에서 계시록을 헬라의 희곡 형식을 취한 복음의 메시지로 볼 수도 있겠으나 계시록의 계시성이나 역사적 현실을 무시한 채 꾸민 이야기로(fiction) 볼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한편 도널드 거쓰리(Donald Guthrie)는 “계시록은 대화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헬라 희곡과는 다르다. 더욱이 계시록에는, 헬라 희곡에서와 같은 찬송과 대화의 교환이 없다. 또한 헬라 희곡에서 합창대가 ‘어떤 행동이 적당한지’를 토의할 때 나타나는 토론이 계시록에는 없다.”¹⁷⁾는 점을 들어 보우만의 주장에 반대하였다.

(1) 희곡적 구조

희곡적 해석법(Dramatic Interpretation)은 보우만(Johnwick Bowman)이 주장한 것으로써 계시록을 7막극의 구조에다 편지 형식이 첨가된 희곡으로 보는 견해이다. 또 각 막은 각각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보우만이 주장하는 희곡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¹⁸⁾

서막(1:7-8)

제1막: 지상 교회의 환상—“사람의 아들”을 그 중심 인물로 하고 (1:9-3:22) (일곱 교회로 가는 편지들)

제2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환상—역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목적(4:1-8:1) (일곱 인을 떼다)

제3막: 하나님을 섬기는 일곱 천사의 환상—환난을 당하는 교회

16) Bowman, 23쪽.

17) Donald Guthrie, 『요한 계시록의 신학』(*The Relevance of John's Apocalypse*). 정충하 역(새순출판사, 1989), 29쪽; Donald Guthrie, *New Testament Introduction*(Inter-Varsity Press, 1970), pp. 971-972.

18) Bowman, *op cit.*, 5-186쪽.

(8:2-11:18) (일곱 나팔을 불다)
 제4막: 승리하는 교회에 대한 환상—구원의 드라마(11:19-14:20, 15:2-4)(일곱 개의 야외극 공연)
 제5막: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일곱 천사의 환상—고뇌 속에 있는 세상(15:1,5-16:21) (일곱 대접을 쏟다)
 제6막: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심판에 관한 극(17:1-20:3, 7-10)(일곱 재앙의 전개)
 제7막: 천년 시대 교회의 환상—하나님의 목적의 완성(20:4-6, 11-22:5)(하나님의 일곱 가지 계획의 성취)
 종막(22:6-20)¹⁹⁾

(2) 오경적 구조

문학적 해석법 가운데 계시록을 오경적 구조를 가진 묵시문학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²⁰⁾ 오경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서사(序詞/1장)
 서막: 천상의 노래(4-5장)
 제1막: 인 재앙(6장)
 제2막: 나팔 재앙(8:1-14:20)
 제3막: 대접 재앙(14:21-18:24)
 제4막: 그리스도의 승리(19:1-20:3)
 제5막: 최후의 대심판(20:4-15)
 대단원: 신천신지(21:1-22:5)
 결사(結詞/21:6-21)

2. 새로운 계시록의 해석법

앞에서 살펴 본 해석 방법들에는 모두가 장단점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이러한 해석 방법들이 기독교 역사상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무게 있는 해석법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방법들이 최종적인 해석 방법이라고는

19) Bowman, 18-19쪽.

20) 전경연 외 3인, *op. cit.*, 358쪽.

말할 수 없으며, 여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계시록은 읽혀 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필자는 계시록을 통해서 저자가 자신의 교회 공동체에게 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으며, 그의 설교가 오늘 우리의 강단에서 어떻게 설교되어 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의 삶의 자리, 즉 정치 사회적 상황과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 둘째, 계시록이 쓰여진 이유와 목적과 주제; 셋째, 계시록이 사용하고 있는 자료와 편집과정; 넷째, 계시록이 사용하고 있는 상징들과 그 의미; 마지막으로 계시록의 전체적인 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 본 후에 계시록의 본문을 가지고 강해 설교의 가능성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계시록의 저자는 첫째, 창조신앙의 소유자였으며; 둘째, 구약 성서의 해석자였으며; 셋째, 환상을 보는 묵시문학자였으며; 넷째, 역사의식이 뚜렷한 신학자였으며; 다섯째, 소명의식을 가진 목회자였다. 계시록은 이와 같은 자질의 소유자인 목회자가 쓴 설교이다. 이 설교는 보통의 원고 설교나 목회자가 쓴 회곡이 아니라, 자신이 본 환상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시청각 설교(Audio-visual Sermon)이다. 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사건들에 대한 예언적 설교 일뿐 아니라, 저자 시대의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졌던 시기적절하고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훌륭한 목양적 설교 말씀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한결같은 영감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성경의 다른 책들 특히 복음서와 같이 한 편의 설교로서 읽혀지고 전파되고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우리가 여전히 계시록을 미래에 전개될 사건에 대한 예언서로만 읽게 된다면, 계시록은 우리의 현재적인 삶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미래의 책이 되어 버리고 만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계시록은 이미 이 천년간 교회로부터 천대를 받아 왔거나 악용되어 온 책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교회 역사 속에 등장했던 몇몇 재림 열광주의자들, 예를 들면, 2세기말에 나타난 몬타니우스, 16세기의 초의 토마스 문쳐, 19세기 중반의 윌리엄 밀러와 찰스 러셀, 20세기 초의 할 린지와 스코필드, 20세기말의 이장립 등이 나타나 계시록을 잘못 사용함으로서 이단을 만들어 냈고, 이와는 반대로 종교개혁가들은 계시록을 홀대했다. 쾰링글리는 계시록을 성경의 일부로 볼 수 없다고 했고, 루터는 계시록에 십자가라는 말이 없어서 기독교적 문헌으로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칼뱅도 성서 66권 가운데 계시록만은 주석을 완성하지 않았다. 동방 헬라 정통과 교회에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시록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어서 강단에서 읽는 것과 설교의 본문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와 같이 계시록으로 인해서 야기된 부작용은 교회를 분열시켜 왔고, 이단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는 모두가 계시록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부족에서 왔다고 본다.²¹⁾

가. 기록연대와 배경

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A.D. 96년경이다. 이 시대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나 엘리야 시대의 바알숭배 강요와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의 황제숭배 강요가 있던 시기에 쓰여졌다. 다시 말하자면, 신앙의 선택을 양심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칼의 권세와 위협과 달콤한 교리와 협박으로 우상숭배 내지는 이방신 숭배를 강요받던 시기에 계시록이 기록된 것이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대다수는 칼날의 위협 앞에 야훼를 버리고 바알을 선택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이 기록된 시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칼날의 위협 앞에 예수신앙을 저버리고 황제숭배를 택했다. 배교의 위협이 있던 시기에 계시록은 기록되었다. 그리스도냐? 황제냐? 그리스도의 선택은 죽음을, 황제숭배의 선택은 생명을 의미했던 시기에 계시록은 기록되었다.²²⁾

21) 김철손, 『요한계시록 신학』, *op. cit.*, 52-53, 94-104쪽.

나. 기록 목적과 주제

계시록의 저자는 구약성서와 이스라엘 민족의 창조주 하나님 신앙과 심한 역경 속에서도 승리를 이끌어낸 그들의 삶을 재해석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승리를 환상(幻想)으로 보여 줌으로서, 악의 세력과 대항하여 싸우며,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성도에게 소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위로를 주며, 박해로 인한 배교의 위협과 신앙의 위기에 처한 성도에게 끝까지 믿음의 정조를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다. 따라서 계시록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사단의 세력과 싸워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사단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이기는 것 같지만, 싸움의 결국은 성도의 승리로 끝난다는 것이다.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위기위발의 순간에 있지만, 승리는 결국 그리스도인의 것이라고 말한다.²³⁾

적그리스도의 칼 또는 무력의 권세 앞에서 힘없이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승리 또는 승리의 하나님, 또는 '하나님을 능히 당할 자가 없다'는 사실과 거짓 선지자의 회유와 무력 앞에 힘없이 끌려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또는 구원의 하나님, 또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시다'는 사실을 주지시킴으로써 끝까지 신앙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다.

다. 이용 자료

요한 계시록의 저자는 구약성경의 많은 부분을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노아의 홍수와 소돔성 멸망(눅 17:26-29),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에서의 고난, 탈출, 그리고 가나안 정복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박해, 그리고 끝까지 바알에게 무릎을 굽히지 아니한 엘리야와 칠천 명의 남은 자, 헬라제국으로부터의 박해

22) Ladd, *op cit.*, pp. 8-10.

23) Hendriksen, *op cit.*, pp. 7-9; Bowman, 17쪽; 박수암, *op cit.*, 14-17쪽.

와 마카비가 이끄는 하시딤의 독립전쟁과 승리, 다윗왕국 회복에 대한 기대와 예언자들의 예언문서 또는 주전 일 이 백년 사이에 나타난 예녹서나 에스드라서와 같은 묵시문학 서적들이 계시록의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²⁴⁾ 이러한 자료들을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선별적으로 사용하여 편집함으로서 인류역사의 과거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와 구원과 심판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와 같은 구원과 심판을 현재와 미래 속에서 동일하게 기대한다. 이 작업을 저자는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 내용을 회화(繪畵)적으로 설교함으로서 시청각 효과를 얻을 뿐 아니라, 독자들의 뇌리(腦裡)에 이미지 심기(imagimaking)를 하고 있다. 특별히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박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계시록의 연구는 구약성서를 참고서 삼아 이루어져야 한다. 한가지 예를 들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환난과 재앙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칠년 대환난을 말하면서 환난과 재앙을 구별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계시록은 이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다. 대 환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배교의 위협과 예수신앙으로 야기되는 고난과 수치와 순교를 말한다. 그러나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적대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포격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면 서도 노아의 여덟 식구를 방주로 구원하신 것과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시면 서도 롯과 두 딸을 구원하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생활로 온갖

24) 김철손, 『요한 계시록 신학』 *op cit.*, 55쪽; 박수암, 8쪽; 제임즈 칼라스, 『요한 계시록』 박창환 옮김(컨콜디아사, 1982), 148-153쪽. 칼라스는 요한 계시록의 체제와 형식은 다니엘서에서 나왔고, 그 내용이나 희망의 메시지는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 나왔다고 주장하였다(149쪽).

학대와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피하여 오직 이집트와 이집트에 사는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만 열 가지 재앙을 내려 심판하신 것과 같으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승리를 맛본 것과 같다.

라. 성서의 주제

성서 66권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 또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다. ‘하나님을 능히 당할 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근원이다.’ 그래서 성서에 비친 하나님은 승리자이시요,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시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승리자 이상의 승리자인 것이다(롬 8:37). 성서의 뼈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이를 증명한다. 이들은 구약성서의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귀환, 그리고 신약성서에서의 십자가의 수난과 부활사건이다.²⁵⁾ 극한 시련 속에서 승리를 맛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들 사건들을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구원사건이라고 신앙고백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해방과 바벨론 포로로부터 자유를 하나님의 구원사건으로 고백하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하나님의 구원사건을 고백하고 있다. 따라서 고난에서의 구원, 시련의 극복, 죄에서의 구원 등은 같은 맥락에서 엮어진 성서의 주제이다. 이들 성서의 이야기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수치와 죽임을 당함과 같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뵈고 승리한 삶의 이야기들이다. 그러므로 계시록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읽혀지기 위해서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조차 신앙의 정조를 저버리지 아니한 사람들의 극난극복의

25) 장일 선, 『생명나무와 가시덤불』(전망사, 1991), 38-47쪽.

삶의 이야기가 설교가 되고 간증이 될 때이다.²⁶⁾

마. 상징들과 의미

계시록이 사용하고 있는 상징들과 그 의미들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내려야 한다. 가장 빈번하게 잘못 해석되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가 삼년반과 666이다. 적그리스도와 666을 혼동해서 쓰기도 하고, 전혀 성서적인 근거가 되지 못하는 칠년대환난에 대해서도 말한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환난과 재앙은 구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재앙을 혼동해서 쓰고 있다.

계시록이 언급하고 있는 삼년반에 관한 숫자는 원래가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숭배 강요기간에서 유래한 것이다(왕상 18:1). 삼년반이 다시 다니엘서에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마카비 독립전쟁 시대에 헬라제국의 안티옥커스 4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야훼신앙을 말살하려 했던 기간인 삼년반에서 나왔다.²⁷⁾ 이들 두 가지 사건들은 역사적인 사건들로서 모두가 신앙을 위협받던 시기였다.

북이스라엘 왕국에 다윗 왕에 버금가는 왕이 있었다. 그가 오므리이다. 오므리는 자신의 아들 아합을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아리따운 딸 이세벨과 정략결혼을 시켰다. 이 이방여인 이세벨이 남편 아합왕으로 하여금 야훼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케 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야훼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케 하였다. 바알 숭배를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한 박해를 가했다. 이 박해의 결과로 엘리야와 광야의 굴에 숨은 칠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바알 앞에 무

26) 조동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혜출판사, 1994), 53-60쪽.

27) 김철손, 『요한 계시록 신학』 *op. cit.*, 44-45쪽; C. F. Keil, *Bibl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Vol. IX in the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n Ten Volumes* by C. F. Keil and F. Delitzsch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5), p. 323.

를 꿇고 말았다(왕상 16:30-33; 19:18).

솔로몬 왕이 종교적으로 타락을 금치 못했던 원인도 이 정락 결혼에 의해서 많은 이방여인들이 궁에 입성한 때문이다. 그들이 올 때에는 반드시 자신들의 신과 제사장들과 몸종들을 동반한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사당을 지어주고, 궁전을 지어 주어야 한다. 아합 왕도 이세벨을 위해서 바알신전을 지어주고, 자신도 바알을 숭배했다. 이는 아합이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간 때문이다. 이 이세벨이 아합의 권세를 이용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훼를 버리고 바알을 숭배토록 했던 것이다. 이 탄압의 기간이 삼년 육개월이었다.²⁸⁾

그러나 구약성경 열왕기상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에 의해서 결국 기손 강의 물귀신이 되었고, 아합왕은 전투에서 피흘려 죽음으로서 그 피를 개들이 핥았으며, 엘리사와 예후의 구데타 때에 이세벨은 내시들에 의해서 창밖으로 던져져 그 피가 담과 말에 튀었으며, 그 시체는 짓밟히고 말았다. 이것이 박해세력의 최후였다. 박해가 시작 된지 삼년 반만에 얻은 야훼신앙의 승리였다(왕상 18:19-왕하 9:37).

알렉산더 대왕이후 팔레스틴을 지배했던 헬라제국의 에피파네스 안디옥쿠스 4세(B.C. 175-164)는 대제사장직을 매매하고, 유대교를 금지시켰으며, 성전을 약탈하였고, 팔레스틴에 헬라화를 추진하였다. 안디옥쿠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올림피아의 제우스에게 봉헌하였고,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우게 하였으며,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르도록 강요하였다. 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을 강요하였다. 이 뿐 아니라, 안디옥쿠스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유대교의 모든 종교의식 특히 할례, 안식일, 절기들을 사형으로 금지시켰고, 율법서의 소유도 사형으로 금지시켰다. 이 탄압의 기간이 삼년 육개월이었다.²⁹⁾

28) 장일선, 『브니엘의 아침햇살』(전망사, 1990), 109-116쪽.

안디옥쿠스는 유대인들에게 연극, 스포츠, 대중탕 사용, 나체 운동, 테두리 넓은 모자 착용 등과 같은 헬라문화와 관습을 강요하였다. 젊은 사제들 가운데는 제단을 버리고, 원반던지기를 연습하며, 할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수술까지 받았다 한다.³⁰⁾

이스라엘에 맛디아(마타디아)라 하는 제사장이 있었다. 그에게 요한, 시몬, 유다 마카비, 엘르아살, 요나단이라 이름하는 다섯 아들이 있었다. 맛디아는 이방 제사를 강요하는 왕명 소지자에게 동조하는 유대인 한 명을 죽이고 아들과 함께 산으로 피신하였다. 이 때부터 맛디아는 다섯 아들과 헬라제국의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하시딤의 무리와 힘을 합쳐 독립전쟁을 시작하였다. 이를 마카비 전쟁이라 부른다.³¹⁾

마타디아의 아들 가운데 유다 마카비는 게릴라전에 뛰어난 전사였다. 그의 활약으로 주전 165년에는 유대교 금지령을 해제하는 조약을 체결하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성전을 청결히 한 후에 야훼 하나님께 봉헌하였다(12월 25일). 주전 168년 12월 유대인들이 불결하게 생각하는 돼지를 제물로 바침으로써 성전예배가 중지된 지 만 삼년만이었다.³²⁾

예수께서도 삼년반(26-30년)의 지상선교를 통해서 십자가를 저야 할만큼 배척과 시련과 수치와 죽음을 맛보셨다. 네로에 의한 기독교인들의 박해기간도 대략 삼년반이 되고 있다. 주후 64년 로마시에 대화재가 있는 직후부터 68년 네로가 자살하기까지의 기간은 대략 삼년반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이 삼년반 이후에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고 있다. 삼년반 이후에 아합과 이세벨은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있다.

29) 마카베오상 1:41-64.

30) R. H. Pfeiffer, 『신약시대 역사와 외경개론』(*History of New Testament Times with an Introduction to the Apocrypha*), 류형기 역(한국기독교문화원, 1977), 14-19쪽.

31) 마카베오상 2장; Josephus, *Antiquities of the Jews*, XII. VI.

32) 마카베오상 4장; R. H. Pfeiffer, *op cit*, 14-19쪽.

게 되었고, 삼년반 이후에 이스라엘은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헬라제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부활로서 승리를 장식하셨고, 승천하신 후에는 영광과 예배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실 자로 높임을 받고 계신다. 억울한 누명을 씌워 기독교인들을 학살했던 네로 황제도 결국 삼년반만에 자살하고 말았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기에 계시록의 저자는 이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손길을 보았고, 로마제국으로부터 오는 신앙의 박해도 결국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된 것이다. 실제로 기독교는 제국의 힘을 이기고 승리함으로서 온 로마제국이 기독교국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삼년반의 이야기는 계시록 11, 12, 13장에 각각 나온다. 이들 사건들은 목회자와 교회의 시련기가 삼년반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박해자의 박해 기간이 또한 삼년반이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물론 삼년반이란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로서 시련의 기간이 짧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롬 8:18; 고후 4:17). 계시록에서 삼년반의 시련과 천년 왕국의 축복을 언급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믿는다. 결국 계시록에서는 시련은 짧고 영광은 영원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아진다. 그렇다고 재앙의 기간을 삼년반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없다. 계시록에서의 재앙은 단순히 박해자를 멸하시고 고난당하는 신앙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에 불과한 것이다.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이다. 이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부터 받은 박해기간을 삼년반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들이 11장에서 목회자들의 대표로 등장하는 이유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계시록과 출애굽 사건의 비교는 계시록에

서의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계시록 전체의 뼈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숭배 정책에 반대하여 신앙의 정조를 지킨 남은 자 칠 천명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 계시록에 이세벨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그녀의 행위가 음란행위와 관련하여 정죄되는 이유는 바알종교가 실제로 사당의 성창(聖娼)들과의 성행위를 통한 예배의식을 인정한 데도 이유가 있지만,³³⁾ 이세벨은 절세의 미인의 이방인으로서 남편 아합왕으로 하여금 야훼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케 하였을 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야훼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케 한 신앙의 창기였으며, 참 신앙을 저버리게 한 거짓 선지자였던 것이다. 그녀는 모든 거짓 선지자의 대표이며, 영적으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이방신과 간음하도록 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격인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666은 이세벨에서 유래하여 로마제국의 황제숭배를 강요하는 사제들을 두고 한 말이다. 이들의 가르침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수 7에서 1이 부족한 인간의 숫자 6을 삼 결합시켜 인위적인 가르침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완전한 마이너스 1의 이단사설임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6은 인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 이면서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부족한 숫자이다. 이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과 같을 수 없는 영원한 피조물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이다.

12장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부터 받는 박해 기간을 삼년반으로 묘사하고 있다. 12장에서의 해를 입는 여인은 마리아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교회를 상징한다. 사내아이는 그리스도를 말한다. 11장과 12장을 종합해 보면, 목회자와 성도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부터 받는 박해 기간을 삼년반으로 말하고 있는 데,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33) 『브니엘의 아침햇살』, 66-67쪽.

같이 엘리야와 남은 자 칠 천명에서 나온 것이다. 이들이 받은 고난의 기간이 삼년반이었다.

13장에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성도를 박해하는 기간이 삼년반임을 설명하고 있다. 계시록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칼의 힘을 가진 아합에서 유래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신앙의 적은 언제나 칼의 힘과 이단 사설에 있다. 칼의 힘이 적그리스도요, 이단 사설이 거짓 선지자이다. 이슬람교가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코란을 들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하기 표시로써의 복음: 숫자 6,7,8의 성서적인 의미

The Gospel as Plus Sign: The Biblical Meaning of the Numbers, 6,7,8

먼 옛날 유대인들은 숫자를 표시할 때 알파벳을 사용하였고, 숫자에 숨은 뜻을 담기도 하였다. 이것을 게마트리아(γεματρία)라 부른다. 성경은 대부분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표기한 숫자에는 이런 저런 뜻들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666이란 숫자이다. 이 666에 반대되는 숫자가 888이고, 그 사이에 놓인 숫자가 777이다. 성경에 777이나 888이란 숫자들이 직접적으로 쓰인 경우는 없지만, 성경에 자주 쓰인 3,6,7,8의 뜻을 풀어보면 그 사용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짐작해볼 수가 있다.

먼저 숫자 3은 성삼위 하나님을 상징한다. 삼각형은 지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도형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숫자 3은 완벽 또는 삼위일체를 뜻한다. 구약성경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진 히브리식 표현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모스 2장 4절(1:6,9,11; 잠 30:15,18 참고)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죄를 힐책하실 때 쓰신 표현을 보면, "유다의 세 가지 범죄를 인하여 또 네 가지를 인하여"라고

하였다. 우리말 성경에는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라고 번역되었지만, 원어의 뜻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영어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for three transgressions of Judah and for four." 이 말의 의미는 유다의 범죄가 그 한계를 벗어났다는 뜻이다. 숫자 3은 완전수이고, 숫자 4는 그보다 하나가 많다는 것을 말하여 유다의 범죄가 그 정도에 있어서 극에 달하였음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숫자 666이 갖는 의미는 숫자 6이 갖는 의미가 완벽한 삼위일체를 이룬다는 뜻이 된다. 숫자 777과 888도 마찬가지다.

숫자 6은 7에서 하나가 부족한 숫자이며, 인간의 숫자이다. 인간은 항상 부족한 존재이다. 그는 제 6일째 날에 만들어 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성의 동물이요, 언어와 도구를 쓸 줄 아는 만물의 영장이다. 감정을 통제하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킬 줄 아는 동물이며, 의지적인 결단력을 가진 종교적인 동물이다. 그러나 인간은 운명적으로 부족한 피조물이다.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언제나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6이란 숫자는 다른 모든 숫자 위에 있으면서도 완전수 7에는 언제나 하나가 부족한 숫자이다. 그리고 숫자 6은 속명적으로 완전에는 이르지 못한다.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고, 표적을 빚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숫자 666은 완전한 부족과 실패를 의미한다. 숫자 666은 '부족하고 부족하며 또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계시록의 666이 거짓선지자를 의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거짓선지자의 가르침이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될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은 실패하고, 실패하며, 또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계시록에서 666은 둘째 짐승이자 거짓선지자로 등장한다. 짐승(therion)이란 말 자체가 헬라어로 숫자 666이 된다. 이 숫자는 사람의 숫자이다. 그러므로 666은 역사상에 나타난 어느 특정한 인물이기보다는 거짓종교나 철학을 가르치는 자들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을 구원하실 자는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 한분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수 7을 세 번 사용하여 777로 표시할 수 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을 숫자 7로 표기한다. 7을 완전수와 거룩한 수로 보기 때문이다. 숫자 7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책이 계시록이다. 계시록 전체가 숫자 7로 도배되고 있다고 해도 좋을 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요한복음서에도 숫자 7이 사용되고 있다. 일례로 요한복음서는 예수의 기적을 일곱 개만 소개하고 있다.

유대인들 역시 7을 많이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7일 창조사역이며, 메노라(금촛대)가 일곱 가지로 만들어졌다. 그 밖에도 70인, 70이레, 70인역 헬라이어 성경 등 숫자 7을 많이 사용하였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상투스(sanctus) 또는 삼성창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서 6장 3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와 계시록 4장 8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이다. 이 상투스를 숫자로 표시한다면, 777이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다. 그분은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7), 거룩(7), 거룩(7)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숫자 888은 ‘구원자’를 뜻하는 헬라이어 ‘예수’(Ἰησοῦς)에서 찾을 수가 있다.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을 수치로 환산하면 Ἰ(10)+η(8)+ο(200)+ο(70)+υ(400)+ς(200)이 된다. 이 숫자들을 다 합하면 8을 세 번 십진법으로 증폭하는 888(800+80+8)이 된다. 이와 같은 증폭을 트리스메기스토스(trismegistos, ‘세 번 위대한’)라 칭한다. 이는 복을 세 번씩이나 중첩하여 받거나 준다는 뜻으로써 완전한 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철수, 『유대교와 예수』(도서출판

길, 2002), 345-346쪽].

고대 시빌린 신탁(Sibylline Oracle 1:324)에서는 예수를 숫자 8로 표기하고 있다. 8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숫자이자 구원자를 상징하는 숫자이다. 구원과 복의 상징이기도 하다. 숫자 8이 쓰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메시아의 예표인 다윗 왕은 8번째 아들이었다.
-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는 8명이었다.
- 유대인들이 난지 8일 만에 하는 할례는 갓난아기의 복을 비는 의식이었다.
- 구원의 표인 세례(벧전 3:21)를 베풀기 위해서 중세교회는 물통을 팔각형으로 만들었다.
- 초기교회 교부들은 '주일'(주님의 날)을 '제8일째 날'이라고 불렀다[Justin, *Dialogue with Trypho* 41:4.].

숫자 8은 기독교의 복음(7+1)의 성격을 설명하는 숫자이기도 하다. 숫자 8은 완전수 7보다 하나가 많다는 뜻을 갖는다. 따라서 숫자 8은 넉넉한 구원, 넘치는 복을 뜻하며, 살림과 구원, 즉 삶에 플러스를 주는 복음을 뜻한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5절에 "그는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앓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일곱 목자, 여덟 장군들을 보내서, 침략군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다. 여기에 쓰인 '일곱 목자'와 '여덟 장군' 즉 숫자 7과 8은 완전한 승리를 상징한다. 특히 숫자 8은 '넉넉히 이긴다. 혹은 이기고도 남는다.' 즉 '플러스 1'의 의미를 갖고 있다. 또 마태복음 5장에는 그 유명한 8복에 대한 말씀이 있고, 13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성격을 설명하는 8개의 비유가 나오며, 22-25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에 관련된 8개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성격을 설명하는 비유들에서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씨앗 비유',

맨드라미 씨와 같이 아주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 '겨자씨 비유',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누룩에 관한 비유' 등이 소개되고 있다. 이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를 숫자 8로 표기한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예수야말로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며, 우리를 풍성하고 넉넉하게 복 주실 '플러스 1'의 존재이시다. 또 예수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되 후하게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실 수 있는 '플러스 1'의 하나님이시다. 비록 우리 인간이 부족한 '마이너스 1'의 존재일지라도 예수는 우리가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필요한 '플러스 1'의 요인으로 작용하실 수 있다. 비록 우리가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존재일지라도 예수는 우리가 큰 나무로 자라는데 필요한 '플러스 1'의 요인으로 작용하실 수 있다. 비록 우리가 밀가루 반죽에 불과할지라도 예수는 우리가 여러 종류의 맛있는 빵으로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누룩이 되실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의 희생을 상징하는 십자가 표시가 플러스 기호인 점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닌 것 같다. 예수는 우리에게 '더하기'가 되신다. 기독교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더하기'가 된다.

바. 계시록의 구조적인 틀

계시록의 구조적인 틀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반복과 분리 이론(Recapitulation Theory)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다. 이 이론은 계시록의 내용이 천상과 지상의 분리 또는 사건의 반복으로 전개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 이론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책자는 없다. 도널드 거쓰리는 빅토리누스(Victorinus)가 최초로 반복이론을 사용한 사람이라는 것과 어거스틴도 이 이론의 지지자라고 간단하게 말하는 것 말고는 분리와 반복 이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다.³⁴⁾ A. M. 헌

34) Donald Guthrie, 『요한 계시록의 신학』 17-18, 26, 115쪽; 비슷한 반

터 역시도 ‘삽화의 원칙’과 ‘이중 사건’이란 용어로 계시록의 틀인 반복과 분리를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 말고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헌터가 계시록의 특징이라고 주장하는 ‘삽화의 원칙’과 ‘이중 사건’에 관한 설명은 다음의 것이 전부다.

첫째, 요한이 사용한 드라마상의 기법 중의 하나는 ‘삽화(挿話)의 원칙(principle of parenthesis)이다. 마치 음악가가 두 개의 중후한 악장 사이에 가벼운 리듬의 악장을 도입하듯이 요한도 그의 심판 환상들이 거의 건널 수 없게 될 때 지상의 고통의 장면에서 하늘의 축복으로 장면을 전환시킴으로써 긴장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 .

둘째, 요한 계시록의 특징은 ‘이중 사건’(double happenings)이다. 즉 천상의 사건들 속에는 그와 대칭 되는 지상의 사건들이 있다는 말이다. . . .³⁵⁾

반복과 분리 이론을 기록한 자료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전체의 구조적인 틀을 살펴보면, 계시록의 내용이 반복과 분리로 되어 있다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머리말		제1화 (畫)	제2화 (畫)	제3화 (畫)	제4화 (畫)	제5화 (畫)	제6화 (畫)	제7화 (畫)	맺는말
	천상	인자 1:19-20	보좌방 4-5장	큰무리 7장	큰무리 14-15장	중간 계시 10-13장	주의재림 19장	새하늘 과 새땅 21-22 장	
	지상	일곱 교회 2-3장	일곱인 6장	나팔 재앙 8-9장	대접 재앙 16장	중간 계시 17-18장	천년왕국 20장		

계시록 전체 내용의 구조가 반복과 분리로 되어 있다는 점을 표로서 간단히 그려 볼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계시록에는 머리말과 맺는말이 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전체는 일곱 장의 큰 그림(繪畫)으로 되어 있다. 이 일곱 장의 그림은 제 5화(畫)인 중간계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각각의 그림에 천상

복이론에 대해서 박수암, *op cit.*, 99-103쪽 참조.

35) Hunter, *op cit.*, 240쪽.

의 모습과 지상의 모습을 동시에 담고 있어서 각각의 그림에서 천상의 모습과 지상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분리되어 있다. 이들 그림들은 신자의 고난과 구원 그리고 박해자와 불신자의 불행한 최후를 경고하고 있다.

제 1화(畵)는 박해의 광풍을 금방이라도 잔잔케 하실 인자의 모습이 상단에, 거센 풍랑 만나 몹시 괴로워하는 일곱 교회가 하단에 그려져 있다. 제 2화(畵)는 온 우주를 지배하고 있고, 악의 세력에 의해서 잠깐 동안 장악된 인류의 역사를 바로 세울 하늘 보좌 방의 화려한 모습이 상단에, 일곱 인 재앙에 나타나는 지진, 기근, 전쟁, 순교, 천재지변과 같은 역사의 악순환이 하단에 그려져 있다. 제 3화(畵)와 제 4화(畵)는 박해를 이기고 신앙을 지킨 성도들이 구원받아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장면이 상단에,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는 불신자들의 모습이 각각 하단에 그려져 있다. 이들의 모습은 방주에 안전하게 피신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엄청난 물난리를 만나 멸망당하는 장면 같기도 하고, 홍해 바닷가에 선 이스라엘 민족과 홍해 바다에 빠진 이집트의 마병대와 같기도 하고, 소알 성에 안전하게 피한 롯과 두 딸과 유향과 연기와 불에 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 같기도 하다. 제 4화(畵)는 제 3화(畵)보다도 그 강도가 3배 이상 강한 저주의 장면이 그려져 있다. 제 5화(畵)는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부터 고난당하는 장면이 좌측에 그려져 있고, 박해자들과 그들의 나라가 천벌을 받는 장면이 우측에 그려져 있다. 제 6화(畵)는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그 뒤를 따르는 흰옷 입은 수많은 성도들의 그림이 상단에, 지상에서의 백보좌 심판과 천년왕국의 시작이 하단에 그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제 7화(畵)는 통합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생복락을 누리는 평화스런 장면이 그려져 있다.

이 큰 그림들은 요한의 설교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

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요한은 먼 옛날 이미 시청각 설교 방법(Audio-visual Preaching Method)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한의 설교는 정제되어 있던 이 그림들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또한 배교의 위기에 처한 신앙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능력이다.

계시록은 일정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 이 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속한 불신자들을 완전히 천상과 지상으로 분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천상과 지상이 반드시 문자적인 뜻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천상은 구원을 그리고 지상은 저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이 두 길은 다시 만나질 수 없는 영원한 갈림길이다. 극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킨 자들은 구원의 길로, 신앙의 정조를 버리고 적그리스도가 강요하는 우상 숭배에 머리를 조아린 자들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1	천상(1:19-20)	인자의 환상/ 능력의 주님, 교회의 머리, 성도의 구세주
	지상(2-3장)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과 권면/ 박해와 고난

2-3장에 일곱 교회가 나온다. 물론 이 교회들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들이다.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을 태운 작은 배가 돌풍 때문에 위기를 만난 것처럼 이들 교회들도 박해로 인해서 전복될 위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장에서는 이들 교회의 머리되신 승리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의 배후에 화려한 인자의 모습으로 버티고 계신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이는 마치 배를 요동치게 하던 바람과 풍랑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여 잔잔하여 짐과 같이(막 4:35-41) 능력의 주께서 일곱 교회의 목자들을 상징하는 일곱별을 손에 쥐고서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몰아닥친 풍량은 곧 잔잔하여 질 것을 묘사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천상에, 교회는 지상의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6장에서는 소위 인 재앙이라는 것이 설명되어 있다. 인 재앙은 사실 재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들은 승리, 전쟁의 파괴, 기근, 죽음, 신앙으로 인한 순교, 천재지변, 평화에 관한 표현으로서 이 지상에서 펼쳐지는 역사의 악순환을 회화적(繪畵的)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 그 반면에 45장에서는 인류의 역사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 즉 천상의 청와대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인간의 역사가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도 아니요, 운회의 역사도 아니요, 오직 이 우주를 지으시고 만드신 이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지배아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아래 놓이게 될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 하나님은 천상에, 인류는 지상의 존재임이 부각되고 있다.

2	천상(45장)	하늘 보좌 방과 전경/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지상(6장)	일곱 인(역사의 악순환), 고해 같은 세상

8-9장은 나팔 재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들 재앙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내린 재앙들과 흡사하다. 다른 것이 있다면, 열 가지가 일곱 가지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들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 이 심판의 재앙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재앙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7장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천상에서 구원의 기쁨을 승리의 노래로 찬양하고 있고, 사단의 백성은 지상에 남아 이 재앙을 받고 아비규환의 소동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 대목이 성도의 휴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성서가 말하는 휴거의 의미는 전혀 다른 대목에서 설명된다. 7장의 천상의 백성과 8-9장의

지상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의 완전한 구별과 분리를 회화적(繪畵的)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이집트인들에게만 내리고 고센 땅에 분리되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 주어졌던 것과 같다. 또 출애굽기 14-15장과 계시록 15장 2-4절에 나타난 장면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넌 후 해변에서 구원의 기쁨과 축제 분위기에 쌓여 있고, 이집트 마병대는 불과 유황으로 이글거리는 것 같은 홍해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 가는 모습과 같다.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면 서도 노아의 여덟 식구를 방주로 구원하신 것과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시면 서도 롯과 두 딸을 구원하신 것과도 같다(눅 17:26-29).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은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요 사랑의 행위인 것이다. 마치 억류된 자국민을 구해 내기 위해 포격을 가하고 특공대를 파견하여 구출해 내는 것과 같은 행위인 것이다. 또한 지상의 재앙과 천상의 큰 무리는 천국과 지옥의 광경을 묘사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3	천상(7장)	이스라엘 자손 중 인 맞은 자 십 사만 사천명과 구원받은 큰 무리/ 큰 환난에서 구원
	지상(8-9장; 11:15-19)	일곱 나팔 재앙/ 저주와 심판

16장의 대접 재앙도 8-9장의 나팔 재앙의 맥락에서 생각해야 한다. 다만 다른 점은 대접 재앙이 나팔 재앙보다도 그 강도에 있어서 3배가된다는 점이다. 나팔 재앙의 강도가 33퍼센트 일 때, 대접 재앙의 강도는 100퍼센트가 된다는 것이다. 14-15장 역시 7장과 마찬가지로 천상의 구원받은 무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는 같은 사건이 반복되어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이들 사건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 해서는 안된다. 계시록은 우리

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말할 뿐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문자적 성취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가장 확실한 것은 성도의 구원이다. 그리고 성도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다.

4	천상(14-15장)	십 사만 사천명과 심판/ 천국과 지옥
	지상(16장)	일곱 대접 재앙/ 극심한 저주와 심판

10-13장은 성도의 고난을 삼년반으로 묘사한 중간계시를 보여주고 있고, 그 반대로 17-19장에서는 성도에게 박해를 가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심을 묘사해 주고 있다. 이들은 중간 계시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의 구세주이심을 입증하는 구원의 행위인 것이다.

5	중간계시(10-13장)	대 환난/ 목자와 교회와 성도가 당하는 삼 년 육개월의 박해와 고난
	중간계시(17-18장)	대 심판/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의 멸망

20-22장에서 천상과 지상의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은 19장에서 백마 타고 오시는 재림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된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짧은 성도의 수고가 끝나고 영원히 지속되는 영광의 삶이 시작됨을 알리게 된다. 이 영광의 삶은 부활의 몸, 구속된 몸, 혹은 변형된 몸으로 시작된다. 성도는 이미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지상 혹은 낙원에서 선취적으로 이 삶을 맛보며 누려 왔으나, 부분적이며 불완전한 것이었다.

6	천상(19장-20:3)	만 왕의 왕 만주의 주 재림과 심판/두 짐승이 유향 못에 들어가고 사단이 간힘
	지상(20:4-15)	천년 왕국과 백 보좌 심판/ 사단이 유향 못에 들어감

그러나 천상과 지상의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신천신지(新天新地)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완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

21-22장의 말씀은 이런 인류가 가진 마지막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담아 표현하고 있다.

7	천상과 지상 (21:1-22:5)	새 하늘과 새 땅/ 천상과 지상의 통합
---	-----------------------	-----------------------

이와 같이 계시록은 일정한 틀에 의해서 구성된 일곱 장의 큰 그림으로 설명된 시청각 설교이며, 마음 몽클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담긴 멋진 한 편의 설교인 것이다. 우리는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현실 속에서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인내로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3. 강해 설교

이제까지 계시록의 시청각 설교 해석법(Audio-visual Preaching Interpretation)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이 해석법에 따라서 계시록의 내용을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눌 수가 있고, 또 그 묶음을 본문으로 삼아 설교를 할 수가 있다. 이제 그 가능성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계시록 전체를 일곱 묶음으로 나누어 시도해 보고자 한다.

- 가. 풍랑을 잔잔케 하실 예수(1:10-16)
- 나. 죽도록 충성하라(2:10)
- 다.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4:1-11)
- 라. 보응의 하나님(7:9-17; 14:1-5)
- 마. 승리의 노래(15:2-4)
- 바. 시련은 짧고 영광은 길다(13:4-10)
- 사. 최후의 승리(21:1-8)

위의 제목의 설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http://kccs.info>→설교자료→기독교와 삶 설교를 통해서 읽을

수 있고,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章) 「본문 강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나오는 말

이상으로 분리와 반복과 시청각 설교 해석법의 입장에서 계시록의 구조적인 틀을 재구성해보았으며, 계시록을 먼 미래에 있을 대환난과 같은 큰 재앙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을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는 목양적인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사복음서의 내용이 단순히 예수의 생애를 전기적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권위 있는 말씀들과 행위들을 자료로 삼아서 당대의 고난당하는 신앙인들에게 시기적절한 살아있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처럼,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주로 구약의 말씀들을 자료로 삼아서 당대의 고난당하는 신앙인들에게 시기적절한 살아있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계시록의 저자는 단순히 환상을 보는 자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구약의 전승을 재해석한 신학자로 설교가로 부각되고 있다. 성서를 기록한 모든 저자들이 창조주 신앙에 바탕을 둔 역사관, 세계관, 그리고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계시록의 저자도 창조주 신앙에 바탕을 둔 뚜렷한 역사관, 세계관, 그리고 인간(피조물)관을 제시함으로써 고난당하는 신자들에게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계시록의 저자와 그의 저술은 오늘 의 목회자들과 교회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고 확신한다.

참고서적

〔국문서적〕

김철손, 박창환, 안병무 공저. 『신약 성서 개론』 기독교서회, 1990.

- 김철손. 『요한 계시록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89.
- 김철손. 『요한 계시록: 성서 주석』 대한기독교서회, 1993.
- 대한성서공회 발행. 『공동번역 성서』 1977.
- 박수암. 『요한 계시록: 신약 주석』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 장일선. 『브니엘의 아침햇살』 전망사, 1990.
- 장일선. 『생명나무와 가시덤불』 전망사, 1991.
- 장일선. 『하나님의 파토스』 나눔사, 1991.
- 전경연 외 3인. 『신약성서개론』 대한기독교서회.
- 조동호. 『기독교 신앙의 본질』 은혜출판사, 1994.

[번역서적]

- Bowman, Johnwick. 『최초의 기독교 드라마: 요한 계시록』(*The First Christian Drama*). 박창환 옮김. 컨콜디아사, 1982.
- Guthrie, Donald. 『요한 계시록의 신학』(*The Relevance of John's Apocalypse*). 정충하 역. 새순출판사, 1989.
- Hunter, A. M. 『신약성서개론』(*Introducing the New Testament*). 박창환 역. 컨콜디아사, 1989.
- Kallas, James. 『요한 계시록』(*Revelation*). 박창환 옮김. 컨콜디아사, 1982.
- Ladd, G. E. 『신약 신학』(*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이창우 옮김. 성광문화사, 1988.
- Pfeiffer, R. H. 『신약시대 역사와 외경개론』(*History of New Testament Times*). 류형기 역. 한국기독교문화원, 1977.

[영문서적]

- Beasley-Murray, G. R. *New Century Bible The Book of Revelation*. Greenwood, S.C.: The Attic Press, Inc., 1974.
- Boettner, Loraine. *The Millennium*.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86.

- Clouse, Robert C., ed. *The Meaning of the Millennium Four Views*. InterVarsity Press, 1977.
- Crenshaw, Curtis I. and Gunn, Grover. *Dispensationalism Today, Yesterday, and Tomorrow*. Memphis: Footstool Publications, 1985.
- Guthrie, Donald. *New Testament Introduction*. Inter-Varsity Press, 1970.
- Hendriksen, William. *More Than Conquerors: An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5.
- Josephus. *Antiquities of the Jews*.
- Ladd, George Eldon. *A Commentary on the Revelation of John*.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5.
- Keil, C. F. *Bibl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Vol. IX in the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n Ten Volumes* by C. F. Keil and F. Delitzsch.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5.
- Ryrie, Charles. *Dispensationalism Today*. Chicago: Moody Press, 1965.

第4章 요한 啓示錄의 本文 講解

본 장은 계시록의 본문을 쉽게 풀어 설교하기 좋도록 구성되어 있다.

1. 요한 啓示錄의 章別 概要

가. 첫째 환상

- 제1장: 인사말, 인자의 환상(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
- 제2장: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 제3장: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나. 둘째 환상

- 제4장: 천국보좌
- 제5장: 두루마리와 어린 양
- 제6장: 여섯 인
- 제7장: 십사만 사천과 큰 무리
- 제8장: 일곱 인과 네 나팔 재앙
- 제9장: 다섯 켤레, 여섯 켤레 나팔 재앙
- 제10장: 힘센 천사와 작은 책
- 제11장: 두 증인과 일곱 켤레 나팔 재앙
- 제12장: 여인과 용
- 제13장: 두 짐승

제14장: 어린양과 십사만 사천, 세 천사, 지상의 추수

제15장: 일곱 대접 재앙의 준비

제16장: 일곱 대접 재앙

다. 셋째 환상

제17장: 짐승을 탄 여인

제18장: 바벨론의 멸망

제19장: 그리스도의 재림

제20장: 천년 왕국

라. 넷째 환상

제21장: 새 하늘과 새 땅

제22장: 생명강, 맺는 말

2. 풍랑을 잔잔케 하실 그리스도(1-3장)

가. 서론(1:1-19)

‘계시’란 말은 ‘베일을 벗긴다’, ‘숨은 것을 드러낸다’의 뜻이며, ‘계시’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Αποκάλυψις’는 ἀπο(~로부터 멀리)와 καλυπτω(덮는다. 감춘다)의 합성어이다.

(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1:1)

(가) 계시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계시를 통해서 신앙인들의 최종적인 승리와 구원을 밝히 보여 주고 있다.

(나) 계시의 점진성: 하나님→그리스도→천사→요한→교회→종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섭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되었다. 요한은 이것을 시청각 설교 형태로 교회들에게 전달하였다.

(2) 계시록에 관한 축복(1:3)

(가) 이해하고 예언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3) 계시록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1:11, 13, 14)

(가) 계시록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목양적인 설교이다.

(4) 계시록의 기록 범위(1:19)

가) 네 본 것: 과거(1장)—고난

(나) 이제 있는 일: 현재(2-3장)—고난

(다) 장차 될 일: 미래(4-22장)—승리

나. 천상의 인자의 환상(1:9-20)

(1)인자 같은 이(Like a Son of Man)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다. 이 특별한 용어가 쓰인 곳은 구약성서의 경우 시편과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이고, 신약성서의 경우 공관복음서와 사도행전(7:56) 그리고 계시록이다. 에스겔은 자기 자신을 호칭할 때 100회 이상 ‘인자’란 표현을 사용하였고, 시편에서는 단순히 사람을 호칭하는 말로써(8:4; 80:17), 에녹1서에서는 초인간적 존재로 선택받는 자를 말할 때, 랍비 아키바(Akiba/132-135)는 다윗왕국의 메시아를 말할 때 사용하였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계시록과 동일한 표현을 써서 ‘인자와 같은 이’(like a son of man)란 말을 두 번(7:13, 10:16) 사용하고 있다. 다니엘서의 ‘인자와 같은 이’가 계시록의 ‘인자와 같은 이’하고 연관이 있는 표현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두 묵시록은 모두 종말론적 왕국의 통치자를 ‘인자’로 표현하였다.

중요한 것은 신약성서에서의 ‘인자’란 표현이 예수님께만 사용된 표현이란 것이고, 특히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을 때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고, 제3자가 예수님을 일컬어 ‘인자’란 호칭을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3자가 예수님을 일컬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 ‘랍비,’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오실 그이’ 또는 ‘선지자’와 같은 호칭들을 사용하였다.

성서에서의 인자호칭은 세 가지 범주에서 사용되었다. 첫째는 지상에서의 예수님을 호칭할 때 사용되었다(막 2:10, 27; 마 11:19; 8:20; 12:32; 16:13; 13:37; 눅 6:22; 19:10; 22:48).

둘째는 ‘오실 그이’ 곧 메시아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되었다(막 8:38; 14:26, 62; 마 24:44; 27:37; 10:23; 13:41; 16:28; 19:28; 24:30, 39; 25:31; 눅 12:8; 17:22, 30; 18:8; 21:36). 여기서 ‘오실 그이’는 유대인들의 희망, 하티크바(Ha-Tikvah)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다. 유대인들에게 ‘오실 그이’는 아직 한 번도 오지 않은 모쉬아크(Moshiach)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한번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재림주 메시아이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인자’란 바로 이 재림주 메시아를 말한다.

셋째는 마가복음서에 쓰인 수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수난자 인자’이다(막 8:31; 9:9, 12, 31; 10:33, 45; 14:21, 41; 마 12:40). 수난자 인자는 마가 자료에만 나타나 있는 마가 특유의 메시아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인자’가 민중의 슬픔과 수고와 고통에 마침표를 찍고, 그들에게 영광의 나라를 안겨 줄 메시아이기 때문에 ‘수난자 인자’란 개념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 유대인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 인자가 굴욕과 수난과 죽음을 당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그가 세상을 심판해야 할 권능과 영광의 메시아 인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심판주 메시아 인자사상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재림주 메시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없는 기독교만의 특징은 수난자 인자 메시아 개념인 셈이다.

‘수난자 인자’ 사상에서 나온 것이 영혼구원이다. 이 영혼구원은 현재구원으로써 미래구원을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 이 땅의 삶 속에서 약속받고, 인침(직인)받아, 미리 맛보고, 누리는 축복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사상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영광의 인자’ 사상만 있는데, 이것은 육체구원, 이스라엘 민족구원, 이스라엘 나라 회복 사상으로써 아직 이뤄진 일이 없는 미래구원을 말한다. 우리 기독교에서 고대하는 주님의 재림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사상이다.

밧모섬은 중죄인들이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하던 곳이었는데, 사도 요한은 이미 백세가 훌쩍 넘은 노인이었기 때문에 주로 기도동굴에서 소일했다고 한다. 주후 92년경 소아시아에 황제의 기독교 탄압이 있었는데, 요한은 주후 95년부터 96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사망할 때까지 대략 1년 6개월 정도 밧모섬에 머물렀고, 석방되어 에베소에 돌아와서 같은 해인 주후 96년 혹은 주후 100년경에, 요한이 예수님보다 열 살가량 더 어렸을 것으로 추정됨으로, 90세 혹은 94세에 소천하셨다고 전한다.

(2)인자 환상의 내용

요한은 백세가 넘는 노구로 박해받아 유배되었고, 주일 날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고, 사람들이 가장 난해하게 생각하면서도 가장 깊은 관심을 갖는 명작을 90세가량에 남겼다. 하나님의 일에 나이의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준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정황은 주님의 날에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던 중이었다. 일요일에 기도하던 중에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게 된 것이다.

사도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은 오른손에 일곱별을 쥐고, ‘일곱 줄기 일곱 개의 금 등대들(Menorah) 사이에 선 ‘인자와 같은 이’였다. 일곱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을 상징하였고, 일곱 줄기 일곱 개의 금 촛대는 일곱 교회들을 상징하였다.

‘일곱 줄기의 일곱 개의 금 등대’는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 첫째는 일곱 줄기 금 등대가 완전한 빛의 상징이란 점이다. 원래 이 일곱 줄기 금 등대는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상징물이다. 일곱 줄기에 일곱 개의 금 등대라면, 총 49개의 금 등잔이 빛을 발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는 50를 말하는 오순절의 의미를 생각나게 하는 숫자이다. 둘째는 이 일곱 줄기 금 등대가 교회의 상징이란 점이다. 등대의 특징은 빛에 있고, 이 빛은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며,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며, 구원의 빛이다. 이런 고귀한 사명(mission)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셋째는 이들 등대들의 빛이 강한 폭풍을 맞아 꺼질 위기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눈을 떠 본 것은 능력의 구세주였다. 그가 환상을 통해서 본 ‘인자 같은 이’는 ‘장차 오실 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자, 폭풍과 분노의 파도를 잔잔케 하신 자,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자였다. 그가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이나 백설 같고, 눈은 불꽃같고, 발은 화덕에 달궈진 놋쇠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고, 오른손에 일곱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로마 검이 뻗어 나오고, 얼굴은 해가 세차게 비치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에 내몰린 교회들 사이에 서서, 세차게 흔들리며 꺼질 것 같은 교회들의 불꽃에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긴장한 모습으로 금방이라도 무슨 행동을 취하실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 ‘인자 같은 이’의 모습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모습은 대제사장의 모습이다. 둘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눈은 불꽃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모습은 엘리야나 세레 요한과 같은 예언자의 모습이다. 셋째, 오른손에 일곱별이 있고, 일곱 금 등대 사이를 거

닐며, 입에서 좌우에 로마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취는 것 같은 모습은 왕의 모습이다. 이들 모습들은 사도 요한이 본 '인자 같은 이'가 완벽한 그리스도이시란 점을 밝혀 준 것이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이처럼 완벽하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에게 궁극적인 또는 최후에 값진 승리를 안겨줄 승리자이다. 그분은 처음이며 마지막일 뿐 아니라, 살아 있는 자요, 한 번은 죽었으나 영원무궁 하도록 살아 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진 자이다.

다. 지상의 일곱 교회(1:4-3:22)

(1) 계시록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졌다(1:4,11).

(가) 왜 일곱인가?: 3(하나님) + 4(세상/땅) = 7(완전, 안식, 기록, 복됨)

(나) 왜 소아시아의 교회인가?: 요한은 밧모섬에 유배되었고, 에베소는 요한의 사역지이며, 일곱 교회는 인근지역의 교회들이기 때문이다.

(2) 교회에 주는 칭찬과 책망(2:1-3:22)

(가) 에베소: 교리를 보수하고 있으나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는 책망을 받고 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생사여탈권을 가진 분, 곧 오른 손에 일곱별을 붙잡고, 일곱 금등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소개되었고, 문제의 심각성으로 지적된 것이 처음 사랑이 식었다는 것이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사이에 혼인(사랑)서약으로 관계가 맺어진 데 있다. 만일 사랑이 식는다면, 이 혼인이 깨질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혼인(사랑)서약은 사랑해도 그만이고, 사랑이 식어도 그만

인 그런 남녀사이의 애정문제하고는 크게 다르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사랑이 있고 없고는 애정문제가 아니라, 생사문제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권태기에 빠진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하라(2:5)는 권면을 강한 어조로 주고 있고, 끝까지 그 사랑을 유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서 먹게 하겠다(2:7)고 약속하셨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의 수고가 있었고, 고난을 잘 참고 잘 견뎠으며,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여 용납하지 아니하고 배척하였다. 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다. 그러나 첫 사랑을 버린 일은 생사가 걸린 반드시 회개해야만 되는 일이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머무실 때에 마리아는 주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였고,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다. 말씀을 경청하는 쪽을 택한 마리아가 음식준비에 분주한 마르다보다 좋은 몫을 차지한 것이고, 또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행위의 수고와 인내도 소중한 것이고 칭찬받을만한 것이지만, 첫 사랑을 간직하는 일이 더 소중하고 모든 일에 우선된다는 말씀이다. 부부가 아무리 서로에게 맡겨진 일을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 충실하다고해도, 피차 사랑이 식어버려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의무로 사는 부부이지, 행복한 부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도 부부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성도의 본분을 다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한다.

(나) 서머나: 저주가 없다.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함으로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고, 오히려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2:10)고 당부하였다. 여기서 ‘충성’은 ‘신실’을 말하고, 신실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죽기까지 신실하라’ 또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행한 서약을 지키라’ 또는 ‘목숨 바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라’는 말씀이다. 그래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2:11)고 말한다. 죽는 것이 사는 것임을 말한 것이다. 주님의 특징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2:8)으로 서머나 교회에 소개한 것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한 것이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요 11:25-26).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었다. 이 당시 터키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큰 도시들마다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고, 그들보다 훨씬 늦은 시기에 설립된 기독교를 크게 핍박하였다. 기독교 핍박의 주된 이유들로는 첫째로 누가 메시아인가라는 견해차 때문이었고, 둘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교의 문의 개종자들, 곧 유대교의 손님격이었던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훨씬 자유롭고 오픈된 기독교로 다시 개종했기 때문이었다. 사도 바울이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고,” 둘에 한 번 맞고, 수없이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고, 목말랐던 것은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월계관을 씌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다) 버가모: 이단을 용납함으로 경고를 받고 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경고는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진 주님의 입의 말씀으로 시작된다.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

라당의 가르침을 좇는 이단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로 그들과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버가모는 사탄이 살고 있고, 그의 왕좌가 있는 곳이라고 했다.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한 곳이라고 했다. 강진 후에 더 강한 여진을 맞듯이, 그야말로 위기에 위기를 맞고 있는 곳이었다. 이토록 위험하고 살벌한 곳에서조차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놓지 않았으며,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니콜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다. 만일 회개치 않으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로 그들을 치겠다고 말씀하였다. 그러나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감추어 둔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겠다고 하셨다.

여기서 흰 돌은 경주에서의 승리자와 재판에서 무죄를 선언 받은 자들에게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대의 법정에서는 흰 돌과 검은 돌을 사용해서 유무죄를 결정하였다고 한다. 흰 돌은 무죄를 의미하였고, 검정 돌은 유죄를 의미하였다. 또 노예가 해방될 때 그에게 흰 돌을 주었는데, 때때로 새로운 이름이 그 돌 위에 새겨졌다고 한다. 또 흰 돌은 싸움에서 15번 이상 승리한 투사에게도 주어졌다. 이렇듯 흰 돌은 자유와 명예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흰 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세상을 승리한 그리스도인이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

☞니고라당과 발람의 교훈☞

니고라당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두 번 사용되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고라당의 행위를 배척하였으나 버가모 교회에는 니고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니고라당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로 해석되어지고 있다. 첫째는 교권주의를 의미한다는 설이다. 니고라당에서 ‘니콜라오스’의 어원은 ‘니코’(niko)와 ‘라오스’(laos)의 합성어이다. ‘니코’(niko) 즉 ‘우세하다’는 뜻이고, ‘라오스’(laos)는 ‘백성’이란 뜻이다. ‘백성에 우세하다,’ 즉 ‘백성을 지배하다’라는 뜻이 니고라당의 의미란 것이다. 그러므로 니고라당은 교권주의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 다른 견해는 니고라당이 영지주의를 의미한다는 설이다. 주후 180년경에 프랑스 리옹의 이레내우스(Irenaeus, *Against Heresies* 1.26.3; 3.10.6)와 주후 200년경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Miscellanies*, 3.4.25f)는 안디옥의 니콜라오스(Nicolas of Antioch)가 니고라당으로 알려진 영지주의 이단의 창시자로 보았다. 이레내우스의 제자로서 로마의 감독이 된 히폴리투스(Hippolytus, *Refutation of All Heresies*, 7.24)도 니콜라오스가 “건전한 교리를 버리고, 삶과 음식 모두에 무관심할 것을 습관적으로 가르쳤다.”고 하였다. 또 클레멘트는 니콜라오스가 금욕주의자가 되었고, 그의 추종자들이 후에 그의 가르침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변질시켜 니고라당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은 육체와 율법을 악하게 보았고, 악한 육신을 다스리기 위한 금욕주의나 육신을 함부로 다루는 방탕주의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영지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행하던 해 받음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할 뿐 아니라, 음행을 부추겼다.

버가모 교회에는 니콜라당의 가르침을 좇을 뿐 아니라, 발람의 교훈을 좇는 무리도 있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생활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진입하기 위하여 여리고성 맞는 편 요단강 건너편 모압평지에 진을 친다. 이 때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을 초대하여 바알의 신전이 있는 브올산에 올라가 이스라엘을 저주토록 하였다. 싯딤이란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과 알고 지내면서 바알브울을 섬기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염병을 퍼트려 2만 4천명이 죽는 엄청난 벌을 내리셨다.

염병이 번진 싯딤은 사막문화권이 끝나고 농경문화권이 시작되는 관문과 같은 곳이다. 예로부터 항구도시에는 흥등가가 발달했다.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하던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농경문화권의 첫 관문인 이곳 싯딤에서 바알종교에 접하게 되었다. 바알은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되기 위해서는 비로써 상징되는 하늘의 남신과 밭으로 상징되는 땅의 여신 사이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실제로 바알종교의식은 바알신전의 남녀 사제들과 예배자들 사이에서 만나 이루어지는 행위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이러한 예배행위는 광야에서 오랜 텐트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혹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훼는 모습도 없고, 모습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볼 수도 없었다. 신화도 없고, 여신도 없고, 여사제도 없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모두가 남성들뿐이었다. 이런 메마른 종교의식에 식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숭배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끝없이 받았던 유혹이 바로 바알숭배였다. 아무튼 이스라엘사람들의 일부가 싯딤에서 성창과의 행위들을 경험했을 것이고, 그 결과 성적으로 깨끗했던 그들 대부분이 성병에 감염되어 죽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발람의 유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계

시록은 말하고 있다.

바알종교의 특징은 향락문화에 있다. 돈과 성, money와 sex를 섬기는 현대문화는 현대판 바알종교이다. 현대인들은 돈과 성을 최고의 가치로 숭배하고 있다. money와 sex는 현대인들의 우상이다. 니콜라당의 특징은 방탕문화에 있다. 법질서를 무시하고 몸을 함부로 내맡기는 현대문화는 현대판 니콜라당이다. money신(神), sex신(神)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향락문화를 섬기는 발람의 교훈을 좇지 말라는 주님의 경고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 무법과 방탕문화를 좇는 니콜라당의 행위와 영지주의적 방탕주의를 버리라는 주님의 경고를 마음 속 깊이 새겨야 한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보상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영생이란 보물이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강한 충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라) 두아디라: 이단에게 권세를 줌으로 책망을 받고 있다.

두아디라 교회에 메시지를 보낸 주님은 그 눈이 이글거리는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빛난 놋쇠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되었다. 손에 철 몽둥이를 쥐고 질그릇들을 후려칠 것 같은 심판주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 철 몽둥이가 아무리 무섭고 파괴력이 강하다 해도 우리 신앙인들의 걱정거리는 아니다. 철 몽둥이를 걱정해야 할 자들은 우상숭배자들이다. 계시록이 주는 교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한 가지가 재앙과 저주로 설명되는 심판은 불신자들과 우상숭배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고, 구원과 위로로 설명되는 영생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심판과 재앙은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재앙과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무어라고 말씀하셨는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두아디라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교회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칭찬하셨고, 또 그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했다고 칭찬하셨다. 비단 천에 꽃을 수놓은 것처럼 나무랄 것이 없는 교회였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듯이, 그들 가운데는 이세벨의 유혹에 빠진 자들이 있었고, 교회는 그들을 용인하고 있었다. 주님은 이세벨을 향해서 “그는 스스로를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20절)고 하셨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21절)고 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가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겠다.”(22-23절)고 하셨는데, 구약성경 열왕기상에 보면, 이세벨과 그의 자녀들의 처참한 최후가 잘 기록되어 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좇지 않고, 또 사탄의 깊은 흉계에 말려들지 아니한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서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25-26절)고 하셨고, 또 “그는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셋별을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27-29절)고 하셨다.

여기에 언급된 쇠막대기 곧 철몽둥이는 통치자의 홀을 말한다. 이 홀은 정의와 심판과 천년왕국의 상징이다. 불신과 우상숭

배와 배신에 대한 징계의 무서움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탄의 흉계에 빠지지 아니한 남은 자들에게 나라들을 주어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천년왕국 때에 주실 통치권을 언급한 것이다. 샅별은 어둠의 잔당을 몰아내고 동터오는 아침을 불러오는 새벽별이다.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빛을 잃지 않는 자들, 곧 주님께 샅별을 받은 자들은 동터오는 승리의 날을 맞게 될 것이다.

두아디아 교회의 문제점은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을 용인한 데 있었다. 이세벨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구약성서 열왕기상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4대 임금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주전 930년경 솔로몬이 죽고, 41세라는 적지 아니한 나이에 통일 이스라엘의 국왕이 된 사람이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결혼동맹으로 맞이한 암몬 여인 나아마에게서 태어났다. 암몬 족속은 어린아이를 불태워 바치는 몰렉 혹은 밀곰이라는 가증한 우상을 섬겼는데, 나이 많아 판단력이 흐려진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섬긴 종교였다.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 통일 이스라엘의 4대 임금이 된 데서 남북분열의 비극이 초래되었다.

성서가 솔로몬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성군으로 묘사한 것은 역대기 역사가들의 국가이념의 핵심인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과 그의 나라의 비극은 이방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이웃국가들과 결혼동맹을 맺어나간데 있다. 결혼동맹으로 이방여인들이 궁에 입성할 때, 반드시 자신들의 신과 제사장들과 몸종들을 동반한다.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사당과 처소를 마련해 줘야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였고,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우상을 섬기는 신당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고는 하나 그가 지은 성전과 하나님은 그가 끌어들이는 우상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런 악행은 솔로몬 자신의 파멸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분열을 야기하였다.

이방인과의 통혼은 혈통의 순수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순수성을 문제 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싫어하신 것은 혈통이 섞이는 것을 싫어한 것이 아니고, 혼합신앙을 싫어하신 것이다. 솔로몬이 타락한 것은 외국인 신부들과 통혼함으로써 젊고 예쁜 그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들의 가증스런 종교의식에 불려 다녔기 때문이었다.

☞이세벨의 최후와 야훼신앙의 승리☞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 50년쯤 지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강력한 왕이 나타났는데, 그 이름이 오므리(885-874B.C.)이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국제사회에 알릴만큼 뛰어난 왕이었다. 그러나 아들 아합(874-853B.C.)을 바알신 제사장 출신이자 레바논(시돈)의 왕 옛바알(Etbaal)의 아리따운 딸 이세벨과 혼인시켜 결혼동맹을 맺게 한 것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 이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극이 시작 되었다.

이세벨은 미색을 갖췄을 뿐 아니라, 사특한 여인이었다. 솔로몬의 부인 암몬 사람 나아마가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 바치는 가증한 밀kompl란 이방신을 들여와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산당을 짓게 하고 그 예배에 참석케 한 것처럼 이세벨은 아합의 권세를 이용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훼를 버리고 바알을 숭배토록 했다. 그 결과 엘리야와 광야 굴에 숨은 칠천 명을 제외한 모든 백성이 바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삼년 육개월간 지속되었다. 이 기간에 백성들은 극심한 가뭄과 배고픔까지 참아내야 했다.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었다. 마음이 여리고 나약한 사람이었다. 반면에 이세벨은 아합을 조정하고 부추긴 사람이었다. 나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에도 아합은 정당한 값으

로 사기를 원했지만, 이세벨은 간계를 부려 사람들로 하여금 나뭇을 돌로 쳐 죽이게 하고 탈취했다. 이처럼 이세벨은 피도 물도 없는 악독한 여인이었다. 이토록 사특하고 악독한 이세벨을 오므리는 머느리로 맞아들였고, 이세벨은 야훼 하나님 신앙을 말살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무력으로 강요하였다. 두말할 나위 없이 거부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따를 뿐이었다. 그 단적인 예로써 이세벨은 야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수없이 잡아 죽였다.

이 암울한 난세에 영웅이 났으니, 그가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였다. 엘리야는 담대하게 아합과 이세벨에 대항하였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고 통보하고 있다. 아열대 사막기후에다 수리시설이 없던 2,850여 년 전에 3년 넘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3년 넘게 비가 내리지 않던 어느 날 엘리야는 아합에게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갈멜산에 모여서 아합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인지, 엘리야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한판 붙어보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대 1로 참 하나님을 가리는 대결을 펼쳤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결장인 갈멜산에 모였다. 엘리야는 물려든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으라.”(왕상 18:21)고 통보했다. 그러나 백성들은 유구무언 대답이 없었다.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대결방법은 각각의 팀 앞에 송아지 한 마리씩 잡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각자의 신을 불려 불이 붙게 하는 것이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정오 때부터는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여 피를 흘리며 바알과 아세라를 불렀다. 그러나 끝내 응답이 없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 백성들로 하여금 가까이 오게 하고 무너진 야훼의 단을 수축하였다. 열두지파의 수효대로 돌을 취하여 단을 쌓고 단 주변으로 도랑을 파고 송아지를 각 떠서 나무위에 올린 다음 도랑에 물을 길어다 채우게 하였다. 준비를 마친 엘리야는 오후 3시경에 단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말려버렸다. 엘리야와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의 승리였다. 바알과 아세라는 흑암에 처한 인간들의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거짓 신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번제물을 태울 수가 없었다. 엘리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모험을 단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대승을 거뒀다.

대결직후 엘리야는 백성들과 함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붙잡아 기손 강가로 데려가서 모두 처형시켰다. 이뿐 아니라, 아합왕은 거짓 선지자들의 충고로 전투에 나가 싸우다가 전사했고, 그 피를 개들이 핥았으며,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와 그가 앞세운 장군 예후의 쿠데타 때에 이세벨은 내시들에 의해서 창밖으로 던져져 그 피가 담과 말에 튀겨 죽었으며, 그

시체는 짓밟히고 말았다. 왕과 왕후에 이어서 자녀들까지 가문이 멸문당하고 정권이 바뀌는 비극을 맞았다. 이것이 박해세력의 최후였다. 박해가 시작된 지 삼년 반만에 얻은 야훼신앙의 승리였다.

이러한 명백한 과거의 승리사건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다. 주님께서 2장 20절에서 이세벨을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11장에서 엘리야를 두 증인의 한 사람으로 등장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칭찬하셨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용인되고 있는 이세벨의 우상숭배와 음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계할 것을 단호하게 경고하셨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바알종교의 특징은 향락문화이다. 돈과 성, money와 sex를 섬기는 현대문화가 현대판 바알종교이다. 현대인들은 돈과 성을 최고의 가치로 숭배한다. 그래서 money와 sex는 현대인들의 우상이다. 이 현대판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진 자들에게 주님은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고,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고 충고한다. 끝까지 이기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였고, 셋별을 주겠다고 하셨다.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빛을 잃지 않는 자들은 머지않은 날에 동터오는 승리의 날을 맞게 될 것이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 유리 바닷가에 서서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속에 끼여 승리의 합성을 외치며 승리의 노래를 목 놓아 부르게 될 것이다.

(마) 사데: 칭찬이 없다. 영적 생명이 빈약함으로 책망을 받고 있다.

예수님께서 사데 교회에 주신 말씀은 “깨어나라,” “굳건하게 하라,” “굳게 지키라,” “회개하라”로 요약될 수 있다.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는 말씀은 사데 교

회 성도들의 건강상태와 형편에 대한 진단이고, “깨어나라,” “굳건하게 하라,” “굳게 지키라,” “회개하라”는 말씀은 처방이다.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 건강한 것 같지만, 건강하지 못한 상태, 말씀을 받고 들었지만, 기억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잠자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상태, 의식하지 못한 사이 어느덧 병이 깊어진 상태가 사데 교회의 현주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데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다. 그들을 일컬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받을 보상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니는 것이고,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며,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걸만큼 충성스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형제나 친구처럼 아끼신다는 뜻이다. 성결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만큼 주님과 가까운 관계란 뜻이다. 주님께서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실 만큼 친밀한 사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자기가 입은 야훼신앙의 옷, 자기가 입은 그리스도 예수신앙의 옷, 자기가 입은 그리스도인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친구이다.

주님이 가지신 일곱 영과 일곱별은 성령님과 전령 천사들을 말한다. 주님은 이들이 전한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말고, 귀담아 들으라고 명령하셨다. 그 말씀이 바로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는 명령이다.

(바) 빌라델비아: 저주가 없다. 끝까지 참음으로 칭찬을 받고 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주님께 받은 책망이 없다는 점이다. 그들은 비록 힘이 적으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고,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지

켰다. 그들은 작지만 순수한 신앙공동체였던 것 같다. 주님은 그들에게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켜 오히려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주님이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게 하시며, 보호하겠다고 하셨다.

주님은 유대교 회당을 사단의 모임이라고 폄하하셨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대경륜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우상과 교만에 빠져서 기독교를 이단시 하고, 핍박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이기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써 두겠다.”고 하셨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소개되었다. 다윗은 왕국, 곧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다가올 세상, 장차올 세상을 상징한다. 따라서 ‘다윗의 열쇠’는 왕국의 열쇠를 말한다. ‘성전’과 성전의 ‘기둥,’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 등이 장차올 세상 곧 유대인들이 꿈에도 희망하는 ‘올람하바,’ 다윗 왕국의 회복 곧 영원한 이스라엘 나라와 연관된 말씀이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유대왕국의 회복을 고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왕국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 나라가 기독교라는 것, 그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Christian)이란 이름이 바로 그들 위에 써둔 ‘새 이름’이라는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Christian Church’라 부른다는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교훈이다.

☞ 귀 있는 자는 들으라 ☞

계시록 2-3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 가운데 하나가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는 명령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하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마가복음 8장 14-21절을 보면, 제자들이 먹을 사람은 많은데, 빵이 한 개밖에 없는 것을 걱정하다가 “바리새와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잘못 알아듣고, 오해한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이 탄식이 바로 사데 교회에 주신 말씀과 다르지 않다. 마가복음 7장 32-35절에 예수님께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 ‘에바다’란 아람어를 기록하고 있는 유명한 이적이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 귀에 꽂아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에바다’ 곧 ‘열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곧장 풀려 말이 분명해 더라고 적고 있다. 여기서 핵심 구절은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였다.”이다. ‘열리고,’ ‘풀리고,’ ‘말이 분명했다’이다.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이 분명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문제점은 귀가 닫혀있었다는 데 있다. 굳게 닫힌 그의 어두운 귀 때문에 통일 이스라엘 시대가 닫히게 되고 분열왕국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르호보암은 세금을 낮추고 부역을 감하여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달라는 백성의 청(촛불시위?)을 거절했다. 원로들이 선정을 베풀어 백성의 고역

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는 것이 백성들의 충성심을 높이고 다윗왕가를 든든히 세우는 초석이 된다는 충언을 거부하고, 백성들을 더욱 거칠게 밀어붙여 불평과 불만을 잠재워야 한다는 젊은 사람들의 간언을 따랐다. 그 결과가 유다와 베냐민 두 부족만 남고 나머지 10개 부족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서 갈라섰다. 다윗왕가에서 갈라선 10개 부족은 느밋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여 사마리아 지역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다. 르호보암은 귀가 닫혀 있어서 백성들 사이에서 떠도는 루머와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루머와 신음소리는 민심이요, 민심은 천심이며, 천심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지 못했다. 그 결과가 통일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쪼개 놓은 것이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탈출에 성공하여 가나안 땅에 그토록 소원했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대 구원 사건이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던 80세 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 모세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앞에 선 것과 반대로 바로는 귀를 닫았다. 그 결과가 이집트 전역에 미친 열 가지 재앙이었다. 당하지 않아도 좋았을 비극적 재앙을 열 가지나 당했고, 사람과 짐승에 관계없이 처음 난 것들이 모두 죽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다.

엘리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던 아합과 이세벨은 가문이 멸문당하는 비극을 초래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던 유다 왕,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 예레미야는 국제 정치 판도를 꿰뚫고 있었다. 예레미야는 앗수리아와 이집트의 쇠퇴를 읽고 있었다. 여호야김 때인 주전 609-598년에는 유다왕국의 멸망이 코앞에 닥쳤다는 징조들이 많았다.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에서 앓수리아와 이집트의 연합군을 전멸 시켰고, 이로 인해서 이집트는 유다왕국에 대한 영향력을 잃고 쇠퇴의 길을 걸었으며, 앓수리아는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이 임명한 왕이었지만, 바벨론의 멍에를 벗으려고 애를 썼다. 이 때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에게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이집트에 의지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이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민족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아 죽음의 위기를 수차례 맞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다윗언약과 성전과 왕권이 유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여호와와 성전’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민족주의자들과 정치지도자들에게 성전을 마술적으로 믿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금식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없었던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주전 598년에 바벨론에 반기를 들었다가 바벨론의 공격 직전에 사망했다. 결국 유다왕국은 다음 해인 597년에 바벨론 군에 능욕을 당했고, 왕위에 오른 지 3달밖에 되지 못한 18살의 여호야긴과 지도자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 주전 605년에 이어 두 번째 유배였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숙부이자 요시아(주전 609년 므깃도에서 전사)의 아들인 시드기야를 잡혀간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왕으로 임명했다. 시드기야 역시 친 이집트 파와 하나냐와 스마야와 같은 거짓 예언자들의 영향을 받았다. 하나냐는 포로가 된 사람들이 신속하게 돌아오고, 성전 보물들도 곧 되찾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의 예언을 부정했고, 유다가 회복되려면 적어도 70여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에 반기를 들지 말고 복종하도록 권했다. 예레미야가 민족주의자들에게 혹심한 핍박을 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들의 닫힌 눈과 막힌 귀로 보고 들을 때, 예레미야는 분명 매국노였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토굴과 구덩이에 던져졌으며,

시위대 뜰에 갇히기도 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충고를 거부하고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집트의 편에 서서 주전 589년에 바벨론에 반기를 들었다. 바벨론은 시드기야의 반역 소식을 듣고 즉시 군대를 예루살렘에 파견했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다. 바벨론 군사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했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 소경을 만든 다음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제3차에 걸쳐 바벨론의 침략과 유배가 완결되고 유다왕국은 철저히 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예레미야만큼은 끝내 살아남았다.

복음서와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여러 차례 나온다. 듣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며 재앙을 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란 점을 암시한 말씀들이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다(롬 10:17). 귀를 열어 듣는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이다.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읽는 것은 개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이다. 사람이 귀를 열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사람 개인이 사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게 된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갖고 못 갖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사) 라오디게: 칭찬이 없다.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앎으로 책망을 받고 있다.

라오디게아는 터키 소아시아도 브루기아 지방의 주요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다. 해발 300미터 높이의 언덕 위에 세워졌으며, 20여리 떨어진 계곡 건너편 더 높은 지역에는 유명한 온천 도시 히에라폴리스(파묵칼레)가 위치하고 있었다. 라오디게아는 수로를 통해서 온천수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오는 동안 식어서 미지

근하게 되었다. 또 라오디게아는 50여리 떨어진 산지 골로새로부터 냉수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이 물 역시 외부기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수로를 타고 오는 동안 미지근하게 되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한 물은 모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라오디게아는 온천물이 주는 치료효과를 누렸을 뿐 아니라, 궂병을 치료하는 특효약과 ‘콜로니온’이라 불리는 안약의 산지로도 이름이 나 있었다. 또 목화와 목축으로 옷감이 생산되던 산업과 금융의 중심지였고, 사치품도 많았다고 한다. 비잔틴 시대에는 주교가 상주했던 도시라고 하니까 그들이 누렸을 번영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주님은 이곳 성도들의 미지근한 믿음을 책망하셨다. 미지근한 믿음은 열정이 식은 믿음을 뜻한다. 주님은 열정이 식은 믿음의 가치를 아주 낮게 보셨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부유하고 싶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헌신이 없는 믿음, 구경꾼의 믿음, 아웃사이더의 믿음생활을 책망하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교제를 끊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좋을 듯 싶다. 식탁교제와 연관된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본문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고대 근동세계에서는 식탁교제를 언약체결과 연결지어 생각했다. 주님과 한 식탁에서 먹을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과 언약관계에 있거나 그 공동체의 회원이어야 한다. 또 주님의 가족이거나 친구이어야 한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공동체의 회원들이자 가족이고 친구들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전혀 받지 못했다. 오히려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 번영을 누렸던 라오디게아 인들이 영적으로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

고 눈이 멀고 별거벗었다는 것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통달하였다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신 것과 같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갖지 못한 자들이고,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무식한 자들이라는 이 현실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더 큰 아이러니는 그들이 그런 실상을 모른다는 데 있다. 그들은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했다. 물질적인 풍요가 곧 바로 영적인 풍요로 이어진다고 착각했다. 물질적인 부요가 영적인 경건을 대신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신앙인들이 많다. 물질적인 성공과 세속적인 성공이 곧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주님은 성공이 곧 축복이라고 믿는 성공지상주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주고 있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먹고 살만하고 입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점검해 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영적으로 매우 가난하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다. 영적으로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별거벗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착각 속에 살았고, 하나님을 오해했으며, 잘못 믿고 있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한다. 만약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 주님의 권면대로,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야 한다. 부자가 되기 원한다면, 주님께 순도 높은 금을 사서 소유하고, 별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싶다면, 주님의 보혈로 씻긴 흰 옷을 사서 입고, 눈이 밝아지고 싶다면, 주님이 열어 주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한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재산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교훈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거둔 소출이 많아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비축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할 생각을 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경고한 말씀이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고 하셨고, 깨어있어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셨다. 그러면 주인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본문에서 중요한 주제는 누가 부유한 사람인가, 누가 수치를 드러내지 않은 사람인가, 누가 눈이 밝아진 사람인가라는 것이다. 불에 정련한 금을 주님께 산 사람, 흰 옷을 사서 입은 사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른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어휘는 ‘사다’는 말인데, 이 ‘사다’는 말은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는 말과 연결된다.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별거벗은 비참함을 면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불에 정련한 금’과 ‘흰 옷’과 ‘안약’을 어디서 살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본문은 이것들을 우리 주님께 사야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는 수고가 바로 그것들을 살 수 있는 값이라고 말한다. 단순하고 값싼 믿음 그 이상의 ‘고가의 믿음,’ ‘열정을 품은 믿음,’ ‘헌신의 믿음,’

‘수고의 믿음,’ ‘신실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고부가 가치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신실하신 주님, 참되신 증인,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마치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식탁교제를 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는 것이다. 첫 번째 것은 천국혼인잔치의 참여권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구원 받은 자가 누릴 특권이다. 이 두 가지 구원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 ‘불에 정련한 금’과 ‘흰 옷’과 ‘안약’을 사야 한다. 여기서 ‘사다’는 의미는 주님께 우리의 ‘고가의 믿음,’ ‘열정을 품은 믿음,’ ‘헌신의 믿음,’ ‘수고의 믿음,’ ‘신실한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 받는 것을 말한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 가운데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비유가 있다.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은 유명무실한 죽은 믿음이고 값싼 믿음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이 힘쓰고 노력해야 할 일을 세 가지이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손수 지어주신 가죽 옷으로 수치를 가린 아담과 이브처럼,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빨아 희게 한 옷을 입어 죄로 인해 드러난 수치를 가리는 것이며, 주님의 손의 터치를 받아 닫힌 눈이 열려 만물을 밝히 보고 주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값싼 믿음이 판을 치고, 온갖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쓴 눈먼

자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은 참혹한 세상이다. 이 점을 고발한 소설이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이다. 오늘날 사회는 다수의 눈먼 자들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아래 있고, 또 그것에 빌붙어 살기를 즐겨한다. 그러나 천국혼인잔치와 같은 흥이 되어나고, 진정한 의미의 주권이 행사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 뜬 소수자들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는 유일하게 눈이 멀지 아니한 한사람, ‘안과의사의 아내’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점차 회복되고, 인간애가 나타나고, 연대의식이 나타나고, 나눔의 정신이 나타나고, 타인에 대한 책임의식이 나타나고, 그런 이들의 희생과 헌신과 열정을 통해서 오랫동안 오물구덩이 속에서 헤매던 인간들이 별거벗고 깨끗하게 물로 씻듯이 되살아나기 시작한다. 한 사람의 열정과 헌신으로 많은 사람이 흰 옷으로 갈아입게 되고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3장 20절은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과 함께 먹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다. 여기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천국 혼인잔치를 상징하는 것이고, 지상에서는 예배 때의 성만찬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성만찬은 천국잔치를 미리 맛보고 그 축복을 미리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가져올 ‘울람하바’(장차올 세계)를 희망하는 유대인의 식탁은 제단에 가깝다. 특히 저녁식사는 매우 종교적이다. 장차올 메시아 왕국에서 먹고 마시게 될 친교의 상징이다. 유대문헌인 에녹1서 62장 14절도 "그리고 인자와 함께 그들이 먹고 자고 영원히 일어날 것이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오신 구세주 메시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성만찬은, 상징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장차 임할 영원한 나라의 천국혼인잔치를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이미 우리 가운데 한 차례 오셨고, 지금은 영으로서 임재하시는 주님과 친교식사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한 자들에게 주어질

메시아 만찬(Messianic banquet)은 죽어서 참여할 미래의 잔치로 끝나지 않고, 동시에 지금 여기서 맛보고 경험하는 어린양의 혼인잔치인 것이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진정 복된 자들이다.

(3) 일곱 교회의 지리적 위치

각 교회는 약 80KM 정도씩 떨어져서 소아시아 지방에 말발굽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시계 바늘 돌아가는 방향으로 에베소는 8시 방향에, 서머나 10시 방향에, 버가모는 11시 방향에, 두아디라는 12시 방향에, 사데는 2시 방향에, 빌라델비아는 3시 방향에, 라오디게아는 4시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일곱 도시는 지리적으로 일곱 지역을 도는 우편물 센터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특징

(1) 엄격한 의미에서 계시록은 서신이 아니지만, 서신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2) 각 교회의 상황에 관련된 간략한 인자의 특징이 소개된다.

(3) 각 교회는 행위에 따라서 칭찬과 권면과 책망을 받는다. 특히 교회들에게 “처음행위를 가지라”(2:5), “죽도록 충성하라”(2:10), “회개하라”(2:16), “굳게 잡으라”(2:25),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3:3),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3:11), “네가 열심을 내라”(3:19)는 말씀들로 권면하고 있다.

(4) 매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로 끝을 맺는다. 이로 보건대, 계시록의 말씀은 역사상에 나타난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5) 각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실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 끝까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2:7),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2:1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주겠다”(2:17), “새벽별을 주리라”(2:28), “이기는 자는 . . . 흰옷을 입을 것ियो,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3:5),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3:12),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3:21)는 말씀으로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

마. 결론: 인자와 교회와의 관계

인자는 교회의 머리되신 승리자이시다. 1장 12-20절의 인자의 환상은 박해와 고난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한 교회들을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다. 갈릴리 호수에서 돌풍을 만나 전복의 위기에 처하였을 때에도 말씀 한 마디로 배와 제자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께서 악의 세력에서 교회를 구원하실 모습이다. 인자의 보호 아래 있는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3.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4-6장)

가. 계시록의 전환(4:1)

(1) 지상에서 천상까지 예수와 교회에 대한 환상 이후 장면이 바뀐다. 둘째 환상이다.

(2) 시간이 바뀐다. “이 일 후에 . . .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4:1).

나. 천상의 보좌에 관한 환상(4:1-5:14)

(1) 보좌방(4:2):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배하시며 인간의

역사를 섭리대로 끌고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방이다.

(2) 보좌 주변의 무지개(4:3): 방 중앙에 보좌가 있고,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하나님을 둘러싼 중심 원에 벽옥(jasper)이, 두 번째 원에 홍옥(ruby)이, 세 번째 원에 비취옥(emerald) 같은 무지개가 놓여 있어서 하나님을 삼 겹으로 싸고 있다.

(3) 네 생물(4:6-9):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번째 원에는 네 생물이 동서남북에 위치하고 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았다.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 여섯 개씩 가졌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 또 장차 오실 분이시다!" 하고 상투스(sanctus/三聖唱)를 외치고 있다. 이사야 6장 1-3절에서도 볼 수 있는 그룹들(cherubim)이다. 에스겔 1장 5절, 10장 1-22절과 비교하라.

(4) 24장로(4:10-11):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과 교회의 12사도를 합한 수이다. 따라서 24장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대표한다. 네 생물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섬기는 천상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케류빔 천사들일 수 있고, 24장로들은 지상의 하나님의 선민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일 수 있다. 따라서 24장로들은 성전시대의 제사장들과 회당시대의 장로들 그리고 교회시대의 목회자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성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교회시대의 장로들은 지역교회들의 목회자들이었다. 이들은 단상 아래 다섯 번째 원에서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향해서 엎드려 영원무궁하도록 살아 계신 분께 경배 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만물은 주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하

고 외치고 있다.

계시록 1장의 인자가 천상의 환상이었다면, 2-3장의 일곱 교회는 지상의 환상이었다. 그리고 다시 4-5장의 보좌방은 천상의 환상이다. 계시록에서는 천상의 환상과 지상의 환상이 교대로 반복된다. 4-5장이 천상의 환상이기 때문에 6장에서는 다시 지상의 환상으로 바뀐다.

계시록 1장의 인자의 환상이 뿔기세덱 계열의 영원한 대제사장과 만왕의 왕과 신실한 예언자 그리스도였다면, 2-3장의 지상의 교회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세운 교회들이다. 히브리서의 언급대로,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자기 피로 세운 지상의 교회들을 위해서 천상의 참 성전에서 섬기시며,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러므로 계시록 4-5장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섬기시는 천상의 성전에서 이뤄지는 예배의 모습이다. 계시록 1-6장까지를 넓은 그림으로 보면, 1-3장이 천상의 그리스도와 고난당하는 지상 교회들의 모습이고, 4-6장은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갈등하는 세상사의 모습이다. 그러나 4-5장만을 따로 세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을 모신 천상의 참 성전과 그곳에서 펼쳐지는 참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된다.

계시록 4장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지상 성막의 구조부터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성막의 양식은 뜰과 성소로 구성되어 있다. 동쪽 출입구 쪽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과 성막 입구사이에 물두멍이 있었다. 성막 출입문을 열고 성소에 들어서면 왼쪽에 일곱 줄기 금등대가 있었고, 다시 성막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서면, 서쪽 벽면에 법궤가 있었다. 이 법궤의 뚜껑을 ‘시온소’라고 불렀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황금으로 만든 케루빌 천사 둘을 법궤의 뚜껑 양끝에

세워 시은소를 감싸게 하였는데,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보좌 주변의 네 생물과 동일한 천사들이다. 성막의 벽과 모든 기물은 금으로 입혔고, 일곱 줄기 등대와 케루빔 천사들은 황금덩어리를 두들겨서 만들었다. 그리고 천장의 양장들과 휘장 문에는 가늘게 꼰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케루빔 천사들을 수놓아 길게 늘어뜨렸다. 따라서 황금빛 찬란한 성막내부와 그곳에 놓인 기물들, 특히 법궤와 뚜껑 위의 케루빔 천사들의 모습은 하늘 보좌방의 모습을 축소시켜 놓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계시록 4장 1절의 ‘하늘에 열린 문’은 성막 문을 연상케 하고, 2-3절의 ‘하늘에 보좌’는 성막 지성소의 법궤 위 시은소를 연상케 하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재스퍼(jasper)와 루비(ruby)와 같았고, 에메랄드(emerald)와 같은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했는데, 이는 성소와 법궤와 케루빔 천사들의 황금빛 광휘를 연상케 한다. 또 4절의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보좌를 둘러싸고 앉은 24장로들은 유대교 회당예배 때에 단 앞에 앉는 장로들을 연상케 하며, 또 5절의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는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줄기 등대’는 성소의 금 등대를, 그리고 6절의 ‘수정처럼 맑은 유리 바다’는 성막 뜰에 있는 물두멍을, 그리고 6-9절의 ‘네 생물’은 법궤 위의 케루빔 천사들을 연상케 한다. 무엇보다도 네 생물과 24장로가 밤낮 쉬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보낸다는 점에서 4-5장의 장면은 지상 성막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연상케 하며 참 성전인 하늘 성소에서 드러지는 예배의 원형을 보여준다.

계시록 4장 3-5절의 ‘보좌’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전능하심의 상징이다.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5절의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서 ‘전지’ 곧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상징한다. 네 생물들의 여섯 날개들 안팎에 눈이 가득한 것도 지혜와 지식을 상징한다.

6절의 ‘보좌 앞에 있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 바다’는 성막 뜰에 있었던 물두명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두명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이나 제단에서 화제(火祭)를 하나님 앞에 사르기 전에 수족을 씻기 위한 물통이었다.

물은 침례의 모형이다. 늦으로 만든 물두명의 물로 수족을 씻는 것은 늦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와 침례를 통해서 죄를 씻고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 또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예배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 “성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 하라”는 출애굽기 30장 20절의 말씀은 이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4장 6절의 ‘수정처럼 맑은 유리 바다’가 15장 2절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로 설명되고 있다. 이 바다는 홍해를 상징한다.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건너야했던 죽음의 바다이다. 그러나 이 바다를 건너야 구원이 있다. 그들은 이 죽음의 바다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희생자 없이 무사히 건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홍해도하를 그리스도인들의 침례의 모형으로 설명하였다. 침례는 영적으로 죽음의 바다에서 죽고, 구원의 해변에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계시록 15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들의 활동무대요, 성도들에게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는 고해(苦

海)요, 세상이다. 고통의 바다를 이기고 극복한 성도들이 구원의 해변에 서서 큰 구원자요, 대승을 이끈 성도의 지도자들인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물두멍과 침례가 상징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씻은 후에 성소에 들어 갈 수 있었고, 번제단 앞에 나아가 제물을 바칠 수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은 바다로 상징되는 죽음의 세상을 건너 영원한 나라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침례는, 요나의 경우에서 보듯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바다에서 죽고, 구원의 해변에서의 부활을 상징한다.

그리스신화에서도 물은 흑암과 죽음을 상징한다. 그 반대로 해변은 흑암과 죽음의 터널을 벗어나 부활한 자들이 밝고 안전한 곳에 도달한 상태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상징되는 물은 빛과 환희의 세계인 구원의 해변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4장 6-9절의 '네 생물'은 에스겔 1장에 나오는 네 생물들과 매우 흡사하다. 그들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얼굴 모습을 가진 살아있는 네 생물들이다. 그들은 각각 날개들을 가지고 있는데, 계시록 4장은 여섯 날개를, 에스겔 1장은 네 개의 날개를 언급하고 있다. 에스겔서의 경우 날기 위한 날개가 두 개 더 있었을 것으로 보아 실제로 날개는 여섯 개였을 것이다. 그리고 날개들에는 눈들이 가득했다.

이들 네 생물들은 매우 중요한 천사들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 네 생물들이 사복음서 즉 사자는 마태복음을, 송아지는 마가복음을, 사람은 누가복음을, 그리고 독수리는 요한복음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경이 형성되지 아니한 1세기 말 상황에서 이들 네 생물들이 사복음서를 상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들 네 생물들이 사람의 네 가지 덕성 즉 사자는 숭고함과 충성을, 송아지는 힘을, 사람은 지능을, 그리고

독수리는 속도를 상징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 네 가지 덕성이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경건한 덕성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계시록 4장의 네 생물들은 지상의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된다. 사자는 야생동물을, 송아지는 가축을, 사람은 인류를, 그리고 독수리는 새들을 상징한다. 그리고 날개에 붙은 수많은 눈들은 지상의 생물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을 상징할 수 있다.

그러나 계시록 4장에서는 이들 네 생물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리는 것이다. 이들이 부른 찬양을 예배학에서는 상투스(sanctus) 또는 삼성창이라 부른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예배 때에 이 상투스를 불러오다가 개신교 예배에서 사라졌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삼위의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 번 ‘거룩’을 찬양한다.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서 6장 3절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와 계시록 4장 8절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이다. 이 상투스를 숫자로 표시한다면, 777이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다. 그분은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7), 거룩(7), 거룩(7)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거룩하다’의 뜻은 ‘완전하다’이다.

24장로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정확하게 누구인가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24장로들은 높은 계급의 천사일 수도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할 수도 있다. 24장로들 가운데 12장로들은 모든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12 사도들일 가능성이 있고, 다른 12장로들은 모든 구약의 성도들

을 대표하는 야곱의 12아들 또는 12부족일 가능성이 있다.

24장로들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찬양할 뿐 아니라, 자기들의 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고 있다. 그들의 이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복종을 상징한다. 관이 상징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 성취하고 소유하고 누리게 된 그 어떤 축복과 생명조차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심으로 왔다는 사실을 상징한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려는 열망을 상징한다.

(5) 수많은 천사(5:11-12): 여섯 번째 원에는 수를 알 수 없는 수천수만의 천사들이 있고, 그들은 큰소리로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

(6) 우주와 만물(5:13): 마지막 일곱 번째 원에는 우주와 모든 생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도 큰소리로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다.

(7) 어린양(5:6-10):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을 켜 촛대와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어린양은 보좌와 네 짐승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다. 이 어린양 예수는 승리하신 자요, 일곱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요, 피로서 성도를 사신 자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이다.

(8) 하나님의 영(4:5): 어린양에게 뿔 일곱과 눈 일곱이 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즉 전지전능하신 성령이시다.

(9) 일곱 인으로 봉한 책(5:1-5): 인류 역사의 악순환을 담은 책이다.

인물에 관련해서 볼 때, 계시록 4장은 천상의 보좌방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에게 초점이 클로즈업되어졌고, 5장은 두루마리와 어린양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4장은 창조주 하나님, 5장은

예수 그리스도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배와 관련해서 볼 때, 4장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고 있고, 5장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 뿐 아니라, 그들을 뺄뺄하게 둘러선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어린양'에게 찬양과 경배를 돌려보내고 있다.

또 5장 13-14절에서는 온 우주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 모두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려보내고 있다.

결국 계시록 4·5장은 천상과 지상의 모든 피조물, 곧 온 우주만물이 예배해야 할 대상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이란 점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성령님을 추가하면, 성삼위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들이심을 교훈하고 있다. 그밖에 것들, 곧 영계의 천사들, 마귀, 귀신들,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지상의 만물들은 예배를 받을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드려야 할 자들이란 점을 교훈하고 있다.

☞ 두루마리 책이 주는 교훈 ☜

계시록 5장 1-5절은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6장에서 설명되었는데, 인류 역사의 악순환을 담고 있다. 이 두루마리 책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교훈은, 이 책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 있다는 점이다. 인류의 역사는, 그것이 정복과 번영이든, 전쟁과 죽음이든, 기근과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든, 순교와 평화이든, 하나님의 우편 손에 놓여 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역사를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주관자이시다. 그 점을 인정하고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신앙인들은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잘못되어져가도 하나님이 정해 놓은 시간, 곧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실 때(카이로스)를 믿음과 인내로써 기다리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계시록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눈을 떠 바로 인식하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신실한 믿음과 불굴의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계시록은 끝내 이긴 자들이 받을 축복과 잠시 동안의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받을 무서운 응보(네 메시스)에 대해서 상세하고 드라마틱하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두루마리 책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교훈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책이 안팎으로 글이 가득하고, 일곱 인으로 봉해졌다는 점이다. 이것은 책의 권위와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할 뿐 아니라, 성서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준다고 믿는다. ‘일곱 인으로 봉해졌다’는 말은 두루마리 책을 일곱 개의 끈으로 묶고, 그 일곱 개의 매듭에 진흙을 이겨 바르고 각각의 진흙매듭에 인장을 찍었다는 뜻이다. 종이봉투와 풀이 없던 2천 년 전 그리스 로마시대의 사람들은 문서를 보낼 때, 끈과 진흙과 인장을 사용하였고, 통에 넣어 인편으로 보냈다. 문서를 봉인한 이유는 수신자 이외의 사람들이 개봉할 수 없도록 하여 기밀을 유지하고, 수신자의 권한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두루마리 책에서 발견되는 세 번째 교훈은 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개봉하여 밝혀낼 자격자가 누군가라는 점이다. 하나님의 역사경륜의 큰 뜻을 공유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독생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마치 어린양이 성막 뜰 제단 앞에서 죄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당하였듯이,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으신 어린양 그리스도님 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두루마리 책에서 발견되는 네 번째 교훈은, 성막예배와 회당

예배의 관점에서 볼 때, 두루마리 책은 법궤 속에서 나온 것으로써 기독교 예배의 두 가지 핵심 가운데 하나인 말씀선포, 즉 설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법궤 뚜껑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곧 성서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세상사와 무관하지 않다. 고통당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관심과 구원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담긴 책이 성서이다. 그 책의 내용을 풀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이다.

☞ 어린양이 주는 교훈 ☜

계시록 5장 6-12절은 어린양에 관한 것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속에서 책을 받아' 일곱 인들을 하나씩 차례로 부수고 개봉하여 성도들에게 전달할 자격자는 어린양이다. 어린양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교훈은, 이 어린양이 기독교 예배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 예배의 두 가지 핵심 가운데 하나인 주의 만찬, 곧 성만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어린양의 피 흘림이 빠진 예배는, 성막예배나 기독교예배의 관점에서 볼 때, 예배라고 볼 수 없고, 유대교 회당예배 성격의 기도회라고 볼 수 있다.

어린양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교훈은, 어린양이 보좌와 네 짐승과 장로들 사이에 서서 그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신다는 점이다. 이것은 예배의 중요 부분의 하나인 찬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부른 찬양은 이렇다. "주께 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땅 위에서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네 생물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섬기는 천상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케

류빔 천사들일 수 있고, 24장로들은 지상의 하나님의 선민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일 수 있다. 따라서 24장로들은 성막과 성전시대의 제사장들과 회당시대의 장로들 그리고 교회시대의 목회자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성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교회시대의 장로들은 지역교회들의 목회자들이었다. 영계에 속한 수천 수만의 천사들도 큰 소리로 어린양을 이렇게 찬양하였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마땅히 받으실 만합니다."

어린양에서 발견되는 세 번째 교훈은, 이 어린양 예수님이 승리하신 자요, 자기 피로서 성도를 사신 자요,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일곱 뿔은 전능을 상징하고, 일곱 눈은 전지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표현한 것이다. 또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책을 받아 우리에게 전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드러내 보이신 독생자 하나님이시다.

어린양에서 발견되는 네 번째 교훈은, 어린양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거문고와 향이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린다는 점이다. 성서는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예배의 중요 부분의 하나인 기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 휘장 입구에 분향단(출 30:1-10; 37:25-29)이 놓여 있었다. 가로, 세로가 각각 45.6센티미터, 높이가 91.2센티미터의 조각목 상자인데, 정금으로 썼다. 향은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만들어 사용했다.

분향은 기도를 상징한다(시 141:2, 계 8:3,4). 출애굽기 30장 7-8절을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사를지며, 또 저녁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

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라는 말씀이 있다. 이것은 분향단의 향불이 꺼져서도 안 되고, 중단돼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듯이,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고(살전 5:17),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중단해서도 안 된다.

☞천상예배의 클라이맥스☜

계시록 5장 13-14절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천상예배의 클라이맥스 장면이다. 4장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고 있고, 5장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 뿐 아니라, 그들을 뺄 수 없이 많은 천사들까지 합세하여 ‘어린양’에게 찬양과 경배를 돌려보내고 있다. 그리고 5장 13-14절은 종합적으로 온 우주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 모두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려보내고 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 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으로 화답하였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다.

다. 지상의 일곱 인(6:1-8:6)

☞계시록의 특징☜

계시록은 천상과 지상의 내용을 교대로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점차 그 강도를 높여가는 게 특징이다. 6장에 나오는 일곱 인재양보다 8-9장에 나오는 일곱 나팔재앙의 강도가 더 강하고, 일곱 나팔재앙보다 16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재앙의 강도가 더 강하다. 이 세 가지 재앙들 사이의 강도는 각각 3.3배씩이다. 일곱 인재양의 강도를 10으로 본다면, 일곱 나팔재앙의 강도는 33이고, 일곱 대접재앙의 강도는 100이다.

계시록은 희망과 절망의 내용을 교대로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점차 그 강도를 높여가는 게 특징이다. 1장에서 인류의 희망이신 천상의 그리스도를 인자의 환상으로 보여준 후에 2-3장에서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고 말씀하신 것처럼, 4-5장에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세상을 이기신 ‘어린양’의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보여준 후에 6장에서 고통당하는 세상사를 보여준다. 그리고 7장에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있다’(계 7:10)는 것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세상이 주는 환란을 이기고 나서 낙원에서 누릴 참 안식을 보여준 후에 8-9장에서 하나님과 그 어린양을 배척하고 반역한 자들이 받게 될 천벌을 보여준다. 그리고 14-15장에서 또 다시 천상에서의 축복을 강도 높게 보여준 후에 16장에서 더욱 강도 높은 지옥에서의 천벌을 보여준다.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19장 이후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인류의 궁극적인 희망인 지복의 세계를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계시록은 성도들에게 희망의 책이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배신자들에게는 저주의 책이 된다.

계시록 6장은 성도들뿐 아니라 온 인류가 다 함께 세상에서 겪는 절망에 관한 글이다. 특히 일곱 인들은 지상에서 펼쳐지는 ‘죽음의 향연’ 또는 역사의 악순환에 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의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이지, 그 끝을 말한 것은 아니다. 계시록의 끝은 인류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계시록은 인류에게 절망을 보여 주려한 게 아니라, 희망으로 활짝 열린 미래를 보여주려 한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여 주는 데서 출발하여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가 세우실 영원한 참 안식의 세계,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을 보여줌으로써 대단원

의 막을 내린다.

계시록은 많은 부분에서 구약성서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계시록 6장은 제5장에서 언급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 있었던 두루마리 책의 내용이 공개되는 곳이다. 구약 성서에도 이와 비슷한 두루마리 책과 공개된 네 마리 말들에 대한 글이 있다. 에스겔 2장 9-10절에 보면,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쪽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고 하였고, 스가랴 6장 1-8절에는 백마, 홍마, 흑마 그리고 얼룩 점박이 말들이 나온다. 에스겔 2장의 두루마리 책은 계시록 5장의 두루마리 책과 어떤 분명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만, 스가랴 6장의 네 종류의 말들은 계시록 6장의 네 마리 말들과 분명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일곱 인들의 내용☜

(1)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은 백마와 그 말을 탄자의 거뜨된 승리를 말하고 있다(1-2절). 백마를 탄자는 활을 가졌고 승리를 상징하는 관을 쓰고 있다. 이 장면은 프랑스의 조각가 부르텔(1861-1929)이 1910년에 조각한 ‘활 쏘는 헤라클레스,’ 주전 333년에 터키 이소스(Issus)에서 치러진 알렉산더와 다리우스 3세의 전투장면을 묘사한 모자이크 그림, 또 이 전투를 리얼하게 재구성한 영화 ‘알렉산더’는 영웅들의 폭발적인 힘과 정열을 최대치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2절에서 백마 탄자는 그가 활을 가졌고, 승리의 관을 썼다는 점에서 헤라클레스와 알렉산더 대왕을 연상시켜준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1절과 14절에서는 최후의 승자인 그리스도와 그 뒤를 쫓는 성도들이 백마를 타고 있다. 만약 이 백마 탄자가 그리스도시라면, 유대교적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이 고대

하는 군주적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 되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는 복음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해주는 것이 된다. 그러나 만약 이 백마 탄자가 역사적인 영웅호걸들의 상징이라면, 크고 작은 국제분쟁들을 상징하게 된다.

어떤 해석자는 백마와 그 탄자가 2천 년 전 상황에서 볼 때, 로마제국이 제일 두려워했던 파르티아 군대를 암시한 것이고, 파르티아 군사들은 활쏘기의 명수로서 주후 62년 로마에 대항해서 대승을 거둔바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기독교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군주적 메시아가 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셨다는 점이고, 그 점이 기독교와 유대교를 다르게 만드는 주된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란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은 복음서와 서신들에서 언급된 구세주로서의 메시아를 말하기보다는 심판주와 재림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군주적 메시아 상을 보여주고 있다.

(2) 계시록 6장에서 둘째 인은 홍마와 그 탄자가 땅에서 평화를 걷어 버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의 권세를 갖고 있음을 말한다(3-4절). 여기서 붉은 말은 내란과 동란과 같은 동족간의 전쟁을 말한다. 이런 전쟁들은 모든 나라들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역사의 악순환이다.

(3) 계시록 6장에서 셋째 인은 흑마와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음을 말한다(5-6절). 여기서 검은 말과 저울은 기근을 상징한다(렘 14:2). 기근과 연관된 저울질에 관한 내용은 구약성서 여기저기에 많다(겔 4:9-16, 레 26:26). 저울질은 배급을 위한 것으로써 주린 배를 채울 수 없는 적은 양과 관련된다. 6절에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치 말라.”는 말씀은 기근으로 인해서 평상시보다 열배 정도 곡물가격이 치솟은 것을 말한다. 노동자가 하루 벌어 살 수 있는 밀의 양이 한 사람이 먹을 양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세 식구 정도의 가족이 먹기 위해서는 밀보다 맛과 영양이 떨어지는 보리를 사야한다.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는 말은 기근이 뿌리 깊은 나무들이 말라죽을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올리브유는 성령님의 임재를, 포도주는 부활을 상징한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부활의 믿음으로 뿌리를 깊게 내린 성도라면, 엘리야처럼 극심한 기근을 당해도 타격이 심하지 않을 것이다.

(4) 계시록 6장에서 넷째 인은 청황색말과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뒤따르고 있음을 말한다(7-8절). 청황색은 시체의 색깔로서 전쟁과 기근을 제외한 각종 질병과 사고들로 인한 죽음을 상징한다.

이상의 네 종류의 말들과 그 탄자들은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들로써 사람들을 죽인다. 그러니까 인류의 사분의 일이 국내외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각종 사고와 맹수의 공격을 받아 죽게 된다는 것이다(8절).

(5) 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은 순교자들과 그들의 탄원을 말한다(9-11절). 그들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8-9장에서 펼쳐질 일곱 나팔재앙이다.

(6)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은 천체의 파멸과 최후심판을 말한다(12-17절). 일곱 인들 가운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지상에서 펼쳐지는 역사의 악순환을 그린 것이고, 여섯 번째 인은 처참한 천체와 지구의 파멸을 말한다. 큰 지진이 나고, 해와 달과 별이 죽고, 하늘과 산과 섬들이 사라진다. 17절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견딜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7)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은 8장 1절에 나오는데, 반시간 정도의 침묵을 말한다. 앞선 여섯 개의 인들에서 언급된 '죽음의 향연' 또는 역사의 악순환을 배경으로 천상과 지상 모두에 적용되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이 점은 일곱 번째 나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반시간 정도의 침묵은 제7장에 언급된 대

로 큰 환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구원 받은 성도들이 죽은 후 낙원에서 누리는 참 안식을 말한 것일 수 있고, 또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세상을 심판하는 일곱 나팔재앙이 내리기 직전의 무거운 침묵을 말한다. 따라서 일곱 번째가 의미하는 것은 ‘안식’과 ‘죽음’이다. 중요한 것은 일곱 나팔재앙이나 일곱 대접재앙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 받은 성도들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란 점이다. 그것은 마치 고센 땅에서 고통당하던 히브리인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안식의 상징인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완고한 이집트인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과 같다.

☞성도의 기도와 응답☜

일곱 번째 인을 떼신 이후의 일을 보면(8:1),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받고(8:2), 나팔 불기를 예비하는 장면(8:6)과 다른 한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 담는데, 이 향들은 성도의 기도들과 함께 보좌 앞 금단에 드려질 것들이다(8:3). 그리고 향의 연기와 성도들의 기도들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8:4).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보좌 앞에 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고 있는데, 금대접에 담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하였다. 5장 8절과 8장 3절을 종합해 볼 때, 금향로에 담긴 향은 예배의 향, 곧 향기로운 예배 그자체이거나 성도의 기도들이거나, 또는 금향로 속에 예배의 향과 성도의 기도들이 함께 담긴 것을 말한 것일 수 있다. 이것은, 광야시대 때, 성막 뜰 제단에서 피어나는 제물의 향기와 성막 지성소 앞 금향로에서 피어나는 향의 연기가 합하여 지성소 서편 끝 법궤 뚜껑 위 시온소, 곧 하나님의 보좌에로 피어들었던 것의 원형과 실체로써 천상성막 지성소의 보좌를 웅위한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사의 손에 들려진 금향로에서 피어나는 향은 다름 아닌 성도

들의 예배와 기도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상달되어지는 것임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 한 예로써 소개된 기도가 주님께 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제단 아래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한 것이다(6:9). 이 탄원은 6장 10절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이다. 이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상징인 흰옷을 주시며 11절에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바로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곱 나팔재앙이다.

라. 결론: 하늘 보좌방과 일곱 인과의 관계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님은 온 우주만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둘째, 인류역사는 국내외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이다.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파멸이다. 따라서 세상에서 안식을 구하는 자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다.

셋째,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눈이 열린 자이고, 귀가 열린 자이며, 깨닫는 자이다. 눈을 떠서 우주의 주관자이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세상을 이기신 어린양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인들은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잘못되어져가도 하나님이 정해 놓은 시간, 곧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실 때(카이로스)를 믿음과 인내로써 기다리게 된다. 계시록은 끝내 이긴 자들이 받을 축복과 잠시 동안의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받을 무서운 응보(네메시스)에 대해서 상세하고 드

라마틱하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4. 보응의 하나님(7-9장)

가. 하나님의 백성의 인침과 분리(7:1-12)

(1) 천상 백성과 지상 백성의 분리

계시록 7장은 천상의 환상이다. 지상에서 펼쳐질 일곱 나팔재앙을 피한 구원받은 큰 무리에 관한 환상이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한 것처럼, 이들 천상에 운집한 셀 수 없는 무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환상에서 천상의 구원받은 백성과 지상의 저주받을 백성이 구별되고, 철저히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시 103:12), 하늘의 백성과 땅의 백성이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계시록 7장 1절에 네 천사가 나온다. 그들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네 바람을 붙잡고,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여기서 ‘땅의 네 모퉁이’는 동서남북 지구를 말하고,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2절) 자들이다. 그들은 여섯 번째 나팔재앙 때에 놓일 유프라테스 강에 매여 있던 네 천사들과 관련된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멸망을 상징하는 그 어떤 재앙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된 자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고, 생사 화복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연단을 위한 고난을 당할지 언정 결코 재앙을 받지 않는다. 그들의 뭇은 영생의 복이지 저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3절의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두 백성의 철저한 분리는 구약성서에 서 그 모형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모형은 노아의 방주와 홍수심판에서 볼 수 있다(창 6-8장).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사람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는 안전한 방주에 피신하여 재앙을 면하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홍수로 재앙을 당했다. 구원의 방주에 탄 하나님의 사람들과 창일한 물속에서 참담하게 죽어 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여기서 대홍수는 영멸재앙의 모형이다.

두 번째 모형은 소알로 피신한 롯과 두 딸과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타는 소돔과 고모라에 남은 불행한 사람들에서 볼 수 있다. 천사들의 경고를 받고 안전한 곳에 피신한 롯과 두 딸의 안도와 불세례를 받아 타 죽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여기서 소돔의 멸망은 영멸재앙의 모형이다.

세 번째 모형은 출애굽 사건 때 열 가지 재앙을 면한 고센 땅에 분리된 히브리 민족과 열 가지 재앙들을 고스란히 당한 이집트인들에서 볼 수 있다. 고센 땅의 히브리인들이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어린양의 피는 계시록에서 말한 '인침'과 깊은 관련 있다. 양의 피를 발라 장자들과 모든 만배의 죽음을 면한 히브리인들의 안도와 시체들을 앞에 놓고 통곡하는 이집트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여기서 장자재앙은 영멸재앙의 모형이다.

네 번째 모형은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해변에 운집하여 부르는 해방의 노래, 구원의 노래와 붉은 바다 속에서 허우적이며 죽어가는 이집트 마병대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여기서 홍해의 물은 영멸재앙의 모형이다. 계시록은 이런 대조적인 모습들을 상기시켜줌으로써 시편 1편의 노래처럼, 우리가 서야할 자리, 앉아야할 자리, 걸어야할 길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계시록 7장은 천상의 환상이다. 지상에서 펼쳐질 일곱 나팔재앙을 피한 구원받은 큰 무리에게 주어진 '안식'에 관한 환상이

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 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한 것처럼, 이들 천상에 운집한 셀 수 없는 무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환상에서 천상의 구원받은 백성과 지상의 저주받을 백성이 구별되고, 철저하게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시 103:12), 하늘의 백성과 땅의 백성이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계시록 7장 1절에 네 천사가 나온다. 그들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네 바람을 붙잡고,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여기서 ‘땅의 네 모퉁이’는 동서남북 지구를 말하고,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2절) 자들이다. 그들은 여섯 번째 나팔재앙 때에 놓일 유프라테스 강에 매여 있던 네 천사들과 관련된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멸망을 상징하는 그 어떤 재앙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된 자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고, 생사 회복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연단을 위한 고난을 당할지 언정 결코 재앙을 받지 않는다. 그들의 몫은 영생의 복이지 저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3절의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두 백성의 철저한 분리는 구약성서에서 그 모형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모형은 노아의 방주와 홍수심판에서 볼 수 있다(창 6-8장).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사람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는 안전한 방주에 피신하여 재앙을 면하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홍수로 재앙을 당했다. 구원의 방주에 탄 하나님의 사람들과 창일한 물속에서 참담하게 죽어 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여기서 대홍수는 영멸재앙의 모형이다.

두 번째 모형은 소알로 피신한 롯과 두 딸과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타는 소돔과 고모라에 남은 불행한 사람들에서 볼 수 있다. 천사들의 경고를 받고 안전한 곳에 피신한 롯과 두 딸의 안도와 불세례를 받아 타 죽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여기서 소돔의 멸망은 영멸재앙의 모형이다.

세 번째 모형은 출애굽 사건 때 열 가지 재앙을 면한 고센 땅에 분리된 히브리 민족과 열 가지 재앙들을 고스란히 당한 이집트인들에서 볼 수 있다. 고센 땅의 히브리인들이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어린양의 피는 계시록에서 말한 ‘인침’과 깊은 관련 있다. 양의 피를 발라 장자들과 모든 만배의 죽음을 면한 히브리인들의 안도와 시체들을 앞에 놓고 통곡하는 이집트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여기서 장자재앙은 영멸재앙의 모형이다.

네 번째 모형은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해변에 운집하여 부르는 해방의 노래, 구원의 노래와 붉은 바다 속에서 허우적이며 죽어가는 이집트 마병대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여기서 홍해의 물은 영멸재앙의 모형이다. 계시록은 이런 대조적인 모습들을 상기시켜줌으로써 시편 1편의 노래처럼, 우리가 서야할 자리, 앉아야할 자리, 걸어야할 길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2)십사만 사천

신약성서에는 ‘인침’ 곧 ‘도장 찍음’이란 말이 여러 번 쓰였다. 특히 바울은 구원의 상징인 천국 ‘기업’(땅)의 ‘약속’(약정서)의 ‘보증’(선수금)과 ‘인침’(인감 찍음)으로써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13-14절과 고린도후서 1장 21-22절에서 말씀하셨다. 따라서 ‘인침’은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한 것처럼, ‘인침’은 하나님의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계시록 7장 4절에 유대인 열두지파에서 인 맞은 자가 십사만 사천 명으로 나온다. 각 지파마다 일만 이 천 명씩 선별되었다.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로 볼 것인가 그것이 문제이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역사적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어왔다. 요셉 지파는 므낫세 지파(민 13:11)로 불렸고, 레위 지파를 빼고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넣어 지파족장으로 삼기도 하였다. 계시록 7장에서는 레위와 요셉이 들어간 대신에 단과 에브라임이 빠졌다. 단 지파의 경우, 확실히 무슨 문제가 있었던 같다. 다른 지파들은 후손들이 생존해 있는 반면, 단 지파만큼은 지금도 행방이 묘연하다고 한다. 단 지파가 단군의 조상일 것이란 억측도 있지만, 우스개로 하는 말이지 사실성은 희박하다.

‘십사만 사천’은 뒤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동일 집단일 수도 있고, 다른 집단일 수도 있다. 만일 다른 집단이라면, ‘십사만 사천’은 열두 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뽑힌 유대인 집단일 것이고, ‘십사만 사천’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같은 집단이라면, ‘십사만 사천’이 문자적인 숫자이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144,000은 144x1000에서 나온 숫자인데, 계시록 21장 17절을 근거로 볼 때, 144는 새 예루살렘 성벽의 두께이고, 1,000은 ‘영원’을 뜻한다. 또 144는 12x12에서 만들어진 숫자이다. 구약의 열두 지파와 신약의 열두 사도를 의미할 수 있다. 또 12는 3(하나님)x4(세상/땅)에서 나온 숫자일 수 있다. 3은 성 삼위 하나님을, 4는 세상과 땅을 의미한다.

중요하고 명백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구원 받을 사람이 각 지파에서 공평하게 문자적인 12,000명씩 144,000명만 선택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숫자는 지나치게 운명적이고 획일적이며, 인간의 책임과 응답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신구약성서 메시지에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십사만 사천’을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동일한 숫자로 볼 수밖에 없고, '십사만 사천'이란 숫자를 문자적인 숫자가 아닌 상징적인 숫자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십사만 사천'은 9절에 언급된,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와 동일한 숫자이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10절)고 외치며, 승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다(계 15:2-3).

이들 '십사만 사천'은 14절의 말씀처럼, 큰 환란을 당하였지만, 준향이처럼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말이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희게 빨았다는 것이다.

(1) $144,000 = 144(\text{성벽의 두께}) \times 1,000(\text{영원})$. 계시록 21:17.

(2) $144 = 12(\text{열두 지파의 족장}) \times 12(\text{열두 사도})$

(3) $12 = 3(\text{하나님}) \times 4(\text{세상/땅})$

나. 큰 환란과 어린양(7:13-17)

(1) '환란'과 '재앙'의 차이

계시록 7장 14절의 '큰 환란'은 '재앙'하고 다르다. 환란은 믿음의 연단을 위해 잠시 받는 시련을 말하는 것이고, 재앙은 불신자들이 당할 저주를 말하는 것이다. 계시록 7장은 성도들이 '대 환난'을 잘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후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도열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섬기는 장면이다. 이들 승리자들이 받을 보상과 위로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친히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며,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신다는 것이다. 여기

서 배고픔, 목마름, 태양열, 눈물은 큰 환난의 내용이자 상징들이다.

순교사를 보면, 박해 중에 성도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배고픔이다. 곤장, 주리틀림, 각종 고문, 옥살이보다 더 고통스런 것이 배고픔과 목마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까? 동일한 내용이 이사야 49장 10절에서 발견된다.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사야서와 요한 계시록에서 나타난 메시아상은 유대교인들이 고대하는 ‘군주적 메시아상’하고 비슷한 면이 있다. 복음서에 나타난 메시아상은 모성적이고 여린 십자가에 못 박힌 어린양 구세주이다. 이 메시아상은 유대교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기독교만의 독특한 메시아상이다. 그러나 계시록에서의 메시아상은 여린양으로 설명되기는 했어도, 부성적이고 강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주, 재림주이시다. 천상 보좌방의 어린양으로 묘사된 것만 아니라면, 유대교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상과 거의 비슷하다. 그렇더라도 다른 점이 더 많다.

첫째, 유대교인들의 종말론은 내세적이지 않고 현세적이다. 계시록에 묘사된 천상의 메시아를 수용하기 어렵다.

둘째, 유대교인들의 종말론은 우주적인 것보다 민족적이다. 계시록에 묘사된 우주적 메시아를 수용하기 어렵다.

셋째, 유대교인들의 종말론은 모세나 다윗과 같은 순수인간 메시아에서 출발되기 때문에 천상에서 내려오는 메시아를 수용하기 어렵다.

넷째, 유대인 또는 유대교에 기우려진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재림 직후에 유대왕국으로써 천년왕국이 출범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보통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재림 직후에 있을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다. 구원 받은 성도들은 죽은

직후부터 낙원에서 복된 삶을 누리다가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직후에는 즉시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시록 7장의 장면은 구원 받은 성도들이 보상과 위로를 받는 낙원의 상황을 보여준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구원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천국생활을 맛보고, 죽어서 낙원에 이른 후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도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천사'들과 더불어 밤낮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섬기게 된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의 어린양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면, 그분과 함께 모든 성도들도 부활하여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분의 뒤를 따라 지상으로 내려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에서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된다.

다. 지상의 일곱 나팔 재앙(8:7-9:21, 11:15-19)

(1)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공통점과 차이점

계시록 8-9장은 일곱 나팔재앙에 관한 환상이다. 7장에서 일곱 나팔재앙을 피한 구원받은 십사만 사천과 큰 무리에 관한 천상의 환상을 보여준 후 연이어서 8-9장에서 나팔수인 일곱 천사들이 순서대로 부는 나팔소리와 함께 지상에 쏟아지는 일곱 가지 재앙을 환상으로 보여준다. 8장에 처음 네 개의 재앙들이 나오고, 9장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나온다. 그리고 한 장 건너뛰어 11장 15-19절에 일곱 번째가 나온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곱 인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겠다. 첫째, 일곱 번 인봉된 두루마리 책에서 일곱 개의 인을 한 개 한 개 차례로 떼시는 분은 어린양 한 분뿐이시다. 첫 번째부터 넷 번째 인까지는 역사의 악순환으로써 국내외 전쟁과 기근과 각종 질병과 사고들로 인해서 닥친 죽음을, 다섯 번째 인은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거룩한 죽음을, 여섯 번째 인은 천체와 지구의 죽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일곱 나팔재앙은 나팔수들인 일곱 천사들이 한 분씩 차례로 여섯 번째까지 나팔을 불 때마다 지상에 쏟아지는 재앙들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다른 여섯 개의 인이 소개된 6장에 함께 나오지 않고, 한 장을 건너 뛴 8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일곱 번째 나팔재앙도 나머지 여섯 개의 나팔재앙이 소개된 8-9장에 함께 나오지 않고 한 장을 건너 뛴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15-19절).

셋째, 일곱 번째 인이 앞선 여섯 개의 인들에서 언급된 ‘죽음의 향연’ 또는 역사의 악순환을 배경으로 천상과 지상 모두에 적용되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 것처럼, 일곱 번째 나팔도 이중적이다. 일곱 번째 인은 8장 1절에 나오는데, 반시간 정도의 침묵을 말한다. 여기서 반시간 정도의 침묵은 제7장에 언급된 대로 큰 환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구원 받은 성도들이 죽은 후 낙원에서 누리는 참 안식을 말한 것일 수 있고, 또 폭풍전야의 고요처럼 세상을 심판하는 일곱 나팔재앙이 내리기 직전의 무거운 침묵을 말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은 11장 15-19절에 나오는데, 일곱 번째 인의 침묵과는 달리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나라가 될 것과 상벌에 관한 큰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였고, 이어서 천상의 성전이 열리고, 지성소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보였다. 그리고 나서 10-13장에 소개된 중간계시들을 잠시 보여준 후에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100퍼센트의 강도로 14-15장에서 구원받은 천상백성의 모습을, 16장에서 무서운 일곱 대접재앙들을 보여준다.

넷째, 일곱 번째가 의미하는 것은 ‘안식’과 ‘죽음’이다. 중요한 것은 일곱 나팔재앙이나 일곱 대접재앙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 받은 성도들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란 점이다. 그것은 마치 고센 땅에서 고통당하던 히브리인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안식의 상징인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완고한 이집트인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과 같다.

요한계시록 8장 1-5절은 일곱 나팔재앙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란 점을 보여준다. 일곱 번째 인을 떼신 이후의 일을 보면(8:1),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받고(8:2), 나팔 불기를 예비하는 장면(8:6)과 다른 한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 담는데, 이 향들은 성도의 기도들과 함께 보좌 앞 금단에 드리울 것들이었다(8:3). 그리고 향의 연기와 성도들의 기도들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8:4). 이 일을 하는 천사의 이름이 ‘라파엘’로 알려져 있다.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보좌 앞에 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고 있는데, 금대접에 담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하였다. 5장 8절과 8장 3절을 종합해 볼 때, 금향로에 담긴 향은 예배의 향, 곧 향기로운 예배 그자체이거나 성도의 기도들이거나, 또는 금향로 속에 예배의 향과 성도의 기도들이 함께 담긴 것을 말한 것일 수 있다. 이것은, 광야시대 때, 성막 뜰 제단에서 피어나는 제물의 향기와 성막 지성소 앞 금향로에서 피어나는 향의 연기가 합하여 지성소 서편 끝 법궤 뚜껑 위 시온소, 곧 하나님의 보좌에 피어들었던 것의 원형과 실체로써 천상성막 지성소의 보좌를 웅위한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사의 손에 들려진 금향로에서 피어나는 향은 다름 아닌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임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 한 예로써 소개된 기도가 주님께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제단 아래 영혼들이 홀린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한 것이다(6:9-10). 이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상징인 흰옷을 주시며 11절에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 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바로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곱 나팔재앙이다.

(2) 금향로의 향과 불

요한 계시록 8장 3-5절을 보면, 제단 곁에 서서 성도들의 예배의 향과 기도의 향을 금향로에 담아 하나님의 보좌 앞 금단에 드렸던 천사가 이번에는 같은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가다 땅에 쏟아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는 11장 19절의 말씀과 동일하다. 금향로에 관련된 이들 구절에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이 있다.

첫째, 천사가 손에 든 금향로에 담긴 것이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향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 향을 태우는 불이다. 그런데 향은 태워져 그 향기가 천상의 보좌에 상달되고, 불은 향을 태운 후에 잿더미에 버려지게 되고, 버려진 불은 잿더미의 쓰레기들을 태우게 된다. 예루살렘에는 힌놈골짜기이란 곳이 있었는데, 헬라어로는 ‘게헨나’(Gehenna)라 불렸다(마 5:22, 막 9:47). 이곳은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곳이었고, 또 동물과 죄인의 시체를 화장하는 곳이었을 뿐 아니라, 자식들을 몰렉신에게 불살라 바치기까지 했던 부정하고 음산하고, 늘 불과 연기가 피어오르는 잿더미 골짜기였다. 그래서 이곳 ‘게헨나’는 지옥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다.

둘째, 금향로에 담긴 향은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의 상징이고, 향을 태우는 불은 그들을 연단하는 박해를 상징한다. 그러나 연단의 불이 강할수록 향은 더 빠르게 타고, 그 향도 진하게 하를

로 피어오르게 된다. 그러나 향을 태운 불은 쓰레기더미에 버려지게 되고, 불과 연기를 피어오르게 한다.

셋째, 금향로에 담긴 향과 불은 천국과 지옥의 백성, 천상과 지상의 백성을 각각 상징한다. 또 향은 구원과 축복을, 불은 저주와 심판을 상징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에 성도들의 예배의 향과 기도의 향을 담아 보좌 앞 금향단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받으시고, 성도들을 환난에서 구원하시지만, 성도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던 자들을 위해서는 제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고 있다. 불을 쏟는 천사의 행위는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펼치기 위한 무대의 막을 여는 징소리와 같고, 그 불로 인해서 무서운 재앙들이 쏟아지게 된다.

넷째, 이런 점들 때문에 향로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분향하는 그릇이지만, 악인들에게는 재앙의 불을 쏟아내는 그릇이다. 평상시에는 성도들의 예배의 향과 기도의 향을 태우는 그릇으로 쓰이지만, 심판의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쏟아진 불처럼 저주의 불을 쏟아내는 진노의 그릇으로 쓰인다.

민수기 16장은 계시록의 향로와 불의 의미를 밝혀주는 모형적 사건이다. 민수기 16장은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운 다음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 성막 문 앞에서 생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모험을 펼치는 장면에 관한 기사이다. 사건의 발단은 레위 자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을 추종하는 250명의 족장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모세는 그들 가운데서 250개의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우게 한 다음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하였고,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하였다. 결과는 모세와 아론의 향로들 위에 피운 향기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받으시고, 나머지 250인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소멸되었다. 이 일을 원망하다가 염병에 걸려 추가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다. 족장들의 죽음은 향로의 불에 의한 것이고, 염병

에 의한 죽음은 불티와 재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향로는 염병을 멈추는 일에도 쓰이고 있어서 생사를 결정짓는 그릇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나팔과 재앙의 의미

중요하고 전통적인 개념들 가운데 한 가지는 축복이 지상에서 천상의 보좌에로 올라가고, 저주는 하늘에서 지상으로 쏟아진다는 점이다. 로댕의 ‘지옥의 문’과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 그렇다. ‘지옥의 문’은 조각 작품이고, ‘최후의 심판’은 벽화지만, 두 작품 다 구원받을 사람은 위(천국)를 향하게 하였고, 저주받을 사람은 아래(지옥)로 향하도록 하였다.

나팔은 전투에서 경고와 공격신호에 쓰인다. 나팔재앙과 관련해서 가장 특이한 구약성서의 모형적인 사건이 여리고 전투이다. 히브리 군사들은 여리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았고, 제사장 일곱이 각각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였다.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고나서 나팔수들이 양각나팔을 일제히 길게 불었으며, 군사와 백성들이 목청껏 합성을 질렀다. 나팔과 고함소리에 그만 그토록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다(수 6장).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쏟아지는 재앙은 심판과 저주를 의미하지만, 계시록의 기록 목적으로 볼 때, 재앙은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메시지이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주고, 불신자들과 박해자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쓰였다. 따라서 나팔재앙은 그 첫 번째 경고가 된다. 첫 번째이기 때문에 강도는 33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 강도가 약해서 일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고 9장 20-21

절에 적고 있다. 이 말씀의 모형은 출애굽 당시 바로의 강박한 마음에서 찾을 수 있다. 강박한 마음은 결국 더 큰 재앙, 곧 100 퍼센트 강도의 재앙을 불러오게 되고,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나팔재앙 다음에 대접재앙이 뒤따라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재앙은 성도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기도의 응답이다. 여리고 전투에서 보듯이 나팔소리는 악인들에게는 두려운 절망의 소리이지만 성도들에게는 희망의 소리이다. 재앙은 출애굽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탈출시키기 위한 공격전 개시사격과 같은 것이며, 재앙이 소낙비처럼 쏟아진다고 해도 그것은 적진을 향한 것이다. 9장 4절에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의 재앙은 그 모형을 출애굽 사건 때의 열 가지 재앙에서 찾을 수 있다. 8장에 실린 처음 네 개의 재앙은 차례로 땅의 삼분의 일이 불타는 재앙(출 9:13), 바다생물과 배의 삼분의 일이 죽고 파손되는 재앙(출 7:14f.), 강과 샘의 삼분의 일이 쓴물이 되는 재앙(출 15:23/마라), 또 햇빛, 달빛, 별빛 삼분의 일이 침해당하는 재앙(출 10:21f/흑암)이다. 이들 네 가지 재앙은 ‘불’과 ‘피’로 피해를 입는 것이 특징이다.

9장에 실린 두 개의 재앙은 메뚜기 떼로 인한 5개월 동안의 피해(출 10:1-20)와 2억 마병대의 공격으로 사람 삼분의 일이 죽는 재앙(출 11-12장/사망)이다. 이 두 가지 재앙의 공통점과 특징은 지옥과 그곳의 임금 마귀와 그 악령들에 관한 것이다. 메뚜기 떼와 2억 마병대가 악령들의 형상이다.

9장 1절에서 지옥 구덩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땅에 떨어진 별’은 12장 9절에 언급된 마귀이다. 온 천하를 피는 자로서 땅으로 쫓겨난 자이다. 그가 바로 9장 11절에 언급된 무저갱의 천사요, 악령들의 임금이다. 그의 이름, ‘아바돈’(Abaddon) 혹은 ‘아폴뤼온’(Apollyon)은 ‘파괴자’란 뜻이다.

메뚜기 떼와 2억 마병대는 지옥구덩이의 악령들의 형상이다. 실제로 메뚜기 떼는 불현듯 출현해서 5개월여 동안 파괴를 일삼는데, 지옥구덩이의 천사요, 임금인 마귀와 그 악령들의 파괴력을 메뚜기 떼에 비교한 것이다. 3절의 '전갈의 권세'나 7·9절의 '전쟁을 예비한 말들 같다'는 표현, 그리고 '금 같은 면류관,' '사람의 얼굴,' '여자의 머리털,' '사자의 이,' '철홍갑' 등은 모두 다 메뚜기 형상에 대한 문학적 묘사이다.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되었다 풀려난 네 천사들과 2억 마병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결박되었던 천사들은 정한 시기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일 자들인데, 그들이 예비한 2억 마병대는 '불빛,' '자주빛,' '유황빛,' '홍갑,' '사자 머리'의 형상을 하고 있고, 입으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뿜어내고 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강을 음부의 세계로 연결된 통로로 본다. 따라서 '큰 강 유프라테'는 지옥구덩이로 통하는 길목의 상징일 수 있고, 2억 마병대가 뿜어내는 '불과 연기와 유황'은 지옥의 불을 상징한다. 그렇다면, 2억 마병대도 메뚜기 떼처럼 지옥구덩이에서 올라온 파괴자의 악령들로 볼 수 있다.

이들 재앙들이 과거에 발생했거나 혹은 미래에 발생할 사건들인지, 아니면 단순히 영적인 교훈을 형상화시킨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 재앙들의 모형이 모세의 열 가지 재앙들 속에서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들 열 가지 재앙이 히브리인들에게 오랜 노예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해방과 가나안 땅의 안식을 선물했듯이, 계시록에서의 재앙은 이 땅에서 환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최후 승리와 영원한 안식이 주어질 것을 약속한 희망의 메시지요, 믿음과 인내를 촉구하는 경고의 메시지이다.

라. 결론: 큰 무리와 일곱 나팔 재앙과의 관계

나팔 재앙은 대접 재앙 보다 약 1/3정도의 강도를 가진 재앙

이다. 여기서 재앙을 대 환난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재앙은 성도를 괴롭히고 박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보복이다. 그러나 대 환난은 성도가 적대 세력에게 당하는 고난을 말한다. 하나님은 성도를 대 환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대 세력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신다. 마치 이집트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어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과 같다. 따라서 환난은 성도가 당하지만, 재앙은 오직 불신자들만이 당한다(7:3, 7장 9절과 14절 비교; 9:4; 16:2; 18:4).

5. 성도의 고난(10-13장)

가. 힘센 다른 천사와 작은 책(10장)

(1) '힘센 천사'와 두루마리

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에서 ‘힘센 천사’(another mighty angel)는 5장 2절의 ‘힘 있는 천사’(a mighty angel)와 동일한 천사일 가능성이 높다. ‘힘센’과 ‘힘 있는’은 같은 표현으로써 영어로 ‘mighty’라 한다. 다만 이 구절에서 묘사된 천사의 모습은 10장 1절이 훨씬 더 구체적이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했다. ‘힘센 천사’에 대한 이들 표현들에서, 먼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는 재림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는 4장에서 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닮았다. 또 ‘그 얼굴은 해 같고’와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는 1장에서 본 ‘인자’의 모습과 닮아 있다. 이들 묘사들은 영광과 주권과 권세를 말한 것으로써 높은 위치의 천사임을 말한다. 이 ‘힘센 천사’를 그리스도로 보는 이들도 있지

만, 계시록은 그리스도를 속죄양인 어린양으로 묘사하고 있고, 천사로 낮춰 부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힘센 천사’를 미가엘로 보는 것이 좋을 듯싶다. 그가 5장 3절에서 큰 음성으로 외친 질문,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는 ‘미가엘’의 뜻풀이인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와 비슷하다. 13장 4절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사단에게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겠느냐?”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힘센 천사’가 미가엘일 것이라는 믿음이 커진다.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와 그 책과 연관된 ‘힘센 천사’는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외쳤고,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의 뜻을 가진 미가엘 천사가 한 팀을 이뤄서 사단과 그로부터 권세를 받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는 이름을 가진 적그리스도의 팀, 곧 용과 짐승의 팀을 영적인 싸움에서 물리쳐 이기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13장 4절의 말씀, “온 땅이 짐승을 따르고” 그를 향해 외친,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겠느냐?”는 역설적으로 사단과 적그리스도가 허풍쟁이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준다.

계시록 10장 2절 상반절,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에서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 책’은 아마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양 그리스도께서 6장에서 인봉을 다 떼고 내용을 밝힌 그 두루마리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5-6장에서 본 두루마리가 작은 책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작다 크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측컨대, 그리스도께서 책을 다 펼치신 후에 ‘힘센 천사’에게 넘기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힘센 천사’의 손, 아마도 왼손에 들려 있는 것이 아닐까란 생각을 해본다. 원래 이 책은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었고, 그 책을 받아서 일곱 인을 하나씩 떼면서 펼쳐 보인 분은 어린양 그리스도이셨다. 그

책을 ‘힘센 천사’가 받아서 요한에게 줘서 먹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인봉되어 그 내용이 감춰져 있던 두루마리 책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서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되어 그 내용이 계시되었고, 그것을 ‘힘센 천사’가 받아 들고, 하나님께 지체지 않을 것을 맹세한 후에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여 먹게 한 것이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밝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한 말씀과도 일치한다.

(2) 힘센 천사의 사명과 역할

계시록 10장 2절 하반절,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에서 바다는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음부의 상징이고, 땅은 거짓선지자가 지배하는 음란한 세상의 상징이다(13장). 이 둘을 밟고 설만큼 ‘힘 있는 천사’라면, 미가엘 천사가 아닐까 싶다. 12장 7절 이하를 보면, 사단이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하늘에서 쫓겨난다. ‘미가엘’이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란 뜻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천사이다. 용으로 상징되는 사단과 짐승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가 악한 영적 세계의 최고수들이라면, 그리스도와 미가엘은 선한 영적 세계의 최고수들이다.

계시록 10장 3-4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에서 주목할 점은 ‘힘센 천사’가 사자의 우는 소리처럼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일곱 뇌성들이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6장 1절에서 네 생물 가운데 한 생물이 뇌성 같은

소리를 낸 적이 있지만, 10장에서 말하는 일곱 뇌성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기가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뇌성들이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뇌성은 번개와 함께 종종 하나님의 임재나 음성으로 간주된다(출 19:16, 20:18). 실제로 앞에 나온 수식어 ‘일곱’이 뇌성을 하나님의 음성과 연관 시켜 준다. 계시록에서만 세 번이나 보좌에서 나는 소리를 뇌성과 번개와 음성으로 묘사하였기 때문이다(계 4:5, 11:19, 16:18). 일곱 뇌성이 발한 소리들은 기록하지 말라하였으니, 그 비밀을 알 자가 없다. 기록이 없으니 해석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에 대한 암시가 7절에 있고, 그 해답이 11장 15-19절, 곧 일곱 번째 나팔에 있다.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힘센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에서 ‘사자’를 5장에서는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칠 때에 24장로들 가운데 한 장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로 “유대지파의 사자”란 표현을 썼다는 점이다. 5장과 10장의 ‘힘센 천사’에 어떤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계시록 10장 5-6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에서 ‘힘센 천사’의 행동은 일종의 서약 혹은 맹세에서 볼 수 있는 행동이다. 천사는 오른손을 들고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지체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다. 무엇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이 맹세를 전투에 임하는 군대의 대장군이 출정식에서 황제에게 하는 맹세와 같다고 보면 어떨까? 그렇다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일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임박하였음을 선포한 것이며, 이 말이 성도들에게는 위

로를, 불신자들에게는 공포를 주기에 충분하다.

(3) 일곱 뇌성의 비밀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는 말씀은 일곱 번째 나팔재앙이 기록된 11장 15-19절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일곱 번째 나팔을 재앙으로 보기는 어렵고,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의 큰 음성들의 내용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실 것이다”는 것이다. 이때에도 11장 19절을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했는데, 언약궤 덮개 위 시은소가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상징한 것이고, 그 보좌에서 나는 소리를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렇다면, 4절의 일곱 뇌성이 발한 음성들의 비밀은 7절의 하나님의 비밀과 같은 것이고, 그 비밀의 성취는 이 땅에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다. 그 때가 멀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용사인 미가엘 천사가 ‘지체지 않겠다.’고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계시록 10장 8-11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갓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갓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 하여야 하리라 하더라.”의 평행구가 에스겔 2장 8절부터 3장 3

절에 있다.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두루마리가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와 같은 책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에스겔서의 말씀들로 봐서는 동일한 책일 가능성이 크다. 동일한 책이라면, 그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관한 것이 된다. 배에 쓴 이유가 그 때문이 아닐까? 그 내용의 일부가 이미 일곱 인과 일곱 나팔재앙들에서 드러났다. 책의 내용이 입에 꿀처럼 단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며, 그 내용이 이 땅에서 환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배에 쓴 것은 그 내용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며, 불신자들을 심판할 저주의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배에 쓴 것은 악한 자들의 멸망을 통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회개와 구원을 걱정하고 마음아파하기 때문이며, 그들로부터 당하는 환란과 핍박 때문이다.

계시록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는 1장 1-3절에서 밝힌 대로, 구원과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경륜의 뜻이 구세주 그리스도의 계시로 밝혀졌고, 그 내용을 천사가 요한에게 전달하였고, 또 요한은 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것을 말한

다. 지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10장 6절에서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지체하지 않고 이루겠다.’고 맹세하고 있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뤄진다.

나. 성전과 두 증인(11장)

(1)성전영내의 측량과 바깥마당

계시록은 회복(回復)과 반전(反轉)에 관한 말씀이다. 따라서 11장 1-2절은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짓밟힌 예루살렘과 성전회복에 연관된 말씀으로 시작된다.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는 에스겔 40-43장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곳에는 바벨론 군대가 파괴한 예루살렘 성전회복에 관한 환상이 나온다. 이 환상은 제2차 유배(597 B.C.) 후 25년, 제3차 유배(586 B.C.) 후 14년이 된 주전 572년에 에스겔에게 나타난 것으로써 재건될 성전의 뜰들과 부속 건물들과 각 방들의 길이와 폭을 ‘측량’하는 장면이다. 성전은 이 환상이 있고난 후 56년이 지난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었다.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에서 “성전 바깥마당”은 성전의 여러 뜰들 가운데 이방인들의 출입이 허용된 광장을 말한다. 주전 605년, 597년, 586년에 각각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능욕을 당했던 곳이다. 로마제국시대에는 이방인들이 허용된 뜰을 넘어 성전영내, 곧 ‘여성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들 뜰을 침범하는 이방인들은 사형에 처해졌다. 성전영내의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 바깥뜰의 이방인들로 구별한데서 계시록의 천상과 지상백성의 분리의 모형을 찾을 수 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씀과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말씀은 구원 받은 백성과 심판받을 백성의 구별과 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구원 받은 사람은 성전영내에 속한 자들이고, 심판받을 사람들은 성전 바깥마당에 속한 자들이다. 어린양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성전영내에 들어갈 자격,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지 아니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다. 계시록 5장과 7장은 이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성전과 예배하는 자들을 보여줬고, 그들의 수가 ‘144,000’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바가 있다. 따라서 11장에서의 ‘측량’은 7장에서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란 말씀과 동일개념의 반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절에서 ‘이방인의 뜰과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게 두라’는 말씀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거룩한 성전에 들지 못한 자들으로써 닥쳐올 세 번째 화인 일곱 대접재앙을 받아야 할 자들이다.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기간을 42개월 곧 3년 6개월로 설정해 놓은 것이다. 이들 하나님의 적대세력에 의해서 3년 6개월 동안 핍박받게 될 자들은 11장에서 ‘두 증인,’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 13장에서는 ‘성도’들이다. 여기서 3년 6개월은 성도들이 겪는 환란 혹은 시련이 길지 않다는 것을 교훈하는 역사성을 가진 기간이다. 이 기간에 일어나는 영적 싸움은 ‘그리스도’와 ‘미가엘’과 ‘증인(목회자)’과 ‘성도’로 구성되는 하나님의 팀과 ‘용(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와 ‘악한 자들’로 구성되는 사단의 팀 사이에서 이뤄진다. 여기에 나타난 한 가지 특징은 사단의 팀이 짧은 3년 6개월간 승세를 잡는다는 점이다. 두 번째 특징은 ‘사단’과 ‘적그리스도’가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들의 권세도 일시적으로 허용된 것에 불과하여, 때가 되면 머리 꺾인 삼손처럼 무력해지기 때문에 싸움은 반전(反轉)되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는 점이다.

(2) 두 증인

계시록 11장 3-13절은 두 증인에 관한 환상이다. 이들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이다. 각각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대표한다. 이들의 예언활동 기간도 1260일 곧 3년 6개월이다. 1-2절에서 이방군대의 약탈 기간이 월단위로 표시된 반면, 3-13절에서는 두 증인의 예언활동 기간이 날짜단위로 표시되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영웅들이며, 두 분 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표상들이었다. 그렇지만, 복음서에서는 엘리야를 침례 요한의 모형으로 장차 오실 메시지를 예고할 자로 본 경향이 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렵던 시기에 등장한 인물들이다. 그런 만큼 이 분들은 하나님께 강력하고 특별한 권능을 받아 활동했다. 이 분들이 굶은 배움을 입고 예언한다는 표현은 그때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사 망선고를 받은 때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각각 바로와 아합을 대항해서 싸웠다. 그들은 각각 자기 시대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싸우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

4절에서 이분들이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묘사된 것은 이분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밝힌 등불이었기 때문이다. 감람나무는 등대의 등잔에 넣을 기름을 짜는 올리브가 열리는 나무이고, 등대의 등잔은 어둠을 밝히는 불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고 말씀하신 것처럼 땅의 모든 성도, 특히 주의 종들은 어둔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다. 성도는 성령님을 기름으로 채워 세상을 밝히는 등잔이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는 성령님을 기름으로 채워 세상을 밝히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

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는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0-12절의 말씀에서 평행구를 찾을 수 있고, 6절 상반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는 열왕기상 17-18장의 상황에서 평행구를 찾을 수 있다. 또 6절 하반절,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도다.”는 출애굽기 7-12장의 열 가지 재앙들에서 그 평행구를 찾을 수 있다. 이들 구약성서의 평행구들은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란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모세와 엘리야는 승천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부활승천을 대표한다.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곧 사단에게 죽임을 당한다. 사단은 음부의 사자이다. 8절에서 증인들이 죽어 시체로 있던 곳을 영적으로 ‘소돔’ 혹은 ‘애굽’이라 부른 예루살렘,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했다. 이 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이 싫어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고 하였다. 주의 종들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배척당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3년 6개월 동안 배척당하시고 기어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나 무덤은 주님을 가둬 두지 못했고,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 토해 낸 것처럼, 무덤은 삼일 만에 주님을 토해냈고, 주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셨다. 비슷한 맥락에서 모세와 엘리야도 승천하였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 수레와 불 말들 사이에서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했고(왕하 2:11), 모세는 죽어서 시체로 승천했다는 설이 있다. 신약성서 유다서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는 기록이 있듯이, 고대의 유대인들은 모세의 시체가 땅에 묻혀 썩지 않고 승천했다는 ‘몽소승천’

을 믿었다. 11-12절의 말씀이 이들의 승천을 반영한 글이다.

14절 이하는 일곱 번째 나팔에 관한 내용이다. 계시록 8장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다.”는 말씀이 있다. 9장에 이들 세 번의 ‘화’들 가운데 두 개가 나온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재앙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리고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는 선포가 있고, 15-19절에 세 번째 ‘화’인 일곱 번째 나팔이 나온다. 그러나 일곱 번째 나팔은 재앙이라기보다는 더 무서운 재앙, 나팔재앙보다 강도가 3.3배나 되는 일곱 대접재앙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마치 일곱 번째 인의 침묵이 일곱 나팔재앙을 끌어드리기 위한 고요였던 것과 같다.

15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실 것이다”라고 외친다. 일곱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침묵이 흘렀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어서 16-17절에서는 24장로들이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실 것을 노래하고 있고, 지금이 심판과 보상의 때임을 선포하고 있다. 심판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받을 몫이고, 보상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몫이다. 그리고 19절 마지막 절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소리, 곧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12장)

(1)해를 입은 여인과 산통

요한계시록 12장은 호사다마(好事多魔), 곧 하나님께서 세운 좋은 계획 속에도 사단의 꾀계가 숨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단의 세력은 반드시 무너지고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교

혼이다.

1-2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탄생에 극심한 산통이 있음을 말해 준다. 좋은 일에 어찌 시련이 없겠는가? 히브리 민족의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사내아이가 극심한 진통 후에 출생되었듯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교회'란 이름의 사내아이가 극심한 산통, 곧 '큰 환란'을 겪으면서 탄생된다는 점을 말해준다. 따라서 해와 달을 입고 머리에 열두 별의 관을 쓴 여인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말함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교회를 말하며, 이스라엘이 그 모형이다. 이 여인이 극심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탄생, 마치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극심한 진통 속에서 탄생하였듯이, 교회의 탄생도 꺾박 가운데서 이뤄질 것이고, 또 그렇게 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해를 옷 삼아 입고 달을 신 삼아 신은 것은 의의 빛이신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님의 광명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을 잉태한 것이고, 머리에 열두 별의 관을 쓴 것은 그가 잉태한 민족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이요, 그 모형이 구약시대의 히브리 민족임을 보여준 것이다. 유다왕국의 회복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도 66장 7-9절에서 나라의 회복 또는 탄생을 출산의 고통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단겠느냐? 하시니라."

3-6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탄생을 방해하는 세력의 배후에 흉악한 사단이 있음을 말해준다. 사단은 구약성서에서 용으로 묘사되었다(사 27:1, 시 74:13). 그것의 붉은 빛은 예수님의 보혈을

모방한 분열과 파멸의 피를 상징한다. 용은 구약성서에서 해롭고, 포악하고, 잔인한 존재로서 때로는 바다에, 때로는 사막에 기거하면서 삼킬 자를 찾는 사악한 존재로 묘사되었다.

3절,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다.”는 말씀은 모든 제국들과 황제들의 권세를 상징한다. 이들이 바로 사단의 조종을 받고 성도들을 탄압하는 박해세력들이다. 일곱 머리 열 뿔에서 ‘일곱’은 완전수이며, ‘열’(10)도 삼(3)과 칠(7)이 합하여 만들어진 완전수이다. 그들의 권세가 완벽하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는 권세들은 그들의 것이 아니며, 언제라도 하나님이 거두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허락된 것에 불과하다. 일곱 머리 열 뿔이 사람들 눈에는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좌우되는 종이호랑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일곱 머리 열 뿔

요한계시록 12장의 일곱 머리 열 뿔은 다니엘서 7장에 묘사된 네 짐승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네 짐승은 역사 속에 등장한 네 개의 제국들을 말한다. 사자는 바벨론제국, 곰은 메데파사제국, 표범은 헬라제국, 열 뿔을 가진 짐승은 로마제국을 상징한다. 단 헬라제국은 알렉산더 사망이후 마케도니아왕국, 소아시아왕국, 시리아왕국, 이집트왕국으로 갈라졌으므로 머리와 날개가 네 개인 표범으로 묘사되었다. 이들을 다 합한 머리가 일곱이다. 열 개의 뿔을 가진 짐승은 로마제국이며, 열 뿔은 권력을 가진 로마황제들을 상징한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의 ‘큰 붉은 용’은 일곱 머리 열 뿔을 한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들 네 짐승들의 배후세력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일곱 머리와 그 위에 왕관이 있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완벽해 보이는 권력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들의 권력은 그들의 것이 아

니며, 하나님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허용된 모방 또는 위임권력일 뿐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탄압하는 자들이고, 사단의 조종을 받는 자들이지만,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노는 종이호랑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단의 사악한 꾀계는 제국들의 황제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4절에서 사단이 해와 달을 입은 여인이 생산하는 사내아이를 삼키려하는 것은 제국들과 황제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것을 상징한다.

사내아이는 그리스도이며, 모세가 그 모형이다. 따라서 사내아이의 출생은 모세의 출생에 연결되고, 영아살해를 시도하는 사단의 발악은 이집트의 바로와 유대의 헤롯이 저지른 역사적 사건에 연결된다. 그리고 해와 달을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는 교회와 교회가 낳아 양육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한다.

5절에서 해와 달을 입은 여인이 낳은 사내아이는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의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한다. 그 아이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으로 올려간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 보호받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 사내아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표현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란 뜻이며, 시편 2편 9절에 예언되어져 있다.

6절에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천이백육십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는 말씀은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 탈출에 성공한 후에 광야에서 보낸 40년을 말한 것이다. 광야로 피신한 여인은 히브리 민족의 광야생활에서 그 모형을 찾을 수 있고, 1290일은 짧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으로써 북 이스라엘 왕국의 아합과 헬라제국의 에피파네스 안티옥커스 4세에 의해서 야훼 하나님 신앙이 극심하게 탄압을 받았던 삼년 반에서 그 모형을 찾을 수 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영도아래 히브리 민족이 모든 환란을 끝내 이기고 가

나안 복지에 들어갔듯이, 성도들도 믿음을 지키면 끝내 이기고 안식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교훈한다. 그리스도의 철장권세가 상징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철장은 왕의 홀로써 문자적으로 쇠몽둥이를 말한 것으로써 권력의 상징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이기고 영원토록 왕 노릇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3)하늘에서의 전쟁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하늘에서의 전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맛보신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피조물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울 수 없다. 사단을 비롯한 그 어떤 악의 세력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허락된 시간만큼만 노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사단이 이기는 것 같고, 우세해 보일는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다. 만일 하나님이 사단과 천사와 인간과 같은 피조물과 싸우실 일이 있다할지라도, 그 싸움의 결과는 이미 예정된 운명이고 숙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동굴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아주 잠시 동안만 사단이 승리감에 빠질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 사단의 죽음의 권세는 마치 태엽 풀린 시계처럼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7절과 9절의 ‘싸울 새’와 ‘내어 쫓기니’와 같은 표현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적대세력은 다 내어 쫓긴 자들이다. 그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것은 그들이 멸망당할 자들이란 것을 의미한다. 땅은 심판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10-11절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 이겨 놓은 싸움일지라도 방심하면 역전패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시합종료휘슬이 울리는 순간까지 방심은 금물이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12-17절이다.

12절은 하늘의 영역과 바다와 땅의 영역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다. 하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역이요, 바다와 땅은 저주와 심판받을 자들의 영역이다. 물론 상징적이다. 계시록은 하늘과 땅의 환상을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구원 받은 자들과 심판 받을 자들을 엄격히 구별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천국과 지옥의 구분을 상징한다. 사단과 그의 무리도 심판의 대상이므로 땅으로 내어쫓겼고, 더 이상 성도들과 함께 낙원에 있지 못함으로 그들을 참소할 기회를 잃게 된다.

13-17절은 땅으로 쫓겨난 사단이 이 땅의 교회와 그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발악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13절에서 사단이 사내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한다는 뜻이고, 14절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는다.”는 말씀은 히브리 민족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간 연단 받았던 것에 연결된다. 하나님께서 떠돌이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시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출 19:4)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고백이다. 이 환란기간이 짧다는 의미를 삼년 반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 기간을 참고 인내하지 못하면, 다 이겨 놓은 싸움을 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경고한 말씀이 12-17절이다.

라.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와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13장)

(1) 용과 짐승(사단과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다. 바다는 음부 곧 죽음의 세계를 상징한다. 또는 복음서에 실린 예수님의 표현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상징한다. 따라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괴수를 상징한다. 이 괴수는 사단의 오른팔로써 칼의 권세를 가진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통수권자인 제왕(帝王)을 말한다. 계시록은 그를 적그리스도로 표현했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란 표현은 제왕들과 제국들을 상징한다. 열 뿔에 있는 왕관들과 일곱 머리에 있는 신성모독의 이름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제왕들이 자칭 신이라 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모방하고 그 영광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곱 머리 열 뿔의 모형은 다니엘서 7장에 있다. 일곱 머리에 서 머리는 제국 또는 왕국을 상징한다. 여기서 일곱은 바벨론, 메데파사, 마케도니아, 소아시아, 수리아, 이집트, 로마를 합한 숫자이다. 열 뿔은 이들 나라들의 제왕들을 말한다.

계시록에서 용은 사단을 상징한다. 사단도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일곱 머리 열 뿔의 소유자로서 일곱 머리에 왕관들을 쓰고 있다. 사단과 적그리스도를 일곱 머리 열 뿔로 묘사한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회와 성도를 탄압하는 악하고 음란한 나라들과 박해자들의 배후에 사단이 있고, 사단이 배후세력의 몸통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사단이 몸통이면, 적그리스도는 깃털에 불과하다.

사단과 적그리스도가 다른 점은 사단은 일곱 머리에 왕관들을 쓰고 있고, 적그리스도는 열 뿔에 왕관들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일곱 머리로 상징된 악하고 음란한 나라들의 머리에 있는 왕관들은 패권의 상징이다. 열 뿔로 상징된 악하고 음란한 제왕들의 왕관들은 권력의 상징이다. 그러나 그들이 소유한 권력들은 사단이 부여한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다. 사람을 살리는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권력이고, 세상을 살리는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무서운 심판과 재앙으로 몰아넣는 권력이다.

계시록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의 백성을 탄압하는 자들을 ‘짐승’으로 묘사하였는데, 적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들 제왕들의 머리에 신성모독의 이름들이 있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신성을 모방하고 그 영광을 찬탈하기 때문이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유한한 것들이 스스로 신성을 주장하고 신전을 만들며 자신들을 본떠 만든 우상들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절하고 분향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황제숭배’라 부르는데, 이것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는 제1계명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인 것이다.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율리우스 시저, 로마의 초대 황제들이인 아우구스투스, 클라우디우스,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가 사후에 로마 상원에 의해서 신으로 선포되었다. 그리고 박해시대에는 신전에 나와 분향한 사람들에게 증서를 발부하기도 하였다. 요한이 밋모 섬에 유배되어 환상을 봤던 때의 황제인 도미티아누스는 주화에 자신의 옆얼굴과 ‘주와 하나님’(DOMINUS ET DEUS)이란 단어를 새겨 넣게 하였다.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고 지적하였다.

(2) 짐승(적그리스도)의 권세

계시록 13장 2절의 ‘짐승의 모양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에서 표범은 헬라, 곰은 메테과사,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한다. 그런데 사단인 용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고 있고,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위임받고 있다. 성서적으로 인간조직의 권위와 권력은 하나님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

의 권위와 권세도 하나님의 위임에 의한 것이라 해야 옳겠지만, 계시록에서는 그의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의 위임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단이 위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대항하는 권위와 권세는 사단의 위임에 의한 권세이지, 하나님의 위임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해 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를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세상권세에 복종하라는 바울과 베드로의 정치 윤리적 권면은 이 점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시록은 오히려 인내와 믿음으로써 성도들이 끝까지 거짓 진리에 대항하여 맞설 것을 권면하고 있다.

3:4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겠느냐? 하더라.”에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것’은 어린양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모방과 표절이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적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무지몽매함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 됨을 의미한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미가엘 천사장의 적수로 묘사되었다.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를 표절하고 있다. 이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로부터 나온 자로 기술되고 있으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겠느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죽게 되었던 상처”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죽임을 당한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방과 표절이다. 설사 짐승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복주는 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괴롭게 하

고 죽이는 능력이다. 따라서 그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 불행하게 될 것이고, 재앙과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겠느냐?”라는 것은 대천사인 미가엘 이름의 뜻인 “누가 하나님과 같겠는가?”와 “누가 그와 겨루어 싸우겠는가?”를 모방하고 표절한 것이다. 이들 모방과 표절은 모두 다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적그리스도인 짐승은 자기가 마치 추종자들에게 빛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고, 큰 권능을 소유한 것처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의 기만술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이다. 용과 짐승은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고, 그것을 줄 수 있는 분들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의 곁에 계신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스도의 편에서 용과 짐승의 괴롭힘에 참고 싸워서, 승리자들의 대열에 합류할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구원의 해변에 서서 승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 해방의 노래를 목 놓아 부르라는 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이다.

(3)성도에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이유

계시록 13장 5절의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에서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은 자신을 ‘주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분향하게 하는 뽀뽀스럽고 가증스런 주둥아리를 말하는 것이다. 아무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단의 영을 뒤집어 쓴 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니시우스로 주장한 것을 비롯해서 로마의 황제들이 신성을 주장하였고, 근세에 이르러서는 일본의 왕이 ‘가미사마’ 또는 ‘천황’이라 부르며 신성(神性)을 주장하면서 ‘황거요배’ 또는 ‘동방요배’(東方遙拜)를 강요한 사실

이 있다. 정오 사이렌 소리가 나면 예배 중이라도 일제히 일어서서 동쪽을 향해 절을 해야 했다.

일제 강점기 말엽 신사참배가 심하던 때에는 예배당에 일본에서 가장 높은 신인 ‘천조대신’(天照大神)을 벽에다 걸어놓고 절을 하게 했고, 천조대신(天照大神)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였다. 예배당 안에는 ‘천조대신’뿐 아니라, ‘가미사마’ 곧 신(神)으로 신격화된 천황의 사진을 강단 뒤 벽에 걸게 하였고, ‘가미나다’라 불리는 이동식 신사(神社)를 예배당 안 동편에 놓게 하였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들을 향해서 먼저 예의를 갖춘 후에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강요받았던 황제숭배와 유사한 강요를 일제 강점기 때 조선 기독교인들도 받았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박해기간에는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박해 후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분열의 아픔을 겪었다. 광복 후에 찾아온 교회분열은 조선기독교회라고 해서 피해가지 못했다. 신사참배와 동방요배 모두를 수용한 배도자, 신사참배만 거부하고 동방요배는 수용한 고려파, 신사참배와 동방요배 모두를 거부한 손양원 목사와 같은 재건파로 나뉘졌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쓰나미 같은 박해의 해일을 종종 직면했다. 이 박해를 주도한 자들을 계시록은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로 표현하였다.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받아 신성을 주장하면서 예배를 강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훼방한 자들로서 계시록은 그들의 활동기간을 상징적인 숫자인 마흔두 달 곧 삼년 반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마흔두 달’ 혹은 ‘1260일’ ‘한 때 두 때 반 때’로 표현된 삼년 반은 성도들의 시련기간이 짧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6-8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

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는 말씀은 삼년 반으로 묘사된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활동기간에 일어날 배도를 말한 것이다. 배도는 반역행위이다. 그러므로 9-10절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하였다.

성도에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단과 적그리스도가 교회와 성도를 끝내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속죄양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용과 짐승은 창조주와 부활의 주님을 결코 이길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이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피조물은 결단코 창조주가 될 수 없으며, 그 분을 이길 수 없다. 피조물은 아무리 힘이 세고 지혜로워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부족하고 거짓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를 666으로 묘사한 것도 이 부족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모방과 표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믿는 성도를 현혹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의 것을 가질 수 없다. 그들의 가르침은 언제나 거짓되고, 구원에 미치지 못한다.

셋째, 그들의 운명은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유황과 불과 연기로 타는 불 못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

계시록은 용과 짐승, 곧 사단과 적그리스도를 결코 두려움의 존재로 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잠시 받은 환난의 경한 것이 장차 올 영원한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롬 8: 18; 고후 4:17)

는 사실을 고취하고 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4)둘째 짐승 거짓선지자

요한 계시록 13장 11절의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은 거짓선지자 666의 상징이다. “어린양 같이 두 뿔이 있고”는 그가 일곱 뿔을 가진 어린양(계 5:6)을 모방하고 표절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일곱 개나 열 개가 아닌 두 개의 뿔밖에 없는 것은 그가 가진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고, 용처럼 말하는 것은 그가 사단인 용과 용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의 대언자이기 때문이다. 거짓선지자는 잘못된 교리나 학설을 가지고 용과 첫째짐승을 대변하기 때문에 종교인이라고 볼 수 있다.

12절에 나타난 거짓선지자의 역할은 사단인 용에게 권세를 받은 첫째짐승의 권세를 나눠받아서 그 권세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첫째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란 표현은 그가 하나님의 속죄양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표절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며,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황제숭배를 강요한다는 뜻이다.

13절에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열왕기하 1장 10-12절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의 권능에 대한 모방이자 표절이다. 거짓선지자가 종교인이란 점을 드러내 보이는 장면이다.

14절에서 둘째짐승인 거짓선지자가 “짐승에게 받은바 능력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한 것은 그가 모세 시대에는 바로의 박사와 박수들, 엘리야시대에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원형이란 점을 암시한다. 계시록 2장 20절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 음녀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황제숭배와 같은 우상숭배를 강요한 자들은 다 거짓선지자들이다.

15절은 둘째짐승 거짓선지자가 황제숭배와 같은 우상숭배를 강제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시대를 막론하고 박해시대에 순교한 성도들은 첫째짐승 적그리스도인 제왕들에게 직접 심문받고 처형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 수하들에 의해서 이뤄진다. 따라서 성도들을 직접 몸으로 상대하는 자들이 바로 둘째짐승 거짓선지자들인 것이다. 그들은 종교박해에 관련해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였다.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도 하게 하였다는 뜻은 ‘검은 것을 보여주면서 회다’는 답변을 하게하고, ‘죽은 것을 보여주면서 살았다’는 답변을 하게하며, ‘말 못하는 돌과 나무를 보여주면서 말을 한다.’는 답변을 받아내는 막강한 권세가 있음을 뜻한다.

둘째짐승은 거짓 종교가와 허탄한 철학가의 상징이다. 그가 가진 거짓 진리는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다. 그 권세가 브랜드, 돈, 무력, 권력, 메가 또는 다수일수도 있다. 이런 유의 권세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다.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이런 유의 권세가 둘째짐승 자신의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권한이 있어서 이것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10절에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고,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고 권면하였다.

(5) 짐승의 표, 666

요한계시록 13장 16-18절은 짐승의 표, 666에 관한 말씀이다. 기독교 초기에 로마당국이 시민들에게 ‘짐승의 표’라 불릴만한

‘리벨루스’라는 증명서를 받게 한 경우가 있다. 계시록이 기록되고 155년이 지난 후의 일이지만, 데키우스(Decius, 250-251)와 발레리아누스(Valerianus, 253-260) 황제가 시민들에게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증명서 ‘리벨루스’(libellus, 250)를 발급받도록 하였는데, 대상은 모든 시민권자들이었다. 주후 212년에 발효된 카라칼라의 칙령이후 속주민도 로마시민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로마제국에 살던 모든 자유민이 이 법에 따라야 했다.

주후 250년에 선포된 데키우스 칙령에 따라서 도시와 마을마다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곳에 불려나간 시민들은 위원들이 보는 앞에서 로마의 신상들에 절차를 따라 관제를 붓고 향불에 분향하였다. 그리고 그 향이 타오르는 동안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선언을 하였고, 위원들은 사실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증명서 곧 ‘리벨루스’를 발급해 주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말한 ‘짐승의 표’는 이런 증서를 말한 것은 아니고, ‘인침’ 곧 도장을 말한다.

16-17절,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신약성서가 말한 ‘인침’ 곧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증하는 약정서에 찍힌 인감의 모방이자 표절이다. 성서가 말하는 ‘인침’과 ‘짐승의 표’는 소속을 증명하는 시민권 개념이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표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에 반대개념이다.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박해를 당한 성도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한 ‘굶주림’과 물질적 피해에 관한 언급이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다보면, 고문을 받고 투옥당하는 것은 물론, 재산이 몰수되고 직장에서 파면을 당하기도 한다. 또 체포되기 전에 피신한 경우 깊은 곳에 숨어서 살아야하기 때문에 매매활동을 할 수가 없다. 물리적인 박해는 대개 통제사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

가능해진다. 순교사가 이를 입증해준다.

18절의 '짐승의 수'는 666이다. 이 숫자가 사람의 수이기 때문에 666은 거짓 종교와 진리를 강요하는 권력의 하수인들이 된다.

666은 6의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7은 777이 된다. 7은 완전수이다. 6은 7에서 하나가 부족한 숫자이며, 인간, 천사, 사단과 같은 고등한 영적 피조물의 숫자이다. 인간은 항상 부족한 존재이다. 그는 제6일 째에 만들어 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성의 동물이자 언어와 도구를 쓸 줄 아는 만물의 영장이다. 감정을 통제하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킬 줄 아는 동물이며, 의지적인 결단력을 가진 종교적인 동물이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그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언제나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6이란 숫자는 다른 모든 숫자 위에 있으면서도 완전 수 7에는 언제나 하나가 부족한 수이다. 6은 언제나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다. 6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고, 표적을 빗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666은 인간은 언제나 실패하고, 실패하며, 또 실패한다는 뜻이다. 인간은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은 거짓 종교와 거짓 진리로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6)그리스도의 표, 888

예수님은 기독교 초기부터 숫자 8로 인식되었다. 예수님의 헬라어 이름 '이에수스'(Jesus)를 숫자로 환산하면, 888이 된다. 8은 메시아 곧 구세주를 상징한다. 메시아의 예표인 다윗 왕이 8번째 아들이었고,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었으며, 유대인 남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거룩한 공동체에 일원이 되었다. 외경 '시빌린 신탁'은 예수님을 8로 표기하였고, 150년경의 순교자 저스틴은 '주일'을 '제8일째 날'로 불렀으며, 중세 교회는 침례당을 팔각형으로 만들었다.

숫자 8은 기독교의 복음(7+1)의 성격을 설명하는 숫자이다. 숫

자 8은 완전수 7보다 하나가 많다는 뜻을 갖는다. 따라서 숫자 8은 넉넉한 구원, 넘치는 복을 뜻하며, 살림과 구원, 즉 삶에 플러스를 주는 복음을 뜻한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5절에 "그는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앓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일곱 목자, 여덟 장군들을 보내서, 침략군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다. 여기에 쓰인 '일곱 목자'와 '여덟 장군' 즉 숫자 7과 8은 완전한 승리를 상징한다. 특히 숫자 8은 '넉넉히 이긴다. 혹은 이기고도 남는다.' 즉 '플러스 1'의 의미를 갖고 있다. 또 마태복음 5장에는 그 유명한 8복에 대한 말씀이 있고, 13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성격을 설명하는 8개의 비유가 나오며, 22-25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에 관련된 8개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성격을 설명하는 비유들에서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씨앗 비유', 맨드라미 씨와 같이 아주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 '겨자씨 비유',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누룩에 관한 비유' 등이 소개되고 있다. 이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을 숫자 8로 표기한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며, 우리를 풍성하고 넉넉하게 복 주실 '플러스 1'의 존재이시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되 후하게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실 수 있는 '플러스 1'의 하나님이시다. 비록 우리 인간이 부족한 '마이너스 1'의 존재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필요한 '플러스 1'의 요인으로 작용하실 수 있다. 비록 우리가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존재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큰 나무로 자라는데 필요한 '플러스 1'의 요인으로 작용하실 수 있다. 비록 우리가 밀가루 반죽에 불과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여러 종류의 맛있는 빵으로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누룩이 되실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표시가 플러스 기호인 점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하기'가 되신다. 기독교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더하기'가 된다.

666은 모든 거짓, 모든 실수, 모든 잘못, 모든 부족, 모든 악행의 상징이다.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오히려 인간을 음부의 구덩이로 몰아넣는 모든 불행의 상징이다. 그의 운명은 패배요, 불과 유황과 연기로 타는 불 못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완전하신 777의 하나님과 넉넉하신 888의 그리스도뿐이시다.

마. 결론: 삼년반의 의미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했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하였다.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고백이요, 핵심 메시지이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시련기간을 짧게 정하시고, 그 기간을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로 잘 참고 끝까지 이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시련은 짧고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짧게 표현된 시련의 상황이 영원한 영광의 상황으로 반전(反轉)되고, 회복(回復)되며, 기도와 소망이 이뤄지고, 구원이 이뤄진다.

계시록 11-13장은 박해자와 박해를 당하는 자들에 관한 계시로써 그 기간을 삼년 반으로 묘사하였다. 11장에서는 이방인 군대의 압제기간과 두 증인이 박해를 당하며 활동하는 기간을 각각 삼년 반으로 묘사하였다. 삼년 반에 관한 언급은 12-13장에서도 나온다. 삼년 반은 ‘마흔 두 달,’ ‘일천 이백 육십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란 단어로 각각 다르게 표기하였다. 그러나 문자적인 삼년 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상징적으로 '시련의 기간이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년 반은 엘리야 시대에 아합(874-853 B.C.)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숭배를 강요하던 기간에서 유래된 것이다(왕상 18:1). 삼년 반은 다니엘서에도 언급되었는데, 이는 마카비 독립전쟁 시대에 헬라제국의 에피파네스 안티옥커스 4세(168-165 B.C.)가 이스라엘 민족의 야훼신앙을 말살하려 했던 삼년 반에서 나온 것이다. 이들 두 가지 사건들은 역사적 사건들으로써 모두가 심각한 배교의 위협을 받았던 때였다. 예수님도 공생애 삼년 반(A.D. 26-30년) 동안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네로 때에도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대략 삼년 반(A.D. 64-68년) 동안 몹쓸 박해를 받았다.

계시록의 삼년 반은 성도들이 악의 세력에게 당하는 시련의 기간이지, 재앙의 기간은 아니다. 성경에는 재앙의 기간을 삼년 반으로 언급한 곳이 없다. 성경에 나오는 재앙은 악의 세력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다. 재앙과 환난을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계시록에서 말한 '큰 환난'(7:14)은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당한 시련을 말한 것이고, 나팔재앙이니, 대접재앙이니 하는 것들은 박해세력인 악의 무리를 멸하시고, 그들로부터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구출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군사작전이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여 내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것과 같다.

군사전술에 '공격개시 전 사격'이란 것이 있다. 이 사격은 보병의 진격명령이 있기 전에 소나기처럼 퍼붓는 포사격을 말한다. 보병의 공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보병의 진격 전에 적의 진지를 완전히 축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다른 아닌 악의 무리들에 포로로 잡힌 성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소나기처럼 퍼붓는 공격개시 전

사격과 같다. 성도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열 가지나 되는 재앙들을 이집트에 퍼부으신 것과 같다. 그러나 고센 땅에 거주하던 히브리 민족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었다. 따라서 삼년 반은 성도들이 당하는 시련의 기간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기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6. 보응의 하나님(14-16장)

가. 천상 시온산에 선 십사만 사천(14:1-20)

(1)새 이름과 새 노래

계시록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라는 선포의 글이다.

1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 곳은 지상이 아니고, 천상의 시온 산으로써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성이 자리 잡고 있는 옛 모리아 산의 원형이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것’은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 그리스도에게 속한 구원 받은 백성이란 점을 표현한 것이다. ‘어린양’은 지상의 예루살렘에서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십사만 사천’은 7장에 나온 구원받은 성도를 말한다. 그들은 입은 옷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며, 큰 환란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의 이마에서 빛나는 이름은 십중팔구 ‘크리스천’일 것이다.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등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말로는 ‘기독교인’ 혹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2절, 하늘에서 나는 물소리 같고, 우렛소리 같은 거문고 타는

소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시온 산에 도열한 구원 받은 십사만 사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이다. 계시록에서 거문고가 등장하는 경우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때이다(계 5:8, 15:2).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부른 새 노래,’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밖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는 이 노래’는 15장 2-3절에서 언급된 모세의 노래, 승리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이다. 가사의 내용은 7장과 15장에 소개되고 있다. 7장 9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15장 3-4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기록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4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는 뜻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들은 흰 옷을 입은 자들이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다”는 우상숭배를 말한다. 고대 종교들에서 특히 여신들을 섬기는 신전예배에서 있었던 실제 음행과도 연관이 있고,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목신숭배를 강요했던 이세벨과도 관련된다. 계시록에서 이세벨은 음녀의 상징이다. 계시록 2장 20절은 이세벨을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띄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짓선지자로 지적하였다.

고대 근동과 유럽에서 섬겼던 아프로디테, 아세라, 아스다롯과 같은 여신 전(殿)에서는 예배행위에 성창들과의 성적 접촉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했던 고대 농경사

회에서는 비로써 상징되는 하늘의 남신과 밭으로 상징되는 땅의 여신 사이의 만남으로 풍요와 다산이 이뤄진다고 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좇는 영적인 음행일 뿐 아니라, 실제로 이뤄졌던 음행이다. 그래서 성서는 배교를 음행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다.

(2) 짧은 수고, 긴 안식, 짧은 쾌락, 긴 고통

계시록은 짧은 수고, 긴 안식, 짧은 쾌락, 긴 고통에 대한 경고의 글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라는 전도의 글이다.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자들이란 뜻이다. 여기서 ‘신실’은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이고, 성도가 행한 약속은 일차적으로 침례 때에 행한 신앙고백을 의미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

계시록 14장 6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는 계시록의 기록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들이다. 여기서는 여러 천사들이 차례로 등장했다 사라지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하는지, 그 보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대적한 무리들이 어떤 보응을 받게 될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다.

6-7절에 등장한 첫 번째 천사는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선포하고 있다.

8절의 또 다른 두 번째 천사는 배교와 박해를 시행하는 제국 또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일차적으로 로마제국을 의미한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는 모든

속주국민들에게 우상숭배 곧 황제숭배를 강요한 것은 영적으로 음행을 주선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한 자들까지도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다. ‘진노의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징계를 말한다. 이 천사는 제국의 멸망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탄식한다.

9-11절에 등장한 또 다른 천사 곧 셋째는 우상 곧 황제를 숭배하고 그 증표를 받으면, 바꿔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면, 불과 유황과 연기로 타는 불 못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경고한다. 여기서 불과 유황과 연기는 지옥의 불을,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의 반대개념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경고한다.

계시록은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글이다. 그것은 마치 노아가 홍수심판을 앞두고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과 같고, 천사들이 유황불 심판을 앞두고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과 같다.

계시록의 특징은 죽으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죽은 후에도 그 고난이 세세토록 이어진다는 데 있다. 그리스 신화에 묘사된 탈타로스처럼, 지옥에서는 영원토록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스런 일들을 끝없이 반복하게 된다.

10절의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는 물을 섞지 아니한 독주를 말한다. 고대 지중해 연안 사람들은 포도주에 물을 희석해서 마셨다. 포도주에 물을 섞는 비율은 20대 1에서부터 1대 1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고대의 문학가들은 3대 1로 혼합한 포도주를 가장 적절하게 보았고, 1대 1로 희석한 포도주를 “독한 술”(strong wine)로 언급했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표현은 심판의 강도나 고통의 강도가 심히 독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12절,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는 짧은 쾌락이 길

고 끝없는 고통을 준다는 점, 그러나 짧은 믿음의 수고와 인내가 길고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준다는 점을 알라는 말씀이다.

(3) 두 갈래 길 인생

계시록은 두 갈래 길 인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일한 길을 걷는 것 같고, 동일한 물과 동일한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아보여도 그 끝이 첨예하게 다르다. 그 끝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14장의 내용이다.

계시록 14장 1-7절은 좁고 험하지만, 생명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소개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다. 고문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이다.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는 신앙생활로 예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따랐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해변에 서서 새 노래, 승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계 15:2-3). 이들은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더위에 쓰러지지 않고, 햇빛에 화상을 입지 않고,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고, 모든 눈물을 씻기고, 구원의 흰옷을 입으며, 승리의 월계관을 쓰게 될 자들이다(계 7:16-17). 무엇보다도 이들은 영원한 안식과 행복한 여생이 예정된 자들이다.

또 8-11절은 넓고 편하지만, 멸망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소개한다. 이들은 자기들도 우상숭배를 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우상숭배를 강요했던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자들이며, 유황이 타는 불 못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 고난의 연기로 인하여 밤낮 쉬을 얻지 못할 자들이다. 이런 자들처럼 되지 않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인내로써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한다는 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이다.

그리스신화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카론’이란 뱃사공이 태워주는 바닥없는 소가죽 배를 타고 비통의 강을 건너게 된다. 비통의 강을 건너게 되면 그 갈래인 시름의 강이 나오고, 이 시름의 강을 건너게 되면 불의 강이 나오고, 이 불의 강을 건너게 되면, 망각의 강이 나온다. 이 망각의 강을 건너게 되면 너른 별판이 나오게 되는데, 오른쪽 들판에는 낙원인 엘뤼시온(Elusion)이 있고, 왼쪽 들판에는 지옥인 탈타로스(Tartaros)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상징하는 강을 건너게 되지만, 그 강의 끝은 첨예하게 다른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낙원 엘뤼시온에서는 지복을 누리지만, 지옥 탈타로스에서는 형용키 어려운 형벌을 받는다. 탄탈로스는 물속에 몸을 잠그고 있는데도 영원한 갈증에 시달린다. 탄탈로스가 물을 마시려고 입을 대면 물이 달아나 버리기 때문이다. 익시온은 영원히 도는 불 수레에 매달려 비명을 지른다. 티튀오스는 독수리의 부리에 살을 파 먹히면서 영원히 소리 지르고, 다나오스의 딸들은 밑 빠진 독에다 영원히 물을 길어다 붓는다. 시쉬포스는 산꼭대기로 바위를 굴러 올려야 하지만, 바위는 산꼭대기에 도달하기 무섭게 다시 굴러 떨어진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겪게 될 고통의 종류들을 설명해 준 것이다. 한마디로 지옥에는 쉽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13-20절은 각각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향한 대심판을 추수장면으로 보여준 것이다. 먼저 13-16절은 ‘구름 위에 앉은 이’의 알곡추수 장면이고, 17-20절은 심판천사의 포도추수 장면이다. 알곡추수는 영원한 안식의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우는 것이고, 포도추수는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와 함께 영원한 불 못에 들어가 밤낮 쉽이 없는 고통 속에 들어갈 불신자들을 모우는 것이다.

계시록의 교훈은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이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한없이 사단의 발아래 짓밟히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다만 때를 기다리실 뿐이다. 기다림의 시간은 외롭고, 고달프고, 고통스런 시간이지만, 환희와 기쁨의 시간이기도 하다. 성도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고, 진리는 마침내 이기고 영원하기 때문이다.

나. 불이 섞인 유리 바다(15:1-8)

바다는 음부 곧 죽음의 세계를 상징한다. 따라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나팔과 대접의 재앙들이 펼쳐지는 지옥이다.

계시록 15장 1절은 일곱 대접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다.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는 계시록의 재앙들에 어떤 시간차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하는 구절이다. 대접재앙은 시간차를 두고 나팔재앙에 뒤따라오기 때문이고, 재앙의 강도도 3.3배나 차이가 나고, ‘마지막 재앙’이란 언급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은 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으로 시간차를 두고 이어지는 시대구분론적인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계시록은 천상과 지상의 분리와 사건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回復)과 반전(反轉), 신실한 믿음과 인내의 절대적 필요성, 다가올 대심판의 긴박성을 알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선포이다.

2·4절은 16장에 소개된 일곱 대접재앙에 연결해서 이해될 수 있는 장면이다. 또 2·4절과 16장의 일곱 대접재앙은 출애굽기 15장과 연결해서 이해될 수 있는 장면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난 노도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홍해해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출 15장),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그들이 부른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에서 부른 노래와 근본적으로 내용이 같다. 34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 반대의 장면도 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성이 불과 유황과 연기 속에서(창 19장), 노아시대의 불경한 자들이 범람하는 홍수 속에서(창 6-8장), 삼손을 희롱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 아래서 큰 재앙을 당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던 이집트의 마병대가 홍해의 거친 파도 속에서(출 15장) 재앙을 당하는 장면이 계시록 16장에 소개된 대접재앙들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일곱 대접재앙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속에서 벌어지는 장면의 연출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해변에 서서 붉은 바다 속에서 벌어지는 처참한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 것과 같이, 천상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속은 지옥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5-8절은 일곱 대접재앙을 예비하는 장면이다.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은 지상 성막의 원형이기 때문에,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일곱 천사들은 일곱 제사장들, 곧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들은 여리고 성 전투 때 일곱 나팔을 가졌던 일곱 제사장들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들이 나팔 대신에 3.3배나 강도가 높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케루빔으로부터 받고 있다. 그리고 금 대접에 담긴 것은 재앙의 불로 볼 수 있다. 민수기 16장에 소개된 불행한 사건, 즉 불이 담긴 향로에서 불과 불티가 나와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과 계시록 8장 5절에서 천사가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던 것에서 엿 볼 수 있다.

다. 일곱 대접재앙(계 16:1-21)

계시록 16장은 일곱 대접재앙에 관한 말씀이다. 여기서 재앙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쉽사리 회개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계시록에서의 나팔과 대접재앙들은 출애굽사건 당시 모세가 이집트에 내리게 했던 열 가지 재앙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들 열 가지 재앙들 중에 빠진 세 가지에 대한 암시는 13절에 있는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에 있다. 이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은 각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것들은 이미 앞에서 그 하나를 ‘개구리’로 지적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파리’와 ‘이’이다. 신약시대, 특히 계시록에서는 숫자 ‘일곱’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열 가지 가운데 세 가지를 용인 사단과 짐승인 제왕과 사제인 거짓 선지자의 더러운 영에 비유하였다. 요한은 복음서에서도 이 세 가지 재앙을 뺀 나머지 일곱 개의 재앙들에 상반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살림의 기적 일곱 개를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 대접(2절)에서는 지상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난다. 출애굽기 9장 8절에 나오는 ‘독종’재앙에 비교된다.

두 번째 대접(3절)에서는 바다가 피가 되고, 모든 생물이 죽는다. 출애굽기 11-12장에 나오는 ‘죽음’재앙에 비교된다.

세 번째 대접(4절)에서는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된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 나오는 ‘피’재앙에 비교된다.

이 세 대접들을 땅에 쏟고 난 다음에 ‘물을 차지한 천사’와 제

단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다. 심판이 정당하고 의롭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네 번째 대접(8-9절)에서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 나오는 ‘불’재앙에 비교된다. 모세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오히려 마음을 더욱 강박케 하였던 바로처럼 불경한 자들은 오히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는커녕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다섯째 대접(10-11절)에서는 짐승의 왕좌에 어둠과 종기의 고통이 온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나오는 ‘흑암’재앙에 비교된다. 짐승으로 상징된 제왕 역시도 오히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않았다. 불경한 자들은 끝장을 볼 때까지 회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불 못만이 그들을 기다린다.

여섯째 대접(12-16절)에서는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버린다. 세 더러운 영(개구리, 이, 파리)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 전쟁을 예비한다. 출애굽기 8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에 비교된다.

사단의 영을 가진 바로는 거짓선지자들인 박수들과 함께 재앙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 압박하는 정책을 썼고,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한 후에는 마병대로 하여금 추격케 하였다.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예비했던 것이다.

일곱째 대접(17-21절)에서는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다 이루었다.”(It is done!)고 하였고, 또 큰 지진이 나서 만국의 성들은 물론이고, 큰 성 바벨론, 곧 로마제국도 무너지고, 섬과 산악이 사라졌으며, 34킬로그램 무게의 우박이 쏟아지는 엄청난 재앙이 내렸지만, 불경한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았다. 출애굽기 9장 13-21절에

나오는 ‘우박’재앙에 비교된다.

☞아마겔돈과 유프라테스 강☞

계시록 16장 12-16절에 ‘아마겔돈,’ ‘유프라테스 강’과 ‘동방에서 오는 왕들’에 관한 단어들이 등장한다. 여기서 ‘아마겔돈’은 우리말로 ‘므깃도 산(하르)’ 혹은 ‘므깃도 언덕(텔)’이란 뜻이다.

므깃도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요새이자 길목이다. 역사적으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이곳에서 치러졌다. 갈멜산 북쪽 이스라엘 평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점령한 사람이 곡창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다. 또 므깃도는 이집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잇는 지중해 해변로인 ‘비아 마리스’(Via Maris)를 차단할 수 있는 길목이어서 크고 작은 전투가 치러졌던 곳이다. 드 보라가 시스라를 격멸한 곳이고(삿 5:19-21), 예후가 아하시야를 죽이고 쿠데타에 성공한 곳이며(왕하 9:27), 요시아가 이집트의 느고 2세를 가로막다가 전사한 곳이다(왕하 23:29-30, 609 B.C.). 팔레스타인 땅을 넘보던 이집트, 앗시리아 등의 대국들이 이곳에서의 혈투를 피해가지 못했다. 솔로몬은 이곳에 450여 마리의 말과 150여대의 전차를 수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시설(Stables)을 갖추놓고 전차부대를 주둔시켰다.

따라서 므깃도는 영적인 전쟁터의 상징이다. 아마겔돈은 용으로 상징된 사단과 짐승으로 상징된 칼의 권세자인 박해자와 그의 앞잡이인 666 거짓선지자와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로 뭉친 악한 영들이 집결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하는 영적 전쟁터로써 사단이 최후까지 발악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보라. 내가 도둑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섯 번째 대접재앙은 여섯 번째 나팔재앙에서처럼 유프라테스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여섯 번째 나팔재앙에서는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자 사람 삼분의 일이 불과 연기와 유황을 품어내는 말과 2억의 마병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여섯 번째 대접재앙에서는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통로가 열리고, 세 더러운 영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제왕들을 므깃도에 집결시킨다.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 동방의 왕들을 위한 길이 열린다는 뜻은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시리아 쪽으로의 이동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므깃도는 시리아 남쪽 사마리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프라테스 강은 로마제국의 동쪽 시리아 국경지대의 강으로써 동서양을 구분하는 지리적 분기점이다. 그 강 동편, 곧 유프라테스에서 인더스 강에 이르는 전역에 활쏘기의 명수인 파르티아인들이 있었다. 따라서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른다는 뜻은 로마제국의 방위선이 붕괴된다는 뜻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로마인들은 파르티아 왕

들을 두려워했고, 그들과 싸운 62년 전투에서는 패배를 맛보았다.

그렇다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누구인가? 해석자들의 대부분은 이들을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들’ 곧 귀신의 영들이 이적을 행하여 아마겟돈에 집결시킨 왕들로 보는 견해가 있고, 드물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천군천사들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여섯 번째 대접 재앙, 곧 심판과 저주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악한 영들을 정벌하기 위한 연합군으로 봐야 한다. 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로마인들이 두려워한 파르티아의 왕들이라면, 17절 이하의 말씀처럼, 철저하게 붕괴될 ‘큰 성 바벨론’ 곧 박해세력 로마제국을 정벌하기 위한 연합군으로 봐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것은 다 영적 전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의 전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이 최후 승리를 대미로 장식하게 될 것을 보여줄 뿐이다.

라. 출애굽기와 계시록의 재앙 비교

	모세의 열재앙 (출애굽기)	예수의 일곱기적 (요한복음)	나팔재앙 (33%)	대접재앙 (100%)
1	피의 재앙 (7:14-24)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2:1-11)	둘째, 셋째 재앙 (쏟물/출15:23)	둘째, 셋째 재앙
2	개구리 재앙	생략		세 더러운 영 여섯째 재앙
3	이 재앙			
4	파리 재앙			
5	생축 재앙 (9:1-7)	백부장의 아들을 살리심(4:46-54)		
6	독종 재앙 (9:8-12)	38년 된 병자 치유(5:2-9)		첫째 재앙
7	뇌성과 우박의 재앙(9:13-35)	풍랑진압 (6:16-21)	첫째, 일곱째 재앙	넷째, 일곱째 재앙
8	메뚜기 재앙 (10:1-20)	오병이어의 기적(6:1-15)	다섯째 재앙	
9	흑암 재앙 (10:21-29)	장님 치유 (9:1-41)	넷째 재앙	다섯째 재앙
10	장자 사망 (11:1-12:32)	나사로의 부활 (11:1-44)	여섯째 재앙	

마. 결론: 십사만 사천과 일곱 대접 재앙과의 관계

대접 재앙도 나팔 재앙의 맥락에서 생각해야 한다. 다만 다른 점은 대접 재앙이 나팔 재앙보다도 그 강도에 있어서 3배가된다는 점이다. 나팔 재앙의 강도가 33퍼센트 일 때, 대접 재앙의 강도는 100퍼센트가 된다. 대접 재앙을 대 환난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접 재앙은 성도를 괴롭히고 박해한 자들이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보복이다. 그러나 대 환난은 성도가 악한 세력에게 당하는 고난을 말한다.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의 무리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마치 이집트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어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과 같다. 따라서 환난은 성도가 당하지만, 재앙은 오직 불신자들만이 당한다.

7. 큰 음녀의 받을 심판(17-18장)

가. 짐승을 탄 큰 음녀(17:1-6)

계시록 17장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음녀와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 1절에서 ‘많은 물’은 음부 또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상징이다. 15절에서 천사가 설명하기를,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고 하였다.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세계의 패권을 쥔 로마제국을 의미한다. 18절에서 천사가 설명하기를,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하였다.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들을 신격화시켜 황제숭배를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극형에 처했다.

2절의 ‘땅의 임금들’은 로마제국의 지배아래 있는 왕들로서 황제숭배를 앞장서서 권장했던 자들이고, ‘땅에 사는 자들’은 황제숭배를 피해갈 수 없었던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처럼 음행을 마시고

취했던 자들이다. 이것은 로마의 영향으로 인해 제국의 광범위한 통치지역 전체가 황제숭배 및 우상숭배에 빠졌음을 의미한다. 이 상황을 보충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12-13절이다. 열 빨로 상징된 땅의 임금들이 짐승으로 상징된 로마황제로부터 왕의 권세를 받아 한 뜻을 품고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악용하여 짐승으로 상징된 황제를 섬기며 기독교를 대적한다. 그러나 14절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것이다.”고 선언하였다. 싸움의 결과가 하나님과 어린양과 성도들의 승리로 끝날 것을 명확히 밝힌 말씀이다. 어린양을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표현한 것은 ‘땅의 임금들’ 곧 지중해연안의 수많은 나라들을 거느렸던 로마황제보다 그 권세와 능력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3절의 ‘여자’는 1절의 ‘큰 음녀’와 동일인물로서 로마를 말한 것이며, 그 여자가 탄 ‘붉은 빛 짐승’은 황제를 말한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것은 그가 자칭 신이라 주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는 ‘일곱 머리와 열 빨’은 로마와 땅의 임금들을 상징한다. ‘일곱 머리’는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로마시를, ‘열 빨’은 ‘땅의 임금들’을 상징한다.

4절에서 ‘여자가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와 ‘가중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로마의 사치와 음란과 타락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5절의 ‘이마에 적힌 이름’,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중한 것들의 어미’라는 표현들은 ‘여자’가 로마제국을 상징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마에 적힌 이름’은 로마의 창녀들이 이마의 머리띠 위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는 풍속에서 가져온 표현이다. ‘큰

바벨론'은 18절,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로마를 말한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는 당시 로마가 세계의 모도(母都) 즉 메트로폴리스(metropolis)였기 때문이다.

6절에서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는 것은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때에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다는 것을 뜻한다.

나. 짐승의 비밀(17:7-18)

계시록 17장 7-18절은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밝히고 있다.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13장 3-4절의 반복이다.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은 네로가 죽어서 도미티아누스로 환생했다는 전설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어린양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모방한 것인데도 멸망당할 자들은 이 거짓 능력을 두려워하여 추종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지언정 그를 따르지 않는다.

전설에 따르면, 네로가 죽기 직전 동방 파르티아(Partheia)에 숨었다가 재기의 기회를 노렸다는 말이 있다. 일부 신학자들은 11절의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는 말과 13장 3절에 나오는 ‘상처를 입었다 나옴 짐승’에 대한 언급이 이 신화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의 사실여부를 떠나서 도미티아누스는 가장 강력하게 신성(神性)을 주장한 황제이고, 기독교 박해자였기 때문에 네로가 살아서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9절의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았은 일곱 산이요”는 일곱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로마시를 말한다.

10절의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는 초기 로마의 황제들을 말한다. 망한 다섯째는 네로이고, 지금 있는 여섯째는 베스파시아누스이다. 그러나 지금 있는 여섯째가 네로를 암시한 것처럼 보인다.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는 앞서 설명한 대로 죽은 네로가 여덟째 황제인 도미티아누스로 환생할 것이라는 암시이다. 이런 표현 때문에 학자들은 계시록을 도미티아누스를 알고 있던 사람이 그의 사후인 주후 96년에 썼을 것이라고 본다.

12-18절 전체를 살펴보면, 짐승으로 상징된 로마황제와 열 뿔로 상징된 땅의 임금들이 연합해서 황제숭배를 강요하고, 14절의 말씀대로, 어린 양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의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어린 양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이 이길 수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을 이기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은, 16-17절의 말씀대로, 로마제국을 말아먹게 된다. 16절은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고 하였다. 나라를 살리고, 발전시켜야 할 황제와 제왕들이 오히려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1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인하여, 그들의 뜻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제국을 망하게 할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실제로 로마의 황제들은 10여 차례 이상 극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말살시키려 했지만, 그럴수록 제국은 몰락의 길을 달리게 되었고, 박해자들은 단명하였으며, 사치와 쾌락의 노예들이 되었다. 결국에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주후 400년이 넘기 전에 전 로마제국이 기독교의 영향아래 놓이게 되었다.

다. 큰 음녀의 멸망(18장)

계시록 18장은 큰 음녀로 상징된 로마제국의 몰락을 적나라하게 묘사하였다. 로마제국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황제숭배와 기독교 탄압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3절은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된 로마의 멸망과 원인을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설명하였다. 첫째는 로마에 악령이 들끓었다는 점; 둘째는 영적 음행인 황제숭배강요가 있었다는 점; 셋째는 육적 음행인 쾌락과 방탕을 일삼았다는 점; 넷째는 사치와 탐욕이 가득했다는 점이다. '로마'란 제목의 HBO제작 DVD시리즈를 보면, 이런 정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로마제국 몰락의 큰 몫이 사치와 쾌락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리즈는 율리우스 시저 때부터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 때까지를 다룬 역사물이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의 시대정황이 칠후 같은 밤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더라도 계시록의 기록목적은 로마제국의 멸망과 몰락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만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계시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준다. 죄에 참여하지 말고 빨리 멸망당할 장소에서 나오라는 것이다.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것이다. 노아의 외침,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자의 외침, 니느

웨를 향한 요나의 외침이 바로 계시록의 외침이다.

5-8절은 죄를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로마의 교만과 패망에 대한 말씀이다. 죄와 사치와 교만함이 하늘에 미쳤고, 자기를 높여 영광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였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갑절로 갚으실 것이며,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로 재앙을 내려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9-10절은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로마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가슴을 치면서 울고, 그의 고통이 무서워서 멀리 서서” 탄식한다고 표현하였다.

나머지 구절들은 경제가 파탄 나고 무역이 끊기고, 상공이 폐쇄되고, 심지어 혼사도 없어 대가 끊김으로써 땅의 상인들과 무역업자들이 로마를 위하여 울고 애통해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20절은 이 모든 것들이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권면한다.

21-24절은 ‘큰 성 바벨론’이 크게 망할 것을 보충해서 설명하였다. 22절은 음악이 끊기고, 상업 공업 농업이 사라진 것을 보여준다. 23절은 등불이 꺼지고, 혼사가 끊긴 것을 보여준다. 이유는 상인들이 땅의 왕족이 되어 사치와 패륜을 일삼고, 온갖 미신과 우상숭배로 만국을 미혹했기 때문이다. 24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여 피를 흘리게 하였기 때문이다.

계시록 17-18장이 주는 교훈은 세상의 것은 매혹적이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일시적이고 패망할 것이고, 하늘의 것은 약하게 보이고, 별 볼일이 없어 보여도 참 안식과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란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이다.

라. 결론: 10-13장과 17-18장의 비교

10-13장에서 목회자, 교회, 성도가 두 짐승으로부터 삼년반의 기간 동안 박해를 받는 중간 계시를 보았다. 이 기간은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숭배 정책에 대항한 엘리야와 남은 자 칠 천명이 당한 고난의 기간이었다. 이 기간은 길지 않다. 하나님께서 주실 천년의 영광과 비교하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17-18장에서 성도에게 박해를 가했던 제국과 권세와 세도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17-18장의 중간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원수 갚아 주심과 성도의 고난을 위로하시는 능력의 주이심을 나타낸다.

8. 최후의 승리(19-22장)

가. 네 번의 할렐루야와 구원의 하나님(19:1-2)

계시록에는 구속함을 얻은 십사만 사천과 큰 무리가 부르는 ‘새 노래’ 또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5장 9절, 14장 3절, 15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 노래들은 한 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들이다. 그리고 이들 노래들의 백미는 19장에 나오는 네 번의 할렐루야이다. 헨델은 이 부분을 ‘메시아’에서 장엄하게 그려내고 있다.

계시록 19장 1절의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은 계시록 4-5장에 나오는 네 생물, 24장로들, 천군천사들, 7장과 14장에 나오는 구원받은 ‘십사만 사천과 큰 무리’가 부르는 연합성가대의 찬양이다. 이들이 세 차례 ‘할렐루야’를 외치며 노래하고 있다.

1절은 첫 번 ‘할렐루야’의 1절로써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노래하고 있다. 이 노래는 7장 10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와 12장 10절,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찬양과 더불어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어린양의 손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

한다. 이 찬양에 나타난 특징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이 가사가 이미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신앙고백이란 점이다. 이 고백은 큰 환란을 겪었던 사람들의 체험에서 나온 것이다. 둘째는 이 신앙고백이 신구약성서 66권 전체의 핵심고백이란 점이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없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다. 이 두 가지 신앙을 고백한 글이 성경책이다. 1500여년에 걸쳐 40여명이 기록하였지만, 한결같은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은 이 고백이 체험에 의한 신뢰할만한 것임을 입증한다. 셋째는 그러므로 옳은 팀, 이길 팀, 비록 지금은 밀리고 있고,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후승리를 거머쥐게 될 팀, 우승반지를 끼게 될 팀, 우승컵에 입 맞추게 될 팀에 소속하라는 강한 메시지이다.

2절은 첫 번째 ‘할렐루야’의 2절로써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고 노래하고 있다. 하나님은 구속함을 입은 성도에게는 구세주가 되시지만,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심판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기독교 탄압세력을 무너뜨린 것은 두 가지 점에서 당연하고 참된 것이다. 첫째는 ‘큰 음녀’로 상징된 제국과 짐승으로 상징된 제왕들이 영적인 음행인 우상숭배를 강요했고, 사치와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함으로써 세상을 오염시켰기 때문이다. 둘째는 제국과 제왕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처형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의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정의롭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면, 천국과 지옥과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만일 천국도 지옥도 심판도 없다면, 하나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오로지 불의와 악행만이 통하는 참혹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나. 어린양의 혼인(19:3-10)

계시록 19장 3절은 첫 번 할렐루야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일종의 '천상의 앙코르'(A. T. Robertson)이다. '큰 음녀'의 파멸이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 완전하고 영원한 파멸을 묘사한 것이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이다.

4절은 이십사 장로와 네 생물의 화답송이다. 그들도 "앞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였다. '할렐루야'는 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뜻이다. 계시록에서 표현한 '보좌의 음성'은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말한다. 보좌를 상징한 법궤는 두루마리 성경을 보관하던 곳이므로, 보좌의 음성 곧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의 말씀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무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한 보좌에서 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십사 장로와 네 생물의 화답송인지가 분명치 않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아멘 할렐루야'는 첫 번 할렐루야에 대한 '앙코르'인 것만은 분명하다.

6-8절은 네 번째 할렐루야이자, 하늘에 허다한 무리, 곧 천상의 연합성가대가 큰 음성으로 부른 노래이다. 가사는 이렇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나라이다. 거기에는 슬픔도 눈물도 없다. 거기에는 승리만 있고, 기쁨만 있고, 찬송만 있고, 사랑만 있다. 고통과 근심과 욕심은 모두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하다. 관소리 춘향전에서 이도령을 사랑한 성춘향이 한양으로 떠나보낸 낭군이 돌아올 날을 학수고대하던 중에 변 사또의 수청요구를 받고 단호히 물리치지만, 온갖

회유와 고문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칼을 쓰고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던 최악의 상황에서 극적으로 이도령이 나타나 “암행어사 출두요!”를 외치고, 악행을 저지른 변 사또 일행을 처벌한 후에 최후까지 정절을 지킨 성춘향과 백년가약을 맺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에서 보듯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말씀은 어린양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끝까지 정절을 지킨 신실한 신자 ‘성춘향들’을 구출하여 백년가약을 맺기 위해서 지상세계로 출두할 그리스도의 재림이 멀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는 말씀은 성도들이 지킨 신앙의 정절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9절은 믿음의 정절을 최후까지 지킨 성도들이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반드시 초대받는 것처럼 이 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이다.

10절은 우리 성도들이 최후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섬거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다.

다. 백마와 탄 자(19:11-16)

계시록 19장 11절의 백마를 탄자는 어린양 그리스도이시다. 알렉산더 대왕처럼 백전백승의 장군을 상징한다. 하늘이 열리자 그가 보인 것은 연극무대에서 휘장이 열린 다음에야 비로소 관객이 무대 배후에 있던 슈퍼스타의 위용을 보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인 것은 ‘신실하고 참되다’는 뜻인데, 그가 하늘로 올리어 가실 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신실하고 참되다’고 한 것이다.

12절에서 ‘눈이 불꽃같고 그 머리에 월계관이 많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불꽃같은 눈으로 판단하시는 심판주요, 백전백승하는

불패신화를 가진 장군이란 뜻이다. ‘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비밀병기를 소유한 자란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만 인류의 구세주이자 심판주이심을 말한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마치 암행어사가 임금의 명령에 따라 고을에 이르러 그곳의 사람들에게 상벌을 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상벌을 내리실 자임을 말한 것이다.

14절에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탄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한 것이고, 그들이 백마를 탔다는 것은 최후의 승자들임을 말한 것이다.

15절에서 ‘이한 검’은 날카로운 양날 검을 말하고, ‘철장’은 권세를 상징하는 철봉 곧 홀을 말한다. 양날 검은 포도송이를 추수하듯 악한 자들을 추수하겠다는 뜻이고, 철봉으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악한 자들을 부수겠다는 뜻이며, 추수한 포도송이를 포도주 틀에 놓고 밟아 즙을 짜듯이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뜻이다.

16절에서 ‘그 옷과 다리에 쓴 이름’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나타났다. 이것은 ‘땅의 임금들’ 곧 지중해연안의 수많은 나라들을 거느렸던 로마황제보다 그 권세와 능력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라. 심판과 저주의 잔치(19:17-21)

17-18절은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대조적인 심판과 저주의 잔치로써 공중의 새들로 하여금 다 와서 땅에 속하여 멸망당할 자들의 시신을 먹으라는 말씀이다.

19절의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은 사단의 무리를 말한다.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자들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성도를 대항하여 일으킨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다. 이런 영적인 전쟁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영적인 전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20-21절은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추종하던 악한 무리들이 사로잡혀 산 채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타는 불 못에 던짐을 받게 되고 모든 싸움은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승리로 끝난다는 말씀이다. 이런 사실을 믿고,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비록 지금은 지고 있고, 밀리고 있고, 얻어맞고 있고, 발버둥치고 있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 결론

(1) 무저갱(無底坑)

계시록 20장은 해석하기가 가장 난해한 곳이다. 신학자들 사이의 의견도 크게 넷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 이유는 2-3절의 말씀에 언급된 대로 사단이 천년 동안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잠깐 풀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무저갱에서 풀린 후에는 7-9절에 언급된 대로 유럽과 근동과 북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들을 끌어 모아 연합군을 결성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후에야 사단이 무저갱이 아닌 '불 못'에 던져짐으로써 모든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들이 끝나는 것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무저갱과 불 못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점도 설명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사람이 죽어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머무는 곳을 성서에서는 '음부' 또는 '중간상태'라고 말한다. '음부'는 넓은 의미에서 '죽음의 세계' 혹은 '영혼의 세계'이다. 이 음부가 '낙원'과 '무저갱' 또는 '탈타로스'로 나뉜다. 무저갱(無底坑)은 '깊은 곳, 밑

바닥이 없는 곳, 끝이 없는 구덩이'란 뜻이다. 그리스신화에 나오기도 하고 신약성서에서도 쓰인 '탈타로스'(벧후 2:4)와 '무저갱'은 거의 동일 개념이다. 다만 성서에서는 낙원에 반대되는 개념인 탈타로스나 무저갱을 음부로 지칭할 때가 있어서 음부란 말은 종종 좁은 의미에서 무저갱이나 탈타로스를 지칭하기도 한다. 무저갱과 탈타로스는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재림 후 부활하여 불 못에 들어갈 때까지 벌을 받는 고통과 흑암의 장소이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 이후의 세계는 부활세계이다. 부활의 몸을 가진 자들의 세계인 것이다. 낙원의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게 되고, 무저갱이나 탈타로스의 저주받은 영혼들은 심판받을 몸으로 부활하여 '불 못'에 들어가 밤낮 씬을 얻지 못하게 된다.

계시록 9장 1-2절을 보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어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나팔 제앙인 황충과 2억의 마병대를 예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는 무저갱의 사자요, '아바돈'이란 이름의 '파괴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황충의 임금이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두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를 대적하여 싸울 자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을 언급하고 있다. 13장 1절에서는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다시 17장 8절에서는 박해자인 짐승, 곧 황제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여러 정황들을 살펴 보면, 무저갱은 죽음의 세계이다. 이곳 죽음의 세계에서 올라오는 것들, 곧 황충이든, 짐승이든, 사단이든, 타락한 천사이든 다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은 사단일 가능성이 크다. 사단과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항하지만, 그들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무서

위하고 추종하는 자들을 해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은 자신의 군병들을 공격하여 괴롭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사단에 매인 자들의 삶이 처참한 것이다.

아무튼 3절은 사단이 일정기간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앞서 언급된 내용으로 봐서는 사단의 주거지가 무저갱이요, 그곳의 왕초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3절에서는 일천년 동안 꼼짝없이 갇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 때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 천년왕국

계시록 20장 4-6절은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천년왕국의 기간과 방법에 관한 명쾌한 답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천년 왕국의 ‘천년’이란 말이 문자적인지 영적인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시록 20장 4-6절에 대한 해석은 각기 다른 네 가지 왕국설로 나뉘지게 되었다.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에서 보좌에 앉은 자들로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누구인가라는 질문도 명쾌한 해답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최후까지 믿음을 지킨 구원받은 성도들인지도 모른다. 성도들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또 4절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자들이라 하였으니, 성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죽었다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

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들 성도들이 언제 또 어떻게 왕 노릇하는가이다.

이 문제에서는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방법과 영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으로 크게 나뉜다. 먼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 후에 부활한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문자적인 천년 동안 이방의 나라들을 대상으로 왕 노릇한다고 본다. 이것을 ‘역사적 전 천년설’이라 한다. 그들 가운데 또 다른 부류는 이 천년 왕국이 문자적인 유대왕국의 회복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되면 왕 노릇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상류층계급에 머물게 된다. 이들의 주장을 ‘시대구분설’이라 한다. 시한부 종말론으로 종종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구분론자들이다.

영적으로 이해하는 자들 가운데 한 부류는 현 세상이 천년왕국이라고 믿는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고 곧바로 영원한 세계가 이어진다고 믿는다. 이것을 ‘후 천년설’이라 한다. 또 다른 부류는 현 세상이 천년왕국은 아니고, 천상의 ‘낙원’과 지상의 ‘교회’가 천년왕국이라고 믿는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들이 낙원에서, 교회의 성도들이 지상에서 영적으로 천년왕국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죄악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무 천년설’이라 한다.

5-6절의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대한 해석은 앞에서 언급한 천년설에 준한다. 영적으로 이해하는 ‘후 천년설’과 ‘무 천년설’은 ‘첫째 부활’이 ‘영혼부활’ 곧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역사적 전 천년설’과 ‘시대구분설’은 예수님 재림 후에 있을 ‘육체부활’이라고 믿는다. 여기서 ‘첫째 부활’과 연관된 중요한 어휘가 4절에 나온 ‘살아서’란 표현이다. 영적으로 살았다는 뜻인지, 육체로 부활하였다는 뜻인지는 천년설의 입장에 따라 갈린다. ‘살아서’ 뜻이 영적이라고 보는 입장이 ‘후 천년설’과 ‘무 천년설’이다. 반대로 ‘살아서’가 육적이라고 믿는 입장은

‘역사적 전 천년설’과 ‘시대구분설’이다. ‘천년’이란 말도 ‘후 천년설’과 ‘무 천년설’은 영적으로 이해하고, ‘역사적 전 천년설’과 ‘시대구분설’은 문자적으로 이해한다. ‘둘째 죽음’도 마찬가지이다. ‘후 천년설’과 ‘무 천년설’은 ‘둘째 죽음’을 육체 죽음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첫째 죽음’은 ‘영혼죽음’이 된다. ‘영혼죽음’이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 또는 떨어진 것을 뜻한다. 그러나 ‘역사적 전 천년설’과 ‘시대구분설’은 ‘첫째 죽음’을 성도들의 ‘육체죽음,’ ‘둘째 죽음’을 불신자들이 불 못에 들어가 겪는 고통을 뜻한다.

(3) 곡과 마곡의 전쟁

계시록 20장 7-8절에서 사단이 천년 후에 무저갱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 장면은 에스겔서 38-39장에 연결된다. 거기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구소련) 왕인 곡을 쳐서 예언하도록 말씀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과 바사(페르시아)와 구스(에티오피아)와 붓(리비아)과 고멜과 북방의 도갈마 족속을 연합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겠다는 예언이다(겔 38:1-6).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지중해 연안의 북유럽과 근동과 북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망라된 연합군을 말한다. 팔레스타인 땅의 작은 이스라엘이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막강한 연합군이다. 이때는 유다민족이 유배에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고 태평세월을 누리는 때이다. 마곡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산으로 이들을 이끌어 내어서 그곳에서 서로 칼로 치게 하여 심판하시되 온역과 피와 폭우와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이 모든 곡의 군대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일로 온 나라가 하나님의 존대함과 거룩함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겔 38:18-23).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자기 시대보다 6-700년 앞서 예언되었고, 여전히 이뤄지지 아니한 에스겔서의 이 예언을 사단이 무저갱에서 풀린 이후 악한 자들을 연합시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대항할 영적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전쟁에서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결박되어 불 못에 들어가고 싸움이 영원히 멈추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사단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피조물이 그 수가 아무리 많다한들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계시록 20장 9-10절은 에스겔 38장 18-23절에 예언된 곡의 멸망에 연결해서 사단의 노력이 얼마나 허망하게 붕괴되고 마는가를 보여준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항하여 싸우려들던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과 유황과 연기로 가득한 지옥의 불 못에 던져져 그곳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도록 운명 지어졌다.

(4) 흰 보좌의 심판

계시록 20장 11-15절은 ‘흰 보좌 심판’에 관한 말씀이다.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산 자들은 변화되어 흰 보좌 앞에 서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음부와 함께 불 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 불 못이 둘째 사망이다.

유대인들은 티쉬리월 1일 새해부터 대 속죄일인 10일까지 지난해의 허물과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한 해의 축복을 보장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봉인되기를 소망한다. 이것

이 유대인들의 신년 소망이다. 생명책은 계시록에서 여러 차례 구원과 관련해서 언급되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다.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만 다 불 못에 던져지게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참 안식을 얻는다.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5)성서의 주제

성경 66권의 주제는 한 마디로 요약해서 승리이다. 성경은 꾸준히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능히 이길 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원이다.'고 말한다. 그래서 성경에 비친 하나님은 승리자이시요,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시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승리자 이상의 승리자이다(롬 8:37).

성경의 뼈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이를 증명한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짧게 잡아 250년, 길게 잡아 430년의 세월을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지도자 모세의 인도로 감행했던 영광의 이집트탈출 사건과 유대민족이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간 후, 스룹바벨의 인도로 제1차 고국귀환이 70년 만에, 에스라의 인도로 제2차 고국귀환이 148년 만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제3차 고국귀환이 173년 만에 이루어졌던 사건과, 그리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삼 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신 부활사건이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일컬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첫 열매'(고후 15:20,23)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이긴 후에 승

리의 열매들이 된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골 2:15)고 말한 것처럼, 노예가 해방이 되고, 포로가 자유가 되며, 죽음이 생명이 된다. 수치와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가 변하여 부활과 승리와 영광의 십자가가 된다.

이와 같이 성경은 고난에서의 구원, 시련의 극복, 죄에서의 구원, 죽음에서의 부활과 같은 궁극적인 승리, 최후의 승리를 말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기" 때문이다.

(6)최후의 승리

계시록이 강조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최후승리이다.

계시록 1-3장은 왜 그리스도가 이길 수밖에 없는가를 '인자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인자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교회의 목회자를 상징하는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로마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취는 것 같은 찬란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무섭게 위협하는 박해의 폭풍을 향해서 언제나 "잔잔해라. 고요해라."고 말씀의 검을 들어 명령하시면,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많은 분이기에 때문이다.

또 계시록 4-6장은 왜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가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하나님은 보석과 무지개로 둘러싸인 보좌방의 주인이시며, 우주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시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계는 그분의 큰 뜻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 그분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으시며, 뒤집어진 세상을 바로 세우실 분이시다.

하나님이 사단으로 하여금 3쿼터까지 잠시잠깐동안 악한 일을 하게 내버려둘지라도, 그는 결단코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 없고, 하나님의 편에 선 교회와 성도를 꺾을 수 없다. 그의 최후는 불 못 신세이다.

계시록에서 배워야 중요한 교훈은 사단과 천사와 인간은 모두가 피조물이라는 점이다. 피조물은 운명적으로 마이너스 1의 존재이다. 자신이 아무리 잘났다고 뛰어봤자 벼룩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 갈 수도 없다. 피조물이 사는 길은 오직 플러스 1의 존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단과 하나님과의 전투는 실제로 있을 수도 없고, 사단이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도 없다. 계시록이 비록 전투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쟁이 없다. 하나님의 어린양 J장군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군사들은 갑옷이나 군복대신 혼인예복을 입고 있다. 어린양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총칼에 의해서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J장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위엄 있는 말씀의 검으로 멸절되기 때문이다. 일찍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고, 말씀으로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실 것이다. 처음부터 사단은 게임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사단은 단 한 명의 천사에 의해서 단 하나의 쇠사슬에 묶이고 마는 힘없는 존재이다. 그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모방하고 표절하고 가장한다. 그러나 그는 운명적으로 유황으로 타는 불 못에 들어갈 마이너스 1의 존재에 불과하다.

계시록 7:19장은 왜 교회와 성도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가를 나팔재앙, 대접재앙, 성도들의 삼년 반 기간의 시련, 음녀와 바

벨론 멸망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한 때 큰 환란을 겪었으나 하늘의 영광을 차지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한 때 돈과 세상 권력을 쥐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과 영원히 타는 유황불 못에 던져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7)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

계시록 20-22장은 믿음의 끈을 인내로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는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질지를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황소머리를 하고 사람을 먹이로 삼던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면 영영 빠져나올 수 없는 복잡한 미궁 속에 들어간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가 건네준 실타래의 실 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괴물도 물리치고 미궁도 빠져나오는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믿음의 끈을 붙들고 환란과 역경의 미궁을 빠져나온 승리자들에게 선물로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계시록 7장, 21장, 22장과 이사야 65장에 잘 설명되어 있다.

첫째,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는 곳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하셨지만, 인간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존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보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모든 인간은 거룩한 몸으로 변형된 완전한 모습을 갖춘 깨끗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성도들의 집과 함께 있게 되며,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살게 된다(계 21:3-4).

둘째,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친히 빛을 비추는 곳이다.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고, 해와 전기가 필요 없는 곳이다(계 22:5).

셋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계 22:1), 생명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곳이다(계 22:2). 새 하늘과 새 땅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 곳이다(계 7:16). 정리해고나 부도 따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

넷째, 새 하늘과 새 땅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사 65:18). 새 하늘과 새 땅은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다(계 21:4).

다섯째, 새 하늘과 새 땅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곳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고(계 22:3; 사 65:25),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이다(계 21:4).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놀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 곳이다(사 65:25).

여섯째, 새 하늘과 새 땅은 깨끗하고 건전한 생각만 하는 곳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의 실수나 잘못이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 곳이다(사 65:17; 계 21:4).

일곱째, 새 하늘과 새 땅은 모든 성도들이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 하는 곳이다(계 22:5). 새 하늘과 새 땅은 남에게 지배를 받거나 고용 당하지 않는 곳이다.

이밖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튼튼하고,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임한 새 예루살렘성에서 보호받으며 안식하게 된다. 이곳에 들어갈 특권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어린양의 피로 자기 의복을 빨아야 한다(계 21:9-22:15).

(8) 새 하늘과 새 땅의 들어갈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좋은 곳이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무나 막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돈 많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머리 좋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잘났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곳에 들어가 땅을 차지할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머리 좋은 사람도 아니고, 인물 잘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첫째,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시련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이다. 이긴 사람들만이 이곳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권면하셨다. "처음행위를 가지라"(2:5). "죽도록 충성하라"(2:10). "회개하라"(2:16). "굳게 잡으라"(2:25).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3:3).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3:11). "네가 열심을 내라"(3:19).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2:7).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2:1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주겠다"(2:17). "새벽별을 주리라"(2:28). "이기는 자는 . . .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3:5).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3:12).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3:21).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21:7)고 말씀하셨다.

둘째,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계시록 21장 27절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고 했다.

셋째,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계 7:14).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으로

다."고 했다. '어린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다'는 뜻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는다는 뜻이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지금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성도들에게는 보장된 미래가 있기에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이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과(20:15)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21:8)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와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할 것(20:10)이라고 했다. 이들은 잠시 세상에서는 이기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미래는 절망적이고 비참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공한 자들 같으나 실패자들이다. 그들의 운명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믿음의 끈을 붙들고 있어야 최후 승리를 얻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第5章

天上의 禮拜(啓示錄 4-5章)

들어가는 말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무엇을 하게 될 것 같은가? 라는 질문에 신자들 대부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많은 시간을 예배로 보내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드리게 될 예배와 같은 종류의 예배를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의 천사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에서 일곱 가지 예배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미국 신시나티 신학대학원의 잭니 프레즐리(Dr. Johnny Pressley) 교수의 특강 내용을 편역한 것이다.

하늘의 보좌

(계4:1)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계4:2)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계4:3)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문자적인 형태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기술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란한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을 기술하고 있다. 요한은 하나님이 벽옥처럼 보였다고 말한다. 헬라어로 벽옥은 빛을 발산하는 다이아몬드 비슷한 보석을 말한다.

요한은 하나님이 홍보석처럼 보였다고 말한다. 헬라어로 홍보석은 빛이 받으면 붉은 빛을 발산하는 보석을 말한다.

요한은 하나님이 채색 무지개와 같고, 녹보석 같다고도 하였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24장로

(계4:4)또 보좌에 둘러 이십 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 사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 높은 계급의 천사일 수도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할 수도 있다. 24장로들 가운데 12장로들은 모든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12사도들일 가능성이 있고, 다른 12장로들은 모든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야곱의 12아들 또는 12부족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4장로들을 통해서 예배에 관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누구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네 생물

(계4:6)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계4:7)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계4:8)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계시록의 네 생물들은 에스겔 1장에 나오는 네 생물들과 매우 유사하다. 그들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얼굴 모습을 가진 살아있는 네 생물들이다. 그들은 각각 날개들을 가지고 있는데, 계시록 4장은 여섯 날개를, 에스겔은 네 개의 날개를 언급하고 있다. 에스겔서의 경우 날기 위한 날개가 두 개 더 있었을 것이다. 날개에는 눈들이 가득했다.

이들 네 생물들은 매우 중요한 천사들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 네 생물들이 사복음서 즉 사자는 마태복음을, 송아지는 마가복음을, 사람은 누가복음을, 그리고 독수리는 요한복음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경이 형성되지 아니한 1세기 말 상황에서 이들 네 생물들이 사복음서를 상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사람들은 이들 네 생물들이 사람의 네 가지 덕성 즉 사자는 숭고함과 충성을, 송아지는 힘을, 사람은 지능을, 그리고 독수리는 속도를 상징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 네 가지 덕성이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경건한 덕성보다도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오히려, 계시록 4장의 네 생물들은 지상의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된다. 사자는 야생동물을, 송아지는 가축을, 사람은 인류를, 그리고 독수리는 새들을 상징한다. 그리고 날개에 붙은 수많은 눈들은 지상의 생물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을 상징할 수 있다.

그러나 네 생물들을 통해서 예배에 관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누구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천상의 예배는 계속적인 예배이다.

(계4:8)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하늘의 천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이 하기를 지시 받고 있다.

(살전5:16)항상 기뻐하라. (살전5:17)쉬지 말고 기도하라. (살전 5:18)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천사든 사람이든 평범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매사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예배중이든 아니든지 간에 언제나 예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걸어가면서, 일하면서, 혹은 가까운 사람들과 즐거운 한 때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반드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야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평범한 일상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과 꾸준히 영적으로 교제하며 감사하는 생활 자세이다. 이것이 지속적인 예배의 모습이다.

2. 천상의 예배는 순종의 예배이다.

(계4:9)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계4:10)이십 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계4:11)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계시록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24장로들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네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상의 모든 생물을 지키시는 창조주이심을 상징한다.

24장로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찬양할 뿐 아니라,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고 있다. 그들의 이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복종을 상징한다. 면류관이 상징하는 바 이 지상에서 성취하고 소유하고 누리게 된 어떤 축복도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심으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상징한다. 또한 그들의 이 행위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을 상징한다.

이사야 45장은 피조물이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멸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다. 피조물이 조물주를 경외하지 않는 행위는 마치 질그릇이 토기장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내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도자기는 산산조각 부서지고 말 것이며, 부모를 존경할 줄 모르는 아이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이사야는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겸손히 내려놓고 그 분을 경배해야 한다. 그 분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신념으로 정기적으로 우리의 헌신을 재 다짐해야 한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두루마리

(계5:1)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계5:2)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계5:3)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계5:4)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계5:5)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두루마리 책은 쪽으로 된 요즘의 책하고는 아주 다르다. 이것은 파피루스나 양가죽 또는 송아지 가죽을 길게 이어서 만든 책으로써 말아서 보관한다. 고대에는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거나 전달할 때에는 그것을 말아서 실로 묶고 왁스나 진흙으로 매듭을 인봉하였다.

계시록의 이 두루마리는 일곱 개의 끈과 매듭으로 인봉된 책으로써 계시록과는 다른 책이다. 여기서 상징성은 두루마리를 기록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인봉을 때는데 있다.

6장에서는 인봉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떼어지고 있다. 인봉한 것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역사상에 발생된 악순환 되는 사건들 즉 전쟁, 기근, 질병, 순교, 심지어 종말에 관한 것까지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서의 우리의 목적은 6장의 인봉을 떼에 관한 해석에 있지 아니하고, 일곱 인봉을 떼시기에 능한 분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배우는 데 있다.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고 말하고 있다. 오직 역사의 진행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신적인 존재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역사의 미래가 그 분의 손안에 놓여 있다.

어린양

(계5:6)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
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사도 요한은 5절에서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가 유대 지파
의 사자라고 들었으나, 6절에서는 예수를 어린양의 모습으로 보
게 된다.

어린양의 형상은 계시록 5장의 장면에 적합하다. 왜냐 하면,
본 장에서는 예수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4장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강조하고 있
고, 5장에서는 구세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강조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찬양하
게 될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들이다.

예수는 “일찍 죽임을 당한 것”같은 어린양의 모습이였다. 여
기서 어린양의 피흘림이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피흘림 즉 손과
발과 옆구리의 피흘림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
용된 헬라어 단어는 희생 때에 어린양이 목줄림과 같이 예수의
목에 피흘림이 있는 것처럼 들린다.

예수는 머리에 일곱 뿔을 가지고 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동
물의 뿔을 종종 권세와 권위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숫자 7도 종종 충만과 위대함 등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다. 그
러므로 예수의 일곱 뿔은 두루마리의 일곱 인봉을 떼시기에 합
당한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는 일곱 눈을 그 얼굴에 가지고 있다. 요한은 이 눈들이
하나님의 일곱 영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4장 5절에 보면, “보좌
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켜 있
기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설명이 있다. 1장 4절
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
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

과” 라는 설명이 있다. 그러므로 일곱 영은 숫자 7이 상징하는 바대로 성령의 충만성과 위대함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하다. 또 예수의 일곱 눈은 그가 두루마리의 일곱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심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하다.

3. 천상의 예배는 음악이 있는 예배이다.

(계5:7)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계5:8)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 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아직까지 천사들이 찬양이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24장로들이 거문고를 가지고 어린양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음악의 도구를 통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임을 알 수 있다.

음악은 우리의 감정 표현의 수단으로써 음악을 통해서 온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다. 음악은 또한 은혜의 체험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설교의 내용은 쉽게 잊혀지지만 음악의 가사와 곡조는 오래도록 남아 있기 때문에 음악이 주는 은혜로운 메시지는 두고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도전하고 권면하면서 경건의 생활을 유지케 해준다.

사도 바울도 교회에서 음악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음악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수단이며, 성도와 성도 사이에 효과적으로 도전도 주고 권면도 할 수 있는 수단이다.

(엡5:19)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

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20)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약의 성도들도 예배 중에서 악기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 것을 읽을 수 있다. 천사들도 천상의 예배에서 악기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음악의 도움을 받아 보다 신령하고 아름다운 찬미로 하나님께 예배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악기의 사용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악기는 예배자들을 현혹시키거나 최면을 걸기 위한 방편으로 조작되어서는 안 된다.

4. 천상의 예배는 기도가 있는 예배이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24장로들이 손에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요한은 이 향이 담긴 대접들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으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감 같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됨을 설명하고 있다.

예배는 기도로 충만해야 한다. 예배순서 가운데는 대표기도도 있지만, 성도들은 예배 중에 시종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한다.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하는 분들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설교자나 인도자로부터 결단을 촉구 받을 때에 그들의 부름에 '예'하고 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살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도록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성도들이 시종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능력 있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조상들의 신앙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사도행전 4장 23-31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일심으로 기도할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적고 있다.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들에게 축복하실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5. 천상의 예배는 표현하는 예배이다.

계시록 5장은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세 개의 노래로 종결되고 있다.

(계5:9)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폐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5:10)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5:11)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계5:12)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계5:13)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2절의 말씀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어린양 예수를 찬양하고 있다. 여기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에 주목해야 한다. 요한은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천상의 존재들이 큰 음성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된다. 예를 들면, 계시록 1장 10절에서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등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 6장 1절에서도 요한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와 같은 소리”로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듣는다. 14장 2절에서 요한은 구원받은 십사만 사천 명의 성도들이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듣는다. 19장 1절에서는 요한이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찬양하는 것을 듣는다.

천상의 존재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고 외치는 이유는 천상의 백성들이 잘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들이 매우 활기에 차 있기 때문이다.

천상의 예배는 구약시대의 예배와 매우 흡사하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에 매우 활기차게 자신들의 감정을 표출하였다. 큰 소리 나는 악기들을 사용하여 큰 소리로 슬피 울거나 외쳤다. 시편 150편에 보면, 나팔 소리와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현악과 통소와 큰 소리 나는 제금과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예배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고요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때로는 빠른 템포와 열광으로, 때로는 느리게 가사를 생각하며, 때로는 손뼉 치며, 때로는 손을 들고, 때로는 무릎 꿇고 엎드려서, 때로는 편안한 자세로 찬양해야 한다. 참 예배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이 마음에 숨김없이 자신을 밖으로 표현될 때 가능하다.

6. 천상의 예배는 자발적인 예배이다.

계시록 4·5장의 예배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 특징이다. 네 생물이 찬양을 시작한다. 네 생물이 찬양을 할 때에는 언제나 24장로들이 합류한다. 24장로들이 찬양을 하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양을 시작한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양을 하면, 지상

의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시작한다.

천상의 예배는 자발적이며 자연스럽다. 어느 누구도 찬양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찬양할 것을 지시 받지 않는다. 일단 예배가 시작되면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연스럽게 찬양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성에 나귀 타고 영광스럽게 입성하실 때에 경험하셨던 예배의 정신이었다. 민중들은 예수 주변에 자발적으로 모여들었고, 종려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하였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민중들을 조용히 시키라고 명령했지만, 예수께서는 참 예배는 일단 시작되면, 그것을 멈추게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뜻에서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말씀하셨다.

천상의 천사들처럼 예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온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우리도 천상의 존재들처럼 예배할 수 있다.

7. 천상의 예배는 사려 깊은 예배이다.

(계5:14)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이란 말은 기도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마땅합니다’ 또는 ‘예,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중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에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동의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대표 기도의 내용을 경청하며, 성가대의 노랫말을 음미하면서, 그 내용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설교

자의 설교 내용을 경청하며, 설교자의 부름에 ‘예’하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아멘 소리를 얼마나 크게 내고 작게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들려지는 말씀들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배는 영으로 뿐 아니라 마음(생각)으로 드려야 한다고 하였다.

(고전14:15)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천상의 예배는 영적으로 사람의 감정과 관련하고 있다. 그러나 예배는 또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드려져야 한다.

나오는 말

계시록 4-5장에서 살펴본 천상의 예배 생활이 매우 지루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생활은 지루하기보다는 오히려 매우 신명나는 생활이 될 것이다. 세상에 서와 같이 근심과 걱정도 없고, 병들고 아픈 일도 없고,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의 문제가 없으니, 이것저것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을 터인즉, 천국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언제나 한결같이 구원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신나고 아름답게 은혜로운 예배의 향기를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은혜로우며, 얼마나 벅찬 감격을 맛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천상에서의 예배 생활을 우리는 미래에 주어질 약속으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맛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가르치고 배운 바를 생활 속에서 실천만 한다면, 우리는 천국생활을 부분적으로나마 선취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 246 • 풍랑을 잔잔케 하실 예수



Art By Pat Meresh Smith Copyright 1982/1992
1-800-327-7330 www.revelationillustrated.com

第6章 두 짐승에 對한 研究

들어가는 말

계시록 13장은 성도를 박해하는 두 짐승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 윌리엄 헨드릭센에 의하면, 첫째 짐승은 사단의 손이요, 권세를 상징하며, 둘째 짐승은 사단의 마음 또는 지혜를 상징한다. 그는 말하기를, “첫째 짐승은 사단의 박해 세력이며, 세상 모든 나라와 그들의 정부 안에서 또는 그들의 정부를 통해서 진행된다. 둘째 짐승은 이 세상의 거짓 종교와 철학들이다”³⁶⁾ 라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두 짐승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는 계시록 13장은 두 번째 환상과 네 번째 주기에 속하며, 12장과 함께 두 세계의 전쟁 즉 그리스도와 용 사이의 전쟁을 다루고 있다.

12-13장에는 일곱 인물이 등장한다. 이들은 ‘해를 입은 여인,’ ‘사내 아이,’ ‘용,’ ‘미가엘,’ ‘남은 자와 성도,’ ‘첫째 짐승,’ 그리고 ‘둘째 짐승’이다. 여기서 해를 입은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남은 자와 성도에 해당된다. 그렇게 되면, 각 왕국은 세 인물씩 남게 되는 데, 그들은 충수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각각 대표한다. 그리고 용은 그리스도의 적수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미가엘의 적수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남은 자와

36) William Hendriksen, *More Than Conquerors: An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2), p. 7.

성도의 적수로서 사단의 왕국을 대표한다.

이 두 세계의 싸움은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가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계속된다. 성서는 이 기간을 1,260일 혹은 42개월 혹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표시한다. 이는 모두 삼년반을 가리킨다. 이 기간은 용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성도를 박해하는 기간이다. 따라서 삼년반은 문자적으로 해석될 수 없는 상징적인 기간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시련의 기간이다. 그리고 이 삼년반의 특징은 매우 짧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년의 축복에 비교하면, 삼년반의 고난은 긴 것이 아니다.

이 기간이 처음으로 묵시문학에 나타난 것은 다니엘서 7장 25절과 12장 7절이다. 북왕국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숭배 정책을 펴면서 이스라엘 민중을 박해했던 기간이 삼년반이었다. 이 기간 동안에 엘리야와 칠 천명만 남고 모두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러 팔레스틴이 헬라제국의 손에 들어갔을 때에, 스스로 신의 현현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에피파네스 안디옥커스 4세가 헬라정책을 펴면서 유대인의 야훼신앙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성전 예배를 금하고, 성경을 불사르며, 우상을 세워 절하게 하였다. 이 기간이 역시 삼년반(주전 168-165년)이었던 것이다.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숭배 정책을 펴면서 삼년반의 기간 동안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결과로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마쳤다.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어 그 피를 개들이 핥았고(왕상 22:29-40), 이세벨은 높은 건물 창 밖으로 내 던짐을 받아 죽고, 그 살을 개들이 먹었다(왕하 9:30-37). 안디옥커스 4세도 이교숭배 정책을 펴면서 삼년반의 기간 동안 경건한 유대인들을 박해했으나, 제사장 맛다디아의 아들들이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헬라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켰다.³⁷⁾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삼위

37) Josephus, *Wars of the Jews*. i.1-6.

일체를 이루어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에 도전을 하지만 결단코 적수가 될 수 없다. 그들이 하는 일은 거룩한 삼위 하나님의 표절에 불과 하며³⁸⁾ 영원한 피조물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교회와 성도를 이길 수 없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창조주와 부활의 주님을 이길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이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피조물은 결단코 창조주가 될 수 없으며, 그 분을 이길 수 없다. 피조물은 아무리 힘이 세고 지혜로워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부족하고 거짓 될 수 밖에 없다. 거짓 선지자의 수 666이 암시하듯이 이는 하나님의 수 777에 미치지 못하는 수이다.

둘째, 그들이 누리는 권세는 제한적이며,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시면, 아무라도 권세를 가질 수 없다(롬 13:1). 그들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권세를 빼앗아 그들을 무력하게 만드실 것이다.

셋째,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절에 불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믿는 성도를 현혹하기 위함이다. 그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의 것을 가질 수 없다. 그들의 가르침은 언제나 거짓되고, 구원에 미치지 못한다.

넷째, 그들의 운명은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유황불 못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

계시록은 짐승들을 결코 두려움의 존재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오히려 잠시 받은 환난의 경한 것이 장차 올 영광과 죽히 비교할 수 없다(롬 8: 18; 고후 4:17)는 신앙심이 샘솟고 있다.

38) G. R. Beasley-Murray, *New Century Bible: The Book of Revelation* (Greenwood, S.C.: The Attic Press, Inc., 1974), p. 207.

계시록이 기술하고 있는 두 짐승은 과연 누구인가? 역사적인 인물인가? 그렇지 않으면, 상징적인 인물인가? 이 두 짐승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런 관심들을 가지고 두 짐승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첫째 짐승: 적 그리스도

13장의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은 이미 11장 7절에서 나타났으며, 두 증인과 싸우기 위해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자이다. 이 환상은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에 관한 환상과 관련이 있다. 바다는 때때로 악한 세계를 상징하며, 늘 요란한 중생 받지 못한 세대를 상징한다(사 57:20).³⁹⁾ 계시록 17장 15절은 이 점을 입증해 주고 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얹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바다는 또 영의 세계를 말하기도 한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요, 미가엘 천사장의 적수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 짐승은 두 가지 점에서 표절을 하고 있다. 계시록 13장 3-4절을 보면, 이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로부터 나온 자로 기술되고 있으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는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표절이요, 미가엘 천사장의 이름의 뜻인 “누가 하나님과 같겠는가?” 그리고 “누가 그와 겨루어 싸우겠는가?”를 표절하고 있다. 이들은 사단의 속임수이다.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자신이 마치 백성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으며, 가장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단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는 사단이 성육신한 적그리스도이다. 과거적 해석법에서는 이 짐승을 로마제국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 짐승을 고대 로마제국에

39) George E. Ladd, *Commentary on the Book of Revelation*(Grand Rapids: Eerdmans, 1971), p. 177.

만 국한시키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⁴⁰⁾

다니엘서 7장에 모두 일곱 머리와 열 개의 뿔을 가진 네 짐승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들 네 짐승은 계속되는 네 왕국을 대표한다. 사자는 바벨론 제국, 곰은 메데 파사 제국, 표범은 네 날개와 네 머리를 가진 헬라 제국, 무시무시한 열 개의 뿔을 가진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그러나 여기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은 이들 모두의 요소들을 한 몸에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은 모든 세계의 모든 왕국들을 상징하며, 로마 제국 한 나라에 제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일곱 머리는 제국들을 상징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곱 머리는 바벨론 제국, 메데 파사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한 이후 네 개의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이들은 마케돈, 소아시아, 셀루키드 제국, 그리고 이집트이다. 따라서 이들 모두를 합한 머리가 일곱이 되는 것이다. 또 다니엘서 7장 24절에 나오는 열 개의 뿔은 넷째 왕국인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상징한다. 구약성서에서 뿔은 언제나 권세와 힘을 상징하였다.

그러므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단이 성육신한 적그리스도이며, 박해세력이다. 전 역사를 통하여 세계의 모든 국가 안에서 또는 국가를 통하여 적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일어 날 수 있다. 일곱 머리는 전 세계를, 열 개의 뿔은 역사 속의 모든 제왕들을 상징한다. 칠은 완전수이며, 열(10)도 삼(3)과 칠(7)이 합하여 만들어진 완전수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 모든 왕이 다 적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아니다.

사단은 그의 머리에 일곱 개의 왕관이 있는 반면(12:3), 이 짐승은 열 개의 왕관이 있다. 이것은 “참람된 이름들을 위해 머리는 자유롭게 남겨 두는 한편, 왕관은 지배를 강조하는 한 방

40) Leon Morris,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83), p. 165.

법”⁴¹⁾ 일는지 모른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신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즉 그는 신의 이름을 그의 머리 위에 붙였고, 인간들에게 예배를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이다. 이 짐승은 인간의 교만을 이용하여 역사적으로도 많은 황제들을 유혹하여 자신들을 신이라고 부르도록 하고 예배하도록 명하였다. 로마 제국의 황제숭배는 물론이요,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 일본 제국 당시 한국을 합병하고 일황을 향하여 예배하도록 강요하였다. 죠오지 엘돈 라드는 계시록의 기록 배경이 되고 있는 황제 숭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적 그리스도의 자기 신격화는 역사상의 선임자들을 가지고 있다. 황제의 신격화는 로마 제국에 지배적이었다. 줄리어스 시저, 아우구스투스, 클라우디우스, 베스파시아누스, 그리고 디도가 사후 로마 상원에 의해서 신으로 선포되었다. 몇몇 황제들은 자신들의 살아생전에 주화에 DIVUS란 말을 사용하였다. 동로마 제국에서도 가끔 헬라어로 THEOS를 실었다. 일곱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도 보았듯이, 아시아의 도시들이 로마나 황제숭배를 조장하기 위한 황제께 바쳐진 성전을 갖는 영광을 누리려고 서로 우열을 다투었다. 가장 분명하게 신으로 주장한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다. 그는 주와 하나님(DOMINUS ET DEUS)이란 이름으로 불러 졌다. 국가나 국가 지배자의 신격화는 마지막 날에나 적그리스도에게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다. 근대 독재 국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⁴²⁾

바울 사도는 기독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41) Morris, p. 166.

42) Ladd, p. 178.

2.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온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의하면, 적그리스도적인 지혜는 땅에서 온다 하였다(빌 3:9 참고).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이다(19:20). 이 짐승은 이 세상의 거짓 종교와 철학을 상징한다. 그는 어린 양 같이 보이나,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이며, 참된 어린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절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에게 거짓 진리와 거짓 종교를 가르친다. 이들 거짓 교리들은 참된 기독교인의 진리보다 사탄 발림 같이 더 매력적이고, 더 능력이 있으며, 더 달고, 더 강해 보인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역사와 함께 모든 시대 모든 곳에서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4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독교인들에게 말한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꾀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또 사단의 속임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12절에서 말한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 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 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중요한 가르침은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와 같이 거짓 가르침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단의 기적의 능력을 최면이나 요술 기타의 방법으로 동원한다는 것이다(행 13:6; 16:16;

19:13이하). 이뿐 아니라, 이 거짓 기적 이외에도 이 거짓 선지자는 성도를 기만하기 위하여 실제로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마 7:22-23).⁴³⁾ 그러나 리안 모리스의 말대로 “짐승은 오직 불신자만 속일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사람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기만자의 공허한 기적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⁴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짐승은 매우 세력이 세며, 이 권능은 잠시나마 하나님의 허락의지 속에 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영원한 형벌이요, 끝까지 잘 참아 이긴 성도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단의 권세에 이길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신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골 2:8-10).

짐승은 현재 그를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오른 손과 이마에 새겨진 인(印)을 가지고 있다. 이 표에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새겨져 있다(13:17).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한 일종의 표절이다. 대 환난의 문지방에 선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이마에 인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되어 분리되며, 하나님의 진노의 쏟으심에서 보호된다(9:4). 그러나 이 인은 문자적으로 보이는 표를 의미하지 않는다.⁴⁵⁾ 그것은 하나님에게든지 사단에게든지 소속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에 불과하다.⁴⁶⁾

일단 종교적인 탄압이 시작되고 박해가 가해지면,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

43) Ladd, p. 184.

44) Morris, p. 172.

45) Ladd, p. 185.

46) Hendriksen, p. 150.

이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직장에서는 파면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몸을 피신하여 숨기다 보면,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는 일조차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돈도 떨어지고 일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물리적인 박해는 대개가 통제사회에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숨기는 입장이 되고 보면, 매매나 구입은 물론이요, 일상생활조차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갖지 않으면, 사고파는 매매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짐승의 표란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짐승을 섬기는 것이므로 통제사회에서 독재자를 따르지 않고서는 심각한 의식주 난을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표는 사람의 소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고 하셨다.

거짓 선지자의 수가 666이다. 666은 역사상에 나타난 어느 특정인을 말하기보다는 집합적으로 거짓 종교나 철학을 가르치는 자들이 틀림없다. 짐승 자체가 666에 해당된다. 헬라어 Θηριον(짐승)은 666이 된다. 이 숫자는 사람의 숫자이다. 그러므로 666은 거짓 종교나 철학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이는 우의적인 유대인의 게마트리아(Gematria) 즉 그들이 표현하는 글자와 동등 가를 가진 숫자를 기초로 하여 성서 해석을 유도하는 신비적 방법이다. 이것을 또 이소셉시즘(isopsephism)이라고도 한다.

666은 6의 삼위일체이며, 777의 7의 거룩한 삼위일체에 못 미치는 일종의 표절이다. 7은 완전수이다.⁴⁷⁾ 6은 7에서 하나가 부족한 숫자이며, 6은 인간의 숫자이다. 인간은 항상 부족한 존재이다. 그는 제 6일 췌에 만들어 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47) Thomas F. Torrance, *The Apocalypse Tachy*(Grand Rapids: Eerdmans, 1959), pp. 85-86.

따라 지음을 받은 이성의 동물이요, 언어와 도구를 쓸 줄 아는 만물의 영장이다. 감정을 통제하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 시킬 줄 아는 동물이며, 의지적인 결단력을 가진 종교적인 동물이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그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언제나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6이란 숫자는 다른 모든 숫자 위에 있으면서도 완전 수 7에는 언제나 하나가 부족한 수이다. 6은 언제나 완전수에 이르지 못한다. 6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고, 표적을 빗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666의 의미는 인간은 언제나 실패하고, 실패하며, 또 실패한다는 뜻이다. 인간은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는 결단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의 거짓 종교와 철학으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서는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 예수는 완전 그 이상이다. 상당한 수의 해석자들은 888의 비밀수가 예수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시비린 신탁(Sibylline Oracle 1:324)에서 사용됐다고 한다. 888의 의미는 완전 수 777에 하나를 더한 수이다. 666이 완전수에 하나가 부족한 수라면, 888은 완전 수 보다 하나가 더 많은 수이다.⁴⁸⁾

순교자 저스틴은 유대인 트리포(Trypho)와의 논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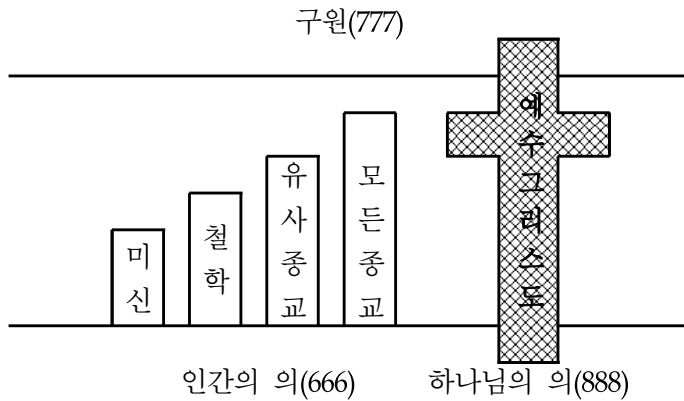
제 8일째 날에 어린이들을 할례 하도록 지시한 계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첫날에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과오와 악행으로부터 할례를 받는 참 할례의 유형이었다. 왜냐하면, 주 첫날은, 그것이 비록 주기적인 날짜에 따라 모든 날들의 첫 번째이지만, 제 8일째라고 불린다.⁴⁹⁾

저스틴은 이 글에서 주일을 제 8일째 날로 정의하면서 참 할

48) Ray Summers, *Worthy Is the Lamb: An Interpretation of Revelation*(Nashville: Broadman, 1951), p. 177.

49) *Dialogue with Trypho* 41:4.

례의 예표라고 하였다. 이는 기독교 예배가 더 이상 제 칠 안식일 예배가 아니라, 제 팔 주일 예배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고대 시비린 신탁이 예수의 비밀 수를 8로 표기한 것은 예수가 부활하신 주일에 드러지는 기독교 예배와 관련해서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그 이유는 십자가가 더하기(+) 표식인 것과 관련해서 숫자 8은 완전수 7보다 1이 더 많은 숫자이며, 예수야말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이다.



구약성서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진 히브리식 표현 방식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모스 2장 4절(1:6,9,11; 잠 30:15,18 참고)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죄를 힐책하실 때 쓰신 표현을 보면, “유다의 세 가지 범죄를 인하여 또 네 가지를 인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우리말 성경에는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잘못된 번역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for three transgressions of Judah and for four.” 이 말의 의미는 유다의 범죄가 그 한계를 벗어났다는 뜻이다. 3은 완전수로서 삼위 하나님께 쓰이는 것과 같고, 4는 완전수보다 하나가 더 많은 것을 말하여 유다의 범죄가 그 정도에 있어서 극

에 도달하였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은 표현은 미가서 5장 5절(욥 5:19 참고)에서도 볼 수 있다. 미가서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여기서 7과 8의 겸용도 3과 4의 겸용과 같은 표현이다. 7은 완전수요, 8은 7보다 하나가 더 많은 수로서 그 정도에 있어서 충분하고 남는다는 뜻이다. 앓수르 군대가 유다를 칠 때에 메시아가 그들을 완벽하게 쳐부술 군대를 일으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666은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부족한 존재요, 거짓 선지자요, 헛된 철학이다. 그들은 신의 대권을 주장하지만, 그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마치 진리를 소유하고 있어서 인간들을 완전한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되다. 참된 베임바 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인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짐승을 무서워해야 할 아무 것도 없다. 사단의 세력이 가진 권세는 일시적이며,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며, 그들은 머지않아 영원한 불못에서 형벌을 면치 못할 존재에 불과 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들 짐승과 사단이 가진 모든 것은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표절에 불과하며 기만이다. 그들은 거짓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궁극적인 승리와 축복과 구원이 있다.

거짓 선지자가 의미하는 바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무신론(불가지론과 회의론을 포함), 마르크스주의, 세속 인문주의, 뉴 에이지 운동 등은 바로 이들 거짓 철학이요, 이를 가르치는 자들이 곧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들 이론들은 기독교의 가르침의 대용물로서 불신자들에게 사단의 사탕발림이 되고 있다. 이들도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신조도 있고, 경전도 있으며, 전도자도 있어서 그들 자신들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엄밀히 말해서 종교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다분히 종교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존재를

최소한 의심하거나 부정한다. 이들 이론에는 절대자나 절대윤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상황적이다. 그러므로 진리란 존재 할 수 없는 것이다.

세속 인문주의를 예로 들어보자. 1933년 미국 인문주의 학자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철학적, 종교적 원칙들을 모아 편집하여 『인문주의자 성명』(Humanist Manifesto)이라는 책을 펴냈다. 여기서 34명의 지도급 인문주의자들이 서명을 하였고, 여기에는 존 듀이(John Dewey)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후 40년이 지난 1973년에 이들 세속 인문주의자들이 다시 모여 제 2 집 『인문주의자 성명』을 펴냈고, 114명의 지도급 인문주의자들이 서명을 했다.⁵⁰⁾

이 책은 그들 신앙의 교과서요, 경전이며, 이들 인문주의자들은 그들 종교의 전도자들이다.⁵¹⁾ 이들의 신은 자신이요, 이들의 원리는 진화론에 바탕을 두어 모든 것을 우연과 숙명으로 처리하며, 절대자의 절대윤리를 부정하며, 상대적이고, 상황적인 윤리를 부르짖는다. 오늘날 이들이 뭉치는 이유는 교육을 통하여 기독교를 물리치자는 사단의 꾀계요, 성도의 최대의 적인 거짓 선지자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창조설을 가르치거나 기도하는 것을 종교의 자유라는 구실아래 반대하며, 성의 자유와 포르노를 권장함으로서 인간의 도덕성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들은 또 기존의 권위를 부정함으로서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사회 혼란과 타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설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현대인에게는 무관하다.

50) John Eidsmore, *God and Caesar: Biblical Faith and Political Action* (Westchester, Ill: Crossway Books, 1984), p. 132.

51) Josh McDowell & Don Stewart, *Handbook of Today's Religions: Understanding Secular Religions*(San Bernardino, CA: Here's Life Publishers, Inc., 1982), p. 9.

(2) 인간이야말로 이 우주 속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이다.

(3) 진화야말로 모든 삶의 통합적인 원리이다.

(4) 인간은 순수히 육체적, 생물학적 동물이다.

(5) 절대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절대도덕이나 절대윤리 또는 절대가치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자율이며, 상황적이다.

(6) 인간은 이성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풀어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인간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

(7) 어떠한 신도 인간을 구원 할 수 없으며, 인간은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⁵²⁾

그러나 절대자가 부정되고, 절대가치나 윤리관이 부정되는 사회에서는 권위와 질서가 붕괴되고 자유와 자율이라는 이름아래 기강이 와해되고 만다. 도덕성이 없는 사회, 구심점이 없는 사회, 통제할 수 없는 사회, 진리나 윤리가 없는 사회, 죄를 죄로 정죄할 수 없는 사회,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모든 것이 상황적인 사회에서는 힘의 논리 즉 적자생존만이 가능하게 된다. 이로서 돈과 물질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고,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사람 죽이기를 파리 죽이듯 한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이 세속 인문주의가 교육계에 침투하여 무슨 일을 해왔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인간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계시록은 두 짐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

나오는 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교황이니, 바코드니, EC

52) Eidsmore, pp. 131-134.

공동체니 하면서 떠들어댄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어느 것 하나도 성서를 바로 해석한 것이 아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황제숭배를 강요한 로마제국이나 황제였으며, 거짓 선지자는 이를 권장하고 집행한 사제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의 두 짐승은 종교적인 박해와 배교를 강요하는 모든 자들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들은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 있게 마련이다. 일제 말기 일본제국의 신사참배 강요야 말로 계시록의 상황과 너무도 잘 어울리는 역사적 사건이다. 일본제국이야 말로 적그리스도요, 이를 총칼로 집행한 자들이야말로 거짓 선지자 666이었던 것이다. 계시록의 두 짐승은 반드시 총칼의 힘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박해하는 자들만은 아닐 것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평화 시기에는 글의 힘으로 혹은 교육의 방법으로 침투해 오는 반 기독교적이고 반종교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점과 바로 이들이 오늘의 두 짐승이라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참고서적

- Ladd, George Eldon. *A Commentary on the Revelation of John*.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5.
- Beasley-Murray, G. R. *New Century Bible: The Book of Revelation*. Greenwood, S.C.: The Attic Press, Inc., 1974.
- Eidsmore, John. *God and Caesar: Biblical Faith and Political Action*. Westchester, Ill: Crossway Books, 1984.
- Ferguson, Everett. *Early Christian Speak*. Abilene, Texas: Biblical Research Press, 1981.
- Hendriksen, William. *More Than Conquerors: An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5.

Josephus, *Wars of the Jews*.

Lightfoot, J. B. *The Apostolic Father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6.

McDowell, Josh & Stewart, Don. *Handbook of Today's Religions: Understanding Secular Religions*. San Bernardino, CA: Here's Life Publishers, Inc., 1982.

Morris, Leon.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83.

Summers, Ray. *Worthy Is the Lamb: An Interpretation of Revelation*. Nashville: Broadman, 1951.

Torrance, Thomas F. *The Apocalypse Today*. Grand Rapids: Eerdmans, 1959.

第7章 千年王國說

Ⅶ. 無千年說¹⁾

무천년설(Amillennialism)은 천년 왕국을 예언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말세 전에 이 지상에 범세계적인 의와 평강의 시기가 있을 것을 성서가 예언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종말론이다.

무천년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 사이의 선과 악의 평행적이고 동시적인 발전이 있을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이 발전(갈등 또는 투쟁)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을 믿는다.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부활과 심판이 있을 것이며, 절대적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왕국 즉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새 질서가 뒤따르게 될 것을 믿는다.

무천년설 주창자들은 후천년설이나 전 천년설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찾지 못한다. 일부 무천년설 주창자들은 천년 왕국을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사이를 잇는 교회시대로 이해하며, 다른 일부 학자들은 천년 왕국을 이 시대의 어느 특정한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또 다른 일부 학자들은 천년 왕국을

1) 제4장 천년왕국설은 다음과 같은 세 권의 책을 주로 이용하였다. Loraine Boettner, *The Millennium*(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86); Robert G. Clouse, ed. *The Meaning of the Millennium Four Views*(InterVarsity Press, 1977); Curtis I. Crenshaw and Grover E. Gunn, *Dispensationalism Today, Yesterday, and Tomorrow*(Memphis: Footstool Publications, 1985).

중간상태(낙원)로 보기도 한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볼 때, 무천년설 주창자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지상왕국으로 보며, 천상의 중간상태에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축복을 왕노릇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성 어거스틴은 천년 왕국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취된 것으로서 해석했다. 그는 천사의 결박이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다는 것과(눅 10:18), 첫째 부활은 신자의 중생을 의미하며(요 5:25), 천년 왕국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전 교회시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몇의 학자들의 견해는 아래와 같다.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 현재의 하나님의 왕국 시대는 완성되고 영원한 형태의 하나님의 왕국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임시적인 왕국이 아닌 영원한 왕국으로서 제시되고 있다(사 9:7; 단 7:14; 눅 1:33; 히 1:8; 12:28; 벧후 1:11; 계 11:15). 미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영원한 상태에(마 7:21-22), 영생에(마 18:8-9), 또는 구원된다(막 10:25-26)는 뜻이다.²⁾

플로이드 해밀톤(Floyd Hamilton): 천년으로 제한한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성서의 유일한 언급은 계시록 20장이다. 여기서 영혼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동안 왕노릇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육체를 갖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동안 영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천년은 완전한 수, 완성의 수이며, 완전한 시기 또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사이의 완전한 시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수이다.³⁾

루저즈(Rutgers): 천년 왕국은 현시대와 중간상태 모두를 포함한다.⁴⁾

조지 머레이(George Murray): 사단의 결박은 그리스도에 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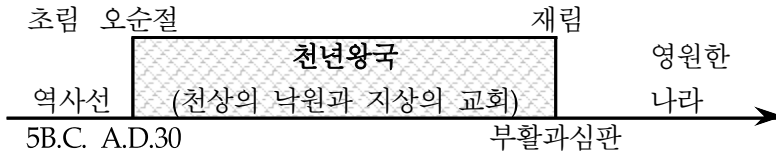
2)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p. 708.

3) Floyd Hamilton, *The Basis of Millennial Faith*, p. 35.

4) Rutgers, *Premillennialism in America*, p. 71.

서 초림시 구속사역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믿는다. 마태복음 12장 29절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고 말한다. 이 결박은 사단을 모든 면에서 제한한다는 뜻이 아니라, 만국을 미혹하는 일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사단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을 더 이상 막지 못한다. 계시록 20장 5절의 “첫째 부활”은 영적 부활을 의미한다. 죽은 성도가 중간상태(낙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축복을 천년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중생된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영적 부활을 이미 체험한 자들이다.⁵⁾

예수께서도 가라지 비유(마 13:24-30, 36-43)에서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선과 악이 주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을 암시한다.



8. 後千年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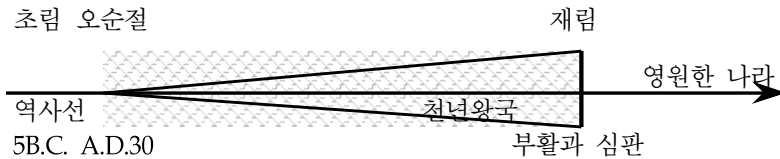
후천년설(Postmillennialism)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왕국 이후에 있다는 설이다. 후천년설에 의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복음의 전파와 개개인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현세에서 확장되고 있다. 선교활동은 세계를 기독교화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평화와 번영의 장시기(長時期)가 도래할 것이다. 이 시기가 곧 천년 왕국이다. 새 시대는 현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세계의 기독교 인구 비율은 점차

5) George Murray, *Millennial Studies*, pp. 184-186.

늘어날 것이다. 기독교인의 도덕적 영적 영향의 증가로 악은 점차 감소될 것이다. 교회는 더욱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문제들도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난다. 재림과 동시에 죽은 자들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된다.

후천년설은 일종의 유토피아 설이다. 후천년설에서의 천년 왕국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현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천년 왕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한다. 또 성서는 후천년설의 주장과는 달리 주의 재림이 가까울 수록 세상이 더욱 악해질 것에 대해서 말한다. 이런 점이 결점이다. 후천년설의 강점은 인간의 심령에 세워진 영적 왕국을 믿는 것과 재림과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동시적인 사건들로 믿는 것과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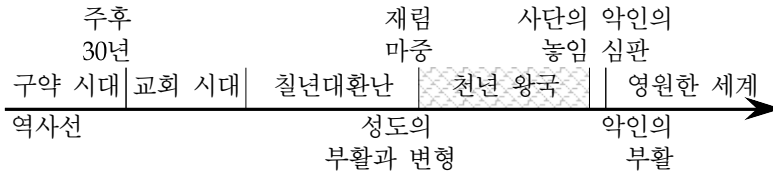


9. 前千年說

전천년설(Premillennialism)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있을 것을 믿는 설이다. 전 천년설은 칠년대환난을 믿으며, 역사적 전천년설(Historical Premillennialism)과 시대구분설(Dispensationalism)로 구분된다.

역사적 전 천년설은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 환난을 겪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큰 권능과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죽은 성도가 부활하며, 살아 있는 성도는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들림을 받게 되며, 지체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으로 돌아와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를 쳐부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운다고 믿는다. 이 설을 후 대환난설(Post-Tribulationism)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대구분설은 비밀휴거(Rapture)가 대 환난 직전에 있을 것과 그리스도께서 경고 없이 어느 때든지 다시 오실 것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성도가 부활하며, 살아 있는 성도는 변형된 몸으로 비밀리에 공중에 들림 받아 주님을 영접하게 되며, 공중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믿는다. 들림 받은 성도는 지상의 칠년대환난이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 머문다. 이 칠년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지상에 남은 자들을 통치하게 되며, 계시록 4:19장에 언급된 재앙들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칠년의 대환난이 끝나면, 그리스도와 공중의 성도가 지상으로 돌아오며(이를 계시라고 한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쳐부수게 될 것이다. 이 때에 이 지상에서 끊겼던 유대인의 왕국이 회복이 되어 천년의 기간동안 지속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고 개심을 하게 되며, 주님의 형제들로서 이 왕국에서 매우 특별한 대우와 은총을 받는 위치에 놓이게 될 것으로 믿는다.

시대구분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2천년 전 지상에 계실 때에 이 왕국을 세우려고 유대인들에게 제시하였으나 그들이 거절함으로써 재림의 때까지 철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기관 즉 구약의 예언자들이 전혀 예측치 못한 교회가 임시로 왕국을 대신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교회와 이스

라엘을 철저하게 구별한다. 이 설을 전 대환난설(Pre-Tribulationism)이라고 한다. 이들은 계시록에 언급된 대부분의 재앙이 칠년 대환난 기간 중의 후삼년반에 발생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역사적 전 천년설도 유대인들의 일시적인 개심을 믿는다. 그러나 천년 왕국을 유대인의 왕국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왕국으로 이해한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교회의 창립과 오순절 성령강림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한다.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믿기 때문이다.

가. 전 천년설의 개요

(1) 하나님의 왕국은 현재 이 세상에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왕국은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2) 기독교어로 세상을 개종시키는 것이 현 복음시대의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증인으로서 만국에 복음을 전파하며,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에 바로 복종케 하며, 교회의 성도인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만국으로부터 모으는 것이다.

(3) 세상은 점차 악해지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왕국을 세우시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4)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배교, 전쟁, 기근, 지진, 적그리스도의 출현, 대 환난 등이 있을 것이다. 시대구분설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칠년대환난 전에 성도가 휴거 된다고 믿는다.

(5) 현재 우리는 교회시대 말기에 살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고,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일어날 것이다.

(6)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죽은 모든 성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 전 천년설은 이 시기를 대 환난 직후로, 시대구분설은 대 환난 직전과 직후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은 영혼구원의 중생의 체험을 “첫째 부활”로 믿는다.

(7) 부활한 성도와 변형된 지상의 성도가 공중에 들림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 전 천년설은 주님 영접후 지체없이 지상에 내려오지만, 시대구분설은 칠년간 공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며 대 환난이 끝나기를 기다린다고 믿는다.

(8) 성도의 보상을 위한 행위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시대구분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 보상이 공중 혼인잔치 직전과 휴거 직후에 있을 것으로 믿는다.

(9) 대 환난전과 기간 중에 유대인들은 팔레스틴 영토에 회복될 것이다.

(10) 그리스도를 단지 한번 보게 되는 것으로서 유대인들은 범국가적으로 개심할 것이며, 참된 회개로 주님께 돌아 올 것이다.

(11)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와 모든 그의 권세를 아마겟돈 전쟁에서 멸망시킬 것이다.

(12) 아마겟돈 전쟁후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 수도를 정하시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왕국을 세울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성도와 변형된 성도가 일천년 동안 의와 평강으로 다스릴 것이다.

(13) 이 통치기간 동안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이 재건되고, 절기와 금식과 제사장 제도가 재건되며, 이들 재건된 구약의 의식과 제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신과 그리스도인 예배자들에 의해서 행하여질 것이다.

(14) 천년 왕국에서는 자연에서 저주가 제거됨으로서 풍성한 소출을 내게 될 것이며, 사막이 장미꽃을 피우며, 사나운 짐승이 순하게 길들여 질 것이다.

(15) 천년간 동안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 올 것이며, 왕국에 병합될 것이다.

(16)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변화 받지 못한 채 마음으로 거역할 것이나 멸망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쇠뿔동으로 다스릴 것이다.

(17)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는 사단이 결박될 것이며, 무저갱에 갇혀 지상에서의 활동이 제한될 것이다.

(18) 천년 왕국 말엽에 사단이 잠깐 동안 놓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도를 거의 압도하는 사악하고 발악적인 인간의 반역이 일어날 것이다.

(19)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부활하여 심판을 받고 사단과 두 짐승과 함께 유황 불 못에 던짐을 받게 될 것이다.

(20) 천년 왕국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완벽하게 전개되어 성도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상의 개요를 종합해 보면, 천년 왕국 때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거나 변형된 죽지 않는 성도와 칠년대환난 이후 지상에 살아남았던 자들이 함께 사는 모순된 세계가 될 것이며, 부활하지 않았거나 변형되지 못한 자들이 계속해서 출생과 사망을 거듭하게 됨에 따라 최소한 두세 차례의 주의 재림과 부활이 뒤따라야 하는 모순을 낳는다. 전 천년설의 문자주의로 인해서 전혀 신앙이 없던 유대인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며, 여전히 불완전하고 죄악이 남아있는 그러면서도 사막에 꽃이 피고 샘이 솟는 모순된 그리스도의 왕국을 주장하게 된다.

나. 시대구분설의 개요

시대(dispensation)란 인간이 하나님의 의지인 어떤 특별계시에 대한 순종과 관련해서 시험되어진 기간을 말한다(Scofield). 일곱 개의 각각 다른 시기에 하나님께서 새롭고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순종을 시험하신 기간을 말한다. 하나님은 각 시대에 의로 시작한 반면, 인간은 반복해서 주어진 새 출발의 기회들을 그 때마다 실패하였다고 말한다.

시대구분설에서는 주의 재림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눈다. 공중재림을 비밀휴거라고 말하며, 휴거는 칠년대환난 직전에 있다. 그리고 칠년 후에 지상 재림을 계시라고 말한다. 휴거후

칠년 공중 혼인잔치 때에 성도는 보상을 위한 행위심판을 받게 되며, 지상재림 후에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만국 심판이 있을 것을 주장한다(마 25:31-46). 만국은 그들이 대 환난 기간 동안에 주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을 취급한 행위를 근거로 심판을 받게 되며, 의로운 국가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사악한 국가들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비교. 여호수아서 6:22-25, 기생 라합의 선행>.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1)죽을 때 그리스도인에게(마 25:13; 24:42-44), (2)심판 때(마 24장; 막 14:61-62), (3)부활 후 제자들에게(요 14:18, 28; 16:16; 마 16:28), (4)오순절 날에 성령을 통해서(행 2:16-21), (5)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계 2:16), (6)공생애 기간 동안에 팔레스틴 여러 도성에(마 10:1-23; 눅 10:1), (7)신자들에게(요 14:21, 23; 마 18:20), (8)세상 끝날에 최종적으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이다.

시대구분설은 칠년대환난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 대환난의 기간 칠년은 다니엘서의 70주간에 관한 예언(9:24-27)에서 마지막 주간 칠년에서 생각해 낸 것이다. 칠년을 다시 둘로 나누어 전 삼년반에 유대인들은 팔레스틴에 돌아가 적그리스도와 계약을 맺고, 성전을 건축하며, 제사의식을 재건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개심할 범세계적인 복음운동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후삼년반 초기에 적그리스도는 계약을 파기하고, 악인으로서의 본색을 드러내며, 희생제사를 파기하고, 자신의 형상을 성전에 세우며 예배를 강요한다. 유대인들은 이를 반대하고,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된다(계 13:14-15). 따라서 대 환난은 후삼년반에 일어난다.

시대구분설에서의 천년 왕국은 유대인 중심왕국이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제2계급의 위치에, 기타 이방 국가들은 유대인 왕국의 봉신국가들이 된다. 또 유대인들은 불신앙의 상태에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국가로 돌아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함께 개심할 것을 믿는다.

시대구분설에서는 산상수훈을 포함해서 복음서의 많은 부분이 교회시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또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산상수훈과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천년 왕국시대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 시대구분설의 세 가지 특징과 여러 가지 주장

시대구분설의 세 가지 특징은 문자주의, 이스라엘과 교회의 분리, 그리고 삼입기 이론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시대구분설은 구약 예언의 철저한 문자적인 해석을 참된 보수신학으로 인정한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가 선포한 왕국의 성격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왕국을 이해했는가에 따라서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윗의 정치적 통치의 문자적 회복을 기대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화롭게 확장된 모세의 의식법과 다윗 왕의 정치적 왕국이 회복된 나라로 이해한다. 찰스 라이리(Charles C. Ryrie)는 문자적 해석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문법적으로 그 시대에 사용된 평범한 의미 그대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을 성서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해석상의 많은 문제들을 낳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구분설에서는 성서의 영적해석을 이단으로 단죄한다.

둘째, 교회와 이스라엘을 영원히 분리한다. 교회와 이스라엘의 영적 동일성을 부정하며, 은혜와 법은 일치할 수 없는 배타적인 것으로 본다. 시대구분설에 따르면, 구약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천상의 백성이며, 구약과 천년 왕국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상의 백성이라고 주장한다. 스코필드(C. I. Scofield)와 류이스 스페리 샤퍼

(Lewis Sperry Chafer)는 지상의 씨(seed) 이스라엘은 영원히 새 땅에, 천상의 씨(seed) 교회는 영원히 새 하늘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이원화시키고 있다. 최근의 시대구분설은 모든 시대의 성도를 지상에서 살게 될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구약의 성도, 대환난 성도, 천년 왕국 성도를 제외시키고 있다.

셋째, 시대구분설은 교회를 유대왕국과 천년 왕국 사이에 생겨진 공백을 메우는 사생아로 취급하고 있다. 이를 삼입기 이론(parenthesis theory)이라고 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교회시대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삼입기간이며, 유대인 프로그램에 첨가된 기간으로 본다.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하지 않았다면(마 23:37-38, 눅 13:34-35), 예수의 초림시에 유대인 왕국시대가 시작되었을 것이고, 교회는 존재치 않았을 것으로 본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전혀 없었던 것으로 믿는다. 이 공백기 이론은 다니엘 70주 예언에 대한 시대구분적인 해석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다. 이 설에 의하면, 교회는 다니엘의 70주의 69째 주와 70째 주 사이가 예언적으로 미리 보지 못한 삼입기라고 말한다(단 9:20-27). 70째 주는 칠년대환난의 칠년을 말하며, 다윗 왕국 회복 직전에 있을 한 주간을 말한다.

시대구분설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첫째, 인류 역사를 일곱 시대로 나누어 설명한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정부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왕국시대로 나눈다. 무죄시대는 인간의 타락이전 시대를 말한다. 양심시대는 타락으로부터 노아의 홍수 때까지를 말한다. 인간정부시대는 노아의 홍수 때부터 아브라함의 소명 때까지를 말한다. 약속시대는 아브라함의 소명 때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까지를 말한다. 율법시대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때부터 오순절 성령강림의 때까지를 말한다. 은혜시대는 교회시대를 말한다. 왕국시대는 교회시

대가 끝나고 이어지는 천년 왕국시대를 말한다.

둘째, 여덟 계약을 말한다. 타락전 에덴계약, 타락후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과 맺은 계약, 팔레스틴 계약(신 30), 그리스도에 의한 새 계약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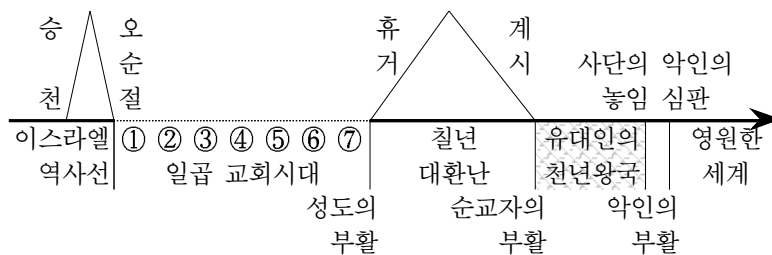
셋째, 두 세 번의 재림을 주장한다. 칠년대환난 직전의 비밀휴거와 칠년대환난 직후의 계시를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도 주님의 계시가 필요해 진다.

넷째, 세 번 또는 네 번의 부활이 필요하게 된다. 휴거 때의 성도의 부활, 계시 때에 있을 칠년대환난 때 죽은 순교자들의 부활,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죽은 성도의 부활이 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있을 불신자들의 부활까지 합치면 모두 네 번의 부활이 있게 된다.

다섯째, 네 번 또는 일곱 번의 심판을 주장한다. 휴거후에 있을 성도의 행위보상 심판, 계시 때에 있을 양과 염소를 가르느 만국심판,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있을 악한 자들의 심판,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죽은 성도의 심판, 그리스도의 인성 속에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신자들의 죄의 심판(Scofield), 신자들 자신의 양심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한다.

여섯째,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던 성도의 육체가 변형 받기 위해서 또 한번의 휴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라. 시대구분설의 도표



(1)교회시대

시대구분설은 인류역사를 일곱 시대로 나눌 뿐 아니라, 교회 시대를 일곱 시대로 나눈다. 일곱 시대로 나누는 방법이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필자가 비록 시대구분설을 옳다고 믿지는 않지만,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에 준해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보았다.

(가)에베소 교회시대(30-96년경까지): 국지적인 박해, 형식주의(처음 사랑 버림).

(나)서머나 교회시대(97-313년경까지): 박해(죽도록 충성하라, 책망이 없음).

(다)버가모 교회시대(314-590년경까지): 신앙의 자유(발람의 교훈), 야만 민족침입(안디바의 순교).

(라)두아디라 교회시대(591-1054년경까지): 암흑(셋별), 이교(세벨의 음행).

(마)사데 교회시대(1055-1517년경까지): 암흑, 타락(칭찬이 없음).

(바)빌라델비아 교회시대(1518-1800년경까지): 종교개혁(저주가 없음).

(사)라오디게아 교회시대(1800년경부터 재림 때까지): 세속주의(칭찬이 없음).

(2)칠년대환난

주의 재림의 시기를 점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회복의 때를 매우 중요시한다.

1917년 영국의 알렌비(Allenby) 장군이 팔레스틴 전투에서 오토만 터키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둠으로써 오토만 제국의 400년 팔레스틴 통치를 종식시켰다. 알렌비 장군은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하던중 예루살렘 성문에 이르러서는 행군을 멈추고 말에서 내려 도보로 입성하였다. “예수께서 걸으셨던 예

루살렘을 내가 어찌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에서였다. 동년 영국의 벨푸어 외상은 유대인의 팔레스틴 이주 및 신국가 건설을 위해서 ‘벨푸어 선언’을 하게되었고,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팔레스틴에 복귀하기 시작하였다. 그후부터 팔레스틴은 31년간 영국의 위임통치아래 있었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드디어 건국하였다.⁶⁾

그리고 한 세대를 40년으로 계산한 할 린지, 스코필드 등이 이스라엘이 건국된 1948년에 40년을 더하여 나온 1988년을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의 시기로 믿어 휴거설을 유포하였다.

이장림의 다미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휴거설을 주장한 것도 이스라엘이 건국된 1948년을 기산점으로 잡고 거기에 마태복음 1장에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의 42대 족보를 연수로 계산하여 ($2,166 \div 42$ 대) 산출했다는 한 세대 햇수인 약 51년을 더한 1999년($1948+51$ 년)에 그리스도의 지상 공개 재림이 있고, 그 앞서 7년 전인 1992년에는 그리스도의 비밀 공중 재림과 의인의 비밀 휴거가 있다고 가르쳤다. 날짜를 구태여 10월 28일로 정한 것은

6) 이스라엘은 1897년 8월 29일 이스라엘 재건의 원동력인 시오니즘을 선언한지 1백년을 넘겼다. 1948년 5월 14일 건국이래 아랍연맹국들의 생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의 물과 지하수를 펴 올려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사막 같은 불모지에 농사짓고 산업발전에 힘쓴 결과 반세기만에 인구가 600만명, 국민 일인당 소득이 17,000불에 이르는 요단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주후 73년 로마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로마 병사의 발아래 짓밟히는 애잔한 이스라엘 여인의 모습을 조각한 금화를 발행했었다. 2차대전 중 6백만 유대인의 학살 현장을 지휘했던 한 독일 장교는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 유대인들의 마지막 소원이 로마시대의 모의금화를 손에 쥐고 죽는 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수난의 세월이었다.

주후 73년 이스라엘 멸망이후 예멘에 이주한 유대인은 2천년 가까이 문명 세계와 격리된 채 살아 왔다. 한테 어느 날 풍문으로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 자기네 조국 이스라엘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2천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약속이 실현되었음을 안 순간 4만3천명의 유대인들은 냄비쪽과 명석 하나 맡아 메고 모든 재산을 버린 채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마치 버스 정거장에서 다음 버스 기다리듯 2천년을 기다리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시오니즘이다(이규태. “시오니즘.” 조선일보. 1997년 8월 30일자 칼럼 참고).

성력으로 7월 1일인 고대 이스라엘의 나팔절이 1992년에는 9월 28일이 되는 데 구원받을 사람을 늘리기 위해 1개월 늦추어졌고, 이 사실이 여러 차례 꿈으로도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⁷⁾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 소개된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의 족보는 42대가 아니라, 40대 족보이다. 이 40대 족보는 역사적인 정확성을 가진 대 수로 이해되기보다는 신학적인 뜻이 담긴 ‘해석으로서의 역사’로 이해되어 져야 한다.⁸⁾ 그리고 이 40대 족보에 따른 연수가 2,166년이란 숫자도 역사적으로 검증된 숫자가 아니다. 2,166년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숫자라 할지라도, 2,166년을 40대로 나누면($2,166 \div 40$), 한 세대 햇수가 약 54년이나 되어서, 이장림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은 1999년이 아니라, 월드컵 대회가 열리는 2002년이 된다. 그리고 휴거는 2002년에서 7년을 빼 1995년이 된다.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 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 네 대요, 바벨론으로 이거 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 네 대러라(마 1:17).

다미 선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의 연도를 1999년으로 본 것은 아주 단순한 수치 계산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시대구분설에 입각해서 인류의 역사를 칠 천년으로 보았을 것이고, 이 가운데 구약의 역사를 사 천년, 신약의 역사를 이 천년, 나머지 천년을 왕국시대로 보았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원년(紀元年)으로 따져 2000년을 교회시대의 마지막 해로 보았을 것이다. 여기서 1999년을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의 시기로 본 것은 2000년을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후에 있을 적그리스도와의

7) 안식교회가 1992년 9월 27일자 한국일보에 전면 게재한 “10월 28일 휴거설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되었는가?” 참고.

8) 역대기상 1장부터 3장(그 중에서도 특별히 3장 10-20절)을 자세히 살펴 보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빠진 사람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쟁과 천년왕국시대의 돌입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보았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았다면, 1992년이 휴거가 일어나는 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탄생하신 해는 기원년이 아니라,⁹⁾ 기원전 4년에서 7년 사이이다.¹⁰⁾ 예수의 탄생은 적어도 기원전 4년에 사

9) 서력 기원의 계산 착오는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525년 로마 법왕의 명령으로 쓴 『부활제의 서(書)』라는 책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이 책에서 그는 예수 탄생을 로마 건국 기원 754년(서력 원년)으로 채택하였다. 이것이 664년 영국의 윌토비 종교회의에서 그대로 채택되었으며, 9세기경에 유럽으로 확산되었다고 한다[이시이 다케오, 『에피소드로 본 세계사』 남궁은 역(행담, 1993), 85쪽].

10) 예수는 언제 태어나셨는가?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A.D.(Anno Domini, 우리 주님의 해)와 B.C.(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를 사용하여 연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연도대로라면 예수는 A.D. 1년에 출생하신 것이 된다. 또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의 생일을 12월 25일에 기념한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는 A.D. 1년 12월 25일생이신가? 그렇지 않다.

로마인들은 로마제국건립연도로 시작하는 A.U.C.(Anno Urbis Conditae)를 사용하여 연도를 나타냈고, 1년을 10달로 하는 달력을 사용하였다. B.C. 46년에 율리우스가 로마 달력에 2달을 더 삼입케 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12달을 갖게 되었다. 이 달력체계를 개선한 사람이 소시게네스(Sosigenes)이다. 참고로 로마에서는 3월 25일에 새해가 시작되었다.

1582년 교황 그레고리 13세는 율리우스력(Julian calendar)이 갖는 오차, 즉 1000년에 8일 정도 늦어지는 오차를 수정하였다. 수정된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에 따르면, 로마의 건립연도는 B.C. 753년이 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의 달력은 로마제국이 멸망한 이후 대략 1세기가 지난 뒤부터 썸한 날짜들이다. 이 작업은 A.D. 525년에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Dionysius Exiguus)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디오니시우스는 로마 황제들의 계위기간을 썸하는 방식으로 예수께서 탄생하신 해를 정하였는데, A.D.와 B.C.사이의 0년을 계산에 넣지 않음으로써 1년의 오차를 낳게 하였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으로 황제의 자리에 있었던 4년의 기간을 계산에 넣지 않음으로써 오차를 5년으로 벌려 놓았다. 이 오차가 정확한 것이라면, 예수는 B.C. 5년에 출생하신 것이 된다.

이 연도가 정확한가는 두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첫째가 헤롯대왕의 사망연도이다. 헤롯은 예수께서 출생하시기 전에 살아 있었고, 예리고에서 볼 수 있었던 월식이 일어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월절 절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천문학자들은 이 때를 B.C. 4년 3월 말이나 4월 초로 계산한다. 유월절에 근접한 시기에 월식이 있었던 때는 B.C. 4년뿐이고, 그해 3월 12-13일에 월식이 일어났고, 4월 11일에 유월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베들레헴에 별이 출현했던 연도이다. 천문학자 마크 키저(Mark Kidger)는 베들레헴에 별이 출현한 시기와 예수께서 탄생하신 때를 B.C. 5년 3-4월경으로 본다. 키저는 천문학자의 입장에서 베들레헴의 별의 정체는 물론이고, 동방박사들의 정체 및 예수의 탄생시기를 가장 합리적이고 종합적이면서 성서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을 해 주고 있다.

베들레헴의 별과 관련해서 마크 키저가 제시하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1. 대략적으로 추정되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일치해야 한다.
2. 유일하고 특별하며 인상적인 현상이어야 한다.
3. 드문 현상이어야 한다.
4. 동방박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줄 수 있어야 한다.
5. 동쪽에서 나타나야 한다.
6.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상기한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천체현상들이 B.C. 7년에서 B.C. 4년 사이에 다음과 같이 있었다.

1. B.C. 7년 5월과 12월 사이에 물고기자리에서 일어난 목성(jupiter)과 토성(saturn)의 삼중합<5월 29일, 9월 29일, 12월 4일에 각각 합이 이루어짐>.

2. B.C. 6년 2월에 물고기자리에서 일어난 화성, 목성, 토성의 결집.

추가: B.C. 6년 2월 20일에 달이 목성을 가린 엄폐가 화성과 토성이 결집한 위치보다 약간 동쪽에서 이뤄짐.

3. B.C. 5년 그리고/또는 B.C. 4년 봄에 독수리자리/염소자리에서 나타나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에게 관측된 천체 또는 천체들.

마크 키저는 위의 현상들을 동방박사들이 마침내 유대 땅에 메시아가 낳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한 일련의 현상들로 해석한다. 또 그는 말하기를 "목성은 왕의 행성이며 동시에 자비로운 행성인 반면, 토성은 사악함을 상징하는 행성이고, 화성은 전쟁을 상징하는 행성이다. 동방박사들은 목성과 토성의 만남을 위대한 지도자(오랫동안 기다려 온 메시아)가 태어나서 사악한 지도자(로마의 황제)를 물리치는 것으로 해석했을 것"이라고 한다. 또 엄폐는 유대에서 한 왕이 태어날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현상으로 동방박사들이 이해했을 것으로 설명한다.

키저는 별자리들과 관련해서 사자자리는 왕, 물고기자리는 유대인과 관련된 별자리이며, 신성이나 초신성은 왕의 탄생과 관련된다고 말한다. 또 키저는 예수는 B.C. 5년 3-4월경에 태어나셨고, 동방의 박사들은 바빌론이나 더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 지방의 점성가들이었으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연관된 자들로 본다.

마크 키저는 전한서와 삼국사기에 실린 글들을 베들레헴의 별의 관측기로 보며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전한서--B.C. 5년 3월 10일과 4월 7일 사이<건평(建平) 2년 2월>에 혜성 하나가 염소자리의 알파별과 베타별 근처에 나타나서 70일 이상 보였다." 삼국사기--B.C. 4년 3월 31일<혁거세왕 54년 2월 이윽(己酉)일>에 건우성 근처에 털이 많은 별 하나가 나타났다." 키저는 이들 두 국가에서 관측된 현상들을 동일한 사건으로 추정하며 신성의 폭발로 본다.

망한 헤롯 대왕이 죽기 전이란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 뿐 아니라, 신약시대는 예수의 탄생 때부터가 아니고, 주후 30년 교회가 출범한 오순절 성령강림 때부터이다. 그리고 이 교회시대가 이 천년에서 끝날는지, 아니면 그 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인류의 역사가 칠천년에서 멈출 것이란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칠년대환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공중재림과 성도의 비밀휴거가 있는 후 지상에서는 칠년간 대환난이 있고, 공중에서는 성도의 행위보상을 위한 심판(고후 5:10)과 사단과 미가엘의 전쟁(계 12:7-12)과 공중 혼인잔치(계 19:7-9)가 있으며, 칠년이 지난 후에는 그리스도의 공개 지상재림이 있을 것을 주장한다(계 19:11-16). 칠년대환난 기간 동안에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며(겔 38-39장), 일곱 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 사단의 박해,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계 19:17-21; 율 2: 13-16)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3)천년 왕국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계 20:7-10)과 백보좌 심판(계 20:11-15)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키저는 처음 동쪽에서 보였던 별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무렵, 즉 두 달쯤 지난 시점의 새벽 동틀 무렵에는 거의 정확히 남쪽에 있게 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2주마다 별이 한 시간씩 빨리 뜨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새벽에 여행했다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별을 따라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키저는 B.C. 5년에 나타난 베들레헴의 별은 신성(nova)이었을 것이며, 중국에서 70일 동안과 한국에서 동시에 관측되었고, 독수리자리 D0의 별이라고 추정한다. 이 별이 폭발한 때가 바로 B.C. 5년 3-4월경이기 때문에 이때 예수께서 출생하신 것으로 본다.

위의 글은 마크 키저(Mark Kidger)가 쓰고, 김상철이 옮긴 {천문학자의 관점에서 본 베들레헴의 별(The Star of Bethlehem: An Astronomer's View)} (전파과학사, 2001)을 읽고 간략하게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마. 70이레 도표

시대구분론자들이 주장하는 70이레는 구약 다니엘서 9장 24-27절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단 9: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단 9:25)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 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단 9:26) 육십 이 이레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단 9: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과 계시록 11-13장에서 언급된 삼년반에 근거해서 시대구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표를 만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마지막 70이레이다. 시대구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주간을 주후 26년 69이레가 끝난지 수천 년이 지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다고 주장하는 칠년대환난의 기간으로 해석한다. 여기서 70이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데 주후 26년에 69이레가 마쳤고, 나머지 70번째 이레가 남았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칠년대환난의 때로 미루어 해석한다면, 이스라엘은 그 때까지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스

라엘은 주후 135년경에 나라를 완전히 잃었고, 1948년 5월 14일에 건국하였다. 환언하면, 이스라엘은 주후 26년 이후에도 135년까지 지구상에 존재했었고, 그후 나라가 없다가 1948년에 건국하여 지금 부국을 이루고 있다.

457B.C.	408B.C.	A.D.26	휴거	계시	
7x7=49년	62x7=434년	30년/교회시대	칠년대환난	천년	영원한
7이레	62이레	①②③④⑤⑥⑦	1이레	왕국	세계
주전 457년에 예루살렘 을 중건하라 는 영이 내림 (단 9:25)	주전 408년에 예루살렘성 을 중건 (단 9:25)	주후 26년에 기름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남(단 9:25) 62이레 후에 기름부음 받은 자가 끊어짐 (단 9:25)	장차 한 왕의 백성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함(단 9:27) 그이레절반에 제사와예물을 금함(단 9:27)	이미 정한 종말 까지 (단 9:27)	

다니엘 9장 24-27절에서 말하는 마지막 이레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26년에 세례 받고 시작해서 30년에 끝난 예수의 삼년반 공생애를 전 삼년반으로 볼 수 있고, 30년에 교회가 창립해서 34년에 바울이 개종한 때까지를 후 삼년반으로 볼 수 있다.

둘째, 66년에 시작해서 70년에 끝난 유대 전쟁과 예루살렘 멸망을 전 삼년으로 볼 수 있고, 전투에서 패배한 잔류 열심당원들이 마사다 성에서 투쟁한 70년에서 73년까지를 후 삼년반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에피파네스 안티옥쿠스 4세가 즉위한 이후로 성전을 모독하고 유대교를 금하며, 헬라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주전 168년까지를 전 삼년반으로 볼 수 있고, 마카비가 이끄는 하시딤의 승리로 유대교 금지령을 해제시키고, 성전 예배를 복원한 주전 165년까지를 후 삼년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니엘이 예언한 장차 나타날 한 왕은 예수, 티투스,

또는 안티옥쿠스 4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

바. 중요 연대표

주전 612년 바벨론이 앓수르의 수도 니느웨성 함락

주전 609년 이집트의 느고 2세 팔레스틴 진군, 요시야 므깃도
에서 전사, 유대왕국 속국화

주전 605년 바벨론이 갈그미스에서 이집트 군대 제압, 제 1차
포로

주전 597년 바벨론이 예루살렘 정복, 제 2차 포로

주전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 함락, 성전파괴, 제 3차 포로

주전 539년 10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 정복. 332년까지
이스라엘을 지배.

주전 538년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대인 본국에 1차 귀환, 스룹
바벨 인도(스 1:2-4)

주전 516년 예루살렘 성전 건축

주전 457년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유대인 본국에 2차 귀환, 예
스라 인도, 예루살렘성 중건축(스 7:7; 단 9:25)

주전 432년 유대인 본국에 마지막 귀환, 느헤미야 인도

주전 408년 예루살렘성 중건

주전 332년 헬라제국(알렉산더)이 팔레스틴 정복, 141년까지
이스라엘을 지배

주전 168-141년 마카비 독립전쟁

주전 141-63년 하스몬 집안이 독립 이스라엘 왕국 통치

주전 63년 로마제국(폼페이)이 예루살렘 함락. 주후 395년까지
팔레스틴을 지배

주후 26-30년 예수의 공생애 및 30년 교회 출범

주후 66-70년, 132-135년 유대 독립전쟁

주후 395-638년 기독교 비잔틴이 팔레스틴 지배

주후 638-1099년 칼리프 제국(아랍, 모슬렘)이 팔레스틴 지배

주후 1099-1291년 십자군 시대
주후 1250-1517년 이집트의 팔레스틴 지배
주후 1517-1917년 오토만 터키의 팔레스틴 지배
주후 1917-1948년 영국의 위임통치(국제연맹)
주후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

예레미야서 25장 11-12절(단 9:2)에 의하면, 유대왕국의 포로기간이 70년간으로 예언되어 있다. 70년 포로기간은 두 가지 연대 측정이 가능하다. 첫째는 608년-538년=70년이고, 둘째는 586년-516=70년이다.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제 1차 포로이후 유대인들이 느헤미야의 지휘 하에 마지막으로 본국에 귀환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73년(605-432=173)이다.

10. 千年說의 時代的 變遷

첫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기까지는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던 때이라, 전 천년설을 선호하였다. 파피아스, 이레내우스, 순교자 저스틴, 터툴리안, 히폴리투스, 메도디우스, 콤모디아누스, 랍탄티우스 등의 초대교회 교부들이 전 천년설을 인정하였다.

둘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한 이후에는 어거스틴(354-430)의 후천년설의 영향을 받아 에베소 종교회의(431년)에서 전 천년설을 정죄하였다. 티코니우스, 빅토리누스, 안드레아스가 후천년설을 주장하였다.

셋째, 12세기 말엽에 와서는 요아킴이 다시 전 천년설을 주장하였다. 요아킴이 교황을 적그리스도인 짐승으로, 천주교회를 음녀로, 교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때를 천년 왕국의 시작으로 해석한 영향으로 천년 왕국의 시작을 종교개혁이후로 보는 견해가 생겼다.¹¹⁾ 토마스 문처의 농민전쟁도 이 범주에 속한다.

11) 김철손, 『요한 계시록 신학』(대한기독교서회, 1989), 96-104쪽.

넷째, 르네상스, 산업혁명, 계몽시대의 영향으로 낙관론이 득세하면서 후천년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다니엘 휘트비(1638-1726), 아우구스투스 스트롱, B.B. 워필드, 찰알스 핫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 20세기 초 활발해진 선교 활동과 선교사 파송에도 영향을 받았다.

다섯째, 1827년 영국 성공회의 신부 요한 다비(1800-1882)가 시대구분설을 펴뜨린 이후 C. I. 스코필드가 주석성경을 만들 정도로 시대구분설은 인기리에 번졌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회복 등 역사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사건들을 인식하고,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1988년, 1992년 휴거설을 주장하였으나 모두 빗나가고 말았다.

한국에서는 일제의 탄압과 6.25동란 등 정치 및 경제적인 불안으로 전 천년설이 우세하였다. 특히 민중 불교인 미륵신앙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던 한국인들에게는 천년왕국설이 쉽게 받아들여 졌을 것이다. 미륵종교에는 천년왕국에 비교될 수 있는 용화세계, 낙원에 비교될 수 있는 도솔천, 그리스도에 비교될 수 있는 미륵이 있어서 기독교의 천년왕국설과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

참고서적

- 김철손. 『요한계시록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89.
- 다케오, 이시이. 『에피소드로 본 세계사』 남궁은 역. 행담, 1993.
- Boettner, Loraine. *The Millennium*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86.
- Clouse, Robert G., ed. *The Meaning of the Millennium Four Views*. InterVarsity Press, 1977.
- Crenshaw, Curtis I. and Gunn, Grover E. *Dispensationalism Today, Yesterday, and Tomorrow*. Memphis: Footstool Publications, 1985.



第8章 終末論

Ⅶ. 歷史와 終末의 希望

종말은 세상의 끝을 뜻한다. 성서의 역사관은 인간역사의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종말이 반드시 말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서가 말하는 종말은 절망적이기보다는 희망적이다. 종말을 향한 시간에 매달려 가기보다는 오히려 종말을 적극적으로 기대하며 맞이한다. 기독교의 종말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출범의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의 종말은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 하나는 영적인 종말이고, 다른 하나는 육적인 종말이다. 영적인 종말을 현재종말, 육적인 종말을 미래종말이라고 부른다. 현재종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 구원에 의해서 시작됨을 뜻하고, 미래종말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을 뜻한다. 아무튼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이란 의와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출범시기를 말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와 함께 영적으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몸의 부활과 우주의 회복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바벨론

포로기 전후를 중심으로 활약한 예언자들의 삼대 예언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로서 메시아의 출현, 성령세례(선물로서의 성령),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였다. 물론 이러한 예언들은 시기적으로 유대왕국이 강대국 이집트나 바벨론에 의해서 속박되고 나라의 주권을 상실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중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였다. 그리고 예언은 이루어져 메시아가 오셨고, 성령의 시대는 도래했으며,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는 영적으로 회복되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 처음 하신 설교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느니라”(마 4:17)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어 영광을 받으신 후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셨고, 성령의 오심과 더불어 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의 출범은 종말의 시대를 지구상에 끌어들이게 되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마지막 시대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때를 두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인 것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현재종말이라고 부른다. 다른 말로는 은혜시대, 교회시대, 혹은 메시아 시대라고 부른다. 이 시대를 종말의 영적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개개인의 현재종말은 침례 안에서 이루어진다. 기독교의 침례는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 생명의 표지이다.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예로의 편입과 하나님과 그의 백성사이에 맺어진 새 계약예로의 유입을 뜻한다. 따라서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에 동참한 자는 사죄함을 받고 새로 거듭나며,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탈출과 성별, 인종, 사회적 신분의 분단의 벽을 초월하는 새로운 인간성으로 회복된다.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 치시고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미리 맛보게 하시며 그 나라를 완전하게 소유할 자로 보증하신다. 이런 뜻에서 기독교인의 종말은 침례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침례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말은 영혼의 구원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에 불과하며, 인간의 죄된 본성은 육체와 함께 그대로 살아 남게 된다. 사실 영적인 구원은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한 성화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침례 안에서 칭의 하심을 통하여 '이미'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성령께서 '아직' 이루지 못한 성화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바꾸어 말하면, 영혼구원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안에 종말은 시작되었으며,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미래의 종말을 희망한다. 종말이 시작되었다 함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미래 종말과 함께 도래할 축복의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현세의 삶 속에 끌어내어 미리 경험하고 맛본다는 뜻이다. 이를 선취라고 말한다.

볼트만이 주장하는 역사와 종말론도 실존적이며 현재적이다. 그는 성서가 약속하는 미래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개인 실존의 삶 속에서 현재적인 사건으로 언제나 다시금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볼트만은 묵시문학적인 미래종말을 비신화화 함으로서 종말의 희망을 제거하고 있다. 이는 기복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말세론적 신앙에 빠지기 쉬운 신앙인들에게 복음의 현재적 의미를 부여하고, 신앙을 개인의 실존과 관련시켜 자기실현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결단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또 미래 종말적 인간의 기대를 실존적 삶 속에서 미리 맛보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재화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말 할 수 있으나, 미래 종말론의 실존론적 비신화화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보고 듣고 해석한 기독교의 신앙 고백적인 많은 요소들을 미신화

하여 제거시킴으로서 기독교를 공중누각으로 만들고 만다. 볼트만의 비신화화가 신화적 진술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미래종말에 대한 진정한 기대가 없이는 실존론적 현재적 의미란 철학적 인식 이상의 신앙적인 큰 힘을 가져올 수 없다. 따라서 가능성의 존재로서의 인간의 결단은 그 윤리성을 상실하고 만다. 왜냐하면, 그의 종말론은 종말론적 지금 또는 종말론적 현재 속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내면적인 실존적 결단에 불과하며, 또 종말론적 미래란 인간존재의 가능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종말론은 미래에 실현될 역사의 목표가 아니라, 개인의 존재의 목표일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때, 기독교 종말론은 역사적이며 시간적인 차원을 상실하게 되고, 종말론이 가진 세계사적 의미도 간과되고 만다. 이런 맥락에서 침례의 미래성 역시도 비신화화 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반해서 몰트만은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의미와 타당성을 상실한 미래종말이나 볼트만의 현재적 종말론을 비판하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과 기다림을 신학의 주제로 삼는다. 성서가 말하는 종말은 개인의 실존적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와 관련된 우주적 사건이며,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미래가 앞당겨져 시작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이 미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여전히 그것은 미래에 완성될 약속으로서 세계사의 목표로서 남아 있다. 따라서 침례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과 기다림을 갖게된 성도들은 구체적인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었고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 개인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종 자연 모든 영역에서 추구하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미 시작

된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현실이 어둡고 암담하지만, 이 세계 속에서 완성될 그 날을 희망한다. 이 희망은 피안의 세계에 대한 희망만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즉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이다.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약속에 동참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역군이며, 하나님의 세계를 지향하여 그 자신을 언제나 새롭게 변화시키고 개혁시켜 나가는 백성이다.

범 우주적인 미래종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된다. 이때에 모든 육체는 신령한 몸으로 변하고, 죽은 영혼들이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자연 만물은 회복이 되어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절한 낙원이 된다. 다시는 눈물이나 슬픔이 없고, 고통이나 수고가 없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영원한 지복이 이루어 질 것이다. 성서는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진다고 가르친다. 이 미래종말은 모든 믿는 이들의 희망이요, 현세의 삶 속에서 행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된다.¹⁾

2. 終末論의 種類

가. 변증법적 종말론

인류의 모든 문화가 하나님의 심판아래 있고, 언제나 심판의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종말은 이미 현재의 시간에 돌입하여 있다는 현재적 종말론이다. '영원'이 '시간'에 돌입하여 매 순간마다 시간을 심판하기 때문에 영원과 시간은 질적으로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서로 만나는 변증법적 '영원한 현재'(eternal now)의 종말론이다. 알트 하우스, 칼 바르트, 에밀 부르네, 프리드리히 고가르텐, 폴 틸리히 등이 주장하였다. 여기서는 일직선의 역사관이 부정된다.

1) 김균진, 『헤겔 철학과 현대신학』(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191-250쪽.

나. 철저 종말론

요한네스 바이스와 알버트 슈바이처가 주장하였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임박한 종말이 긴장으로 이어지는 미래적 종말론이다.

다. 실현된 종말론

C. H. 다드, 요아킴 예레미아스, 오스카 쿨만 등이 주장하였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함께 교회는 시작되었고, 교회의 시작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으로 보는 현재적 종말론이다. 실현된 종말을 시작된 종말이라고도 한다. 미래종말의 축복을 현재의 삶 속에서 앞당겨 맛보고 체험하는 선취적 종말을 말한다.

라. 실존론적 종말론

루돌프 볼트만이 주장한 현재적 종말론이다. 앞에서 언급된 종말론과 볼트만의 종말론이 다른 점은 볼트만에게 있어서 미래종말의 긴장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볼트만은 미래종말 자체를 신화적인 것으로 보아 비신화화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미래란 다만 인간 실존의 가능성으로서의 미래뿐이다. 종말은 인간이 본래적인 자기실존을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뿐이다. 그리고 본래적인 자기실존을 새로운 삶으로 창조해 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므로 신앙 자체가 인간을 매 순간 새롭게 만드는 종말론적인 사건이며, 도상의 존재로서의 인간은 매 순간 부딪히는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종말론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 구속사적 종말론

현재와 미래 사이를 구속사의 연속으로 보는 현재적 종말론이다. 오스카 쿨만이 주장하였다. 쿨만은 종말을 ‘승리의 날’(V-Day)로 보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투 개시일’(D-Day)로 보았다. 이제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 날까지 소탕전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종말은 구속사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지막 구간이다.

바. 희망의 종말론

위르겐 몰트만이 주장한 미래종말론이다. 인간은 꿈을 먹고사는 동물이요, 꿈이 있기에 현재를 힘차게 살아 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취는 미래에 대한 희망 속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몰트만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과 기다림을 신학의 주제로 삼았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확고한 미래종말에 대한 기대 속에서 새로운 세계의 현재화를 시도하였다. 미래종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찾고 있다. 이 역사적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라고 믿는다.

사. 묵시적 종말론

볼하르트 판넬베르그가 여기에 속한다. 그는 묵시문학에서 우주적 세계사적 종말론을 찾으려고 하였다. 그는 세계사 전체를 한 눈에 보려고 하였으며,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계시로 볼 때, 현재의 역사는 종국을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몰트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으로 본 반면, 판넬베르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인 부활의 첫 열매로 보았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판넬베르그가 만인 부활을 주장하는 미래종말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²⁾

참고서적

김균진, 『헤겔 철학과 현대신학』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2) 김철순, 『요한 계시록 신학』(대한기독교서회, 1989), 11-19쪽; 안토니 A. 후크마, 『개혁주의 종말론』(기독교문서선교회, 1986).

• 294 • 풍량을 잔잔케 하실 예수

김철손. 『요한 계시록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89.

안토니 A. 후크마 『개혁주의 종말론』(기독교문서선교회, 1986.

第9章 默示文學 概要

1. 묵시문학(Apocalyptic Literatures)이란?

주전 2세기에서 주후 2세기경에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성행하였던 문학 장르이다. 하나님의 승리 즉 하나님의 동터오는 승리와 피조 세계의 임박한 구원에의 희망이 주제이다. ‘이 시대’를 ‘오는 시대’와 대립시킨다. ‘이 시대’에 절망함으로써 ‘오는 시대’에 희망을 건다. 시한부종말론에 가깝다.

묵시문학이 태동한 배경은 이교도들의 침략과 재난 및 종교박해로 인한 위기이다. 선구적으로는 바벨론유배를 들 수 있다. 이사야서, 아모스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요엘서 등이 묵시문학의 선구적 예언서들이다. 또 다른 구약시대의 배경은 설류키드 왕조의 안티옥쿠스 4세 에피파네스(175-164BC 통치)의 유대교 탄압이다.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다니엘서가 대표적인 책이다. 그밖에 책으로는 시빌의 신탁, 이사야의 승천기, 에스라 제5-6서, 제1에녹서, 제2에녹서 등이 있고, 에녹서가 가장 유명하다.

묵시문학이 태동한 배경으로써 신약시대에는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로마에서 주후 64년에 시작된 네로의 기독교 박해를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책이 요한 계시록이다. 그밖에도 베드로 묵시록, 바울 묵시록, 허마의 목자, 도마 묵시록, 동정녀 묵시록, 스테반 묵시록 등이 있다.

묵시록들은 신앙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민

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였다. 일례로 요한 계시록은 박해를 이기고 믿음을 지킨 성도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며(7:17; 21:4),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8:3,4)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며(15:2), 피의 보상을 받으며(19:2),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보장받는다(21장)고 적고 있다. 묵시문학적 표현들로는 악한 세력의 세상통치, 하늘의 징조들, 핍박, 전쟁, 기근,疫病 등이 있고, 가명과 숫자를 사용하며, 뿔, 용, 뱀, 천사 등이 등장하기도 한다. 선과 악의 싸움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다.

2. 묵시문학들의 개요

유대묵시문학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에티오피아어의 에녹서 혹은 제1에녹서(the Ethiopic Book of Henoch)

이 책은 에녹의 묵시록(the Apocalypse of Henoch), 또는 제1에녹서(The First Henoch)라고도 불린다. 초대교부들도 이 책을 알고 있었으며, 외경 중 가장 중요한 문서의 하나이다. 이 책의 특징인 메시아사상은 신약성서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메시아는 ‘선택된 자’, ‘사람의 아들’이라 불리고 그 선재성(先在性), 우주적 지배, 메시아에 의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도래 등이 설명되고 있다. 이 책은 주전 164년 이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2) 요벨의 서(The Book of Jubilees)

소창세기로 불리어 온 이 책은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2장까지의 유대교적 해설로 유대교의 역사관에 입각해서 구원사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안식일, 축일, 새해, 요벨의 해 등을 거룩히 지내지 않았고,

할레나 이방인들과 야합하지 말라는 규정을 무시해 왔지만, 결국은 참회하여 하나님께 귀의하고 하나님도 그들의 마음속에 할례를 베풀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메시아 시대가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3) 열두 족장의 유언(the Testaments of the Twelve Patriarchs)

이 책은 야곱의 아들인 12족장의 유언을 모은 것으로 창세기 49장 1-27절의 야곱의 유언과 비슷한 형식으로 엮여져 있다. 또한 신명 33장의 모세의 축복과도 유사한 데가 있다. 여기서는 요셉을 이상적인 인물로, 지도적인 인격자로 보고 요셉의 유언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대략 주전 2세기경의 작품으로 본다.

(4) 솔로몬의 노래(The Psalms of Solomon)

외경 가운데 유일한 시편이며 42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메시아관은 주목할 만하고, 정경 제2이사야에 묘사된 것과 비슷하게 온 세상에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에 관해 말하고 있다. 주전 48년경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5) 모세의 몽소승천기(The Assumption of Moses)

이 책은 모세의 승천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모세의 유언을 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책 끝이 갑자기 끊어진 점으로 보아 본래 원문에는 모세의 승천에 얽힌 이야기와 대천사 미카엘과 악마가 모세의 시체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운 이야기도 적혀 있었다고 본다(유 1:9). 이 책은 주후 6-30년경의 작품으로 저자는 바리새인으로 추측된다.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서 인용된 흔적이 보인다.

(6) 이사야의 순교와 승천(The Martyrdom and Ascension of

Isaiah)

이 책은 이사야의 순교(1:1-2a, 6b-13a, 2:1-3, 12, 5:1b-14), 이사야의 환시(3:13b-4:18), 이사야의 승천(6:1-11, 4) 등 세 책의 합본이다. 이 중 이사야의 환시와 이사야의 승천은 기독교인이 엮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세기말에 팔레스타인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7) 시빌의 신탁(The Sibylline Oracles)

시빌(Sybyl)은 무당이란 뜻으로, 이교의 여예언자를 말한다. 이 책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예루살렘 멸망, 79년 폼페이시가 묻힌 베수비오 화산의 분화, 네로 황제, 티투스 황제, 하드리아누스 황제 등에 관한 언급과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열망하는 종교적 역사관이 피력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해지는 시빌의 신탁은 셋째 권(주전 150년 이후), 넷째 권(주후 80년), 다섯째 권(주후 2세기) 등이 있다.

(8) 슬라브어의 에녹서 혹은 제2에녹서(The Slavonic Book of Henoch)

슬라브어 사본으로 남아 있는 이 책은 에녹의 비밀의 책 혹은 제2에녹서로 불린다. 내용은 에티오피아어의 에녹서와 비슷하다. 이 책은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인용한 흔적이 있고, 대략 주후 30년 이후에 쓰인 것으로 본다.

(9) 에스드라2서(The Second Book of Esdras)

이 책은 에스드라1서의 속편이 아니고 주후 1세기 말경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세 중(81-96), 즉 요한의 계시록이 쓰인 시대에 나온 묵시문학 작품이므로 시대적으로 신약에 가까운 것이지만, 유대교의 입장에서 에스라의 이름을 빌어 쓰였기 때문에 구약의 경의 한 권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책은 3부로 나뉘어 있고, 1부

(1-2장)와 3부(15-16)는 기독교인 편집자가 가필한 것으로 보이고, 2부(3-14장)는 일곱 가지 환상에 관해 말하고 있다.

(10) 시리아어의 바룩 묵시록(The Syriac Apocalypse of Baruch)

에스드라2서와 같은 시대에 쓰인 묵시록으로 바룩서가 있기 때문에 제2바룩서라고 부른다. 이 책은 7부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주후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후 고난과 절망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시대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리고 용기를 북돋우려 했다. 주후 90년경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11) 희랍어의 바룩 묵시록(The Greek Apocalypse of Baruch)

제3바룩서로 불리는 이 책은 바룩의 천상계 여행을 이야기하는데, 제1천에서 제5천까지 여행한 대목에서 중단되고 있다. 내용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쓰인 것이지만, 최후만찬에서의 하나님(그리스도)의 피인 포도주에 관해 언급한 점으로 미루어, 기독교인이 가필한 흔적이 엿보인다. 주후 2세기경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약묵시문학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베드로 묵시록

베드로 사후에 쓰인 책으로써 본래의 명칭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이었다. 요한 계시록이 우주종말론인데 반해, 베드로 묵시록은 개인종말론에 치중한다. 단테의 <신곡>의 선구적인 책이다. 총 17장 300행으로 사후의 세계를 말한다. 선한 자는 사후에 천국에서 영광스런 모습이 되는 것과 악인은 지옥에서 고통스럽고 무서운 광경에 처해지는 것을 대조하고, 후자에 중점을 두었다.

(2) 바울 묵시록

본서는 바울의 셋째 하늘의 경험(고후 12:1-4)을 확대한 것으로 바울이 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말하게 하는 형식으로 저작되고 있다. 총 51장으로 되어있고, 4세기 말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3) 허마의 목자

본서는 환상 편, 계명 편, 비유 편으로 되어 있고, 서신의 형태이나 문체와 환상편으로 인해서 묵시록에 속한다. 허마 혹은 헬마스는 해방노예로서 40년경 로마의 감독이었던 피우스(Pius)의 동생이었다. 다양한 영적 진리를 우화로써 회개와 기도를 장려하였다. 환상 편에서는 저자가 직접 본 다섯 환상으로써 그의 앞에 ‘교회’라는 노부인과 목자가 나타나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계명 편에서는 당대 교회의 윤리관인 신앙, 소박한 생활, 정직, 순결, 인내, 절제 등 12가지 미덕을 교훈하고 있으며, 비유 편에서는 10가지 유사한 내용을 만담형식으로 교훈하고 있다.

(4) 도마 묵시록

세상의 종말과 7일간의 심판,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모은다는 내용이다.

(5) 동정녀 묵시록

가톨릭 계통의 사본으로써 연옥설의 근거를 제공하려하였고, 헬라 판과 에티오피아 판이 약간 다르다.

(6) 스테반 묵시록

스테반이 돌에 맞을 때 가말리엘과 니고데모가 같이 맞았고, 그때 재판장은 바울이었다고 주장하는 책이다.

3. 다니엘서

(1) 문학적 유형

다니엘서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인 1-6장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동료들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후반부인 7-12장에는 다니엘이 보았고 천사가 해석한 일련의 환상들이 담겨있다. 이 가운데 후반부인 7-12장을 진보신학자들은 주전 605년에 다니엘이 유배로 끌려갔던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가 아닌 헬라시대로 본다. 셀류키드 왕조의 안티옥쿠스 4세 에피파네스(175-164BC 통치)가 유대교를 탄압한 시기를 반영한 저자 미상의 묵시록이라는 주장이다.

(2) 역사적 배경

주전 323년 알렉산더대왕(356-323 BC)이 죽은 후에 제국이 네 개의 왕조로 쪼개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시리아 지역을 통치한 셀류키드 왕조였다. 이 왕조에 안티옥쿠스 4세(Antiochus Epiphanes, B.C. 175-164)가 황제에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일정 부분 자치와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 스스로 자신을 '신의 계시'라 주장하여 '에피파네스'라고 불렀던 안티옥쿠스 4세는 유대교의 대제사장직에 헬라문화에 동화된 제사장을 세우거나 돈을 받고 대제사장직을 팔아먹었고, 나중에는 유대교를 폐지시켰으며, 성전을 약탈하는 등 유대지역을 헬라화시켰다.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에게 봉헌하였고, 유대인들이 부정한(treyf) 동물로 생각하는 돼지를 제단에 바치게 함으로써 성전을 더럽혔다. 이 뿐 아니라, 안티옥쿠스는 모든 유대교의식들과 율법서의 소유를 사형으로 금지시켰다. 그 대신 안티옥쿠스는 유대인들에게 연극, 스포츠, 대중탕사용, 나체운동, 테두리 넓은 모자 착용과 같은 헬라문화와 관습을 강요하였고, 이에 젊은

사제들 가운데는 제단을 버리고, 원반던지기를 연습하며, 할례의 흔적을 지우는 수술까지 받았다.

황제 안디옥쿠스에 대항한 유대인들에 두 개의 단체가 있었다. 하스모니안 가문의 제사장 마티타후(Matityahu/Mattathias)와 그의 아들 유다 마카베오(Judah Maccabee)가 주도한 민족주의 열심당원들과 바리새파의 전신인 ‘하시딤’(Chasidim), 곧 유대교의 전통주의자들이 있었다. 이 두 단체가 힘을 합쳐 유대인들이 헬라문화에 물들어가는 것과 셀류키드 왕조의 종교탄압에 대항하였다. 주전 167년에 시작된 혁명은 만 3년만인 주전 164년에 성공리에 끝났고, 유대교 금지령을 해제하는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하나님께 봉헌되었다. 이로써 유대인의 주권이 회복되었고, 주전 64년에 로마제국에 다시 망할 때까지 약 100여 년 동안 하스모니안 왕조가 국민을 통치하였다. 유대교 외경문서인 마카비서가 이때의 일을 적고 있고, 유대인들의 축일인 하누카(Chanukkah)는 이때 성전이 하나님께 재 봉헌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이다.

4. 요한 계시록

(1) 구조적인 틀

요한 계시록의 구조적인 틀로써 반복과 분리 이론(Recapitulation Theory)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 이론은 계시록의 내용이 천상과 지상의 분리 또는 사건의 반복으로 전개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도날드 거쓰리는 빅토리누스(Victorinus)가 처음 반복이론을 사용하였으며, 어거스틴이 지지하였다고 말한다. A. M. 헌터 역시도 다음의 말로써 이를 지지하였다. “첫째, 요한이 사용한 드라마상의 기법 중의 하나는 ‘삽화(挿話)의 원칙(principle of parenthesis)이다. 마치 음악가가 두 개의 중후한 악장 사이에 가벼운 리듬의 악장을 도입하듯이 요한도 그의 심

판 환상들이 거의 견딜 수 없게 될 때 지상의 고통의 장면에서 하늘의 축복으로 장면을 전환시킴으로써 긴장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요한 계시록의 특징은 ‘이중 사건’(double happenings)이다. 즉 천상의 사건들 속에는 그와 대칭 되는 지상의 사건들이 있다는 말이다.”

(2) 역사적 배경

황제의 신격화는 로마 제국에 지배적이었다. 율리우스 시저 이후 로마의 황제들은 사후에 로마 상원에 의해서 신으로 선포되었다. 몇몇 황제들은 생존기간에도 주화에 DIVUS(神)란 말을 사용하였다. 동로마 제국에서도 가끔 헬라어로 THEOS(神)를 실었다. 아시아도의 큰 도시들에서는 황제숭배를 위해서 황제께 바쳐진 성전을 갖는 영광을 누리려고 서로 우열을 다투었다. 가장 분명하게 신으로 주장한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다. 그는 주와 하나님(DOMINUS ET DEUS)이란 이름으로 불리어 졌다. 네로(Nero/54-68)도 자신을 신으로 착각한 황제 중의 한 사람이었다. 요한 계시록은 바로 이 황제숭배로 인한 배교와 박해에 직면하여 도미티아누스가 죽고 난 96년에 성도들에게 믿음을 저버리지 말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저술되었다.

5. 啓示, 豫言, 默示, 終末

‘계시’와 ‘묵시’는 헬라어로 동일하게 ‘아포칼립시스’(Apocalypse/Ἀποκάλυψις)라 쓴다. 그 뜻은 ‘베일을 벗긴다.’ ‘숨은 것을 드러낸다.’이다. ‘비밀이었던 것이 밝혀진다.’ 또는 ‘숨겨진 사건이 폭로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구약성서의 다니엘서와 신약성서의 요한 계시록을 묵시록으로 분류한다.

계시록의 성격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는 보통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계시록’이고, 둘째는 ‘예언서’이며, 셋째는 ‘묵시록’

이다. 그래서 '계시'와 '예언'과 '묵시'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한다.

(1) 啓示

'계시'(Revelation/Ἀποκάλυψις)는 초월자 하나님의 현현(顯現)을 의미한다. 현현(顯現)이란 변신(變身, Theophany)과 거의 같은 뜻이다. 하나님은 다양한 변신으로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계시의 모습은 변신한 모습인데, 하나님의 참 모습,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모습이다.

그리스신화를 빌리면 계시가 무엇인가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올림포스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는 난봉꾼으로서 예쁜 여신들뿐 아니라, 인간의 딸들까지 넘보곤 했다. 번개였던 제우스가 자신의 본모습으로 인간에게 나타날 경우, 인간은 새까맣게 타죽고 만다. 그래서 백조나 황소나 건장한 청년으로 변신해서 인간 세상에 나타나 알크메네와 세멜레와 같은 인간 여성들을 꼬드겨서 임신을 시키곤 했는데, 그들의 아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들이 헤라클레스와 디오니소스이다. 디오니소스를 임신한 세멜레는 유모로 변신해서 인간 세상에 나타난 제우스의 부인 헤라에게 속아서 제우스에게 스틱스강에 맹세케 하고 본모습을 보여줄 것을 간청한다. 죽음의 세계인 음부 한가운데를 흐르는 증오의 강인 스틱스강에 대고 맹세하면, 제우스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어서 제우스는 세멜레 앞에 번개로 나타나게 되고, 세멜레는 디오니소스를 임신한 채로 새까맣게 타죽고 만다. 제우스는 5개월밖에 안된 디오니소스를 세멜레한테서 끄집어내어 자신의 허벅지 속에 숨겨 남은 5개월을 채워 출산시키고 있다.

그리스신화에서 보듯이 성서에서도 하나님이 여러 형태의 변신한 모습으로 인간들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셨다.

첫 번째 계시의 형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이다. 성서는 천

지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인류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인다.

두 번째 계시의 형태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속성들을 드러내셨다. 예수님 안에서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발견된다.

세 번째 계시의 형태는 인간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이다. 하나님의 깊은 것조차 통달하시는 성령님은(고전 2:10)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일깨워준다.

네 번째 계시의 형태는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님이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님의 모습도 계시의 한 형태이다.

다섯 번째 계시의 형태는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사건들이다. 만물을 존재케 하신 창조사건, 출애굽사건과 십자가사건과 같은 구원사건이 계시적 사건들이다. 이밖에도 모세시대의 구름 기둥, 불기둥, 불붙는 떨기나무, 예수님의 부활사건, 능력 행하심 이 다 계시적 사건들이다.

이런 다섯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의 글이다. 계시록이 하나님의 역사경륜과 계획을 환상과 말씀으로써 드러내 보이기 때문이다.

(2) 豫言과 默示의 共通點

예언(Prophecy)과 묵시(Apocalypse/Ἀποκάλυψις)의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공통점에서 예언과 묵시는 하나님의 뜻을 민중에게 전한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예언에서는 민중의 기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고, 묵시에서는 세상에서 좌절한 민중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두 번째 공통점에서 예언과 묵시는 박해나 배교의 위기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같다.

세 번째 공통점에서 예언과 묵시는 점차적으로 전 세계, 전 역사의 운명을 논한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예언에서는 주로 회개와 사회개조를 부르짖고, 묵시에서는 우주의 개조와 천상의 비밀을 공개한다.

네 번째 공통점에서 예언과 묵시는 목적과 시대환경과 방향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다. 예언자들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고, 묵시록 저자들은 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자들이다.

다섯 번째 공통점에서 예언자나 묵시록 저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신의 영감, 곧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경험한 자들이다.

(3) 豫言과 默示의 差異點

예언(Prophecy)과 묵시(Apocalypse/Ἀποκάλυψις)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차이점에서 예언자들은 시내산 언약(토라율법, Torah)의 내용을 성찰한 해석자들이었고, 묵시록 저자들은 구약성서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을 성찰한 해석자들이다.

두 번째 차이점에서 예언은 단편적인 글인데 반해서 묵시록은 사상체계에 있어서 비교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세 번째 차이점에서 예언은 그 목표가 국민생활 전체에 관한 것이 많은 데 반해서 묵시록은 개인의 신앙생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신학자 몰트만은 예언을 민족경륜으로 묵시록을 시대경륜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예언은 언제나 현재적인 상황에서 각 시대의 요청에 따랐고, 묵시록은 역사성을 무시한 채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제시한다.

네 번째 차이점에서 예언과 묵시록의 형성 시기는 각각 다르다. 예언은 주로 바벨론유배전후시대인 주전 7-5세기로 볼 수 있

으나, 묵시록은 주전 2세기에서 주후 1세기말까지로 볼 수 있다.

다섯 번째 차이점에서 예언은 저자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대개의 묵시록은 가명으로 되어 있다. 가명을 쓴 이유는 문헌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함이었거나, 박해 때문이었을 것이다.¹⁾

계시와 예언과 묵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구원의 뜻과 역사경륜과 섭리와 계획을 선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각각의 장르가 독특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계시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뜻이 변신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예언자들의 입과 묵시록 저자들의 글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구원활동 그 자체를 계시로 볼 수 있다. 한편, 예언은 예언자들의 회개운동과 회복운동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회개운동은 현재적이고, 예언은 미래적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베푸실 회복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예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묵시는 문학적인 글에 가까운 것으로써 예언보다는 희망을 담은 권면(설교)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의 글이면서, 예언의 글이기도 하지만, 묵시적 성격이 훨씬 강한 글이다.

(4) 默示와 終末의 差異點

종말은 ‘끝’이라는 말에서 왔고,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의미한다. 그러나 묵시는 종말의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상과 상징적인 현상을 말한다. 그러므로 종말은 시간의 문제이고, 묵시는 종말의 시간 내에 일어나는 현상의 문제이다.²⁾

신약성서에서의 종말론은 유대교의 미래종말론이나 일부 기독교인들의 시한부종말론과는 크게 다르다. 신약성서 종말론의 특징은 현재종말론이다. 현재종말론이란 종말이 성령의 오심과 능

1) 김철순, 『요한 계시록 신학』(대한기독교서회, 1989), 23-28쪽.

2) 전경연 외 3인, 『신약성서 개론』(대한기독교서회), 340-342쪽.

력으로 ‘이미’ 지상의 교회 안에서 출범했다는 가르침이다. 이를 다른 말로 시작된 종말이라고 부른다. 유대교에는 이 시작된 종말론이 없다. 신약성서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미래종말을 여전히 희망한다는 점에서 묵시문학사상에 한발을 걸쳐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전통적인 묵시문학사상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승리가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적 삶속에서 이미 영적으로 성취된 사실을 강조하면서 종말은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속에 현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임을 선언할 수 있으며, 환란과 핍박을 막연히 견디거나 종말의 축복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미리 맛보고, 누리며 바랄 수 있다고 하였다.

참고서적

김철손. 『요한 계시록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89.
전경연 외 3인. 『신약성서개론』 대한기독교서회.

參考書籍

[국문서적]

- 김균진. 『헤겔 철학과 현대신학』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 김득중. 『복음서 신학』 컨콜디아사, 1988.
- 김득중. 『신약성서개론』 컨콜디아사, 1986.
- 김철손, 박창환, 안병무 공저. 『신약 성서 개론』 기독교서회, 1990.
- 김철손. 『요한 계시록: 성서 주석』 대한기독교서회, 1993.
- 김철손. 『요한계시록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89.
- 다케오, 이시이. 『에피소드로 본 세계사』 남궁은 역. 행담, 1993.
- 대한성서공회 발행. 『공동번역 성서』 1977.
- 민경배. 『개정판 한국기독교회사』 대한기독교서회, 1982.
- 박수암. 『요한 계시록: 신약 주석』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 베커 J. 크리스찬. 『바울』 장 상 역. 한국신학연구소, 1991.
- 안토니 A. 후크마 『개혁주의 종말론』(기독교문서선교회, 1986.
- 장일선. 『구약신학의 주제』 대한기독교서회, 1991.
- 장일선. 『브니엘의 아침햇살』 전망사, 1990.
- 장일선. 『생명나무와 가시덤불』 전망사, 1991.
- 장일선. 『하나님의 파토스』 나눔사, 1991.
- 장일선. 『히브리 예언서 연구』 대한기독교서회, 1991.
- 전경연 외 3인. 『신약성서개론』 대한기독교서회.
- 조동호. 『기독교 신앙의 본질』 은혜출판사, 1994.
- 조동호. 『복음서 신학입문』 서진출판사, 1994.

학원출판공사. 『학원세계대백과사전』.

『한국판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번역서적]

Bowman, Johnwick. 『최초의 기독교 드라마: 요한 계시록』(*The First Christian Drama*). 박창환 옮김. 컨콜디아사, 1982.

Guthrie, Donald. 『요한 계시록의 신학』(*The Relevance of John's Apocalypse*). 정충하 역. 새순출판사, 1989.

Hunter, A. M. 『신약성서개론』(*Introducing the New Testament*). 박창환 역. 컨콜디아사, 1989.

Kallas, James. 『요한 계시록』(*Revelation*). 박창환 옮김. 컨콜디아사, 1982.

Ladd, G. E. 『신약 신학』(*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이창우 옮김. 성광문화사, 1988.

Perrin, Norman and Duling, Dennis C. 『새로운 신약성서개론』(*An Introduction of the New Testament*), 박익수 옮김. 한국신학연구소, 1991.

Pfeiffer, R. H. 『신약시대 역사와 외경개론』(*History of New Testament Times*). 류형기 역. 한국기독교문화원, 1977.

[영문서적]

Beasley-Murray, G. R. *New Century Bible The Book of Revelation*. Greenwood, S.C.: The Attic Press, Inc., 1974.

Bettenson, H. *Documents of the Christian Church*

Boettner, Loraine. *The Millennium*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86.

Clouse, Robert C., ed. *The Meaning of the Millennium Four Views*. InterVarsity Press, 1977.

Crenshaw, Curtis I. and Gunn, Grover. *Dispensationalism Today*,

- Yesterday, and Tomorrow*. Memphis: Footstool Publications, 1985.
- Eidsmore, John. *God and Caesar: Biblical Faith and Political Action*. Westchester, Ill: Crossway Books, 1984.
- Eusebius. *The History of the Church from Christ to Constantine*. Trans., Williamson G. A. Penguin Books, 1965.
- Ferguson, Everett. *Early Christian Speak*. Abilene, Texas: Biblical Research Press, 1981.
- Guthrie, Donald. *New Testament Introduction*. InterVarsity Press, 1970.
- Hendriksen, William. *More Than Conquerors: An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5.
- Josephus, *Wars of the Jews*.
- Josephus. *Antiquities of the Jews*.
- Keil, C. F. *Bibl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Vol. IX in the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n Ten Volumes* by C. F. Keil and F. Delitzsch.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5.
- Ladd, George Eldon. *A Commentary on the Revelation of John*.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5.
- Lightfoot, J. B. *The Apostolic Father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6.
- McDowell, Josh & Stewart, Don. *Handbook of Today's Religions: Understanding Secular Religions*. San Bernardino, CA: Here's Life Publishers, Inc., 1982.
- Morris, Leon.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83.

North, James B. *From Pentecost to the Present*.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83.

Ryrie, Charles. *Dispensationalism Today*. Chicago: Moody Press, 1965.

Summers, Ray. *Worthy Is the Lamb: An Interpretation of Revelation*. Nashville: Broadman, 1951.

Torrance, Thomas F. *The Apocalypse Today*. Grand Rapids: Eerdmans, 1959.

부록 조선 기독교인들의 순교영성

들어가는 말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이 유대교가 되었던지, 기독교가 되었던지 언제나 외부적으로 물리적인 총칼의 박해와 내부적으로 이단의 거짓진리에 맞서야 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는 물리적인 박해와 거짓진리로 인해서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권면하는 내용과, 박해자들과 이단자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바른 신앙을 변호하는 내용이 참으로 많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면서 요구됐던 예배와 신앙교육, 조직과 제도정비 또는 치리와 징계를 위한 내용도 많이 담겨 있다. 특히 신약성경은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이 기록되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가 유대인들과 로마제국으로부터 가혹한 박해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과 몸의 부활을 부인했던 이단자들의 강한 도전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이다. 선교 역사 200년이 넘는 천주교가 되었던지, 선교 역사 100년밖에 안 되는 개신교가 되었던지,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도 여러 차례 총칼의 박해와 거짓진리에 맞서야 했다. 따라서 조선 기독교인들의 순교역사는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가혹한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켜냈던 조선 기독교인들의

순교영성은 물리적인 박해가 없는 대신에 정신적 또는 문화적인 면에서 세속의 온갖 유혹들이 널려 있는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고 이웃에게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7. 박해세력

신앙을 탄압하는 박해세력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남의 나라에 국가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점령국이 박해세력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자국의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박해세력이 되는 경우가 있다.

구약시대에는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제국 시대에 셀류키드(seleucid) 왕조가 유대교를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자신을 신이라고 불렀던 안디옥쿠스 4세는 예루살렘성전을 약탈한 후 제우스에게 제사를 바치게 하였고, 유대교의 모든 종교의식을 사형으로 금지시켰다. 이 박해 때에 유대인들의 정치 또는 종교집단인 바리새파, 사두개파, 엡세네파 등이 생겨났고, 유대인 마카비가 게릴라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만 삼년만에 예루살렘성전을 탈환하기도 했다.¹⁾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국의 왕인 아합과 그의 부인 페니키아 사람 이세벨로부터 바알신 숭배를 강요당하며 가혹한 박해를 받았다. 이 박해때에 설상가상으로 삼년 육개월간 가뭄이 지속되어 광야 굴에 숨어서 바알신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끝까지 야훼신앙을 지켰던 칠 천명의 신앙인들과 엘리야는 가장 참기 어렵다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어야 했다.²⁾

1) R. H. Pfeiffer, *History of New Testament Times with an Introduction to the Apocrypha*, 류형기 역(한국기독교문화원, 1977), 14-19쪽.

2) 열왕기상 18장 이하.

신약시대에는 국적을 초월해서 기독교인들이 대제국 로마로부터 대략 300년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서 큰 박해를 받았다.³⁾ 이때에 기독교인들은 황제와 로마신들을 섬기도록 강요당하였고, 이를 피하여 지하무덤 카타콤에 숨어 신앙을 지키다가 체포되어 십자가형을 받고 처형당하기도 하였다.⁴⁾

우리 나라의 기독교에도 박해세력은 크게 두 종류로 나타났다. 첫째는 일본제국이 황제와 무사들의 영을 섬기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이를 반대했던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다. 이 때에는 주로 개신교 교인들이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둘째는 조선왕조가 103년 동안 천주교인들을 가혹하게 탄압했다. 이 오랜 박해의 경험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서였는지 천주교는 일제치하 때에 조상들의 그 질긴 순교영성을 잊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 대신에 개신교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순교영성을 이어갔다.

8. 한국 기독교의 순교역사

한국 기독교의 순교역사는 크게 두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다산 정약용의 매형 이승훈이 1784년 북경에서 세례를 받은 때로부터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1886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03년에 이르는 이 기간에 천주교인 1만 여명이 순교하였다. 둘째는 1905년 11월 을사조약(1910년 8월 22일 강제병합,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후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까지 40년간 받았던 일제의 탄압과 해방이후 공산군의 남침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에 개신교에 속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하였다. 특히 3·1독립만세운동이 있었던 1919년과 신사참배가 본격적으로 강요되던 1938년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체포되어

3) James B. North, *From Pentecost to the Present*(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83), pp. 22-71.

4) J. D. Douglas, ed.,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4), s.v. "catacombs."

구금되었고, 참혹한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되었다.

1919년 10월 장로교 총회에 보고된 장로교회의 3·1만세 사건의 피해상황만 보더라도, 체포된 사람이 3,804명, 체포된 목사와 장로의 수가 134명, 기타 기독교 관계 지도자로서 수감된 사람이 202명, 사살된 사람이 41명, 보고된 날짜에 수감 중인 사람이 1,642명, 매 맞고 죽은 사람이 6명, 그리고 소실된 교회가 12개였다.⁵⁾ 감리교회의 경우 만세 시위가 막바지에 이른 1919년 4월 15일 낮 2시경, 아리타 도시오(有田俊夫)라는 일본군 중위가 군경 한 때를 인솔하여 현재 삼일운동순국유적비가 세워진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제암리에 나타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인 주민들을 그 곳 감리교 예배당에 다 모이게 한 뒤, 군경들로 하여금 출입문과 창문을 걸어 잠그게 한 뒤 집중사격을 가하게 했다. 그들은 또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교회당에 불을 질렀다. 이 만행으로 교회 안에서 죽은 사람이 22명, 교회 밖으로 뛰쳐나와 죽은 사람이 6명이었다. 그들은 어린아이까지도 칼로 찔러 죽였다. 그들은 이와 비슷한 만행을 현재 삼일운동순국기념비가 세워진 인근 수촌리 부근의 기독교인들이 사는 동네 열다섯 군데에서도 저질렀다.⁶⁾

그런데 1919년에 있었던 교회와 교인들의 피해는 신앙보다는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신앙으로 인한 박해는 독립만세사건이 있고 난 뒤, 더욱 강화된 신사참배에서 비롯되었다.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평양신학교가 폐쇄 당했고, 2백여 교회가 문을 닫았으며, 2천여 신도가 투옥되었고, 50여명의 교역자들이 죽임을 당했다.⁷⁾ 이 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당한 박해는 초대교회가 황제숭배로 인해서 로마제국에 당한 박해와 같은 것이다.

5)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개정판)』(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313쪽.

6) 상계서, 312쪽; 『학원대백과사전』 26권(학원출판공사, 1994), s.v. “제암리학살사건.”

7) 『한국기독교회사』 435쪽.

6·25때, 공산군의 만행으로 인한 기독교의 피해는 초기 천주교인들이 당한 박해와 성격이 같은 것이었다. 조선당국이 기독교 자체를 이단시하여 박멸하려고 했던 것인 만큼,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종교를 마약으로 간주했던 공산군들이 유물론 사상에 입각하여 기독교인들을 가차없이 사살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우리 민족의 기독교 순교 역사를 보면, 대제국 로마로부터 초기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받았던 그 무서운 박해에 못 잡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성경이 그 시대의 고난당하는 신앙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9. 한국 기독교의 선교역사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100년 이상 먼저 복음의 씨를 뿌렸다. 개신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이 1885년인데, 이승훈이 세례를 받고 교회를 시작한 것이 1784년이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승훈이 조선인 최초로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임진왜란 때에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들 가운데 천주교에 귀의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 가운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이후 일본을 지배한 도쿠가와(德川家康)가 기독교를 탄압할 때에 순교자의 명단에 이름을 남긴 조선인 신도가 21명이나 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았던 조선인이 25명에 이른다.⁸⁾

이 땅에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먼저 들어온 것은 순전히 역사적인 상황 때문이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개신교가 태동한 직후인 1534년에 스페인에서는 이미 이그나티우스 로올라가 예수회를 조직하여 세계로 선교사를 내보내고 있었다. 프란시스 사비에르

8) 상계서, 48쪽.

(Francis Xavier)가 1549년 7월에 일본 큐우슈우(九州)에 상륙하여 일본의 최고 지배자였던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에게 기독교를 전하였고,⁹⁾ 마테오 리치(Matteo Ricci)와 그 일행이 중국 광둥성에 도착하여 검정색의 신부 옷을 벗고, 삭발을 하고, 회색의 승려복으로 갈아입고 부두에 내린 것이 1583년 9월이었다. 중국에 내린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중국 경전의 연구였다. 중국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묻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함이었다. 교리가 한 나라의 전통사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또 그들의 논리에 부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합리적이고 진보적이었던 마테오 리치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럽의 과학적 학문까지 중국에 전달하였는데,¹⁰⁾ 중국과 깊은 유대를 맺고 있었던 우리 나라의 선비들이 중국을 통해서 서학과 천주교를 받아드린 것은 매우 자연스런 결과였다.¹¹⁾ 그로부터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100년이 넘게 받았던 탄압은 기독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

10. 한국 기독교의 자랑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에 자랑할만한 것들이 많다. 그 가운데서 세 가지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한국교회(천주교회)가 복음을 접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선교사가 아닌 조선선비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따른 것이란 점이다. 둘째는 한국교회는 순교자들이 흘린 선혈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점이다. 셋째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래가 드문 빠른 성장을 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의 기독교는 천주교 순교자 일만 여명과 개신교 순교자 수천 명이 흘린 피를 먹고 자라고 있는 것이다.

9) 상계서, 40-45쪽.

10) 마테오 리치, 『천주실의』 이수웅 옮김(분도출판사, 1984), 5쪽.

11) 이성배, 『유교와 그리스도교: 이벽의 한국적 신학원리』(분도출판사, 1979), 25-49쪽.

11. 한국 천주교의 수난

가. 수난의 원인

1885년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까지 대략 103년 동안 ‘사학죄인’으로 몰려 죽음을 당한 천주교인이 무려 1만여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기록에 남은 숫자가 5천여 명이고, 무명의 순교자도 5천여 명에 달해서 일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았던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남인 시파와 벽파의 정치싸움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의 천주교는 정치집단인 남인 시파(時派)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들은 사도세자를 동정했던 사람들로써, 사도세자의 아들이었고, 또 기독교인들에게 관대했던 정조와 영의정 채제공 시대에는 벽파(辟派)인 홍낙안의 공격으로부터 그럭저럭 보호를 받았다. 그러다가 1799년 채제공이 세상을 떠나고, 정조마저 1800년에 죽자 반대파인 순조의 섭정 정순왕후와 홍낙안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¹²⁾

정순왕후와 홍낙안은 교회를 박멸하고자한 이유를 기독교의 비인간성과 비국민성, 그리고 체제도전에서 찾았다. 기독교인들은 죽기를 무릅쓰고 임금의 명령이나 국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제사를 배척함으로 유교적 질서를 거부하고, 비밀집회를 통해서 나라안전을 위협하며, 천국신앙으로 사회개혁을 꾀하고, 서로를 교우라고 부르며, 양반과 상놈의 신분타파로 반상체제를 위협하는 국가의 원수 집단이며, 인륜과 충의를 저버린 짐승의 무리라 하여 그 씨까지도 남기지 말라고 하였다. 이에 정순대비와 벽파의 무리들은 다섯 가구를 한 통으로 묶는 기존의 오가작통(五家作統)의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기독교인 적발에 이용하였고, 체포된 기독교인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자비하게 고문한

12) 『한국기독교회사』 69쪽.

다음 처형하였다.¹³⁾

나. 처형장소

조선이 기독교인들을 처형했던 장소는 주로 강변이나 군사훈련장에 위치하는 곳이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한강 당산철교 북쪽 끝 지점에 있는 절두산¹⁴⁾과 용산의 새남터였다. 새남터는 노들(또는 사남기)이라고도 불리던 조선의 군사훈련장이었으며 중죄인을 처형하던 곳이다.¹⁵⁾ 그리고 전주에서는 전주천변의 초록바위와 서천교 밑이 처형장소였다. 그밖에 서울에서는 조선시대 도성 안의 시체를 밖으로 내갈 수 있는 출구였던 서소문 밖 네거리¹⁶⁾와 당고개¹⁷⁾가 기독교인을 처형했던 장소였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전주감영의 군사훈련장이었던 숲정리와 해미읍성, 공주감영, 보령 갈매못, 여산동헌, 원주감영 등이 천주교인들을 많이 처형했던 곳들이다.

다. 처형방법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6-38절을 보면, 성서시대에 신앙인들이 받았던 악형들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13) 상계서, 69-71쪽.

14) 천주교인 수천 명의 목이 잘린 한국 천주교 최대의 성지이다.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당시의 실권자 대원군은 양이(洋夷)로 더럽혀진 강토를 서학(西學) 무리들의 피로 씻어야 한다며 프랑스 함대가 들어왔던 양화진 나루터에서 천주교 신자들의 목을 자르게 하였다. 이곳에서 수천 명의 천주교인들이 채판도, 누구라는 기록도 없이 무더기로 처형되어 강물에 던져졌고, 처형장이던 암벽 봉우리는 절두산이라 불리게 되었다.

15) 1801년 이후 중국인 주문모, 프랑스인 앵베르, 김대건 등 사제만 11명이 순교한 곳이다.

16) 이승훈 일가(一家) 4대가 순교한 곳으로 천주교 성인(聖人)만 44명이 나온 처형장이다.

17) 용산전자상가 부근으로 김대건에 이어 한국인으로 두 번째 사제가 된 최양업 신부의 부친 등 9명의 천주교 성인(聖人)을 낸 처형장이다.

돌에 맞고, 톱으로 켜이고, 칼에 맞아 죽고, 양과 염소가죽을 입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견디며,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맹수에 찢기고, 곤장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였다.

조선 기독교인들 또한 이에 못지 않은 잔학한 박해를 당하였다. 그들이 당한 고통이 어떠했는가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¹⁸⁾

첫째, 배고픔이다. 신자들은 체포되면 갖은 방법으로 고문을 당한 후에 멀리 외딴 곳으로 귀양을 가거나 처형당했는데, 살아 남은 신자 또한 집과 재산을 잃고 초근목피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또 박해 가운데 신자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배고픔이요, 목마름이었다. 다른 형벌은 잘 이기고도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진 사람들이 많았다. 하루에 두 번씩 주먹만한 조밥 한 공기 밖에 먹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들이 누워 자는 더러운 벧짚 자리를 뜯어먹고, 심지어는 옥안에 기어 다니는 이를 잡아 먹기까지 하였다.¹⁹⁾ 홍성에서 순교한 박취득은 8일 동안 음식과 물을 먹지 못해 기절하기도 했다.²⁰⁾ 전북 완주군 동상면 광암리에 있는 대아리 저수지에 있었던 속칭 고산 널바위에 살았던 김성철은 아들을 포함한 가족 6명과 마을사람 17명과 함께 체포되어 여산으로 끌려와 신문을 받고 나이 62세 때에 교수형을 받았다. 구전에 의하면, 이들은 얼마나 혹형과 굶주림에 시달렸던지, 옷 속에 있는 숨을 뽑아 먹다가 풀밭인 처형지로 끌려 나오자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었다고 한다.²¹⁾

둘째, 귀양살이다. 다산 정약용과 그 형제들을 비롯해서 많은 교인들이 체포되어 귀양살이를 했다. 심지어 배교한 교인들까지

18) 이어지는 글의 내용은 이충우, 『신앙유산답사기: 발로 쓴 한국천주교회사』(도서출판 사람과 사람, 1996)을 전권 참고하였다.

19) 『신앙유산답사기』 46-47쪽.

20) 『신앙유산답사기』 89쪽.

21) 『신앙유산답사기』 198쪽.

도 귀양을 보냈다. 또 16세 이상의 아들은 교수형에 처하고, 15세 이하의 자녀와 처는 노비로 삼으며, 시집가기로 약속된 여자는 친정으로 보냈고, 그 밖의 식솔들은 3천리 밖으로 유배를 보냈다. 그리고 가산을 몰수했다. 예를 들면, 전주에서 육시형을 받았던 유항검의 큰아들 유중철은 동생 문석과 함께 교수형에 처해졌고, 유항검의 처 신희는 함경도 경원부로, 여섯 살 난 아들 일석은 흑석도로, 세 살 난 일문은 강진 신지도로, 그리고 아홉 살 난 딸 섬이는 거제도로, 며느리 이순이는 평안도 벽동으로, 조카 중성은 함경도 회령으로, 유관검의 처 이육희는 평안도 위안으로 각각 보내져 노비로 삼으라는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²²⁾

셋째, 고문이다. 교인들이 체포되면 제일 먼저 당하는 것이 매질이었다. 해미에서는 교인들의 머리채를 묶어 나무(회화나무)에 매달아 매질하고, 활을 쏘았고, 커다란 돌다리 위에서 머리채를 잡고 팔다리를 들어 등에 메치어 가슴이 터지도록 머리가 부서지도록 자리궤질을 했다.²³⁾

원주감영에서 순교한 최해성은 어찌나 맞았던지, 다리뼈가 부서져 뺏조각 두 개가 땅에 떨어졌고, 등과 배에 구멍이 나서 창자가 빠져 나왔다.²⁴⁾

13년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수기를 낸 신태보는 주리를 트는 고문을 당하였다. 주리란 두 팔은 등 뒤로 묶고, 등과 팔 사이에 긴 막대기를 끼운 다음 그 막대기의 다른 절반에 양 무릎과 발목을 묶은 다음, 두 개의 굵은 몽둥이를 열십자로 두 정강이 사이에 끼워 넣고서 두 사람이 몽둥이 끝을 타고 앉는 무서운 형벌을 말한다. 결국 신태보는 다리뼈가 으스러지고 손발을 쓸 수 없게 되어 음식을 먹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²⁵⁾

22) 『신앙유산답사기』 178쪽.

23) 『신앙유산답사기』 73-76쪽.

24) 『신앙유산답사기』 236쪽.

25) 『신앙유산답사기』 166-167쪽.

다산 정약용의 조카 정하상은 1839년 기해년 박해 때에 체포되어 그가 재상에게 써 바친 한국 최초의 기독교 변증서(상재상서)를 트집 잡는 관헌들에게 몽둥이 끝으로 찢리고 톱질을 당한 끝에 뼈가 드러나는 고문을 당하였다.²⁶⁾

합덕 사람 손자선은 공주감영에서 거꾸로 매달려 매를 맞고 얼굴에 인분까지 덮어쓰는 고문을 당했다. 그때마다 그는 늘 웃는 얼굴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포졸들이 때리다가 지쳐 “무엇이 고마우냐?”고 물으면, 그 때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와 같은 큰 죄인을 위하여 피를 많이 흘리시고 목이 말라 가래침을 잡수시며 돌아가셨거늘, 나를 이 모양으로 대접하여 주니, 이제야말로 내 죄를 보속하게 되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네 이빨로 네 살을 물어뜯지 않으면 배교한 것으로 여기고 놓아주겠다”라는 꼬임에도 “만 번을 죽어도 배교는 못하겠다!”면서 양팔을 한 입씩 물어뜯어 기절하기도 했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27세였다.²⁷⁾

넷째, 죽음이다. 순교자들 가운데는 참수형을 당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교수형으로 죽거나 화살에 맞아 죽거나 옥사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여자들은 우물에 빠뜨려 죽이기도 했다. 이 밖에도 다른 많은 방법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동원되었는데, 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손을 뒤로 묶고 얼굴에 물을 뿌리면서 백지를 여러 차례 붙여 질식시키는 가혹한 방법으로 처형된 사람들이 있었다.²⁸⁾

전주천변에 있는 초록바위터에서는 서울 서소문 밖에서 순교한 남종삼의 아들 남명희와 홍낙민의 손자 홍봉주의 아들이 15세 때에 수장되었다. 남종삼의 아들 남명희는 전라감사로부터 “너마져 죽으면 집안의 대가 끊기니 배교하라”는 권고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천지의 대군주이시고 대부모이신데 어찌 배교

26) 『신앙유산답사기』 220-221쪽.

27) 『신앙유산답사기』 132-134쪽.

28) 『신앙유산답사기』 195-196쪽.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고 한다.²⁹⁾

1801년 10월 24일 46세의 유항검은 전주 풍남문 밖에서 수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육시형을 당했다. 육시형이란 대역죄를 범한 자에게 과하는 최대 극형으로서, 죄인을 일단 처형한 후에 그 시신을 머리,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몸통의 순서로 여섯 토막을 내어 전국 각지로 보내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형벌이다.³⁰⁾

해미 여숫골에서는 많은 신앙인들이 한꺼번에 생매장당했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유해가 하나같이 선 채로 발견되었다. 당시의 상황을 열 살 되던 해에 동네 아이들과 함께 목격했던 이주필 노인의 증언에 의하면, 그 옛날 우리 신앙선조들은 처형이 늦으면 혹 마음이 흔들려 배교하지 않을까 걱정하여 포졸들이 밀어 넣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구덩이에 뛰어들었다고 한다.³¹⁾

홍주관아에서 원시장은 혹독한 형벌과 고문을 당한 후에 결박된 채로 물세례를 흠뻑 받고 성밖으로 내버려져 얼어죽었다.³²⁾

충청북도 연풍에서는 돌구멍에 밧줄 올가미를 만들어 넣어 기독교인의 머리에 올가미를 씌우고 반대편에서 밧줄을 잡아당겨 머리가 돌에 부딪혀 죽게 하였다. 이 돌의 크기는 지름이 1미터, 둘레가 5미터이다.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있는데, 뚫린 구멍의 크기는 앞의 것이 지름 20센티미터, 뒤의 것이 6세티미터로 원추형이다.³³⁾

라. 피난생활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 성서시대에 신앙인들은 박해를

29) 『신앙유산답사기』 161-162쪽.

30) 『신앙유산답사기』 161쪽.

31) 『신앙유산답사기』 76-77쪽.

32) 『신앙유산답사기』 90쪽.

33) 『신앙유산답사기』 287-289쪽.

피해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로마에서는 성도들이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 숨어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깊고 험한 산 속으로 피난하여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도 일대 깊은 산골에 수많은 교인마을들을 형성하였다. 피난처의 특징은 도경계 지역 또는 군 경계지역의 깊은 산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우촌으로 알려진 수리치골은 산 하나만 넘으면 충청남도 청양군과 예 산군에 닿을 수 있는 공주시 깊은 산골에 위치하고 있고, 김대건 신부가 묻힌 미리내성지 역시 경기도 용인군에 가까운 안성군 경계에 위치하고 있고, 배론성지 역시 강원도 영월군에 가까운 제천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소속 군청의 군사들이 교인들을 잡으러 오면 쉽게 다른 군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인들이 숨어있는 관청에 체포령이 떨어지면 군사들은 먼길을 걸어서 잡으러 오기 때문에 군사들의 움직임은 교인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교인들은 급히 산을 넘어 피신했던 것이다.

교인들은 산 속에서 화전을 일구기도 하고, 웅기를 만들어 구어 내다 팔면서 교인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바깥세상 정보를 얻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망을 보다가 수상한 사람이 지나면 불을 지피는 척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굴속에서 안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또 웅기를 등에 지고 길을 나서면 아무 집에라도 허물없이 드나들 수 있어 가족을 찾거나 흩어진 교우들을 만나고 교회 소식을 전하기에도 편리했다. 진천 근교 명암리에 있었던 교우촌 사기장골에서는 엉겨 붙은 웅이 그릇들이 발견되었는데, 웅기를 굽다 말고 포졸들에게 잡혀갔거나 도망갔을 절박한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한다.³⁴⁾

12. 조선 기독교인들의 순교영성

34) 『신앙유산답사기』 251-253쪽.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 기독교인들의 순교영성에 관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조선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들어 모시는 일을 최우선에 두고 살았다. 상주시 청리면 삼괴 2리에 있는 재실 마을에 1890년 중반에 세워진 신앙고백비가 있다. 이 신앙고백비는 높이 1.27미터, 폭 39센티미터, 두께 22센티미터의 크기로 커다란 바위 위에 세워져 있다. 이 신앙고백비의 특징은 조선사람의 모습인 모자, 얼굴, 그리고 몸통의 세 부분으로 구별되어 있다는데 있다. 얼굴 부분은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었고, 그 위에 조선인의 갓을 씌웠다. 김삼록이란 신앙인이 세운 이 신앙고백비는 얼굴 부분인 십자가 중앙에 ‘천주(天主)라고 크게 쓰고, 몸통 부분 상단에 ‘천주성교회 성호십자가’라 쓰고, 그 아래에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들어 모시고, 둘째, 셋째, 넷째는 성직자들을 직위별로 차례로 위하고, 마지막 다섯째는 교우를 위한다고 적고 있다. 오직 하나님과 교회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위대한 신앙고백이다.³⁵⁾

둘째, 조선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신분의 차이를 두지 않았다. 교인들은 서로를 교우라고 부르며 양반이니 상놈이니 하는 신분을 따지지 않았다. 황일광이란 백정출신의 기독교인이 있었다. 그는 청소년 시절을 모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보냈다. 그런 그가 기독교인이 되자, 교인들은 그를 친형제처럼 대우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농담조로 “사람들이 너무 점잖게 대해 주기 때문에 내게는 이 세상에 하나, 또 후세에 하나, 이렇게 천당 두 개가 있다.”고 하였다.³⁶⁾ 또 윤권명이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종들을 모두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하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기도 했다.³⁷⁾

셋째, 조선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35) 『신앙유산답사기』 301-305쪽.

36) 『신앙유산답사기』 138쪽.

37) 『신앙유산답사기』 139쪽.

않았다.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팔, 다리, 머리를 잘라 전국 각지에 보내는 육시형을 1801년에 당한 전주 지방의 순교자 유항검의 처 신희는 배교하고 목숨을 건지라는 관리에게 “기독교는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 남편이 그로 인하여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있으면서 섬기는 도리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빨리 죽기를 원할 뿐이다.”라고 했고, 유항검의 동생 유관검의 처 이육희는 “국법이 비록 엄하지만 기독교도 소중하다. 살기를 꾀하여 배교하기보다 순교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유항검의 조카 유중성 역시 “죽기를 원할 뿐이다. 다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대답하였다.³⁸⁾ 유항검의 아들 유중철과 이순이 부부도 유항검과 함께 체포되어 참수형을 당했다. 이순이는 유중철과 결혼하였으나 4년간을 부부생활 없이 정결하게 지내다가 참수형을 받았다. 그녀는 망나니 앞에서 매우 침착한 자세로 옷옷을 벗었고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머리를 도끼 밑에 놓았다고 한다.³⁹⁾

1866년 보령 갈매못에서 참수를 당했던 프랑스 신부 다블뤼 주교의 증언에 의하면, 젓먹이가 딸린 여인들이며 노인과 처녀들이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기 위해서 조그만 선물을 손에 들고 다블뤼 주교가 거주했던 충남 합덕에서 가까운 신리교회로 3일, 6일 또는 8일씩 걸어서 찾아갔다. 그들은 잡히면 죽게될 죽음을 무릅쓰고, 머나 먼 산길을 발이 붓고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는 것과 혹심한 추위와 눈을 무릅쓰고 찾아갔다. 가서는 밤이 맞도록 설교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은 결코 그만 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⁴⁰⁾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기독교는 사교로 단정되었고, 국가정책은 사교를 말살하고 뿌리째 뽑는 것이었다. 때문에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는 것은 곧 죽음을 뜻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38) 『신앙유산답사기』 178-179쪽.

39) 『신앙유산답사기』 168쪽.

40) 『신앙유산답사기』 46쪽.

있으면서도 믿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조상들은 단 한번의 예배를 위해서 수백리 산길을 남몰래 걸었던 것이다. 그들이 당한 고통과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나 시련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사랑의 표현이었다.⁴¹⁾

나오는 말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시대와 마찬가지로 수 차례 총칼의 위협과 거짓진리에 맞서 싸워야 했다. 이 때 우리 조상들은 목숨을 버릴지언정 신앙의 정절을 지켰고,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입증해 보였다. 따라서 조선 기독교인들의 순교역사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될 뿐 아니라, 가혹한 고문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켜냈던 조선 기독교인들의 순교영성은 물리적인 박해가 없는 대신에 정신적 또는 문화적인 면에서 세속의 온갖 유혹들이 널려 있는 오늘을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유혹을 이겨내고 시련을 극복하며, 이웃과 사회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서적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개정판)』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이성배. 『유교와 그리스도교: 이벽의 한국적 신학원리』 분도출판사, 1979.

이충우. 『신앙유산답사기: 발로 쓴 한국천주교회사』 도서출판 사람과 사람, 1996.

『학원대백과사전』 26권. 학원출판공사, 1994.

41) 『신앙유산답사기』 194쪽.

- 달레, C. C. 『조선교회사서설』 정기수 역. 탐구당, 1966.
- 드 동쿠르, A.S. 『순교자의 꽃』 김영환 편역. 춘추사, 1993.
- 리치, 마테오. 『천주실의』 이수웅 옮김. 분도출판사, 1984.
- Pfeiffer, R. H. 『신약시대역사와 외경개론』(*History of New Testament Times with an Introduction to the Apocrypha*). 류형기 역. 한국기독교문화원, 1977.
- Douglas, J. D. Ed.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4.
- North, James B. *From Pentecost to the Present*.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83.